

발 간 등 록 번 호

11-B551174-000389-01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10개국

네덜란드 / 덴마크 / 독일 / 스웨덴 / 스페인
영국 / 오스트리아 / 폴란드 / 프랑스 / 헝가리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CONTENTS





유럽 EUROPE

1 네덜란드	1
2 덴마크	39
3 독일	77
4 스웨덴	115
5 스페인	155
6 영국	193
7 오스트리아	235
8 폴란드	275
9 프랑스	321
10 헝가리	357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1

네덜란드



① 보건의료 현황

□ 인구통계

● 네덜란드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3.3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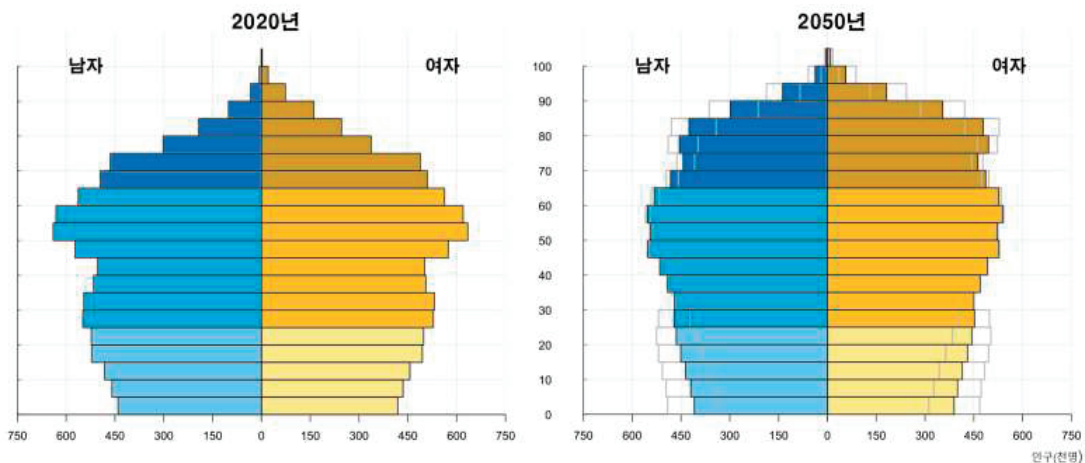
－ 네덜란드의 도시화율은 92.236%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높음

<네덜란드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17,135	43.3	20	92.236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네덜란드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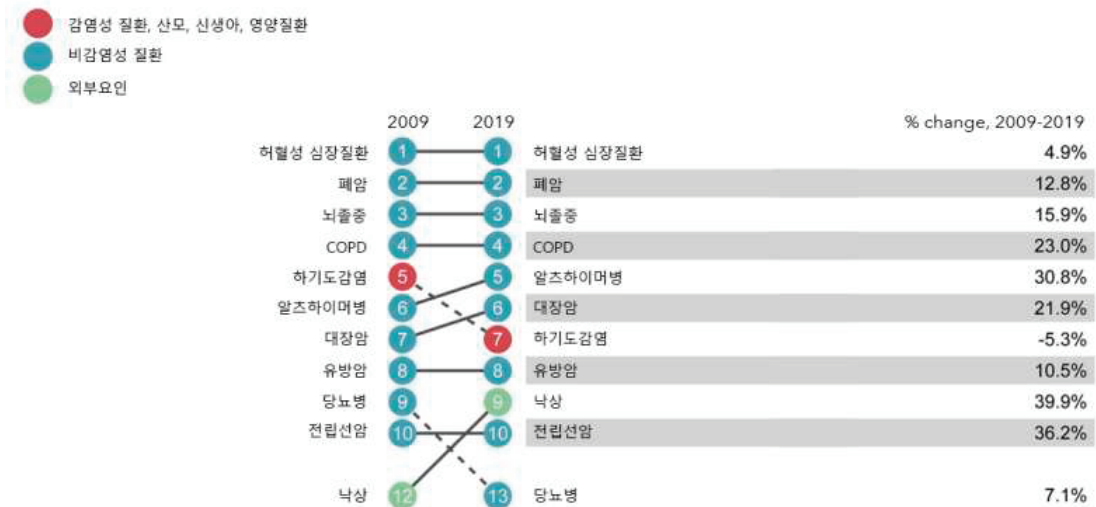
- 네덜란드의 기대수명은 82.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보다 높으며,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3.6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85.7% 수준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5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27.8%에 해당함

<네덜란드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네덜란드
기대수명(세)	81	82.2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3.6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5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네덜란드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폐암, 뇌졸중 순이며, '09년 대비 낙상과 전립선암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염성 질환과 외부요인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네덜란드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3.72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1.03배이며, 간호 인력은 11.49명으로 OECD 평균 10.4명의 1.1배임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3.08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70.0%에 해당함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13.84대로 OECD 평균인 16.9대의 81.9% 수준이며, CT 장비 대수는 14.87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57.4%에 해당함

<네덜란드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네덜란드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3.72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11.49 (2018)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3.08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13.84 (2019)
	CT 스캐너	25.9	14.87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네덜란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8.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1.29배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1.2%로 OECD 평균 8.8%의 1.27배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5,739.2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1.4배임
- 네덜란드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10.6%로 OECD 평균인 19.8%의 53.4%에 해당함

<네덜란드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네덜란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8.8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11.2 (2020)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0	10.6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5,739.2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네덜란드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6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56.69%로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10.86%에서 '50년 7.70%로 3.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24.28%에서 35.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IHME

② 보건의료 체계

□ 의료전달체계

- 네덜란드의 의료전달체계는 단계별로 공중보건서비스, 1차 의료서비스, 2차 전문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로 구분됨
- 공중보건서비스
 - 공중보건서비스에서는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Wpg)¹⁾에 따라 전염성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접종, 학교보건, 환경보건,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제공함²⁾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운영되며, 권역 별로 25개³⁾ 지역보건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1차 의료(primary healthcare)
 - 네덜란드의 의료전달체계는 1차 의료(Primary care, 주치의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모든 시민은 자유의사에 따라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를 선택할 수 있음⁴⁾
 - 네덜란드는 엄격한 게이트키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환자가 병원 및 전문 진료를 방문하려면 GP의 추천이 필요함⁵⁾
 - 특수질환(심장 마비 등)을 제외하고는 1차 주치의 진료를 거쳐야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산부인과, 요양원(nursing home) 및 작업치료 등과 같이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경우 주치의를 통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의약품 처방 등에 제한이 있음⁶⁾
 - '14년 정신보건의료의 개혁을 통해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경우 GP를 방문하고, 복합 질환 대상으로 전문 정신보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변화함

1) 네덜란드 보건복지체육부 사이트(VWS) (검색일 2022.10.22.)

2) 네덜란드 시립보건서비스 사이트(GGD), Wat doet een GGD (검색일 2022.10.22.)

3) GGD, Vind een GGD bij u in de regio (검색일 2022.10.22.)

4) Rijksoverheid, Eerstelijnszorg (검색일 2022.10.22.)

5) OECD, Netherlands: Country Health Profile 2019 (2019.11.28.)

6) Rijksoverheid, Geen verwijfsbrief nodig voor sommige specialisten (검색일 2022.10.22.)

● 2차 의료

- 주치의의 추천 혹은 치과 진료 및 산과 진료에서 전문 의료가 필요한 경우 2차·전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병원(2차 의료기관)은 의료제공 형태에 따라 일반병원, 대학병원, 특화병원(암센터 등), 중증외상센터로 분류할 수 있음
- 네덜란드의 병원 설립은 민간비영리 목적으로만 허가되고 있지만, 영리법인 설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임

● 2차 의료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네덜란드는 외래 전문 의료서비스 기관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특화되어 있음

- 외래 전문 의료기관은 당일 입원진료를 하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차 전문 의료기관의 수는 '22년 기준 대학의료센터 8개, 종합병원 98개, 외래 진료소 145개, 어린이 병원 7개로 나타났음

<2차 전문의료기관 수>

의료기관 유형	2019	2022
대학의료센터 UMC (Academisch ziekenhuis)	8	8
종합병원 (Algemeen ziekenhuis)	101	98
외래 진료소 (Buitenpolikliniek)	129	145
어린이 병원 (Kinderziekenhuis)	7	7

자료: 보건복지체육부(VWS), 2019년 전문의료기관 수, 2022년 의료기관 수⁷⁾

● 장기요양서비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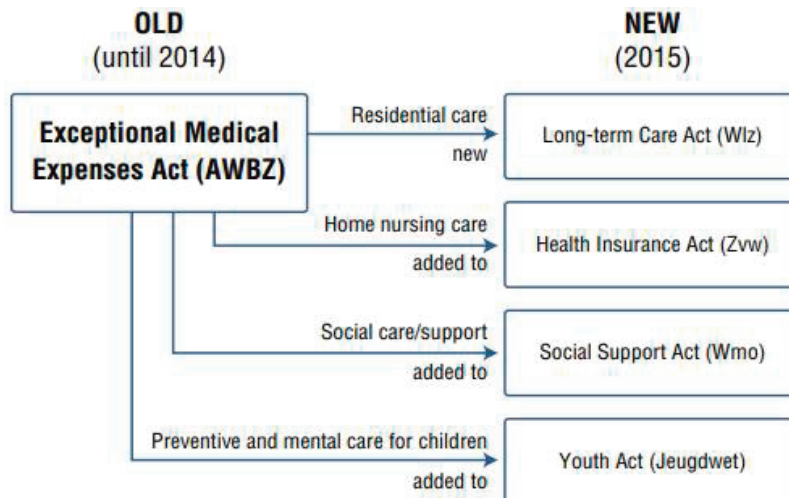
- 기존에 노인, 만성질환자, 청소년,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별 의료비보장법(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이 '15년에

7) <https://www.vzinfo.nl/ziekenhuiszorg/aanbod/instellingen> (검색일 2022.10.22.)

8) Kroneman M etc,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Netherlands Health system review, 2016 (검색일 2022.10.22.)

대상자 및 영역을 구분하여 ①건강보험법(Zorgverzekeringswet, Zvw), ②사회지원법(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 ③신 청소년법(Nieuwe Jeugdwet), ④신 장기요양법(Nieuwe Wet langdurige zorg) 4개의 법으로 재구성됨

- ① 보험사는 Zvw에 의해 가정 간호,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를 책임짐
- ② 대부분의 비거주 형태의 요양(사회 돌봄 부분)이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되어 Wmo에 추가됨
- ③ 아동에게 제공되는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는 Jeugdwet으로 이전됨⁹⁾
- ④ 집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경우 Wlz에 따라 거주형 장기요양을 제공함



자료: Kroneman M etc,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Netherlands Health system review, 2016

● 병상 수 ¹⁰⁾

- 네덜란드 총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3년 기준 3.8개에서 '18년 기준 3.2개로 감소하였으며, OECD 평균 4.5개에 비해 낮은 수치임¹¹⁾
- 급성기 병원 병상 수(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8년 기준 2.7개로 OECD 평균 3.6개에 낮은 수치임

9) zorgwijzer, Jeugdzorg in Nederland (Jeugdwet) (검색일 2022.10.22.)

10)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07.07.)

11) OECD 통계에는 병원급만 포함되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제외됨.

□ 건강보험체계

-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ZVW), 장기요양보험제도(WIZ), 보충형 민간보험(VHI)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건강보험 제도(ZVW; Zorgverzekeringswet)

- 공보험, 공무원 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으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장체계가 2006년 보건 개혁 이후 건강보험제도(사회민간보험제도)로 일원화하여 하나의 사회 민간 보험 운영체제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 (제공 서비스) 사회 민간보험제도로, 국가에서 정한 필수 의료서비스(GP의 상담 및 진료, 약물 처방, 병원에서 전문의 진료, 입원)를 전 국민에게 제공함¹²⁾¹³⁾
- (가입 대상)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유급 인턴십 등 유학생 혹은 외국인 근로자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한 달 안에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됨¹⁴⁾
- '22년 기준 약 1,735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음
- (보험자)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보험자 역할을 담당하며, 10개의 보험사 그룹 안에 총 20개의 보험사가 있음¹⁵⁾
- 보험사는 '22년 기준 60가지의 기본보험 정책을 제공하며¹⁶⁾, 가입자 중 76.1%는 현물 정책을, 9.7%는 환급 정책을, 14.2%는 조합 정책을 계약하였음
- 현물 정책은 '17년 기준 75.3%에서 '22년 기준 76.1%로 증가하고, 조합 정책 또한 '17년 기준 5.4%에서 '22년 기준 14.2%로 증가하였으나, 환급 정책은 '17년 기준 19.3%에서 '22년 기준 9.7%로 급격하게 감소함¹⁷⁾

12) studentenverzekeringen, Dutch basic healthcare insurance (검색일 2022.10.22.)

13) zorgwijzer, Wat is de basisverzekering? (검색일 2022.10.22.)

14) studentenverzekeringen, Student health insurance (검색일 2022.10.22.)

15) zorgwijzer, Welke zorgverzekeraars zijn er? (검색일 2022.10.22.)

16) zorgwijzer, Aantal polissen en verzekeraars (검색일 2022.10.22.)

17) zorgwijzer, Soort polis (검색일 2022.10.22.)

<네덜란드 보험사별 가입자 수 및 비중>

보험사 그룹	가입자 수(만 명)	가입자 비중(%)
Achmea	510	29.3
VGZ	410	23.6
CZ	360	20.7
Menzis	200	11.6
DSW	75	4.3
Zorg en Zekerheid	50	3.1
A.S.R	50	3.1
ONVZ	40	2.4
Eno	20	1.0
EUCARE	20	1.0
총계	1,735	100

자료: 네덜란드 2022 건강보험통계, 2. Zorgverzekeraars¹⁸⁾

<보험사의 정책 유형>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현물 정책	75.3%	75.7%	75.7%	76.1%	77.4%	76.1%
환급 정책	19.3%	19.2%	18.9%	18.3%	14.9%	9.7%
조합 정책(실손보험)	5.4%	5.1%	5.5%	5.5%	7.7%	14.2%

자료: 네덜란드 2022 건강보험통계, 3.1 Aantal polissen en verzekeraars¹⁹⁾

🔵 장기요양보험제도(WIZ; Wet langdurige zorg)

- (제공 서비스) 만성·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장기요양서비스로 제공됨
- (수혜자) 노인, 만성 질환자,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환자와 같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양을 제공함

18) 네덜란드 2022 건강보험통계, 2. Zorgverzekeraars (검색일 2022.10.22.)

19) 네덜란드 2022 건강보험통계, 3.1 Aantal polissen en verzekeraars (검색일 2022.10.22.)

- (가입 대상)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은 ZVW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특별 평가 센터(CIZ; Centrum Indicatiestelling Zorg)는 장기요양법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등급판정기관임

● 보충형 민간보험(VHI)

- (제공 서비스) ZVW나 WIZ에서 완전히 상환받지 못하는 치과치료, 물리치료, 대체치료 등을 보장함²⁰⁾
- (가입 대상) 개인의 자유에 따라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음
- '22년 기준 인구의 83.5%가 의무적인 건강보험 이외에 보충형 민간보험을 구매함²¹⁾
- 추가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외에 5유로에서 50유로까지 상이하며, 보험료에 따라 보장 범위의 포괄성이 달라짐²²⁾
-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가입에 제한을 둘 수 있음

● 보건의료 분야의 재원은 '19년 기준 의무건강보험료로 76%이며, 정부보조금 6%, 보충형 민간보험 5%, 본인부담금 11%임²³⁾

- 보건의료 재원의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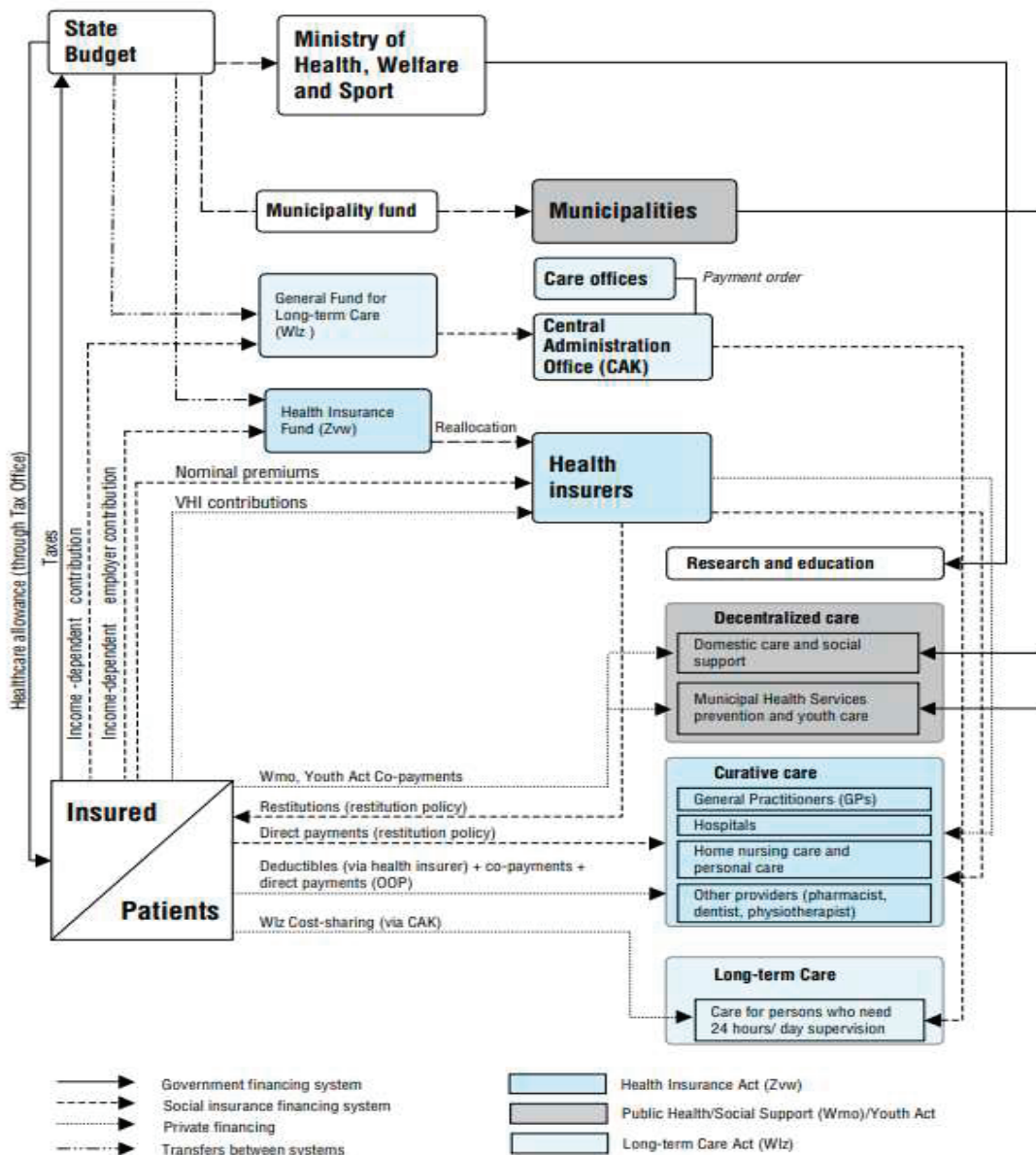
20) zorgwijzer, Vergoedingen (검색일 2022.10.22.)

21) Zorgwijzer, Cijfers zorgverzekering, 2022 (검색일 2022.10.22.)

22) studentenverzekeringen, Supplementary health insurance (검색일 2022.10.22.)

23)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2021.11.09.)

<보건의료 재원 흐름도>



자료: WHO,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Netherlands 2016²⁴⁾

- 네덜란드의 건강보험료는 정액보험료 약 50%와 정률보험료(소득기반보험료) 약 45%, 정부지원금 약 5% 규모로 구성됨
- 정액보험료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선택한 보험사에

24) WHO,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Netherlands 2016 (검색일 2022.10.22.)

직접 지불함²⁵⁾

- 정률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국세청에 지불하며, '20년 기준 근로자 소득의 6.7%는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의 5.45%를 본인이 부담함²⁶⁾
- 정부지원금은 18세 미만 아동의 보험료와 2008년 이후 불법이주민까지 포함하여 지원함

□ 수가제도²⁷⁾

-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1인당 인두제가 활용됨
 - 일부 만성질환(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서는 질환별 비용을 지불함
 -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부문의 진료는 행위별 수가를 일부 허용함
 - 인두제 수가는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이 보건의료감독기구의 제안에 따라 결정함
- 병원급에 대한 지불방식은 진단과 치료를 조합한 포괄지불방식인 DTC(Case-Based Diagnosis Treatment Combinations System)를 기반으로 운영함
 - DTC는 DRGs에서 착안한 분류체계로 DRGs의 경우 진단명에 따른 치료 항목의 총합으로 가격이 산출되는 반면, DTC는 치료항목으로 분류함
 - 국가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목록 A(전체의 67%)와 병원과 보험사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목록 B(33%)로 구성됨
 - DTC는 병원 지불 방식 이외에도 정신과와 법의학 진료, 노인재활치료 부문의 지불 방식으로도 적용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세인트 앤서니 병원 St.Antonius 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0년에 5명의 의사와 자선 수녀회가 설립, 일반 진료 외에도 심장, 혈관, 폐암 및 암을 전문• 2개의 병원과 2개의 외래진료소운영, 대면진료 393,853명, 원격진료 251,735명, 입원 33,154명

25) Nederlandse Zorgautoriteit, Monitor Zorgverzekeringen 2019 (검색일 2022.10.22.)

26) Belastingdienst(네덜란드 세무국), 건강보험료율 (검색일 2022.10.22.)

27)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네덜란드, 2017 (검색일 2022.10.22.)

	비거주자 가격	https://www.antoniusziekenhuis.nl/kosten-zorgverzekering/onze-prijzen
암스텔랜드 병원 Amstel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stelveen에 위치하며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036명의 직원, 99명의 전문의사, 183.144명의 외래진료, 10,042명의 입원 	
	가격표	https://ziekenhuisamstelland.nl/nl/bezoekers/kosten-en-verzekering/tarieven/
카타리나 병원 Catharina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인트호벤에 위치하며 품질 개선과 혁신에 중점을 둔 7개 최고의 임상 병원의 파트너십인 Santeon의 회원 • 39명의 전문의, 239명의 의사, 4,295명의 직원이 있음 	
	가격 및 수수료	https://www.catharinaziekenhuis.nl/prijzen-en-vergoedingen/
마스타드 병원 MaasstadZiekenhu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개의 병상을 갖춘 최고의 임상 교육 병원입니다. 매년 450,000명 이상의 환자가 외래 진료소를 방문 • 투석센터, 종양센터, 로봇전문센터, 혈관센터, 비만치료센터, 재활센터, 류마티스센터 및 심장센터. 또한 3급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산기진료와 IVF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 	
	가격표	https://www.maasstadziekenhuis.nl/over-maasstad/kosten-en-vergoedingen/tarieven-en-notas/
리비에렌란 트 병원 ZiekenhuisRivieren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Tiel과 Culemborg에 있는 4개의 소규모 병원이 합병되면서 설립 • 가톨릭과 개신교에 뿌리를 둔 지역병원 	
	가격표	https://www.ziekenhuisrivierenland.nl/over-ons/publicaties/prijslijsten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네덜란드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1,191억 2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6,936.6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3.86% 감소해 1,145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39% 성장해 1,522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4.07% 감소해 '22년 6,654.3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17% 성장해 '26년 8,777.1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11.72%에서 '26년 11.1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85.75%에서 '26년 86.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 비율은 '21년 14.25%에서 '26년 13.0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109.457	119.123	114.530	122.546	129.925	140.157	152.293
연간 성장률	18.71	8.83	-3.86	7.00	6.02	7.88	8.66
1인당 의료비	6,388.0	6,936.6	6,654.3	7,104.4	7,516.4	8,092.4	8,777.1
GDP 대비 의료비 비율	12.00	11.72	11.31	11.11	11.01	11.03	11.10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85.58	85.75	86.45	86.57	86.69	86.81	86.92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14.42	14.25	13.55	13.43	13.31	13.19	13.08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Statista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년 GDP의 11% 이상을 건강에 지출하였으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²⁸⁾
 - 네덜란드 의료는 시민의 의무 건강보험 기여금, 일반 세금 및 정부 보조금을 통해 대부분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19년 기준 네덜란드에는 병원 568개와 약 5만 3,400병상이 있으며, 의료 분야에는 약 592,000명이 고용되었음
 - '20년에는 병원이 618개²⁹⁾였으며 GP(일반 개업의)는 12,875개가 있음
- 네덜란드의 의료서비스는 민간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보편적인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³⁰⁾
 - 주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보험 회사에서 관리하는 필수 보험을 제공하며 모든 1차 진료 및 장기 요양 서비스는 고정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함
 - 네덜란드의 민간 의료에 대해 보험 회사는 추가 서비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네덜란드에는 9개의 건강보험 회사가 있으며 asr, CZ, Eno, DSW, ONVZ, Menzis, VGZ, Zilveren Kruis, Zorg en Zekerheid 등임³¹⁾
 - 네덜란드 건강보험사는 의료 제공자와 직접적으로 많은 환급된 치료에 대한 가격을 협상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네덜란드 인구의 약 89%가 9개 의료 보험사 중 4개(Achmea, VGZ, CZ 및 Menzis)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20년 세계의료혁신지수(World Index of Healthcare Innovation)에서 전체 점수가 59.14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1위 스위스(59.56)와 2위 독일(59.28)과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음³²⁾
 - Choice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네덜란드 거주자들은 수십 개의 건강보험 회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및 의료 제공자도 폭넓게 선택할 수 있음

28) <https://www.statista.com/topics/9184/health-sector-in-the-netherlands/> (검색일 2022.10.22.)

29)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949593/hospitals-in-the-netherlands/> (검색일 2022.10.22.)

30) <https://wise.com/us/blog/healthcare-system-in-the-netherlands> (검색일 2022.10.22.)

31) https://2016.export.gov/industry/health/healthcareresourceguide/eg_main_116241.asp (검색일 2022.10.22.)

32) FREOPP.org, Netherlands: #3 in the 2020 World Index of Healthcare Innovation (2020.09.04.)

- 네덜란드의 의료 시스템은 독일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네덜란드를 점령한 독일이 특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독일과 동일한 민간 건강보험 시스템을 네덜란드에 설치했기 때문임
- 네덜란드의 1차 진료는 '17년에는 13,364명의 등록된 1차 진료 의사(GP)와 23,236명의 전문의가 있었으며, '16년에는 의사 중 82%는 2~7명의 소규모 진료소에서 일하며, 18%는 혼자 일하고 있음³³⁾
- 대부분의 GP는 독립적으로 또는 자영업 파트너십으로 일하며 3분의 1은 다른 GP가 소유한 진료소에 고용되어 있거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음
- GP의 일반적인 진료 규모는 정규직 GP 1명당 2,200명의 환자를 담당함
- 네덜란드의 병원은 '18년에 8개의 대학 의료 센터를 포함하여 71개의 병원 조직이 있으며, 모든 병원은 민간 기업이지만 대부분 비영리 병원임

□ 제약산업

- 네덜란드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96억 9천만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564.1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4.48% 감소한 92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06% 성장해 126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4.68% 감소한 '22년 537.7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84% 성장해 '26년 727.2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0.95%에서 '26년 0.9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8.1%에서 '26년 8.3%로 증가할 것이 전망됨

33) The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 Profiles Netherlands (2020.06.05.)

<네덜란드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8.231	9.688	9.254	9.974	10.644	11.551	12.618
연간성장률	6.28	17.71	-4.48	7.77	6.72	8.52	9.24
1인당 의약품비	480.3	564.1	537.7	578.2	615.8	666.9	727.2
GDP 대비 의약품 비율	0.90	0.95	0.91	0.90	0.90	0.91	0.92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7.5	8.1	8.1	8.1	8.2	8.2	8.3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네덜란드에는 3,100개 이상의 생명과학 회사, 420개의 바이오제약 회사, 8개의 대학 의료 센터, 12개의 대학이 생명과학 연구를 하고 있음³⁴⁾
- 네덜란드의 약가는 보험사-제조업체 협상에 따라 변동하고 보험사는 약가에 따라 약가 공제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정부는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여 독점 약가 책정을 방지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은 네덜란드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21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86억 3천만 달러로 전체의 89.0%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10억 6천만 달러로 11.0%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67억 7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78.4%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6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17.0%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19.1%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4.3% 감소한 82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3% 성장해 113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6.2% 감소한 10억 6천만 달러에

34) https://www.tfhc.nl/wp-content/uploads/2020/04/HHG2020_LR.pdf (검색일 2022.10.23.)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0% 성장해 12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4.9% 감소한 64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해 85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0.9% 증가한 18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1.2% 성장해 27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처방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일반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으며,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성장률이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제약시장 구성>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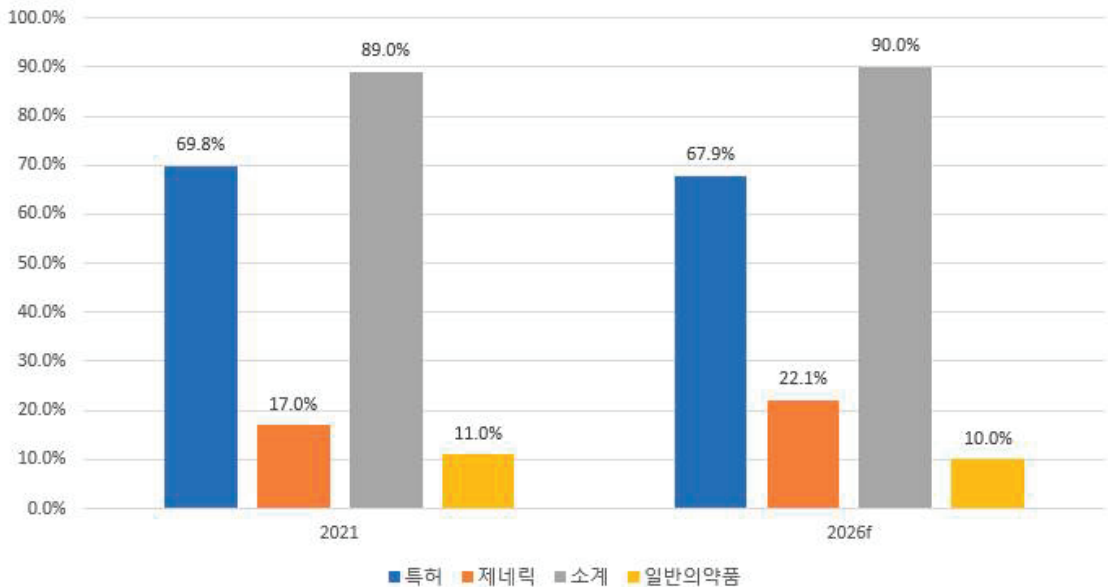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5.774	6.766	6.432	6.896	7.318	7.892	8.564
	제네릭	1.504	1.647	1.826	2.024	2.223	2.483	2.794
	소계	7.311	8.625	8.258	8.920	9.540	10.375	11.358
일반의약품		0.920	1.063	0.997	1.054	1.104	1.175	1.260
합계		8.231	9.688	9.254	9.974	10.644	11.551	12.618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89.0%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90.0%로 증가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11.0%에서 10.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69.8%에서 '26년 67.9%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17.0%에서 '26년 22.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307억 9천만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4억 6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흑자가 103억 3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0.7% 증가한 310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2.63%의 성장을 보여 498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0.08% 감소한 204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4.49%의 성장을 보여 351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무역흑자는 '22년 105억 6천만 달러에서 '26년 147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26,720.38	30,794.45	31,010.01	35,253.41	40,118.38	42,022.06	49,844.44
연간성장률	14.73	15.25	0.70	13.68	13.80	12.22	10.80
의약품수입	17,280.97	20,462.04	20,446.52	23,528.42	26,709.60	30,614.25	32,126.70
연간성장률	20.26	18.41	-0.08	15.07	13.52	14.62	14.74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8% 증가하였고 '20년부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네덜란드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20년부터 '21년까지 적자를 기록함

<네덜란드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148,332	178,691	206,905	278,342	254,958	300,381
의약품 수입	5,568	10,260	73,509	63,557	457,558	754,015

자료: UN Comtrade Database³⁵⁾

- 네덜란드는 '21년 1월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으며 '22년 10월 26일 기준 1차 접종 12,533,156회와 '22년 9월 19일 시작한 변형된 2가 가을 접종 2,494,824회가 접종되었음³⁶⁾
- 9월 첫째 주에 접종된 백신을 종류별로 보면 모더나 6,721, 바이오테크/화이자 6,516, 얀센 84, 노바백스 41 등임
- 네덜란드의 '21년 10월 24일 기준 백신 유형별 총 재고는 바이오테크/화이자 4,693,704 도즈, 모더나 2,756,980 도즈, 아스트라제네카 17,413 도즈, 얀센 1,165,225 도즈 등임³⁷⁾

35)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2.)

36) <https://coronadashboard.rijksoverheid.nl/landelijk/vaccinaties> (검색일 2022.10.22.)

37) <https://coronadashboard.rijksoverheid.nl/landelijk/vaccinaties> (2021.10.2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체적으로 40억 회 이상의 백신을 주문했으며 유럽 연합 회원국의 인구 비율에 비례하여 배포되며 네덜란드는 구매한 백신의 3.89%를 확보함³⁸⁾
 - 네덜란드 대부분의 백신 접종은 바이오테크/화이자 및 모더나의 RNA 백신을 사용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백신도 중요한 한몫을 했지만 이 백신은 더 이상 투여되지 않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 노바백스 백신도 접종 받을 수 있음
- '21년 6월 De Jonge 보건 장관은 '22년과 '23년에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약 15,250,000명)에게 충분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6,100만 개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³⁹⁾
 - EU는 이미 2022-2023년 기간 동안 화이자/바이오엔텍과 계약을 체결하여 네덜란드에 3,500만 도즈 이상을 제공할 예정임
- 뉴욕타임스(NYT)는 '21년 말에 존슨앤드존슨은 네덜란드 라이덴에 있는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생산된 백신 비축량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고 지적했음⁴⁰⁾
 - '22년 3월 생산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공장 테스트를 거쳐 5월~6월경 출시될 예정이며 2월 기준 수백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있다고 밝혔음

<네덜란드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9월 2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 이상 접종
17.17	109	109	205.56	68.5%	-	72.7%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⁴¹⁾, Our World in Data⁴²⁾, 구글 코로나바이러스⁴³⁾

38) <https://www.knvm.org/vaccinologie/covid-19> (2022.04.21.)

39) IamExpat, The Netherlands to buy 61 million coronavirus vaccines for 2022 and 2023 (2021.06.04.)

40) Fierce Pharma, J&J pauses COVID-19 vaccine production at Dutch plant in temporary pivot to RSV shot: NYT (2022.02.08.)

41)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23.)

42)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23.)

43)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mid=%2Fm%2F059j2&gl=KR&ceid=KR%3Ako&state=4> (검색일 2022.10.23.)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76억 3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444.5 달러로 추정됨
- 네덜란드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58% 성장한 82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3.80% 성장해 96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네덜란드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35% 성장한 481.6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3.59% 성장해 553.5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7,633.5	8,288.3	8,880.2	8,730.3	9,199.8	9,603.3
1인당 의료기기	444.5	481.6	514.8	505.1	531.2	553.5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네덜란드는 유럽 의료기기 산업의 주요 허브로 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선진화되어 있음⁴⁴⁾
- 사용자 친화적인 홈케어 제품, 정형 및 이식형 제품, 당뇨병 관리 제품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의료 소프트웨어 및 전자 건강 제품도 관심을 받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혁신적인 의료 회사는 대규모 의료장비 사업부를 보유한 Philips NV이며⁴⁵⁾ 또한 Medtronic, Stryker Europe 및 NuVasive를 포함하여 많은 의료기기 회사가 네덜란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음⁴⁶⁾
- 네덜란드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정형외과 및 보철과 영상진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3.4%, 23.1%로 가장 높음

44) <https://www.emergobyul.com/resources/market-netherlands> (검색일 2022.10.23.)

45) FREOPP.org, Netherlands: #3 in the 2020 World Index of Healthcare Innovation (검색일 2022.10.23.)

46) https://2016.export.gov/industry/health/healthcareresourceguide/eg_main_116241.asp (검색일 2022.10.23.)

<네덜란드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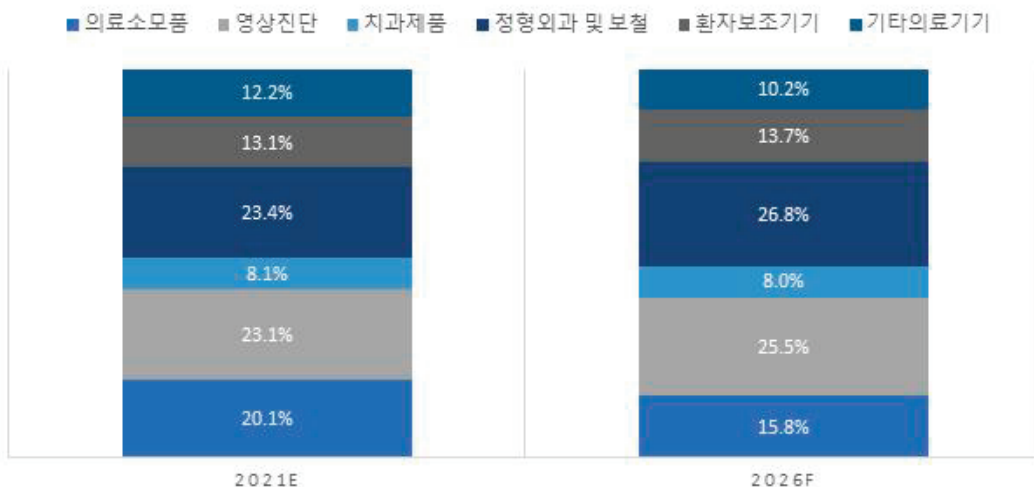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381	1,538	1,701	1,984	1,372	1,451	1,521
영상진단	1,602	1,764	1,936	2,061	2,188	2,325	2,445
치과제품	430	615	664	694	721	749	772
정형외과 및 보철	1,847	1,786	1,956	2,119	2,270	2,428	2,569
환자보조기기	815	1,002	1,085	1,149	1,207	1,268	1,320
기타의료기기	802	928	947	964	973	980	976
합계	5,877	7,633	8,288	8,880	8,730	9,200	9,603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정형외과 및 보철(7.55%)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의료기기의 연평균성장률은 1.02%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정형외과 및 보철의 구성비율은 3.35% 증가한 26.8%인 반면, 기타의료기기는 1.99% 감소하여 10.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216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1.7% 증가하였음
- 팬데믹 영향으로 '20년에 의료기기 수출은 감소하였고 '21년에는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하였음

<네덜란드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17,281,828	19,691,482	23,213,954	25,244,947	24,946,243	30,321,502
수입액	14,159,681	15,053,540	16,914,320	17,781,982	17,804,873	21,665,747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⁴⁷⁾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네덜란드의 의료기기 수입은 '20년에 전년과 유사한 19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1.8% 감소한 2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네덜란드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기기 수입	15,164,881	16,042,135	18,156,896	19,237,336	19,237,202
의료기기 수출	18,275,924	20,731,512	24,593,898	26,722,902	26,240,172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및 기타의료기기가 각각 24.15%, 2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절반 가까운 비중 차지했음
- 정형외과 및 보철은 세 번째로 크고, 환자보조기기, 영상진단,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0년에는 치과제품이 큰 감소세를 보였음

47)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2.)

<네덜란드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소모품	4,112,704	4,084,332	4,686,823	4,817,956	4,646,521
영상진단	1,968,963	2,068,243	2,248,496	2,250,996	2,448,984
치과제품	610,672	683,657	768,868	905,818	812,758
정형외과 및 보철	2,529,757	3,060,554	3,254,859	3,864,849	4,027,503
환자보조기기	2,679,320	2,666,915	2,908,009	2,978,880	2,777,834
기타의료기기	3,263,465	3,478,434	4,289,841	4,418,837	4,523,602
합계	15,164,881	16,042,135	18,156,896	19,237,336	19,237,202

자료: Fitch Solutions - Netherlands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네덜란드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7천 8백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33.85%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영상진단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네덜란드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 검사기기)	12,803.7	15,026.7	27,258.3	24,528.1	42,963.0	45,531.9
9019 (치료기기· 호흡기기)	166.6	153.2	232.8	559.9	500.5	412.3
9020 (기타 호흡기기)	32.2	37.1	28.8	53.8	67.5	49.4
9021 (정형외과용)	5,432.2	1,861.3	3,289.0	8,784.0	25,679.4	23,856.8
9022 (영상진단)	4,405.4	3,548.7	5,367.1	4,367.4	4,212.8	7,937.6
합계	22,840.1	20,626.9	36,175.9	38,293.2	73,423.3	77,788.0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⁴⁸⁾

- 네덜란드의 시보건당국(Gemeentelijke Gezondheidsdiensten, GGD)에서는 42주차(10월 18일~10월 25)에 23,190회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14,377명이 확진되어 확진률은 62.0%에 달했음⁴⁹⁾
- 네덜란드에서는 약국 및 슈퍼마켓에서 승인된 자가 테스트를 구입할 수 있으며, 회복 확인이 필요하거나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보건당국(GGD)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함⁵⁰⁾
- 네덜란드에서는 1.59~1.94유로(1.58~1.93달러)에 신속 자가 테스트를 구매할 수 있으며⁵¹⁾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테스트는 29.99~34.25유로(29.82~34달러), PCR 테스트는 49.99~129유로(49.7~128.3달러)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음⁵²⁾
- '21년 10월부터 코로나 백신 및 진단키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되었음

<네덜란드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6월 20일 기준

총검사수	인구 1천 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 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30,687,346	1,753.39	0.28

자료: Our World in Data⁵³⁾

- 네덜란드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74억 8천만 달러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17.4% 증가하고 있음
- HS코드 382200(PCR)키트가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 보다 수입 규모는 작으나 성장률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48)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2.)

49) <https://www.rivm.nl/en/coronavirus-covid-19/weekly-figures> (검색일 2022.10.27.)

50) <https://www.government.nl/topics/coronavirus-covid-19/coronavirus-test/coronavirus-self-tests> (검색일 2022.10.22.)

51) <https://www.deboerental.nl/zelftest-kopen-corona-acon-flow-flex.html> (검색일 2022.10.27.)
<https://bhvtotaal.nl/ehbo/pharmaceutisch/acon-flowflex-ondiepe-coronasneltest-1-st> (검색일 2022.10.27.)

52) <https://carephar.nl/?gclid=Cj0KCQjwhY-aBhCUARIsALNIC07nR0r9HZI0db565RVoS1Nt1Fxxzqtenwr1pbQtJFqXi>
<https://www.vaccinatiecentrum.nl/> (검색일 2022.10.27.)

53)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21.)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21.)

<네덜란드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2,770.32	2,054.24	2,932.01	3,998.73	4,094.12
382200 (PCR)	1,412.92	1,400.59	1,676.82	1,742.68	2,661.76	3,389.40
합계	1,412.92	4,170.90	3,731.06	4,674.69	6,660.48	7,483.51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⁵⁴⁾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및 원격의료)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8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8.92% 성장하여 13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⁵⁵⁾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72.89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미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연간 3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입원 및 사망을 5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⁵⁶⁾
 - ICT-Marktmonitor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14년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건강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은 23억 달러였으며, KPMG의 2017 MedTech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e-health 부문의 향후 트렌드는 웨어러블 기기, 인터넷 사물, 클라우드 기반 빅 데이터 분석, 스마트 앱 및 블록체인 기술 등임
- '22년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의뢰에 따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의 부족으로 보고 있음
 - 지역별로 별도의 재정 및 조직으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시스템을

5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2.)

55)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netherlands> (검색일 2022.10.22.)

56) <https://www.export.gov/apex/article2?id=Netherlands-Healthcare-Products-and-Services> (검색일 2022.10.23.)

전자 환자 기록에 연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합된 IT 인프라 네트워크가 없어 각 기관은 각자 고유한 IT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음⁵⁷⁾

- 정부의 비전 부재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정부와 정당의 많은 이니셔티브가 있고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이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에서 통합 건강 데이터 인프라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이니셔티브인 Health-RI를 진행하고 있음⁵⁸⁾

● 팬데믹 이후 네덜란드 보건 당국(Nederlandse Zorgautoriteit, NZa)은 모든 의료 부문에서 원격 치료에 대한 모든 장애물이나 제한 조건을 제거하여 가능성을 넓혔음⁵⁹⁾

- NZa 규정의 계약 조건 또는 대면 접촉의 의무가 있었으나 원격의료를 위한 '20년 3월 1일에 발효된 예외적인 조치는 네덜란드 국립 공중 보건·환경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RIVM)의 국가 지침 및 조언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순간까지 지속됨

● '20년 3월 24일부로 보건복지체육부는 긴급 규제를 통해 집에 거주하는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원격 지원 및 케어를 위한 추가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청당 5만 유로(4.95만 달러)를 제공함

- 전국 개업의 협회는 일반 개업의와 환자 간의 화상 통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으며 특히 데이터 보안상의 이유로 WhatsApp 및 FaceTime과 같은 범용 솔루션이 아닌 의료 부문을 위해 개발된 화상 통화 솔루션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음
- 네덜란드 왕립 의학 협회는 의료 조언의 온라인 제공, 온라인 약물 처방 및 의료 데이터 처리에 대한 추가 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 네덜란드에서는 '패키지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케어만 건강보험법(Zorgverzekeringswet, Zvw) 및 장기 요양법(Wet langdurige zorg, Wlz)에 따라 의료 제공자가 수행할 수 있음⁶⁰⁾

57) UNIVERSITY OF TWENTE, NETHERLANDS LAGGING BEHIND IN HEALTHCARE DIGITISATION (2022.06.23.)

58)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The Netherlands: Advancing Digital Health Care by Connecting People, Technology and Data (2022.06.23.)

59) Baker McKenzie, COVID-19: A Global Review of Healthcare and Life Sciences Industry Issues NETHERLANDS-Telemedicine (2020.04.18.)

60) Med Tech Reimbursement Consulting, Reimbursement of telemedicine and digital care in the Netherlands (2020.08.17.)

- 주요 기준은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건강보험법은 기본 패키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정하며 특정 의료 지원은 전문 의료의 일부로 포괄수가제(DRG)를 통해 병원에 청구됨
 - '21년에는 '전화 상담'이 새로운 'Triage 상담' 서비스로 대체되며 첫 번째 연락 (Triage)과 후속 조치(상담 또는 방문)로 구분되며 상담은 GP 사무실, 환자의 자택, 또는 화상 통화 등으로 이루어짐
 - '20년부터 재택 간호 원격 진료에 대한 환급이 확대되고 간소화되었으며 화상 통신이 기존의 4시간에서 최대 6.5시간으로 확대되었음
- 네덜란드의 코마치 헬스케어는 심장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e-헬스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CardioVest 또는 CardioNow와 같은 코마치의 최신 장비로 진단 및 예방이 쉬워졌으며, 또한 모바일 심전도계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심장 부정맥을 감지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은 Comarch e-Care Remote Medical Center로 보내지며 의료진이 그곳에서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환자에게 연락하거나 구급차를 부를 수 있음⁶¹⁾

□ 의료관광

- IMTJ(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인바운드 의료관광객은 1만 명 미만, 인바운드 건강 및 웰빙 관광객은 약 20만 명이며, 해외를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약 5만 명임⁶²⁾
-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환자는 유럽과 리비아 그리고 Curacao, Aruba, St. Maarten 등 네덜란드령 카리브에서 오고 있음
- 네덜란드 의료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벨기에, 독일 및 터키 등이며, 해외에서의 치료를 선택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 치료와 휴가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 대기 시간 감소, 국가와의 근접성 및 언어 능력(주로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 등임⁶³⁾
- 많은 의료관광객이 비자가 필요 없는 주변 국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의료관광객의 수를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며, 접경 국가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네덜란드 전문가에 의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권장되고 있음

61) Zorgvisie, Telegeneeskunde: onmisbaar voor diagnostiek en preventie (2022.02.23.)

62) <https://www.imtj.com/country/netherlands/> (검색일 2022.10.20.)

63) hospitalscout, Medical Tourism - Destination - The Netherlands (검색일 2022.10.20.)

- 벨기에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의료관광객은 네덜란드인으로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엉덩이나 무릎의 정형외과적 치료, 심장 수술, 제왕 절개 및 자궁 적출 등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네덜란드인들은 1970년대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벨기에를 방문하였음⁶⁴⁾
- 네덜란드의 긴 대기자 명단을 피하기 위해 해외를 방문하며, 국경 간 의료에 대한 새로운 EU 규정과 벨기에 병원과 거래를 하는 네덜란드 보험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객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화장품

- Statista에 따르면 네덜란드 화장품(메이크업 등 장식용) 시장의 매출은 '22년 6억 2,850만 달러에 달하며 '26년까지 연평균 6.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매출은 36.52달러로 예상됨⁶⁵⁾
- '21년 전체 화장품 시장은 26억 유로(25.7억 달러) 미만이었으며, 향수가 19.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스킨케어 18.1%, 헤어 케어 15.5%, 장식용 화장품 13.2% 등이 그 뒤를 이었음⁶⁶⁾
- 네덜란드 화장품 협회(De Nederlandse Cosmetica Vereniging)에 따르면 '21년 화장품 시장 매출은 소폭 성장하여 총 매출은 29억 유로(28.7억 달러)로 예상되며 스킨케어와 향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⁶⁷⁾
- '21년에는 썬 케어 제품이 9%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고, 비누 제품은 34.5%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냄
- NielsenIQ가 '21년에 기록한 네덜란드 슈퍼마켓, 약국 및 향수 판매 채널에서 개인 관리 제품에 대한 총 소비자 지출은 26억 유로(25.7억 달러)이상에 달하였으며 1인당 지출은 166유로였음
- 네덜란드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3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7.14%의 성장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향수·화장수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34억 6천만

64) LaingBuisson, Belgium medical tourism: Most medical tourists to Belgium are Dutch (2013.08.23.)

65) <https://www.statista.com/outlook/cmo/beauty-personal-care/cosmetics/netherlands> (검색일 2022.10.23.)

66)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52358/cosmetics-market-segment-share-in-the-netherlands/> (검색일 2022.10.23.)

67) <https://www.ncv-cosmetica.nl/infocentrum/jaarverslagen/> (검색일 2022.10.23.)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9.45% 성장하였음

<네덜란드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729.50	745.17	813.02	772.92	767.87	884.71
3304 (기초·색조)	907.52	939.91	1,045.07	1,013.19	994.10	1,326.66
3305 (두발용)	370.21	431.13	433.98	402.66	454.65	614.15
3307.10 (면도용)	36.20	40.63	51.78	54.11	43.18	39.45
3307.20 (데오드란트)	204.91	179.08	216.10	228.55	221.34	192.10
3307.30 (입욕제)	40.14	38.94	49.39	60.31	47.50	46.95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113.75	141.89	168.06	173.72	213.04	235.47
합계	2,402.24	2,516.74	2,777.39	2,705.47	2,741.68	3,339.49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⁸⁾

- 네덜란드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2천 1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네덜란드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11.0	1.7	10.8	1.2	8.3	796.3
3304 (기초·색조)	3,668.5	4,482.7	8,637.5	9,692.7	12,048.2	19,603.0
3305 (두발용)	22.0	25.0	15.4	119.8	44.3	168.8
3307.10 (면도용)	—	—	0.1	—	—	0.3
3307.20	0.1	—	—	—	0.20	—

68)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2.)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데오드란트)						
3307.30	2.2	3.8	—	0.3	13.0	2.1
(입욕제)						
3401.30	8.2	7.5	25.4	11.8	58.7	225.9
(비누·피부세척용)						
합계	3,712.0	4,520.7	8,689.2	9,825.8	12,172.7	20,796.6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⁹⁾


69)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2.)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공중보건법	주요 내용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포함하여 인구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건강 보호 및 건강 증진 조치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etten.overheid.nl/BWBR0024705/2022-07-01/0
의료보험법	주요 내용	전체 인구가 의료의 필요성의 따라 동등한 사회적 조건에서 보험에 가입하며 이에 대한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etten.overheid.nl/BWBR0018450/2022-07-01/0
의료시장규제법	주요 내용	의료 분야의 시장 조직, 효율성 및 통제된 비용 개발에 관한 규칙
	링크	https://wetten.overheid.nl/BWBR0020078/2022-10-01/0
개인 건강 관리 직업법	주요 내용	개인 의료의 더 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규정으로 대체하며 법에 의해 지정된 행위의 수행, 목적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 등을 규정함
	링크	https://wetten.overheid.nl/BWBR0006251/2022-04-01/0
건강진단법	주요 내용	건강 진단을 받는 사람의 법적 지위 강화에 관한 규칙
	링크	https://wetten.overheid.nl/BWBR0008819/2022-01-01/0
특수 의료 절차 지정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면허가 필요한 특수 의료 절차의 지정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규정
	링크	https://wetten.overheid.nl/BWBR0035311/2014-08-01

참고 네덜란드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네덜란드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 수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인구 : 1,760만 명• 면적 : 4만 1,865km²(한반도의 1/5)• 종교 : 가톨릭(24%), 개신교(15%) 등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의회구성: 양원제(상원 75명, 하원 150명)•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원수: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 '13.04. 즉위)- 총 리: 마크 루터(Mark Rutte, 자민당, '10.10.~)- 외교부장관: 윌크 호스트라(Wopke Hoekstra, 자민당, '22.01.~)- 보건복지부장관: 에른스트 쿠퍼스(Ernst Kuipers, '22.01.~)			
경 제 ('20년 기준)	GDP 9,131억 달러	1인당 GDP 52,456달러	교역규모 (수출) 529,999백만 달러 (수입) 455,830백만 달러	경제성장률(GDP) -3.8%
우리나라 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1.04.04. 외교관계 수립•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네덜란드대사 : 정연두('19.12. 신임장 제정)- 주한네덜란드대사 : 요안느 돌느왈드(Joanne Doornewaard)('19.11. 신임장제정)•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3,987,035천 달러(자동차, 컴퓨터, 석유제품)- 수입 : 6,229,994천 달러(반도체 제조용 장비, 축산가공품, 자동차)•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네덜란드 투자 : 13,687,832천 달러			

<p>주요 정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6월 하원 총선 실시, 마크 루터가 이끄는 자민당 31석으로 제1당 차지 • 10.10월 제1기 루터 내각 출범(자민당+기민당, 자유당은 정책연대) • 12.04월 13년도 재정 긴축 예산안에 대한 연정내 협상실패로 루터 내각 와해 • 12.09월 하원 총선 실시, 자민당과 노동당 선전 • 12.11월 제2차 루터 정부 출범(자민당과 노동당 연정 구성) • 13.10월 긴축 예산안 타결 • 15.03월 상원 선거 실시, 집권 연정(자민당+노동당) 과반수 달성 실패 • 17.03월 하원 선거 실시, 자민당 제1당유지, 극우 자유당 2위로 부상 • 17.10월 제3기 루터 내각 출범(연정참여 4개당 : 자민당, 기민당, D66, 기독교연합) • 19.05월 주의회 간접선거를 통해 상원의원 선거 실시, 연정(자민당+기민당+D-66+기독교 연합) 과반 확보 실패 • 21.01월 아동수당 문제로 내각 전원 사퇴(과도 체제) • 21.03월 하원 총선 실시, 자민당 제1당 유지 및 연정 구성 협상 진행 • 22.01월 제4기 루터 내각 출범(자민당+D66+기민당+기독교연합 연정, 3기와 동일) 			
<p>주요 순위</p>	<p>GDP 순위</p> <p>17/206</p>	<p>부패인식지수</p> <p>8/180</p>	<p>글로벌경쟁력지수</p> <p>4/141</p>	<p>인간개발지수</p> <p>8/189</p>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2

덴마크



1 보건 의료 현황

인구통계

● 덴마크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2.3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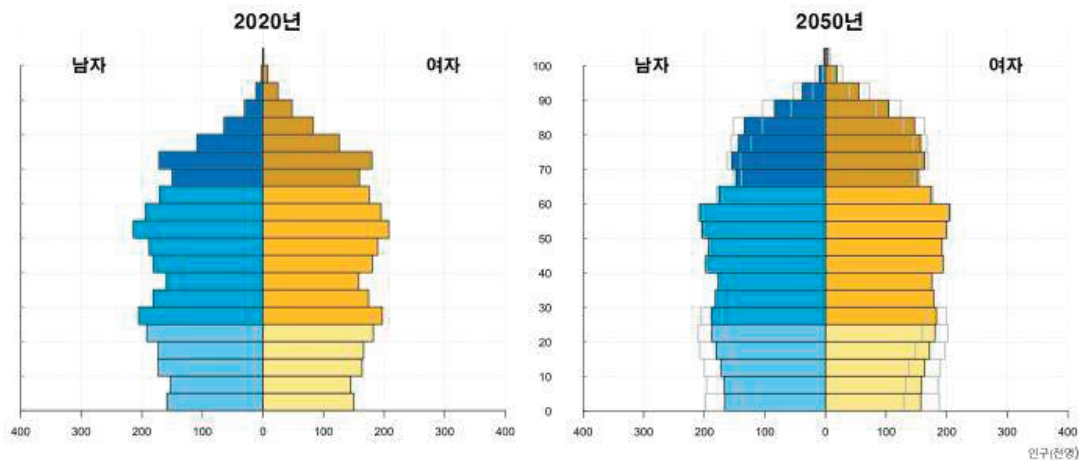
－ 덴마크의 도시화율은 88.116%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높음

<덴마크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5,792	42.3	20.2	88.116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덴마크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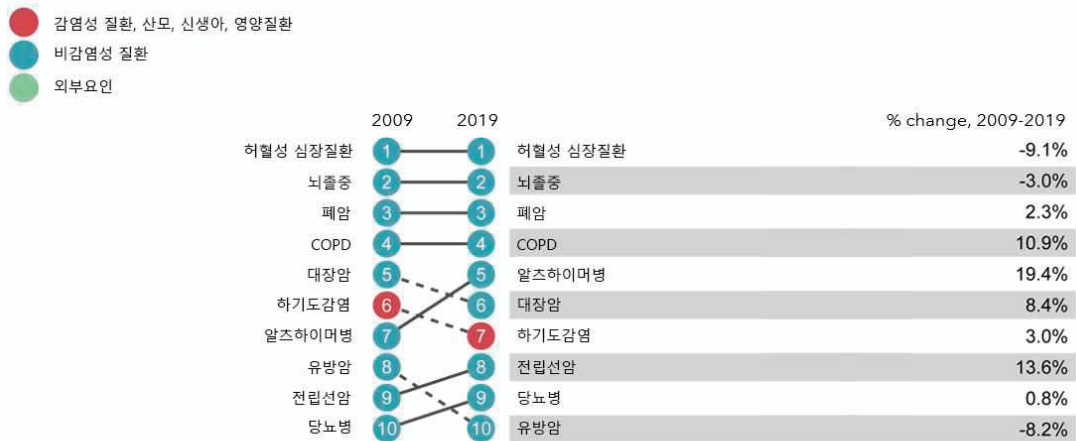
- 덴마크의 기대수명은 81.5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와 유사하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3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71.4%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4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22.2%임

<덴마크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덴마크
기대수명(세)	81	81.5(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3.0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4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덴마크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폐암 순이며, '09년 대비 알츠하이머병과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성 질환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덴마크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4.19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1.16배이며, 간호 인력은 10.6명으로 OECD 평균 10.4명과 유사함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2.59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58.9%에 해당함.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CT 장비 대수는 40.59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1.57배에 해당함

<덴마크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덴마크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4.19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10.55 (2018)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2.59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
	CT 스캐너	25.9	40.59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덴마크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4.0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58.8% 수준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0.6%로 OECD 평균 8.8%의 1.2배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5,477.6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1.34배에 해당함
 - 덴마크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14.2%로 OECD 평균인 19.8%의 71.6% 수준임

<덴마크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덴마크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4.0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10.6 (2020)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0	14.2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5,477.6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덴마크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83.9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85.62%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지급 개인 지출의 비중은 2.35%에서 3.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13.75%에서 '50년 10.66%로 3.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선불 개인 지출
- 본인 부담 의료비
- 정부 의료 지출
- 보건의료 개발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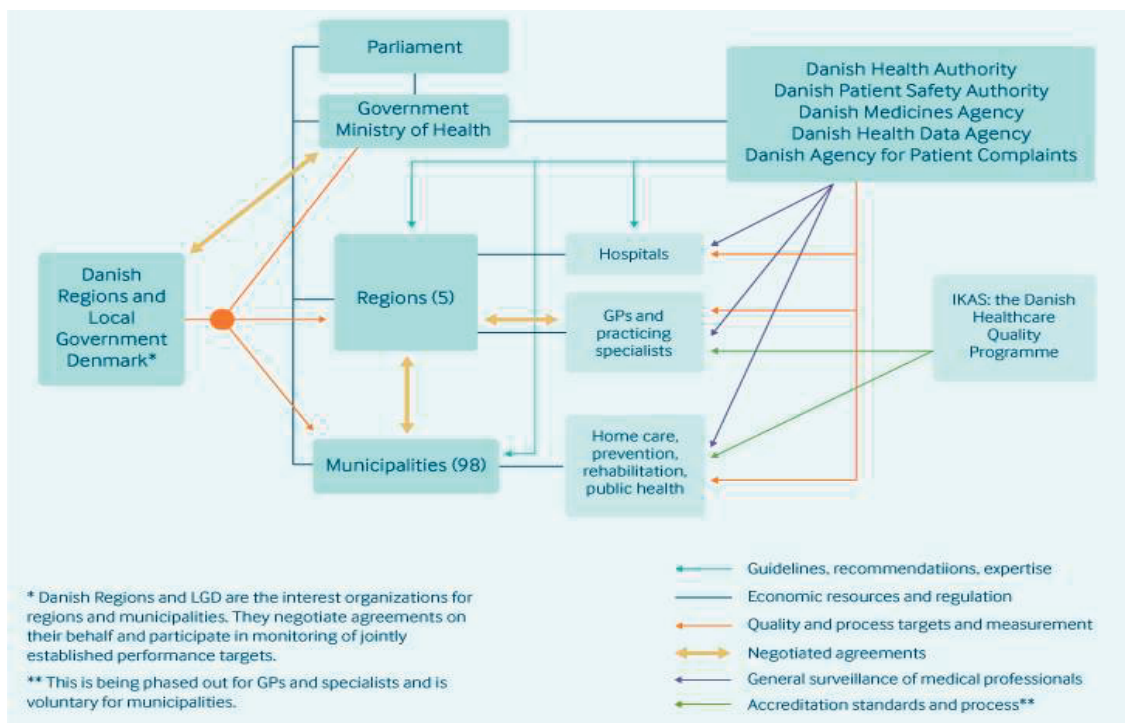
자료: IHME

② 보건의료 체계

□ 의료전달체계

- '07년 행정구역 재개편으로 인해 중앙정부(State)-5개 광역단체(광역정부, 지역정부, 지역구; Regions)-98개 지방자치구(municipalities) 3단계의 행정적 단계 시스템으로 나뉘었으며, 국가, 지역 및 지방 수준으로 분권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⁷⁰⁾

<덴마크 의료 시스템 조직 개요>



자료: K. Vrangbaek, University of Copenhagen, 2019

- 중앙정부에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및 보건부 소속 6개 부서가 있으며, 행정적인 기능과 조직, 재정, 약품 영역의 감독 및 입법을 수행함⁷¹⁾
- 광역단체는 국립병원을 소유·운영하여 대부분의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전문

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국지사, 덴마크 보건산업현황 보고서 (2017.01.18.)

life in denmark, Organisation of healthcar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2022.08.03.)

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영국지사, 덴마크 보건산업현황 보고서 (2017.01.18.)

인력에게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재정을 지원함⁷²⁾

● 각 지자체는 질병 예방, 재활, 사회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음⁷³⁾

● 1차 의료⁷⁴⁾

- 1차 의료서비스에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차원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조치도 포함됨
- GP, 치과의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개인 의료 전문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공함
- GP는 환자의 1차 연락을 담당하는 덴마크 의료 시스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기본 의료와 전문 의료 사이의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함

● 16세 이상의 덴마크 거주자는 건강보험 그룹1과 그룹2 중 선택할 수 있음

- 보험 그룹 1을 선택한 99% 이상의 시민은 특정 GP가 담당 의사로 지정되며, GP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의료 전문가를 방문할 수 있는 진료 의뢰(추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응급 병동, 안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및 치과의사와 같은 특정 의료 전문가의 전문 치료는 진료 의뢰가 필요하지 않음
- 보험 그룹 2를 선택한 1% 미만의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반의 또는 추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할 수 있지만, 방문 시 본인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음

● 2차 의료

- 병원 치료는 주로 5개의 광역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국립병원에서 제공함⁷⁵⁾
- DAPH(Danske Privathospitaler)와 같은 사립병원은 거의 없으며, 1% 미만의 병상 수를 차지함
- 국립병원에서는 전문의를 만날 때는 30일 이내에 만날 수 있도록 대기시간을 조정하고 있음⁷⁶⁾
- 국립병원의 대기시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 대기시간이 짧은 사립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무료로 진료 받을 권리가 있음⁷⁷⁾

72) WHO, denmark; Using an eHealth portal to transform PHC during the pandemic, Sisse Banck 외 4인 (검색일 2022.10.15.)

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과 덴마크의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 현황 파악 (2018.07.30.)

74) The Ministry of Health, Healthcare in Denmark-An Overview, 2017 (검색일 2022.10.15.)

75) Danish patient safety authority(덴마크 환자 안전 당국), Hospital treatment in Denmark (검색일 2022.10.15.)

76) Privat Hospitalet Danmark (덴마크 사립병원), Det udvidede frie sygehusvalg (검색일 2022.10.15.)

- EU 국가 중 덴마크는 병원 입원 기간이 4일 반으로 가장 짧음⁷⁸⁾
- 덴마크의 보건의료서비스는 GP를 중심으로 하여 GP를 통해서 사립병원, 국립병원의 전문의들과 만날 수 있으며 치과의료는 별도로 행해짐
-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일차 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병상 수
 - '21년 기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병상 수는 14,716개이며 전년도에 비해 373병상(-2.47%)이 감소함⁷⁹⁾
 - '19년 기준 공공병원의 병상 수⁸⁰⁾는 14,129개, 비영리 민간병원⁸¹⁾은 628개, 영리 민간병원⁸²⁾은 319개임
 - '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덴마크 병원의 병상 수는 2.5개로, OECD 국가 중 하위 7위임⁸³⁾
 - '20년 기준 집중 치료 병상은 21.3개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⁸⁴⁾
- 의료관광⁸⁵⁾
 - 덴마크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해외 치료에 의뢰할 수 있음
 - 의뢰할 시 덴마크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77) Privat Hospitalet Danmark (덴마크 사립병원), Det udvidede frie sygehusvalg (검색일 2022.10.15.)

78) InterNations-connecting global minds, Health Insurance and Healthcare in Denmark Explained (검색일 2022.10.15.)

79) Statista, hospital beds in Denmark 2002-2021 (2022.08.05.)

80) Statista, Publicly owned hospital beds in Denmark 2011-2019 (2022.03.11.)

81) Statista, Private (not-for profit) owned hospital beds in Denmark 2011-2019, update date: MAR 11, 2022 (2022.03.11.)

82) Statista, Private (for profit) owned hospital beds in Denmark 2011-2020 (2022.03.15.)

83) OECD Data, Hospital beds, 2021 (검색일 2022.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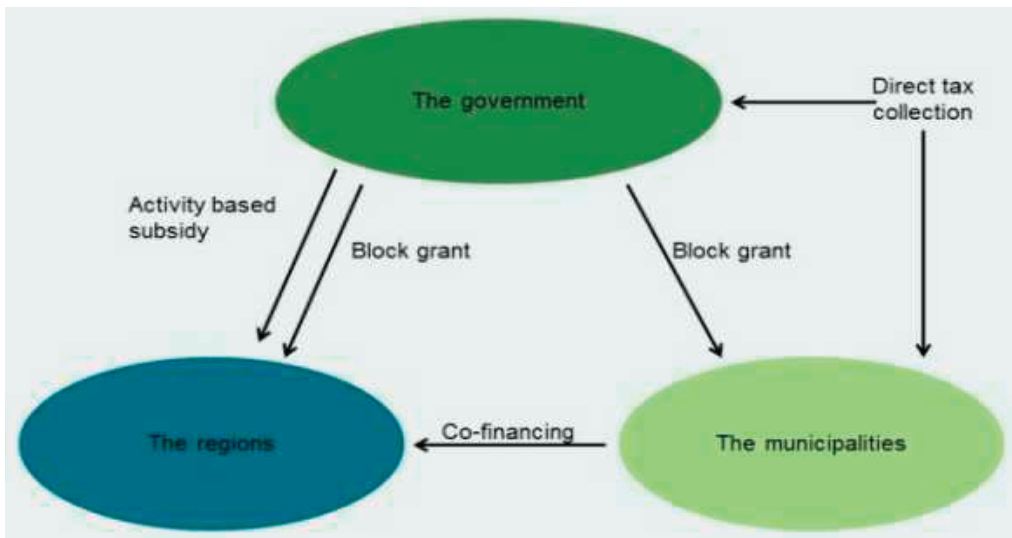
84)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검색일 2022.10.16.)

85) The Ministry of Health, Healthcare in Denmark (2021.01.27.)

□ 건강보험체계

- 덴마크는 분권화된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제도를 채택하여 국가에서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음⁸⁶⁾
-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함
 - 의료 부분 국가 재정은 일괄보조금(block grant) 약 81%와 특정 활동 보조금 약 1% 등으로 구성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함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일괄보조금(block grant)을 분배받아 효율적인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정책을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지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역 정부에 지불함

<덴마크 의료 시스템의 재정 구조 조직도>



자료: The Ministry of Health, Healthcare in Denmark—An Overview, 2017

-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19년 기준 약 10.6%에 달하며, 총의료비 지출에서 중앙, 지역 또는 지방정부 계획(법정 보건의료 제도)은 83%, 본인부담금은 (민간 의료기금) 11%, 자발적 보험 가입(Voluntary Health Insurance, VHI)은

86) The Ministry of Health, Healthcare in Denmark—An Overview, 2017 (검색일 2022.10.16.)

2%를 차지함⁸⁷⁾

● 법정 보건의료 제도

- 의료비는 주로 누진 국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⁸⁸⁾
- 덴마크 시민과 영주권자는 Danish National Health Service에 따라 무료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음⁸⁹⁾

● 법정 보건의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에서 공공의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 및 입원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함⁹⁰⁾

- 일상적인 치료, 1차 의료를 제공하는 GP의 진료 및 검사
- GP가 추천한 경우의 전문 진료
- 근무 시간 이후의 응급 치료 및 의료 지원
- 수술, 입원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한 병원에서의 치료
- 가정간호 및 방문 건강

● 법정 보건의료 제도의 보험대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공공의료기금을 통해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⁹¹⁾

- 덴마크 거주자(시민등록시스템(CPR : Det Centrale Personregister)에 등록됨)는 sunhedskort라는 건강보험 카드를 통해 덴마크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
- EU 조정 규칙에 따라 덴마크의 공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도 모든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
- 덴마크에서 일하는 해외거주자는 특별 건강보험 카드를 통해 공공의료 혜택을 받음

● 덴마크는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의료비 지출 회계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87)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Figure 7.9 (검색일 2022.10.16.)

88) Task Force Health Care, Denmark Market Study 2021 (검색일 2022.10.16.)

89) U.S. Embassy&Consulate in the Kingdom of Denmark(덴마크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Medical Assistance (검색일 2022.10.16.)

90) InterNations—connecting global minds, Health Insurance and Healthcare in Denmark Explained (검색일 2022.10.16.)

91) City of Copenhagen(코펜하겐시 사이트), Yellow health card (검색일 2022.10.16.)

● VHI (Voluntary Health Insurance)

-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진료 의뢰가 필요할 수 있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 비용을 지불함
- 공공의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국민이 개별적으로 구매함⁹²⁾
 - 약물: 일부는 보조금을 받지만, 가격의 25~50%는 지불 해야 함
 - 치과 진료: 18세까지는 무료이지만, 그 이후에는 공보험을 적용받지 않음
 - 선택적 성형 수술
 - 불임 치료: 일부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음
 - 물리치료
 - 심리치료, 카이로프랙틱: 의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받음
- 약 245만 명(42%)의 덴마크인이 보장받고 있으며, 비영리 의료보험조직인 “Danmark”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함⁹³⁾

□ 수가제도

● 의사 보수 지불

- 환자를 등록받은 GP는 인두제 방식으로 1/3 보상받고, 나머지는 행위별수가 (fee for service)로 보상받음
- 치과의 포함한 전문의의 외래진료는 행위별로 보상받음
- 공공병원 내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들은 봉급자들로, 월급을 받으며, 봉급은 County Council Association과 조합 간의 협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정함

● 병원서비스 보수 지불⁹⁴⁾

- 급성기 공공병원: 병원예산제(Global budget)로, 제공하는 의료 행위 양과 관계없이 한 의료기관의 전체 서비스를 포괄한 예산을 책정하고 배정함

92) InterNations—connecting global minds, Health Insurance and Healthcare in Denmark Explained (검색일 2022.10.16.)

93) Health Insurance Denmark, Annual Report 2017, 2018 (검색일 2022.10.16.)

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2022 (검색일 2022.10.16.)

- 급성기 비영리병원: DRG
- 급성기 영리병원: DRG
- 즉,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는 80%가 총액예산제도이며 나머지 20%는 DRG와 같은 진단명 기준 건당 방식을 사용함
- OECD의 주요 국가 중 공공병원에 대해 병원 예산제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공공 병상 수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덴마크의 공공병상 수는 93.7%임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Privat Hospitalet Danmark 사립병원덴마크	Charlottenlund에 위치하며 1991년 설립된 덴마크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립 병원 중 하나임	
	치료 가격	https://www.phdanmark.dk/priser/
Aleris Denm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26,000건 이상의 수술과 100,000건의 치료 과정을 제공하는 덴마크 최대의 민간 의료 회사 Aleris Denmark는 스칸디나비아 최고의 민간의료회사 중 하나인 Aleris Group의 계열사로 북유럽에서 Aleris는 130개 지역에 5,4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연간 매출은 75억 스웨덴 크로나 (6.8억 달러) 	
	수가	https://www.aleris.dk/godt-at-vide/priser/
CPH 사립병원 CPHPrivat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형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에 이르기까지 14가지 전문 분야를 제공 최신 장비를 갖춘 3개의 수술실과 회복실, 8개의 침대와 10개의 상담실 보유 	
	* 아래 링크에서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이동 후 좌측 메뉴의 Priser(가격)를 클릭하면 해당 진료의 비용을 볼 수 있음	
	진료과목	https://cph-privathospital.dk/specialer/
건강보험 덴마크	건강보험 "danmark"는 1973년에 설립된 보험 협회로 26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	
	보험 보조금	https://www.sygeforsikring.dk/tilskud
	보장 옵션 및 요금	https://www.sygeforsikring.dk/files/media/pdf/Takstbrochure-2020.pdf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덴마크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439억 3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7,556.5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7.08% 감소해 408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42% 성장해 563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7.42% 감소해 '22년 6,995.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01% 성장해 '26년 9,520.5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11.06%에서 '26년 11.00%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84.98%에서 '26년 85.3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15.02%에서 '26년 14.67%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덴마크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40.385	43.928	40.819	43.969	47.058	51.297	56.378
연간 성장률	9.06	8.77	-7.08	7.72	7.02	9.01	9.91
1인당 의료비	6,972.2	7,556.5	6,995.7	7,507.2	8,004.6	8,693.6	9,520.5
GDP 대비 의료비 비율	11.34	11.06	10.62	10.56	10.69	10.84	11.00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84.96	84.98	85.01	85.06	85.13	85.21	85.33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15.04	15.02	14.99	14.94	14.87	14.79	14.67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덴마크의 모든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좋은 건강과 의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비 지출의 약 84%는 주로 세금을 통해 공공 재정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16%는 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음⁹⁵⁾
 - 덴마크의 지역 및 지방자치의 의료 부문은 각각 최소 2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5개 지역과 98개 지방 자치 단체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음
- 덴마크의 모든 시민은 보편적이고 평등하며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음⁹⁶⁾
-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18년 병원 환자는 총 622,738명이었으며, 남성 274,707명, 여성 348,031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음⁹⁷⁾
 - '20년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446,619명이었으며 남성 2,629,586명, 여성 2,817,164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음
- 덴마크의 1차 의료 시스템은 일반 개업의(GP),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와 같은 기타 민간 개업 의료 전문가와 가정 간호, 예방 조치 및 재활을 담당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음⁹⁸⁾
 - GP 약 3,500명은 공공의료 시스템과의 단체 협약을 맺고 있으며 각 GP에는 평균 1,600명의 환자가 있음
 - 병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치료의 거의 90%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속한 지역의 병원에서 제공되는 표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
 - 전문 병원 치료는 전체 병원 서비스의 약 10%를 차지하며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국내 1~3개 병원)와 지역기능(각 지역에 1~3개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 모든 시민은 건강보험 그룹 1 또는 2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 그룹 1을 선택한 시민은 공공의료 시스템의 일부인 특정 GP에 등록되며 모든 환자의 99% 이상이 그룹 1에 포함됨
 - 그룹 1의 시민은 GP로부터 무료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와 GP의 추천이 있는

95) <https://www.trade.gov/healthcare-resource-guide-denmark> (검색일 2022.10.18.)

96) Borgen Project, 7 FACTS ABOUT HEALTHCARE IN DENMARK (2020.07.09.)

97) <https://www.dst.dk/en/Statistik/emner/borgere/sundhed> (검색일 2022.10.18.)

98) <https://www.healthcaredenmark.dk/media/ykedbhsi/healthcare-dk.pdf> (검색일 2022.10.18.)

경우 개인 개업에서 의료 전문가로부터 무료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과 의사, 이과 의사 및 치과 의사와 같은 특정 전문가의 전문 치료에는 진료 의뢰가 필요하지 않음

- 건강보험 그룹 2에 해당하는 환자는 모든 GP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추천 없이 개인 진료에서 의료 전문가를 방문할 수 있음

● 덴마크는 '07년부터 병원의 체계적인 계획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64억 유로(63.4억 달러)이며 9억 유로(8.9억 달러)는 의료장비 및 정보 기술 조달에 할당되었음⁹⁹⁾

- 여기에는 7개의 새로운 국립병원과 9개의 기존 병원 개보수 등으로 구성된 슈퍼병원 건설 프로젝트가 있으며 25년까지 완료될 예정임

● 덴마크 정부는 '22년 3월 건강 개혁 의료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8년 동안 의료 시스템을 68억 크로네(9.2억 달러)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¹⁰⁰⁾

- 최대 25개 지역사회 병원, 만성질환자 치료의 질 강화, 시립 응급실 기능 강화, 자택 디지털 솔루션 확산 촉진,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한 제도 추진 등과 특히 의무 진료의 도입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더 많은 의사와 더 나은 의료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이 할당되었음

□ 제약산업

● 덴마크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43억 6천만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750.5 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6.15% 감소한 41억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44% 성장해 52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6.50% 감소한 '22년 701.7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05% 성장해 '26년 887.4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99) NewIcon, Denmark's vision: A future-proof health care system with a focus on safety and efficiency (2019.06.14.)
100) <https://sum.dk/temaer/sundhedsreformen> (검색일 2022.10.18.)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10%에서 '26년 1.03%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9.9%에서 '26년 9.3%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덴마크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3.863	4.363	4.095	4.342	4.565	4.880	5.255
연간성장률	4.93	12.95	-6.15	6.05	5.13	6.91	7.68
1인당 의약품비	666.9	750.5	701.7	741.4	776.5	827.1	887.4
GDP 대비 의약품 비율	1.08	1.10	1.07	1.04	1.04	1.03	1.03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9.6	9.9	10.0	9.9	9.7	9.5	9.30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덴마크-스웨덴 생명과학 클러스터 '메디콘 벨리'는 스칸디나비아 제약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9개의 생명 과학 대학, 7개의 과학 공원, 6,000명의 석박사와 14,600명의 생명과학 연구원들이 있음¹⁰¹⁾
- 덴마크는 당뇨병, 암, 심혈관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염증성 질환 및 알레르기 분야에서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덴마크 의약품청(Danish Medicines Agency)의 통계에 따르면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는 덴마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며, 기타 치료 영역은 면역 체계, 심장 및 혈액 순환, 감염, 소화 및 대사, 호흡, 혈액 및 혈액 형성 기관, 비뇨기과, 근육, 관절 및 뼈, 호르몬, 감각 기관 및 피부과 등임¹⁰²⁾
- 덴마크의 생명과학 산업은 1,520억 크로네(206억 달러)의 상품 수출을 포함하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5만 여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¹⁰³⁾

101)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denmark-healthcare-and-lifescience-products-and-services> (검색일 2022.10.18.)

102) <https://www.privacyshield.gov/article?id=Denmark-Medical-Technology-and-Dental-Equipment> (검색일 2022.10.18.)

103) <https://em.dk/ministeriet/arbejdsmraader/erhvervspolitik/life-science/> (검색일 2022.10.18.)

- '21년 기준으로 덴마크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39억 6천만 달러로 전체의 90.7%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4억 6백만 달러로 9.3%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4억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60.6%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5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35.8%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39.4%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6.2% 감소한 37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3% 성장해 47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2% 감소한 3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5% 성장해 5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1% 감소한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8% 성장해 26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3.5% 감소한 15억 7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4% 성장해 20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일반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처방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으며, 처방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이 특허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덴마크 제약시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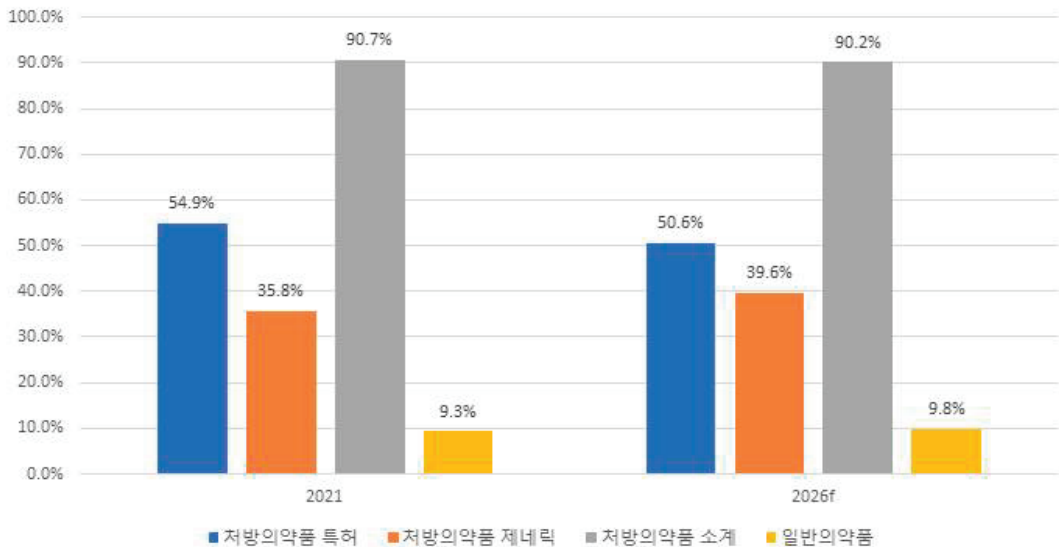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2.134	2.397	2.203	2.292	2.370	2.498	2.660
	제네릭	1.372	1.561	1.507	1.638	1.757	1.909	2.080
	소계	3.506	3.957	3.710	3.930	4.127	4.407	4.740
일반의약품		0.357	0.406	0.385	0.412	0.438	0.473	0.515
합계		3.863	4.363	4.095	4.342	4.565	4.880	5.255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90.7%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90.2%로 소폭 감소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9.3%에서 9.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54.9%에서 '26년 50.6%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35.8%에서 '26년 3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덴마크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191억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63억 달러로 의약품 무역흑자가 128억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3.29% 감소한 184억 8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03%의 성장을 보여 270억 7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1.75% 감소한 61억 9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3.22%의 성장을 보여 101억 7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덴마크의 무역흑자는 '22년 122억 8천만 달러에서 '26년 16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덴마크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18,826.17	19,104.94	18,476.19	20,526.20	22,413.41	24,670.19	27,073.67
연간성장률	9.36	1.48	-3.29	11.10	9.19	10.07	9.74
의약품수입	5,106.45	6,304.40	6,193.97	7,020.63	7,872.46	8,935.66	10,175.84
연간성장률	19.95	23.46	-1.75	13.35	12.13	13.51	13.88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덴마크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8% 감소하였고 '17년부터 연평균 54.69% 성장하고 있음
- 덴마크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16년부터 '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함

<덴마크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73,685	11,676	25,339	21,471	51,396	12,866
의약품 수입	2,184	1,708	5,742	4,505	9,211	7,019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⁰⁴⁾

- 덴마크에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텍(Comirnaty), 모더나(스파이크 왁스)이며 EU에서도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백신 접종 프로그램 초기에 사용되었지만, 이후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음¹⁰⁵⁾

10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8.)

105) <https://laegemiddelstyrelsen.dk/da/nyheder/temaer/generelt-om-vacciner-mod-covid-19/> (검색일 2022.10.18.)

-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는 '22년 9월 중순 EU 집행 위원회에 화이자/바이오엔텍과 모더나의 백신이 모두 완전한 판매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여기에는 변종 조정 버전도 포함됨
- 덴마크에서는 '22년 11월부터 위험 그룹에 속하지 않아 코로나19에 대한 무료 예방 접종을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예방 접종을 유상으로 할 수 있음¹⁰⁶⁾
- 변종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에서는 포장, 운송 등을 위한 Statens Serum Institut의 처리 비용만 충당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백신을 접종처에 판매하고 있음
- 덴마크는 '22년 8월 예방 접종 준비에 대해 Carelink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22년 10월 1일부터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취약한 50세 미만의 사람들은 계획된 계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가 예방 접종을 받게 됨¹⁰⁷⁾
- Carelink와의 협약은 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경우 6주 이내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 덴마크는 '21년 5월부터 두 개의 민간 회사가 공공 예방 접종 센터의 용량을 초과 하는 대상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담당한다고 밝혔음¹⁰⁸⁾
- Practio는 덴마크 남부 지역의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입찰에서 낙찰받았고 Danske Lægers Vaccinations Service는 북부 유틀란트, 중부 유틀란트 및 수도에서 입찰에서 낙찰되었음
- 계약은 4월 16일에 체결되며, 5월 16일부터 민간 부문에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음
- 덴마크 정부는 '21년 8월 코로나19에 대한 덴마크 백신 개발을 위해 8억 크로네(1억 달러)로 바이에른 노르딕(Bavarian Nordic) 회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덴마크 정부가 백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이후 나온 것임¹⁰⁹⁾

106) Sundhedsministeriet, Boostervaccination mod covid-19 bliver muligt mod egenbetaling (2022.09.30.)

107) Sundhedsministeriet, Beredskabsplan for regionale vaccinationstilbud om covid-19 (2022.08.30.)

108) JyskeVestkysten, Vaccine-udbud afgjort: To virksomheder er valgt til at hjælpe med at vaccinere (2021.04.06.)

109) TV 2, Staten støtter dansk coronavaccine med 800 millioner kroner (2021.08.23.)

● 덴마크는 '20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EU 국가를 대신하여 체결한 코로나 19 백신 배송을 위해 백신 제조업체와 6번째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1,6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음¹¹⁰⁾

- 확보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60만, 사노피-GSK 200만, 존슨앤존슨 560만, 바이오테크/화이자 200만, 큐어백 260만, 모더나 100만 도즈 등임

<덴마크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10월 24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5.81	37	37	225.37	81.54%	0.61%	82.2%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¹¹¹⁾, Our World in Data¹¹²⁾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덴마크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25억 6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440.0 달러로 추정됨

- 덴마크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3.78% 성장한 26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51% 성장해 31억 7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덴마크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3.41% 성장한 455.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12% 성장해 534.7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10) Lægemiddelstyrelsen, Sjette aftale om forhåndsindkøb af potentiel vaccine mod COVID-19 (2020.12.03.)

111)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24.)

112)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24.)

<덴마크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2,558.0	2,654.6	2,744.2	2,866.1	3,022.2	3,166.5
1인당 의료기기	440.0	455.0	468.5	487.5	512.2	534.7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덴마크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환자보조기기와 의료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7.1%, 22.8%로 가장 높음

<덴마크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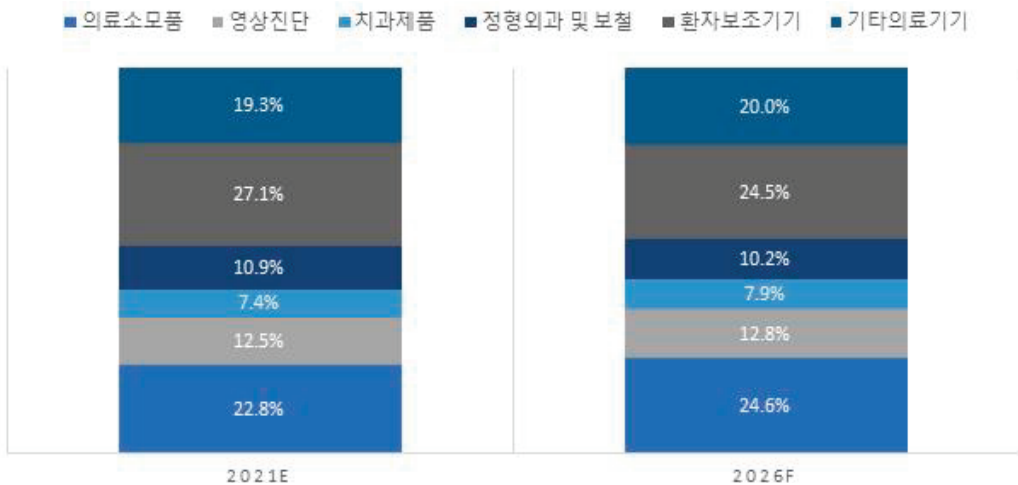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578.1	583.0	625.3	660.2	694.8	736.7	778.2
영상진단	280.7	319.0	335.3	348.6	365.2	387.0	405.6
치과제품	143.2	189.1	203.9	214.3	224.8	237.6	249.5
정형외과 및 보철	202.8	279.4	290.3	296.8	304.8	315.7	324.5
환자보조기기	629.1	693.0	669.7	669.8	698.5	738.1	775.5
기타의료기기	438.3	494.5	530.1	554.4	578.1	607.2	633.0
합계	2,272.3	2,558.0	2,654.6	2,744.2	2,866.1	3,022.2	3,166.5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의료소모품(5.95%)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보조기기의 연평균성장률은 2.33%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의료소모품의 구성비율은 1.78% 증가한 24.6%인 반면, 환자보조기기는 2.60% 감소하여 24.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덴마크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덴마크의 정부는 덴마크에서 의료장비의 가장 큰 구매자이며 전체 의료장비 구매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 자치 단체는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재무부와 전국 지방 당국 연합이 주도하는 국가 조달 협력도 있음¹¹³⁾
- 덴마크의 의료 산업은 871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직원 9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17년에는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회사는 9개가 있었음¹¹⁴⁾
 - 의료 산업의 매출은 매년 640억 크로네이고 32억 크로네를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투자의 7.4% 및 매출의 5%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은 15,818명이었음
 - 의료 산업의 부가가치는 250억 크로네이며 세금으로 연간 70억 크로네를 기여하고 있고, 의료 시스템 운영 비용의 5%가 의료장비에 사용됨
- 덴마크 의료 기술 수익의 95% 이상이 수출 시장에서 발생하여 덴마크는 유럽 최대의 1인당 의료 기술 제품 수출국 중 하나이며 직접 고용 외에 22,000명 이상의 직원을 하청업체로 고용하고 있음¹¹⁵⁾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덴마크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16억 9천만

113)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denmark-healthcare-and-lifescience-products-and-services> (검색일 2022.10.18.)

114) <https://medicoindustrien.dk/content/om-branchen> (검색일 2022.10.18.)

115) <https://investindk.com/set-up-a-business/life-sciences/medtech> (검색일 2022.10.18.)

달러로 전년보다 17.5% 증가하였음

- 팬데믹 영향에도 '20년에 의료기기 수입과 수출은 증가하였고 '21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커졌음

<덴마크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액	1,163,917	1,201,524	1,292,406	1,375,692	1,441,349	1,694,021
수출액	1,889,487	1,885,393	1,960,279	1,826,987	1,839,221	2,068,005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¹⁶⁾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덴마크의 의료기기 수입은 '20년에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3.0% 증가한 2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함

<덴마크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기기 수입	1,403,403	1,436,014	1,540,025	1,613,123	1,781,815
의료기기 수출	2,199,337	2,155,124	2,219,759	2,092,110	2,154,689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및 기타의료 기기가 각각 33.98%, 23.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음
- 환자보조기기는 세 번째로 크고, 영상진단, 정형외과 및 보철,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0년에는 환자보조기기가 큰 증가세를 보였음

116)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8.)

<덴마크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소모품	536,985	514,879	537,060	528,733	605,502
영상진단	197,985	185,483	233,451	240,880	257,727
치과제품	64,241	69,032	80,238	100,859	95,135
정형외과 및 보철	116,341	124,728	128,994	146,980	135,629
환자보조기기	170,617	209,667	226,687	219,505	261,989
기타의료기기	317,234	332,225	333,595	376,166	425,833
합계	1,403,403	1,436,014	1,540,025	1,613,123	1,781,815

자료: Fitch Solutions - Denmark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덴마크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6백 5십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4.61%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18.8% 증가하였으며 영상진단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덴마크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 검사기기)	2,765.7	3,170.4	3,496.2	2,961.0	4,483.1	5,646.2
9019 (치료기기· 호흡기기)	30.5	47.5	107.6	93.4	66.5	29.0
9020 (기타 호흡기기)	2.6	—	—	—	8.0	4.1
9021 (정형외과용)	560.9	670.0	607.7	742.7	610.7	403.3
9022 (영상진단)	54.9	203.4	576.7	549.5	336.5	456.0
합계	3,414.5	4,091.4	4,788.2	4,346.7	5,504.8	6,538.6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¹⁷⁾

- '22년 가을철 사회 감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일 10,000회의 PCR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최대 30,000회로 늘릴 수 있으며, 9월 기준 하루 5,000건의 검사가 수행되고 있음¹¹⁸⁾
- '22년 3월 기준 덴마크 전역에서 신속한 항원 테스트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덴마크 국회 의사당 지역의 마지막 신속한 항원 테스트 사이트는 3월 6일에 폐쇄함¹¹⁹⁾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가 검사를 하거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밀접 접촉자는 자가진단 대신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덴마크 보건 당국 테스트센터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는 무료이며 PCR 테스트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¹²⁰⁾
 - 덴마크에서는 민간 제공업체의 무료 코로나19 테스트는 종료되었음¹²¹⁾
- '21년 3월 덴마크 의약품청(Danish Medicines Agency)은 학교 및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코로나19 항원 테스트(자가 테스트)를 승인하였으며 지역은 공급 안보국과 협력하여 테스트를 구매하고 배포할 책임이 있음¹²²⁾

<덴마크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6월 22일 기준

총검사수(PCR) (2022년 10월 26일 기준)	인구 1천 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 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67,146,767	11,043.26	1.23

자료: Sundhedsstyrelsen¹²³⁾, Our World in Data¹²⁴⁾

117)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8.)

118) <https://www.ssi.dk/aktuelt/nyheder/2022/testkapaciteten-i-efteraaret> (2022.09.22.)

119) <https://www.regionh.dk/english/press-and-news/latest-news/Pages/Corona-tests-for-the-public.aspx> (2022.03.04.)

120) <https://www.regionh.dk/Sundhed/Coronavirus/Sider/Find-vej-og-parkering-ved-TestCenter-Danmark-telte.aspx> (검색일 2022.10.19.)

121) <https://coronasmitte.dk/nyt-fra-myndighederne/corona-strategi/test-isolation-og-smitteopsporing> (검색일 2022.10.19.)

122) Lægemedicinstyrelsen, Dispensationer giver mulighed for COVID-19-selvtest på skoler (2021.03.30.)

123) <https://sst.dk/da/corona/Retningslinjer-rapporter-og-andet-materiale-om-covid-19/Coronatal> (검색일 2022.10.26.)

124)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26.)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26.)

- 덴마크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15억 4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25.59% 성장하고 있음
-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가 HS코드 382200(PCR)키트 보다 수입 규모와 성장률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덴마크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334.00	452.77	550.88	693.07	893.87
382200 (PCR)	283.64	293.02	345.23	332.23	402.01	643.99
합계	283.64	627.03	797.99	883.11	1,095.08	1,537.86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²⁵⁾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덴마크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및 원격의료)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3억 4,7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9.26% 성장하여 5억 4,0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¹²⁶⁾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69.88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모든 GP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을 보관하고 98%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병원의 모든 검사 결과를 전자적으로 받고 있음¹²⁷⁾
- 모든 처방전의 99%가 약국에 전자적으로 전송되며 병원에 대한 모든 의뢰의 97%와 의료 전문가 및 심리학자에 대한 모든 의뢰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짐
- 시민들이 국가 건강 등록, 전자 건강 기록(EHR), 약물 데이터 등에서 자신의 의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웹 포털 Sundhed.dk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환자의 GP도 접근할 수 있음

125)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8.)

126)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denmark> (검색일 2022.10.18.)

127) <https://www.healthcaredenmark.dk/media/ykedbhs/healthcare-dk.pdf> (검색일 2022.10.19.)

- 원격진료 프로젝트인 TeleCare Nord는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자는 일주일에 두 번 자신의 산소 포화도, 심박수, 혈압 및 체중을 측정하고 그 결과는 지역 병원의 의료 전문가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및 치료를 조정함
 - TeleCare Nord는 지방 자치 단체, 지역 및 GP 간의 공동 파트너십으로 '19년까지 모든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에서 COPD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합의
 - 덴마크 전역에 “원격의료 상처 평가(Tele-medical wound assessment)”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롤아웃 프로젝트는 '17년까지 모든 관련 환자의 최대 70%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여기에는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포함하며, 지역 보건소에서 상처의 사진을 찍고 환자의 온라인 건강 기록에 정보를 업로드하여 병원의 전문가 (및 환자)가 액세스할 수 있음
- 전자 건강 기록(EHR) 시스템은 5개 지역 각각이 호환성에 대한 국가 표준을 준수하면서 사용하고 있음¹²⁸⁾
 - 덴마크의 모든 시민은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레지스트리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전자 개인 식별자를 가지고 있어 정부는 각 환자의 처방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 의료 카드를 구현했음
- '19년 6월 덴마크 북부 지역은 새로운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 공급업체로 Systematic을 선택했으며 이로써 덴마크의 5개 지역 당국 중 3개는 동일한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 공급업체를 선택함
 - 동일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었음¹²⁹⁾
 - 북덴마크 지역의 새로운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은 '21년 가을에 완전히 구현되어 사용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덴마크인은 전자 건강 포털을 통해(Sundhed.dk) 심리학자, 물리치료사, 척추 지압사, 족부 전문의 및 치과 치료와 온라인 비디오 상담에 개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음¹³⁰⁾
 - 덴마크 전자 건강 포털(Sundhed.dk)은 '03년부터 고유한 국가 의료 플랫폼으로

128) <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denmark> (2020.06.05.)

129) Healthcare DENMARK, Three Danish regions have chosen the same supplier of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2019.06.26.)

130) <https://investindk.com/set-up-a-business/life-sciences/ehealth> (검색일 2022.10.19.)

모든 덴마크인에 대한 개인 및 일반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 기록, 처방 갱신, 검사 결과 및 장기 기증 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음

- 덴마크 공중 보건 부문은 Shared Medication Record("Medicinkortet") 및 덴마크 건강 포털("Sundhed.dk")과 같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18년에 보건부는 "모두를 위한 일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네트워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건강 전략 2018-2022를 시작했음
- 이 전략은 병원, 시립 보건 서비스, GP 및 보건 시스템 전반의 기타 공공 및 민간 참가자가 환자 중심의 통합 네트워크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보다 지속적인 추진력을 보장할 것임¹³¹⁾
- 덴마크의 솔루션 기업 Trifork은 '20년 봄에 폐쇄된 이후로 디지털 리드를 지원하였고, 기존 My Doctor App은 시민과 GP 모두의 중심 도구가 되었으며 해당 앱은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고, 추가적으로 가상 대기실과 화상 상담을 개발하였음¹³²⁾
- '20년 봄에는 NemID(보안 디지털 로그인)가 없는 시민들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사와 가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Contact Doctor 앱도 개발되었음
- '20년 11월에는 덴마크 보건 데이터 당국 및 SSI(주립 혈청 연구소, Statens Serum Institut)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Trifork는 예방 접종 등록부를 추가로 개발했음

131) <https://sundhedsdatastyrelsen.dk/da/diverse/download> (2018.03.20.)

132) <https://trifork.com/?portfolio=triforks-role-in-denmarks-leading-digital-healthcare-system> (검색일 2022.10.19.)

□ 의료관광

- 덴마크는 의료 기술과 의학 자체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칸디나비아 의료관광 목적지임¹³³⁾
 - 덴마크 의료 품질 프로그램은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의 품질을 추가하여 덴마크의 많은 진료소, 병원 및 의료 센터를 인증했음
 - EU 시민인 경우 유럽건강보험카드(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 EHIC)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비응급 또는 긴급 송환은 보장하지 않음
 - 덴마크에서의 의료관광 주요 진료 분야는 불임 치료, 종양학, 심장 질환, 치과, 안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임
- 덴마크는 이성 커플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과 독신 여성에게도 불임 치료로 인기 있는 곳으로 '07년 1월부터 의사가 레즈비언과 독신 여성을 위해 IUI(인공수정, INTRAUTERINE INSEMINATION)와 IVF(체외수정, In Vitro Fertilization)를 수행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불임법을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덴마크 IVF 인기의 또 다른 이유는 높은 기증율로 인해 IUI 및 정자 기증자가 필요한 기타 치료에 대한 대기시간이 없기 때문이며, 세계 최대 정자은행 중 하나인 Cryos International을 보유하고 있으며 덴마크 정자의 90% 이상을 다른 EU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 덴마크 성인의 14%가 과체중으로 '19년에 총 약 2만 여명이 비만 수술을 받았으나 '20년 타국가에서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과체중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음¹³⁴⁾
 - 대부분은 덴마크인은 이미 의료관광을 시도한 지인이나 인터넷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시민은 국내의 의료나 서비스의 낮은 질 때문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를 방문하고 있음
 - 덴마크는 영국과 협정을 맺고 영국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 덴마크 환자는 EU/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에서 병원 치료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지불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스웨덴과 폴란드 및 헝가리와 같은 다른 국가는 의료관광, 특히 치과 치료와 관련하여 덴마크인 유치에 관심이 있고,

133) <https://medicaltourism.review/countries/denmark> (검색일 2022.10.19.)

134) <https://nyindanmark.dk/index2.html> (검색일 2022.10.19.)

태국은 더 복잡한 의료 절차로 유명하며 터키, 인도 등의 국가는 우수한 의사가 많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음

□ 화장품

- Statista에 따르면 덴마크의 '22년 미용 및 개인 관리(화장품 및 바디 케어용 소비재) 시장의 매출은 14억 2천만 달러에 달하며 '26년까지 연평균 4.8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¹³⁵⁾
 - '22년에는 1인당 243.40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Statista에 따르면 덴마크 화장품 및 개인 관리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여 '21년에 14억 유로(13.8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개인 관리 부문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문이며 스킨케어에 그 뒤를 잇고 있음¹³⁶⁾
 - '21년 4분기에 화장품 및 화장수 소매 판매 수익은 약 29억 크로네(3.9억 달러)에 달했으며 비누 및 세제, 클리닝 및 광택 제조의 판매 수익은 6억 300만 크로네(8천만 달러), 향수는 4억 500만 크로네(5천 5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음
 - '20년에 미국 제조업체인 Clinique는 4,700만 크로네(637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였으며 프랑스 회사인 Lancome과 Clarins가 그 뒤를 이었음
- '17년 건강 및 웰빙 트렌드가 덴마크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미용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했음¹³⁷⁾
 - 원래 천연, 유기농은 스킨케어 중심의 트렌드였으나, 헤어케어로 넘어가기 전에는 색조화장품, 데오도란트 등 다른 카테고리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덴마크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10.25%의 상승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두발용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6억 6천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6.29% 성장하였음

135) <https://www.statista.com/outlook/cmo/beauty-personal-care/denmark> (검색일 2022.10.19.)

136) <https://www.statista.com/topics/6245/cosmetics-and-body-care-industry-in-denmark/> (2022.06.08.)

137) Kosmetica World, Natural cosmetics in Scandinavia: an overview (2018.11.01.)

<덴마크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53.21	62.13	64.82	73.32	84.48	100.72
3304 (기초·색조)	237.37	286.53	323.17	340.27	315.91	409.36
3305 (두발용)	119.04	117.51	124.53	118.44	119.23	155.69
3307.10 (면도용)	7.42	9.70	5.99	5.39	4.93	4.63
3307.20 (데오드란트)	27.66	26.84	34.84	35.14	40.28	44.48
3307.30 (입욕제)	5.22	11.80	15.45	11.37	13.01	11.19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24.46	18.50	22.34	21.30	29.48	34.67
합계	474.38	533.02	591.14	605.22	607.32	760.75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³⁸⁾

- 덴마크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5백 6십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덴마크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	20.1	—	—	0.6	0.1
3304 (기초·색조)	1,042.3	770.2	1,394.8	2,924.9	3,863.3	5,445.4
3305 (두발용)	3.3	5.7	94.9	63.7	163.6	130.3
3307.10 (면도용)	—	—	—	—	—	—
3307.20 (데오드란트)	—	—	—	—	—	—

138)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8.)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7.30 (입욕제)	—	—	—	—	1.7	0.3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	2.4	10.6	4.3	4.3	14.6
합계	1,045.7	798.4	1,500.3	2,992.9	4,033.4	5,590.7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³⁹⁾


¹³⁹⁾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8.)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보건법 2022-01-27의 LBK 번호 210	주요 내용	인구의 건강을 증진하고 개인의 질병, 고통 및 기능 제한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링크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2/210
의료인의 인가 및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공포 2019년 8월 7일의 LBK 번호 731	주요 내용	의료 전문가 그룹의 승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링크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9/731
의약품법의 공포 2018년 16월 16일의 LBK 번호 99	주요 내용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한 규정 및 법률
	링크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8/99
의료기기법 공포 2016년 2월 15일의 LBK 번호 139	주요 내용	의료장비의 안전, 품질 및 성능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6/139

참고 덴마크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덴마크 왕국(Kingdom of Denmark)• 수도 : 코펜하겐• 인구 : 589만 명 ('21.7월 / CIA 추정치)• 면적 : 4만 2,934㎢ (한반도의 약 1/5) * 그린란드 페로제도 등 자치령 제외• 종교 : 루터복음교(국교, 74.7%), 이슬람교, 가톨릭, 침례교, 유대교 등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입헌군주제하 내각 책임제• 의회구성: 단원제, 총 179석•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원수: 마그레테 2세 여왕 ('72.1 즉위, Margrethe II)- 총 리: 메테 프레데릭센('19.6월 취임, Mette Frederiksen)- 외교부장관: 예베 코포드('19.6월 취임, Jeppe Kofod)- 보건부장관: 매그너스 휴니케('19.6월 취임, Magnus Heunicke)				
경 제 ('20년 기준)	GDP	1인당 GDP	교역규모	경제성장률(GDP)	
	3,561억 달러	61,154달러	(수출) 119,455백만 달러 (수입) 100,772백만 달러		
우리나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9.03.11. 외교관계 수립•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덴마크대사 : 박상진('19.09. 신임장 제정)- 주한덴마크대사 : 아이너 히보고오 예센(Einar Hebogård Jensen) ('19.11. 신임장 제정)•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439,173천 달러(자동차, 철강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수입 : 935,779천 달러(농약 및 의약품, 축산가공품, 원동기 및 펌프)•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덴마크 투자 : 146,858천 달러				

주요 정세	• 11.09월	총선 실시, 사회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중도좌파 야권(Red block) 승리 10년 만에 정권 교체				
	• 11.10월	헬레 토닝-슈미트(Helle-Thorning-Schmidt) 사회민주당 당수 덴마크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				
	• 12.01월	2012년 상반기 EU의장국 수임				
	• 15.06월	총선 실시, 우파 정당인 덴마크 국민당이 제1여당으로 부상 중도우파 야권(Blue Bloc)이 정권 교체				
	• 15.06월	Blue Bloc 내 연정구성 협상 실패로 자유당 소수 정부 공식 출범				
	• 16.11월	자유당 라스무센 총리, 고소득층 감세를 둘러싼 Blue Bloc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자유동맹당, 보수당과의 연정 구성 ※ 제1당인 덴마크 국민당은 정부구성 불참 입장 견지				
	• 17.11월	지자체 선거 결과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좌파 연합 승리				
	• 18.05월	라스뢰케 라스무센 총리, 정부내 부분 개각 단행				
	• 19.06월	총선 실시,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1당으로 부상 중도좌파 야권(Red Bloc)이 정권 교체에 승리				
	• 19.06월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취임				
	• 20.11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위험으로 명크를 도살				
	• 21.04월	“명크 도살 사건에 대한 조사 위원회” 조사 시작				
	• 22.06월	명크 도살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보고서 발표 후 정국 혼란				
	• 22.10월	사회 자유당의 최후 통첩 후 프레데릭센 총리 조기 총선 발표				
	• 22.11월	총선 예정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34/206		1/180	10/141	10/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3

독일



1 보건 의료 현황

□ 인구 통계

● 독일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5.7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1.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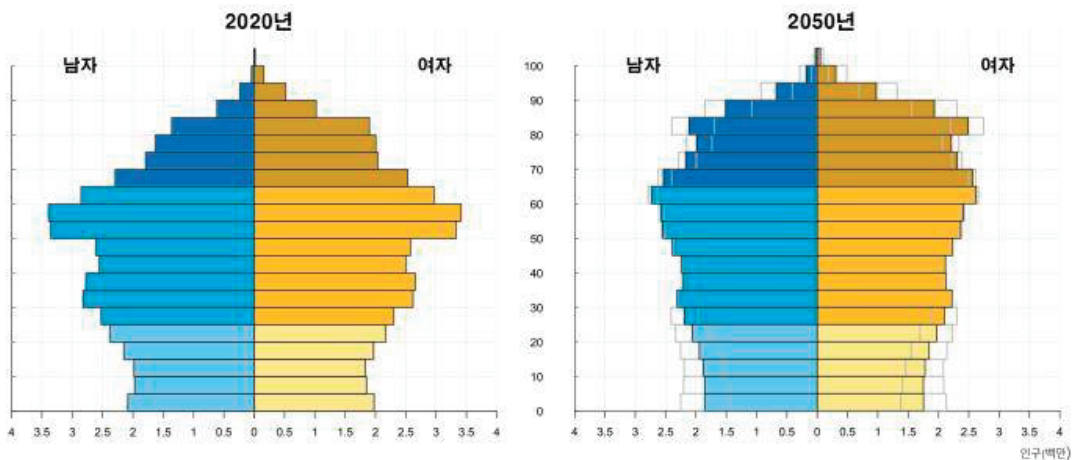
－ 독일의 도시화율은 77.453%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높음

<독일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83,784	45.7	21.7	77.453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독일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 독일의 기대수명은 81.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와 유사하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3.2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76.2%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7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38.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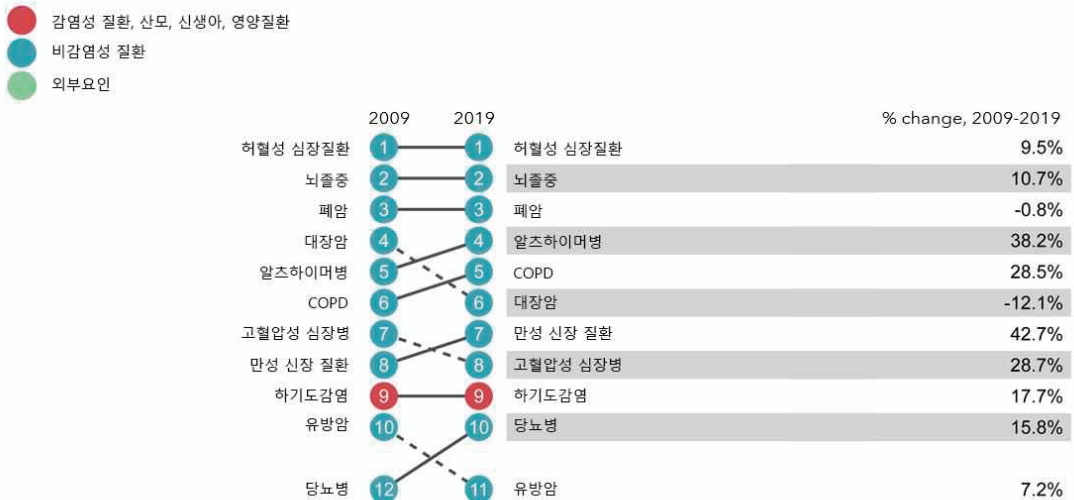
<독일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독일
기대수명(세)	81	81.4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3.2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7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독일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폐암 순이며, '09년 대비 만성 신장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성 질환도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독일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4.39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1.2배이며, 간호 인력은 13.49명으로 OECD 평균 10.4명의 1.3배에 해당함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7.91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1.8배 수준임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34.47대로 OECD 평균인 16.9대의 2.04배 수준이며, CT 장비 대수는 35.33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1.36배에 해당함

<독일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독일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4.39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13.49 (2018)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7.91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34.47 (2019)
	CT 스캐너	25.9	35.33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독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9.8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1.44배에 해당함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2.5%로 OECD 평균 8.8%의 1.42배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6,518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1.59배에 해당함
- 독일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12.7%로 OECD 평균인 19.8%의 64.1% 수준임

<독일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독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9.8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12.5 (2020)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	12.7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6,518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독일의 국민 1인당 의료비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에는 76.2%로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12.65%에서 '50년 9.21%로 3.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9.65%에서 14.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IHME

② 보건의료 체계

□ 의료전달체계

● 독일은 주치의제를 장려함

- 정부는 주치의제 참여를 유도하며, 주치의를 택하는 것은 자유로움¹⁴⁰⁾

● 1차 의료¹⁴¹⁾

- 1차 의료는 계약 의사(Vertragsarzt)에 의해 진행됨
- 개인 진료의 의사(niedergelassene Ärztinnen und Ärzte)는 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추가 진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 추천 가능
- 의원 간 환자 진료 교류를 독려함

● 2차 의료 및 3차 의료

- 2차 및 3차 진료에 대해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음
- 1차 의료에서 진료 의뢰서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함
- 입원 후 외래 진료가 필요하면 다시 의원에 가야 함
- 병세가 호전되면 환자를 다시 1차 의료로 보냄

● 의료전달체계에서 디지털 방식 도입¹⁴²⁾

-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진료 예약 시스템 도입과 의사의 최소 근무 시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및 환자 관리법(TSVG: Terminservice-und Versorgungsgesetz; 2019년 5월 발효)’이 통과됨
- ’20년부터 환자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전국 통일 긴급 전화번호(116117)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21년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음
- 의사들이 더 많은 상담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상담 횟수를 확대하고 이를

140) Federal Ministry of Health, Germany(BMG), The German healthcare system: Strong. Reliable. Proven (2020.04.30.)

141) Federal Ministry of Health in Deutschland, Doctor, Hospital, Pharmacy-Who does what in the German health system? (2016.02.23.)

142) 여나금, 이재은, (2022). 주요국의 보건의료정책 개혁 동향, 보건복지포럼 (검색일 2022.10.09.)

보험자-의사 간 계약에 반영하며 이에 대응하여 의사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함

- 디지털 의료법(DGV: Digitale Versorgung Gesetz)을 승인하여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 (DiGA)을 활성화하여 의사가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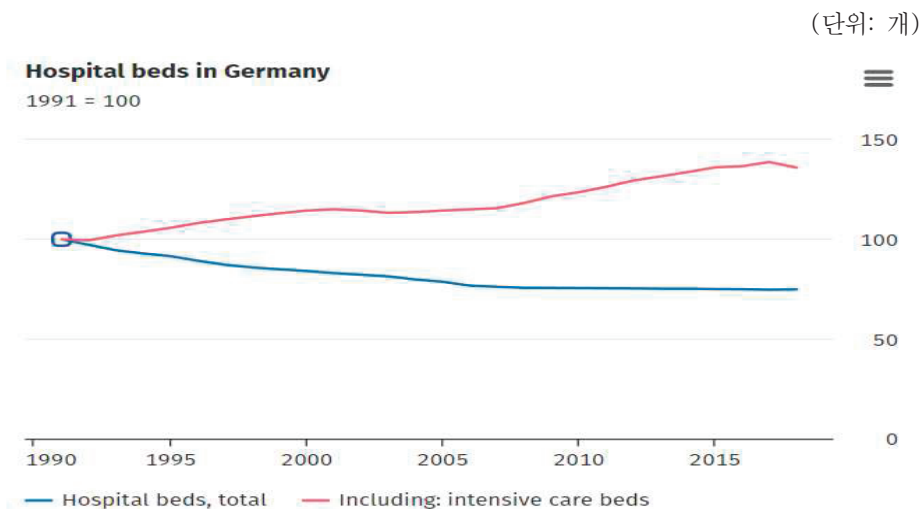
● '18년도 기준 독일의 병원은 1,927개소임¹⁴³⁾

- 독일의 의사 수는 '18년도 기준 약 360,000명이며, 주민 1,000명당 개업 의사의 비율은 4.3%임

● 병상 수¹⁴⁴⁾

- '91년 병상 수는 666,000병상에서 '18년에는 498,000병상으로 '91년에 비해 25% 감소함
- '91년에 비해 30년 동안 집중 치료 병상은 늘어나는 추세임
- 결국, 병상의 총수는 아래 그래프처럼 '91년에 비해 증가 추세

<병상 수 추이>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143) Federal Ministry of Health, Germany(BMG), The German healthcare system: Strong. Reliable. Proven (2020.04.30.)

144) Statistisches Fundsamt, Zahl der Intensivbetten in Deutschland von 1991 bis 2018 um 36 % gestiegen (2020.10.07.)

□ 건강보험체계

- 독일은 한국과 비슷한 건강보험방식인 NHI(National Health Insurance)를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은 공적 또는 민간건강보험에 의무가입이 원칙임¹⁴⁵⁾
- 보험자로는 직종별 공적 보험(직종별 6종류의 건강보험조합)과 민간보험이 있음¹⁴⁶⁾
 - 의무가입 범위는 정해져 있으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은 법정 보험 강제가입, 일정 소득 이상 국민과 공무원은 민간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음¹⁴⁷⁾
 - 공적 보험 가입자도 보충형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¹⁴⁸⁾
 - 공적 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의 14.6%로 높으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기에 병원에서 고지서를 대부분 따로 받지 않음¹⁴⁹⁾
- 연방정부, 연금보험, 실업보험, 고용청, 고용주, 가입자에 의해 건강 기금이 조달됨¹⁵⁰⁾
 - 각 질병 조합별로 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0%~1.3%)를 징수함

145) Krankenkassen-Zentrale, Gesundheit-Ernährung-Prävention- Absicherung (검색일 2022.10.08.)

1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외 출장(일본, 독일) 결과보고서, 2018 (검색일 2022.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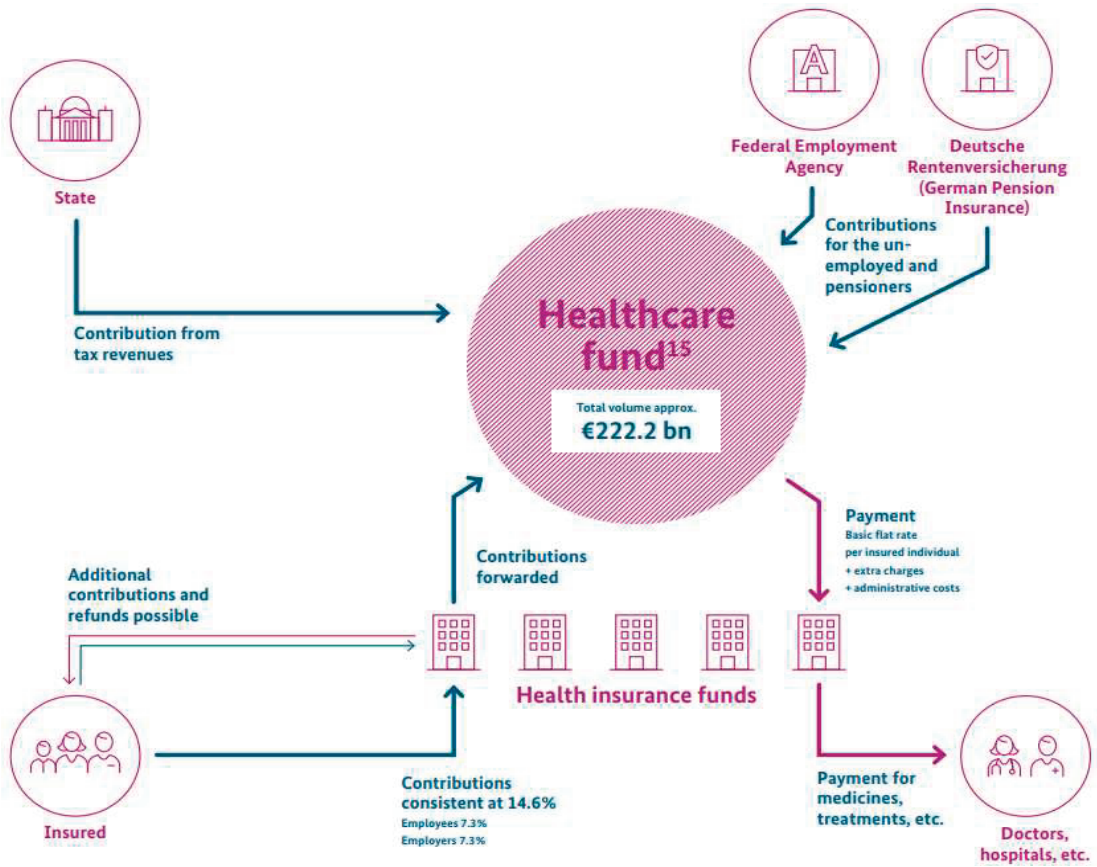
147) Krankenkassen-Zentrale, Private Krankenversicherung Anwartschaft - klein vs. groß (검색일 2022.10.08.)

148) Germany Visa, Health Insurance in Germany - The German Healthcare System (검색일 2022.10.08.)

149) The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 Profiles-Germany (2020.06.05.)

150) Federal Ministry of Health, Germany(BMG), The German healthcare system: Strong. Reliable. Proven (2020.04.30.)

<독일 건강보험 조달 체계>



자료: Federal Ministry of Health, Germany(BMG)

● 공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¹⁵¹⁾

- 보험 가입 의무 상한선 미만의 총소득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연금 생활자, 실업 수당 수령자는 의무가입 대상임
- 공보험의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함
- 총소득의 14.6%~15.6%이며, 일괄적으로 적용함
- 납부액의 상한선은 월 4,357.5유로임
- 자영업 시스템(Künstlersozialkasse)¹⁵²⁾
- 자영업자, 예술가, 작가, 언론인, 음악가 등을 위한 보험임

151) Krankenkassen-Zentrale, Gesundheit-Ernährung-Prävention- Absicherung (검색일 2022.10.08.)

152) Germany Visa, Health Insurance for Freelancers & Self-Employed Individuals in Germany (검색일 2022.10.08.)

- 고용주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고용주가 7.3%씩 각각 부담함¹⁵³⁾
- 각각의 보험사가 추가 요금을 부과할 때는 고용주만이 책임을 짐

● 사보험(Künstlersozialkasse(KSK) System)¹⁵⁴⁾

- 사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주의 총소득이 공보험 납부액의 상한선인 연 62,550유로가 초과하는 경우 사보험의 신청이 가능함
- 사보험은 공보험의 긴 대기 시간의 해결책이 되기도 함
- 보험 가입 의무 상한선 이상의 총소득에 해당하는 피고용자, 공무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 사보험 납부액은 소득과 상관없이 기존 질환 여부와 같은 건강 상태, 나이 및 보장 범위에 따라 결정되기에 보험금은 개별 피보험자마다 다름
- 공보험에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지만, 사보험을 선택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외국인 피보험자는 장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있을 예정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추가보험은 소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치과 보험(Zahnzusatzversicherung)이 대표적인

● 취약 계층 및 청소년에게 주로 본인 부담 지원 방식으로 지원함¹⁵⁵⁾

-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제도는 없고 보험료 지원, 본인 부담 지원 방식으로 지원함
- 장기실업자에게는 보험료 지원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본인 부담 면제방식으로 본인 부담을 지원함
- 의료비 과부담자와 만성 질환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본인 부담을 지원함

153) Krankenkassen-Zentrale., Paritätischer Beitragssatz - faire Finanzierung der Krankenversicherung (검색일 2022.10.08.)

154) Krankenkassen-Zentrale, Gesundheit-Ernährung-Prävention- Absicherung (검색일 2022.10.08.)

155) Helmholtz-Zentrum Dresden Rossendorf(HZDR), Health for all (검색일 2022.10.08.)

<독일 공보험과 사보험 비교>

구분	공보험	사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월 급여의 14.6%~15.6%이며, 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음	연령, 범위, 기존 질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연령의 상승은 보험료의 증가 원인이 됨
보험 내 가족 구성원 포함 여부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하며, 추가 비용이 필요 없음	부양가족을 건강보험에 포함하려면, 추가 비용이 존재함
기여금에 따른 보장금액 변화	보험료, 소득과 관계없음	보험 한도액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짐
신청 가능 요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일정 수준의 소득 이상인 개인, 프리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함
개인 병실 보험 여부	불가능	가능
기존 질환에 따른 보험료 차이	기존 질환에 따라 보험료가 변하지 않음	기존 질환에 따라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처방약 보장 여부	보장함	보장함
진료 대기 시간	긴 경향이 있음	공보험에 비해 짧은 경향이 있음

자료: GERMANY VISA 독일 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

● 기본적인 독일의 수가제도는 일차 의료, 전문의 외래 진료, 입원에 따른 수가 제도가 다름¹⁵⁶⁾

- 과거에는 총액계약제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등을 혼재하여 시행
- 입원진료에서는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를, 외래진료와 관련해서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s, FFS)를 적용하고 있음
- 외래진료의 경우 공보험 계약의사가 제공하는 의료급여의 수가는 단일평가적도

1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2020 (검색일 2022.10.09.)

(EBM einheitlicher Bewertungsmaßstab), 민영 건강보험의 계약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GOÄ(Gebührenordnung für Ärzte)의 적용을 받음¹⁵⁷⁾

- 일차 의료는 지역별로 행위별수가제(FFS) 수가가 산정되며, 분기별로 제공가능한 의료서비스 수가 제한됨¹⁵⁸⁾
 - 이는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경쟁, 소모,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임
 - 독일의 일반의들은 주로 인두제와 환자당 일괄 지급방식(lump-sum payment)으로 비용을 보상받으며, 분기별로 제한된 의료서비스 행위를 초과하면 FFS 만큼 비용이 삭감됨
- 입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DRG¹⁵⁹⁾¹⁶⁰⁾를 기반으로 비용이 산정되며, 고도로 전문화되고 값비싼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이용할 시 추가적 비용이 계상됨¹⁶¹⁾
 - DRG 비용은 기본수가에 병원별로 부여된 기준율을 곱하는 형태로 진료비 산출하며, 기본 수가는 병원 보상체계연구소(Institut für das Entgeltsystem im Krankenhaus; InEK)에서 결정하도록 함
- InEK 연방건강보험조합연합회, 민간건강보험연합회, 독일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치기구로서, 새로운 진단방법 및 치료방법이 개발된 경우 InEK가 해당 기술에 대한 추가보수지급을 책정하고, 신청한 병원에 한 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샤리테-베를린 의과 대학	• 1710년에 설립되어 페스트 전염병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호스피스로 사용하며 시작
Charité-Universitätsmedizin Berlin	• 1997년에 "Rudolf-Virchow-Klinikum"과 "Charité" 의학학부가 합병하여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의학학부 Charité"가 형성

157) 윤진아, (2021). 신의료기술평가체계의 개선방안 연구-독일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검색일 2022.10.09.)
 158) Tikkanen, Osborn, Mossialos, Djordjevic, Wharton, (2020)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 Profiles-Germany, The Commonwealth Fund. (검색일 2022.10.09.)
 159) 독일은 2000년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입원환자 진료비를 총액계약제 체계에서 포괄진료비제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독일의 포괄수가제 명칭은 Fallpauschalen-Katalog 라고 함.
 160) 윤진아, (2021). 신의료기술평가체계의 개선방안 연구-독일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검색일 2022.10.09.)
 161) Tikkanen, Osborn, Mossialos, Djordjevic, Wharton, (2020)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 Profiles-Germany, The Commonwealth Fund. (검색일 2022.1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에 샤리테는 창립 300주년을 맞음 -벤자민 프랭클린 캠퍼스- • 1948년에 설립되어 1994년 미국의 도움으로 신축하여 병원 이름을 "Benjamin Franklin University Hospital"(UKBF)로 변경 • 약 1,200개의 병상과 36개의 과학시설이 있으며, 2003년 UKBF는 Charité와 합병
	<div>범위 내 병원에 대한 수수료율</div> <div>https://www.charite.de/fileadmin/user_upload/portal/klinikum/behandlung_stationaer/Entgelttarif.pdf</div>
MHH 클리닉-하노버 의과대학 Medizinische Hochschule Hann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년 12월에 하노버에서 의과대학 설립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1965년 첫 학기가 시작함 • 8,499명의 직원, 151개의 클리닉, 연 매출 8억 6천만 유로, 연간 외래환자 272,556명, 입원환자 57,100명
	<div>DRG 및 PEPP 수수료 및 치료비 관세</div> <div>https://www.mhh.de/fileadmin/mhh/patientenportal/220201_DRG_Entgelt-_und_Behandlungskostentarif.pdf</div>
University Hospital Bonn (Das Universitätsklinikum Bonn(UK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versity Hospital Bonn은 최상의 외래 및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최대 치료 제공자 • 매년 약 350,000명의 외래환자와 50,000명의 입원환자 및 40,000명의 응급환자가 환자 치료 • 의사부터 간호사, 치료사, 기술 직원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약 8,300명의 직원이 38개 클리닉, 31개 기관 및 관리에서 긴밀히 협력
	<div>PEPP 수가 2022</div> <div>https://www.ukbonn.de/site/assets/files/29119/01072022_pepp_entgelttarif_ukb.pdf</div>
사나 클리닉 SanaKliniken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37개의 급성 병원, 3개의 심장 센터, 5개의 정형외과 전문의, 3개의 재활 클리닉 보유 • 30억 유로의 매출, 연 2백만 명의 환자, 34,600명의 직원
	<div>DRG 수가</div> <div>https://www.sana.de/media/Kliniken/offenbach/2-gut-zu-wissen/fuer_patienten/DRG-Entgelttarif_und_PEPP.PDF</div>
RKH 지역 클리닉 RKH Regionale Klini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병원 체인으로 6개의 급성 치료 클리닉, 정형외과 전문 클리닉, 노인 재활 클리닉 보유, 총 2,522개 병상 • 2021년 기준 259,709명의 외래환자, 92,338명의 입원환자
	<div>DRG 수가</div> <div>https://www.rkh-gesundheit.de/fileadmin/user_upload/Aufenthalt/Stationaere_Patientenaufnahme/DRG-Entgelttarif_OKM.pdf</div>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독일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5,167억 8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6,159.5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6.88% 감소해 4,81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92% 성장해 6,525억 7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6.86% 감소해 '22년 5,737.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06% 성장해 '26년 7,822.4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12.13%에서 '26년 11.8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84.89%에서 '26년 84.88%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15.11%에서 '26년 15.1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독일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485.315	516.782	481.252	518.678	553.035	599.040	652.566
연간 성장률	7.46	6.48	-6.88	7.78	6.62	8.32	8.94
1인당 의료비	5,792.5	6,159.5	5,737.1	6,191.4	6,612.4	7,172.8	7,822.4
GDP 대비 의료비 비율	12.51	12.13	11.76	11.62	11.66	11.76	11.84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85.05	84.89	84.92	84.94	84.94	84.92	84.88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14.95	15.11	15.08	15.06	15.06	15.08	15.12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에는 1,903개의 병원이 있고 1,680만 환자와 1,216억 유로(1198.7억 달러)의 병원비를 기록하였음¹⁶²⁾
 - '21/22년 전기 대비 병원비 6.07%, 인건비 6.10%, 재료비는 6.04%로 증가하였음
- '21년에는 법정 건강보험(GKV) 총지출의 30.1%에 해당하는 859억 유로(846.8억 달러)가 병원 부문에 지출되었으며 이는 모든 서비스 영역 중에서 가장 크며 약품 지출 영역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함¹⁶³⁾
- 독일 병원 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는 '20년 총 1,903개의 병원이 있고 공립병원 551개, 비영리 병원 620개, 사립병원 732개 등으로 구성되었음¹⁶⁴⁾
 - 총 병상 수는 487,783개로 공립병원 232,163개, 비영리 병원 158,536개, 사립병원 97,084개 등으로 구성되었음
- RWI 라이프니츠 경제 연구소와 의료 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팬데믹 2년 후인 '22년 독일 클리닉 1,900개 중 60%가 올해 적자를 내고 20%가 파산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독일 병원 협회는 이미 연방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음¹⁶⁵⁾
 -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총 비용 증가율은 13%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높음
 - 독일의 병원은 '20년 이후로 약 216억 유로(212.9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는 전염병에 대한 보호 조치와 무료 병상 제공에 따른 것으로 '22년 4월 종료되었음
 - 병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원환자 수가 '17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년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입원환자 수가 13.5% 감소했으며 '21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였음
- 독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이 의무 사항으로 인구 대다수인 88.3%가 공공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0.5%는 민간 공급자를 선택하고 있음¹⁶⁶⁾

162)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Gesundheit/Krankenhaeuser/_inhalt.html (검색일 2022.10.09.)

163) https://www.vdek.com/presse/daten/d_ausgaben_krankenhaus.html (2022.09.20.)

164) <https://www.dkgev.de/service/zahlen-fakten/> (검색일 2022.10.09.)

165) Handelsblatt, Leere Betten, leere Kassen: 60 Prozent der Kliniken schreiben rote Zahlen (2022.06.23.)

166) <https://www.gtai.de/en/invest/industries/healthcare/healthcare-market-65626> (검색일 2022.10.10.)

- '20년에 독일에는 105개의 공립 및 42개의 민간 건강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 민간 병원의 비중은 '96년 17.6%에서 '18년 37.5%로 증가하였음
- 독일의 건강보험(SHI)은 입원환자, 외래환자, 정신 건강 및 처방약 보장을 제공하며 질병 기금으로 알려진 비정부 보험사가 관리하고 있음¹⁶⁷⁾
 - 질병 기금은 일반 임금 기여금(14.6%)과 전용 추가 기여금(평균 임금의 1%)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하고 있음
 - \$68,000 이상을 버는 독일인은 SHI에서 탈퇴하고 대신 민간 건강보험(PHI)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없음

□ 제약산업

- 독일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864억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1,029.8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62% 감소한 815억 3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14% 성장해 1,114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5.62% 감소한 '22년 971.9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28% 성장해 '26년 1,336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2.03%에서 '26년 2.02%로 비교적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6.7%에서 '26년 17.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67) <https://www.commonwealthfund.org/international-health-policy-center/countries/germany> (2020.06.05.)

<독일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76.743	86.399	81.526	87.887	93.843	101.919	111.455
연간성장률	6.71	12.58	-5.64	7.80	6.78	8.61	9.36
1인당 의약품비	916.0	1,029.8	971.9	1,049.1	1,122.0	1,220.4	1,336.0
GDP 대비 의약품 비율	1.98	2.03	1.99	1.97	1.98	2.00	2.02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15.8	16.7	16.9	16.9	1.7	17.0	17.1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에는 '16년 기준 580개의 제약회사가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독일 지사도 포함되며 기업 중 대다수(약 92%)는 500명 미만을 고용하며 총 13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약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¹⁶⁸⁾
 - '17년에 306억 유로(301.6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생산하였으며('16년 대비 +4.7%), 754억 유로(743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하였으며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었고 527억 유로(519.5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독일로 수입되었음
 -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Expertenkommission für Forschung und Innovation, EFI)에 따르면 제품 매출의 14%를 R&D 프로젝트에 지출하고 있음
- '21년 의약품 수출액은 1,02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하며 독일 수출품 중 상위 5위안에 들었음¹⁶⁹⁾
 - 독일 제약회사의 전체 성장률은 5.2%로 '20년보다 0.7%p 높아졌으며 '23년 까지 증가 속도가 2.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 없는 값싼 모조의약품인 제네릭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배송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¹⁷⁰⁾

168) Pharma-Fakten, Die Pharmaindustrie in Deutschland - ein Porträt (2019.01.23.)

169) <https://atradius.de/presse/asiens-pharmaindustrie-erh%C3%B6ht-druck-auf-dt.-unternehmen.html> (검색일 2022.10.09.)

170) tagesschau, Engpässe bei günstigen Arzneimitteln (2022.06.07.)

- '20년 건강에 지출된 4,410억 유로(4,347억 달러) 중 68억 유로(67억 달러)가 의약품에 사용되었으며, 처방된 약의 거의 80%가 제네릭으로 이 의약품은 기본적인 치료를 보장하지만, 약품 비용의 9%만 차지하고 있음
- '21년 기준으로 독일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775억 3천만 달러로 전체의 89.7%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88억 7천만 달러로 10.3%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525억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67.7%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50억 3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29%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32.3%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7% 감소한 731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해 1,015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3% 감소한 84억 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해 99억 3백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1% 감소한 498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8% 성장해 698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6.9% 감소한 232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0% 성장해 317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처방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일반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으며, 처방 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성장률이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독일 제약시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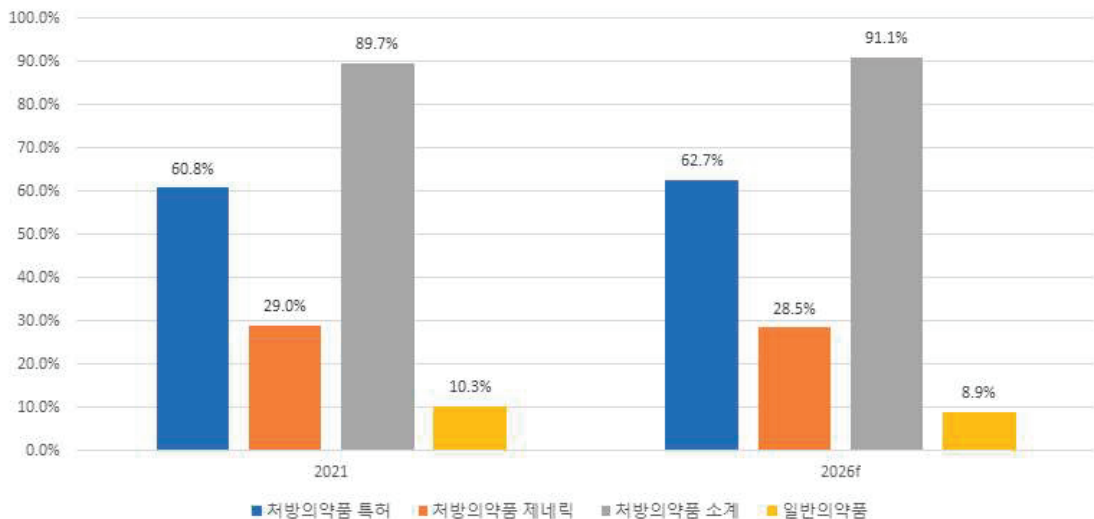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45.577	52.497	49.833	54.026	58.037	63.433	69.830
	제네릭	23.223	25.030	23.293	25.104	26.787	29.057	31.722
	소계	68.800	77.527	73.126	79.130	84.824	92.490	101.552
일반의약품		7.943	8.873	8.401	8.756	9.020	9.429	9.903
합계		76.743	86.399	81.526	87.887	93.843	101.919	111.455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89.7%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91.1%로 증가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10.3%에서 8.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60.8%에서 '26년 62.7%로 증가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29.0%에서 '26년 28.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독일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1,134억 3천만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756억 2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 흑자가 378억 1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3.26% 감소한 1,097억 4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3.6%의 성장을 보여 1,825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2.64% 감소한 736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1.8%의 성장을 보여 1,149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독일의 무역흑자는 '22년 361억 1천만 달러에서 '26년 675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독일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94,785.80	113,434.23	109,737.89	123,503.88	138,244.10	157,995.96	182,509.07
연간성장률	9.88	19.67	-3.26	12.54	11.94	14.29	15.52
의약품수입	63,584.70	75,620.34	73,623.39	82,607.01	91,427.62	102,404.29	114,955.24
연간성장률	15.60	18.93	-2.64	12.20	10.68	12.01	12.26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독일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2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4.7% 증가하였고 '16년부터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독일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17년부터 '21년까지 적자를 기록함

<독일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689,061	756,168	817,371	889,504	917,343	1,314,796
의약품 수입	71,987	1,292,806	1,360,635	1,488,749	1,087,186	2,008,062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⁷¹⁾

- 독일은 '20년 12월 독일 제조업체인 BioNTech의 백신 Comirnaty[®]가 미국 그룹 화이자(Pfizer)와 협력하여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음¹⁷²⁾
 - '21년 1월에는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3월에는 존슨앤존슨, 12월에는 노바백스가 EU에서 승인되었으며 '21년 1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용이 중지되었음
 - '21년 6월부터 기업병원과 개인 클리닉에서도 접종을 시행하였고, '21년 10월에는 보건 당국과 병원, '22년 2월부터는 공공약국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음
- '22년 10월 16일까지 2억 1,600만 도즈가 예방 접종 센터, 이동 예방 접종 팀, 의료기관, 회사 의사 및 약국에 백신을 배달되었으며 이 중 86.7%가 접종에 사용되었음¹⁷³⁾
 - 배송된 2억 1,600만 도즈(610만 회분은 오미크론 2가 백신)를 제조사별로 보면 바이오테크/화이자 1억 5,690만 도즈, 모더나 3,740만 도즈, 아스트라제네카 1,440만 도즈, 존슨앤존슨 540만 도즈, 노바백스 190만 도즈 발네바 7만 3천 도즈 등임
- EU는 모든 회원국을 대신하여 7개의 다른 백신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백신을 확보하였으며, 독일 연방정부는 '21년 3월 백신 생산 태스크포스 (Taskforce Impfstoffproduktion, TIP)를 출범시켰으며 TIP는 코로나19 백신의 적시 생산 및 배포에 기여하는 모든 관련 행위자를 조정하였음¹⁷⁴⁾
- '22년 3월 독일 내각은 '29년까지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5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29년까지 최대 28억 6,100만 유로(28.2억 달러)의 비용을 예상함¹⁷⁵⁾
 - 계약할 회사는 BioNTech, CureVac/GSK 컨소시엄, Wacker/CordenPharma 컨소시엄, Celonic 및 IDT Dessau 등임
- 독일은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COVAX를 통해 약 1억 1,900만 도즈의 백신을 기증했으며 또한 양자 간 협약으로 이집트, 가나, 나미비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에 총 800만 도즈를 기부하였음¹⁷⁶⁾

171)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9.)

172) <https://www.zusammengegencorona.de/faqs/impfen/impfstoffverteilung/> (검색일 2022.10.10.)

173) <https://impfdashboard.de/> (검색일 2022.10.21.)

174) <https://www.infektionsschutz.de/coronavirus/fragen-und-antworten/impfpflicht-rechtliche-fragen-impfquoten-und-impfstoffverteilung/impfstoffverteilung-und-logistik/> (검색일 2022.10.10.)

175)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Kabinett beschließt Verträge für Impfstoffversorgung im Pandemiefall (2022.03.16.)

- 독일은 '20년 4월에 시작한 백신 배포를 위한 ACT-A(COVID-19 Tools Accelerator)에 참여하여 30억 유로를 지원하는 두 번째로 큰 기부 국가임

<독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10월 21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83.90	561	561	224.50	73.14%	2.77%	77.7%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¹⁷⁷⁾, Our World in Data¹⁷⁸⁾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독일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325억 4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387.8 달러로 추정됨
- 독일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4% 성장한 342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36% 성장해 472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42% 성장한 408.8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51% 성장해 566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독일 의료기기 시장 전망_Fitch Solutions>

(단위: 달러)

구분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32,538.2	34,294.0	38,440.5	42,221.1	45,078.4	47,214.4
1인당 의료기기	387.8	408.8	458.9	504.8	539.8	566.0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176) Auswärtiges Amt, Corona: Deutscher Einsatz für faire Impfstoffverteilung (2022.08.31.)

177)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21.)

178)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21.)

- 독일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료소모품과 기타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1%, 23.5%로 가장 높음

<독일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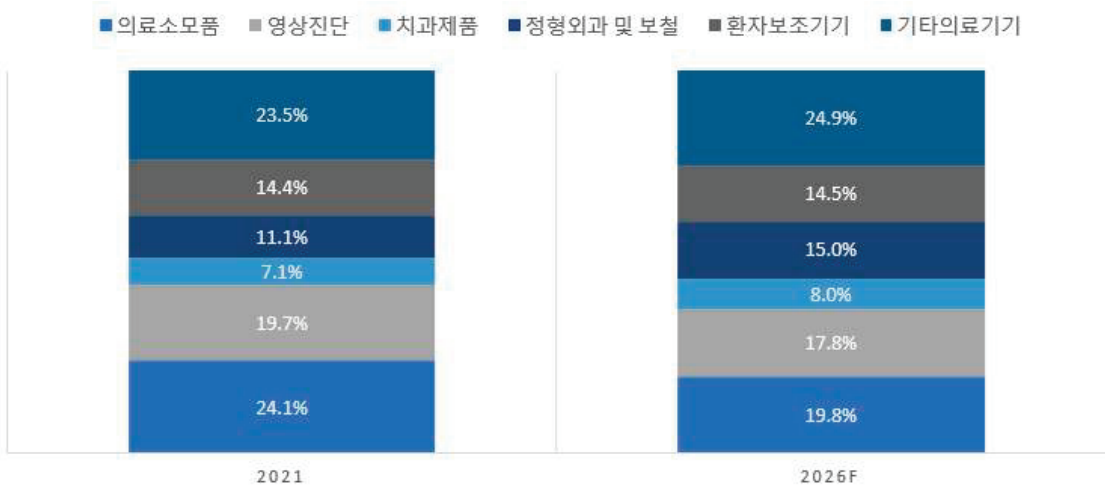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6,563	7,854	7,245	7,793	8,456	8,977	9,354
영상진단	6,067	6,414	6,546	7,163	7,737	8,138	8,390
치과제품	2,455	2,304	2,648	3,032	3,356	3,599	3,786
정형외과 및 보철	4,324	3,623	4,607	5,439	6,133	6,665	7,094
환자보조기기	4,490	4,698	4,946	5,565	6,111	6,523	6,838
기타의료기기	7,430	7,645	8,302	9,450	10,428	11,177	11,752
합계	31,328	32,538	34,294	38,440	42,221	45,078	47,214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정형외과 및 보철(14.62%)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소모품의 연평균성장률은 3.74%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정형외과 및 보철의 구성비율은 3.89% 증가한 15.0%인 반면, 의료소모품은 4.33% 감소하여 19.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독일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독일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의료기기 시장이며 유럽 최대 시장으로 프랑스 시장의 2배,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의 3배 규모임¹⁷⁹⁾
 - 연간 약 358억 달러(유럽 전체 시장의 25.6%)를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의료 시장 중 하나임
- 독일에는 12,000개의 의료기기 회사가 있으며¹⁸⁰⁾ 세계적 규모의 업체도 있으나 중소 의료기기 업체가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¹⁸¹⁾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독일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214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1% 증가하였음
 - 팬데믹 영향에도 '20년에 의료기기 수입과 수출은 증가하였고 '21년에는 수입과 수출의 성장세가 더욱 커졌음

<독일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액	15,923,134	16,462,847	17,766,986	18,326,200	19,321,491	21,458,151
수출액	24,454,081	25,852,441	28,050,613	28,771,010	28,950,054	32,535,073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⁸²⁾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독일의 의료기기 수입은 '21년에 전년 대비 14.8% 증가한 25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57.8% 증가한 36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함

<독일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기기 수입	18,844,453	20,436,943	20,882,974	22,191,727	25,471,911
의료기기 수출	29,137,671	31,461,396	32,085,310	23,251,055	36,679,799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179)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germany-healthcare-and-medical-technology> (검색일 2022.10.10.)

180) <https://www.gtai.de/en/invest/industries/healthcare/healthcare-market-65626> (검색일 2022.10.10.)

181) <https://www.emergobyul.com/resources/market-germany> (검색일 2022.10.10.)

182)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9.)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및 기타의료기기가 각각 27.2%, 2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47.26%를 차지했음
- 영상진단은 세 번째로 크고, 환자보조기기, 정형외과 및 보철,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1년에는 치과제품이 큰 증가세를 보였음

<독일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소모품	4,797,982	5,284,987	5,090,099	5,687,221	6,928,719
영상진단	2,582,125	3,110,668	3,524,235	4,225,788	4,942,512
치과제품	1,209,553	1,202,354	1,140,048	1,075,517	1,561,969
정형외과 및 보철	2,652,316	2,846,169	2,994,612	2,708,907	3,135,527
환자보조기기	3,148,361	3,121,646	3,176,483	3,438,165	3,793,312
기타의료기기	4,454,116	4,871,119	4,957,497	5,056,129	5,109,872
합계	18,844,453	20,436,943	20,882,974	22,191,727	25,471,911

자료: Fitch Solutions - German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독일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1억 9천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8.78%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24.2% 증가하였으며 영상진단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독일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검사기기)	81,350.7	86,122.3	99,794.2	108,432.4	93,624.2	116,814.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9 (치료기기·호흡기기)	4,282.3	4,563.5	4,830.0	3,243.3	3,043.7	3,231.7
9020 (기타 호흡기기)	552.4	703.3	608.6	560.4	375.9	424.6
9021 (정형외과용)	13,797.3	15,664.1	18,858.5	18,360.1	16,562.6	17,079.9
9022 (영상진단)	26,852.0	30,469.7	32,721.2	37,780.2	37,797.3	50,423.8
합계	126,834.7	137,522.8	156,812.5	168,376.4	151,403.6	187,974.1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⁸³⁾

- '22년 6월부터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조례가 수정되었으며 무증상자에 대한 무료 검사가 중단되었으나 특정 조건(감염자, 병원 및 요양시설 방문자 등)에서 시민은 여전히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위험 노출의 경우(예: 실내 행사, 콘서트, 극장, 결혼식 등)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¹⁸⁴⁾
- 무증상자만 신속 검사 센터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며 유증상자는 진료실이나 병원(입원의 경우)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함¹⁸⁵⁾
- ALM eV(연방 공인 의학 연구소 연합)은 독일 전역의 183개 실험실이 자료 수집하고 있으며 코로나 테스트의 90%를 담당하고 있음¹⁸⁶⁾
 - 참여 실험실은 주당 약 2,510,000개의 PCR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
- 특정 조건의 이외의 사람들은 11.9~14.9유로(11.7~14.7달러)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음¹⁸⁷⁾
 - PCR 검사 비용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무료이며 일반 PCR 검사 49.9~59유로(49~58달러), 당일 결과 PCR 검사는 99.9~129유로(98.5~127달러), 3시간 결과 PCR 검사는 169.9~199.9유로(167~197달러) 등임

183)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9.)

184)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coronavirus/nationale-teststrategie/faq-covid-19-tests.html>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corona-test-verordnung-2004912> (검색일 2022.10.11.)

185) <https://www.kreis-kleve.de/de/fachbereich5/informationen-zu-corona-tests-und-ergebnissen/> (검색일 2022.10.11.)

186) <https://www.corona-diagnostics.de/daten-fakten/> (검색일 2022.10.11.)

187) <https://schnelltestberlin.de/> <https://www.covidtestcenter-berlin.de/pcr-anmeldung/>
<https://www.covidtestcenter-berlin.de/termin-buchung/> (검색일 2022.10.11.)

<독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6월 12일 기준

총검사수 (2022년 10월 20일 기준)	인구 1천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144,329,247	1,574.02	1.06

자료: Our World in Data¹⁸⁸⁾, Das Robert Koch-Institut¹⁸⁹⁾

- 독일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229억 1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19.28% 성장하고 있음
- HS코드 382200(PCR)키트가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 보다 수입 규모는 적지만 성장률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독일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8,731.55	9,619.43	9,996.78	12,170.61	16,330.85
382200 (PCR)	2,722.09	2,933.67	3,001.34	2,864.69	4,574.89	6,579.71
합계	2,722.09	11,665.22	12,620.77	12,861.47	16,745.50	22,910.56

자료: UN Comtrade Database¹⁹⁰⁾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독일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원격 의료)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38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8.64% 성장하여 58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¹⁹¹⁾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nit, ARPU)은 55.39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188)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21.)

189)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Daten/Testzahlen-gesamt.html (검색일 2022.10.21.)

190)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9.)

191)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germany> (검색일 2022.10.11.)

- '19년 12월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한 더 나은 진료를 위한 법률(Digitale Versorgung Gesetz, DVG)이 발효되었음¹⁹²⁾

디지털화 및 혁신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 (Digitale Versorgung Gesetz, DVG) ¹⁹³⁾	
발표	2019년 12월
비전 및 목표	모든 곳에서 치료를 위한 의료 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환자의 이익을 위해 독일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들은 더 빠르게 헬스케어 앱을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앱을 사용하여 의사가 처방할 수 있으며 법정 건강보험이 이를 지불함 • 의료 시스템의 혁신적 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혁신적인 치료 접근 방식의 혜택을 받도록 함 • 보건 분야의 의무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환자 파일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약국(2020년 9월 말까지)과 병원(2021년 1월 1일까지)을 텔레매틱스 인프라(TI)에 연결하도록 의무화함 • 온라인 화상상담 일상화 • 종이 사용의 종식 • 보건 서비스 연구의 개선된 결과 • 의사와 치과의를 위한 IT 확보 • 디지털화에 대한 평등한 참여 • 의료시스템 네트워킹

- '19년 12월 디지털 의료법(DVG)통과로 독일의 의료 산업은 대규모 디지털화를 겪고 있으며 '25년까지 독일 디지털 헬스 시장은 570억 유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¹⁹⁴⁾

-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itale Gesundheitsanwendungen, DiGA)을 법정 건강 시스템으로 가져오기 위해 "패스트 트랙"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한 7,300만 독일인(90%)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192)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Ärzte sollen Apps verschreiben können (2020.04.22.)

193)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en/digital-healthcare-act.html> (검색일 2022.10.11.)

194) <https://www.gtai.de/en/invest/industries/healthcare/digital-health-64408> (검색일 2022.10.11.)

액세스할 수 있음

● 독일에서 약 200개의 원격의료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이 중 원격 뇌졸중 장치는 300개 이상의 병원이 뇌졸중 단위 인증을 받았으며, 병원에 입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서 뇌졸중에 대한 고품질의 포괄적인 의료를 보완할 수 있음
- 심부전 관리 스마트 솔루션은 연평균 16%의 성장을 보이며 '22년 2억 9,680만 유로(2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며, 당뇨병 관리 스마트 솔루션은 연평균 27%의 성장하며 '22년 9,830만 유로(9,690만 달러)의 매출이 전망됨

● '19년 말 디지털 건강 관리법(DVG)이 통과되어 유럽 최대 의료 시장이 디지털화의 선두 주자가 되는 촉매제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22년 1월 기준 DiGA 건강 관리 제품 디렉토리에 등재된 건강 앱은 28개에 불과하며 전자 처방은 연간 전체 처방 4억 4천만 건 중 약 45,000건에 불과함¹⁹⁵⁾

- 디지털 건강 관리법은 국내 기업의 도구가 독일 시장에만 적합하도록 장려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유럽 시장과 단절될 위험이 있음

● 독일 일반 개업의의 90% 이상이 독일 디지털 의료시스템의 중추인 텔레매틱스 인프라에 연결되어있으며 이런 평균 이상의 연결 비율은 개인 진료의 젊은 의사, 50세 이하의 심리 치료사, 중대형 가정의학 진료에서 발생함¹⁹⁶⁾

- 그러나 외래 의사와 병원 간의 의사소통의 95%는 여전히 종이 기반임
- 원격의료 상담은 '19년 3,000건 미만에서 '20년에는 270만 건으로 900배 증가하였음
- '19년 가을과 '21년 여름 사이에 상위 40개 e-health 앱의 다운로드 수는 240만 회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인기 카테고리는 온라인 진료 예약이었으며 '21년 2분기에 상위 5대 전자 건강 앱은 400,000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는 '19년 2분기보다 10배 증가한 수치임

● 병원 미래법(Krankenhauszukunftsgesetz, KHZG)은 병원 미래 기금을 설정함으로써 병원이 디지털화 및 IT 보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며 연방 및 주 정부는 투자 자금으로 43억 유로를

195) sifted, European healthtech needs stronger medicine than Germany's weak digital law (2022.02.28.)

196) McKinsey & Company, Germany's e-health transformation makes uneven progress (2022.03.15.)

제공하고 있음¹⁹⁷⁾

- '19년 4월부터 원격 상담도 건강보험(SHI) 기금으로 청구가 되며 '20년 7월부터 진단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¹⁹⁸⁾
- '21년에 벤처 캐피털 펀딩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는 원격의료로 베를린 피부과 헬스테크 Formel Skin이 300억 유로를 모금하여 부문 기록을 세웠음¹⁹⁹⁾
- Formel Skin은 여드름 및 기미와 같은 피부 상태를 원격으로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함

□ 의료관광

- Bonn-Rhein-Sieg의 연구에 따르면 '20년에 해외에서 온 65,586명의 환자가 독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한 수치임²⁰⁰⁾
- 외래 진료는 약 145,000건에서 약 97,000건으로 감소하며 매출의 크게 떨어졌으며 '19년 외국인 환자의 수익은 약 12억 유로에 달했으나 '20년에는 약 8억 유로에 불과했음
- 팬데믹 이전 외국인 환자는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왔으나 '20년에 이들 3개국 출신 의료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음(러시아는 -62%, 우크라이나 -24%, 카자흐스탄 -32%)
- 독일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지역은 바이에른(Bayern)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등임
- '20년 177개국에서 독일을 방문했으며 유럽연합의 폴란드('20년 10,400명 이상)와 네덜란드(5,800명 이상)에서도 자주 독일 클리닉을 방문하였음
- 의료관광객 수가 급감으로 인해 국영병원그룹이 '22년 3월 말 국제환자 중앙부를 폐쇄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등 해외 환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²⁰¹⁾

197) <https://www.pwc.de/de/gesundheitswesen-und-pharma/krankenhaeuser/digitalisierung-im-krankenhaus.html> (검색일 2022.10.11.)

198) https://www.gleisslutz.com/en/telemedicine_on_the_rise.html (검색일 2022.10.11.)

199) Markets Germany, Telemedicine Trending in German Start-Up Ecosystem (2022.05.10.)

200) Turystyki Medycznej zabronione, Turystyka medyczna w Niemczech w świetle ostatnich danych (2022.10.18.)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환자(전쟁 부상자 등)가 중기적으로 독일에 다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의료관광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매년 177개국에서 온 약 250,000명의 의료관광객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10만 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기에는 여행 중 우발적인 입원도 포함되며 계획된 치료는 약 40~45%를 차지함²⁰²⁾
- 치료를 위해 독일어권 국가에 방문하는 환자는 더 나은 치료와 원하는 의료 및 기술 장비, 본국의 긴 대기 시간 등의 이유로 오고 있음
- 수요가 많은 진료 분야는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로 인해 종양학 부서는 우크라이나, 독립 국가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 및 발트해 연안 국가의 환자들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근골격계 및 안과 치료를 희망하는 걸프만 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등임

독일 MEDICAL TOURISM INDEX 2020-2021 ²⁰³⁾			
글로벌 랭킹	대상국 환경	의료관광 산업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12/46	8/46	36/46	7/46

- 한국을 방문하여 한방 병·의원 진료를 받은 독일 환자는 '21년 총 22명으로 '09년 73명에서 연평균 9.6% 감소했음²⁰⁴⁾

□ 화장품

- Statista에 따르면 독일의 '21년 퍼스널케어 제품 및 향수의 생산 산업 매출은 58억 유로(57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약 25억 유로(24.6억 달러)였음²⁰⁵⁾
- 독일의 화장품 및 바디 케어 제품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40억 유로에 달하며,

201) kma Online, Medizintourismus in Deutschland vor dem Aus? (2022.04.21.)

202) PRIMO MEDICO, Medizintourismus - Trend, Statistik und Chancen für Kliniken (검색일 2022.10.11.)

203) <https://www.medicaltourism.com/destinations/germany> (검색일 2022.10.12.)

2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2022.06.24.)

205)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56917/umfrage/umsatz-der-deutschen-kosmetik-und-koerperpflegeindustrie/> (검색일 2022.10.12.)

메이크업 화장품과 향수는 바디케어 제품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은 약 25,000명을 고용하고 있음²⁰⁶⁾

- 산업 매출의 4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퍼스널 케어 및 향수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영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등임

● 독일 화장품의 해외 수요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독일 화장품 산업의 '21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81억 유로를 기록하였음²⁰⁷⁾

- 증가의 원인은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및 중국과 같은 국가의 소비자 수요가 크게 회복되었기 때문이지만 아직 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함
- 독일 화장품 산업 협회(Industrieverband Koerperpflege- und Waschmittel e. V., IKW)의 회원사인 약 430개 제조사가 있는 독일 국내 사업은 '21년에 187억 유로 (184억 달러)로 '20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부문별로 보면 전년 대비 메이크업 -7.2%, 향수 -5.6%, 헤어 케어 -2.4%를 기록하였음

● 독일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5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2.40%의 성장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향수·화장수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87억 4천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3.39% 성장하였음

206) <https://de.statista.com/themen/25/kosmetik/> (2021.11.16.)

207) Lebensmittel Praxis, Kosmetikindustrie trotz Corona (2021.12.09.)

<독일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1,698.43	1,818.72	1,876.21	1,736.38	1,320.32	1,566.72
3304 (기초·색조)	2,243.13	2,522.07	2,720.47	2,608.84	2,249.51	2,582.82
3305 (두발용)	592.63	671.46	686.03	707.25	740.65	836.19
3307.10 (면도용)	88.88	88.52	90.58	70.55	63.49	63.94
3307.20 (데오드란트)	204.51	216.67	248.03	239.35	202.27	221.99
3307.30 (입욕제)	75.68	73.45	74.81	75.91	78.58	80.20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237.41	267.84	283.85	263.52	281.69	292.48
합계	5,140.67	5,658.72	5,979.98	5,701.79	4,936.51	5,644.33

자료: UN Comtrade Database²⁰⁸⁾

- 독일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4천 7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²⁰⁸⁾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9.)

<독일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952.8	127.3	103.4	83.7	94.7	22.3
3304 (기초·색조)	14,072.2	21,358.6	32,394.4	30,389.2	32,099.2	44,461.9
3305 (두발용)	233.7	405.9	1,723.5	976.9	987.9	1,839.5
3307.10 (면도용)	—	—	—	6.8	12.0	3.8
3307.20 (데오드란트)	—	45.4	—	—	17.5	—
3307.30 (입욕제)	2.2	3.8	—	14.1	2.0	32.1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3.1	27.3	266.9	140.9	87.1	623.6
합계	15,264.0	21,968.4	34,488.1	31,611.6	33,300.4	46,983.2

자료: UN Comtrade Database²⁰⁹⁾


209)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9.)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연방 의료 규정 2019년 8월 15일 법률 제4조(BGBI. I p. 1307)	주요 내용	• 의사의 승인과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gesetze-im-internet.de/b_o/BJNR018570961.html
사회법(SGB) 제5권(V) - 법정 건강보험 - (1988년 12월 20일자 법률 제1조, 연방법률 공보 I p. 2477)	주요 내용	• 법정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5/index.html#BJNR024820988BJNE012220126
의사에 대한 면허 규정	주요 내용	• 의료 교육과 면허 시험과 허가에 관한 법률
	링크	http://www.gesetze-im-internet.de/_appro_2002/index.html
플타임 및 파트타임 입원환자 병원 서비스 비용에 관한 법률(병원비법 - KHEntgG)	링크	https://www.gesetze-im-internet.de/khentgg/BJNR142200002.html
병원의 경제적 안정 및 병원요율 규제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gesetze-im-internet.de/khg/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의약품법 - AMG)	링크	https://www.gesetze-im-internet.de/amg_1976/BJNR024480976.html
디지털화를 통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법률 및 혁신(디지털 공급법 - DVG)	링크	https://www.bundesrat.de/SharedDocs/drucksachen/2019/0501-0600/557-19.pdf?__blob=publicationFile&v=1
법정 건강보험에서 디지털 건강 응용 프로그램의 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요구 사항에 관한 조례	링크	https://www.gesetze-im-internet.de/digav/index.html#BJNR076800020BJNE000200000

참고 독일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수도 : 베를린(약 366만명)• 인구 : 8,316만 명• 면적 : 35만 7,580km² (한반도의 1.6배)• 종교 : 가톨릭(28%), 개신교(25%), 이슬람교(5%), 무교 또는 기타(42%)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의회구성: 양원제(상원 69석, 하원 709석)•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사민당)- 총 리: 올라프 쉘츠(Olaf Scholz, 사민당)- 외교부장관: 아날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 녹색당)- 보건부장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			
경 제 (’20년 기준)	GDP	1인당 GDP	교역규모	경제성장률(GDP)
	38,433억 달러	46,216달러	(수출) 1,361,199백만 달러 (수입) 1,143,697백만 달러	-4.6%
우리나라 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3.11.26. 통상우호 항해조약 체결- 1955.12.01. 상호 국가승인- 1958.08.01.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독일대사 : 조현옥(’20.11. 부임)- 주한독일대사 :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20.08. 부임)•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9,576,136천 달러(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건전지 및 축전지)- 수입 : 20,680,918천 달러(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계측제어분석기)•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독일 투자 : 6,554,100천 달러			

주요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9월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41.5% 득표로 압승 제2당인 사민당과 연정합의 • 13.12월 메르켈 총리 3기 정부 출범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과 중도좌파 사민당간 대연정) 메르켈 3기 정부는 의회 대다수 의석(약 80% 보유)을 확보 • 17.09월 총선 결과,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이 33% 득표로 제1당 차지 • 18.03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간 대연정 협상 타결 • 18.03월 메르켈 4기 정부 출범 • 18.10월 메르켈 총리 당대표 퇴진 및 차기 총선(2021) 불출마 발표 • 21.09월 총선 • 21.12월 솔츠 총리 선출 및 신정부 출범(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4/206	9/180	7/141	6/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4

스웨덴



1 보건 의료 현황

인구통계

● 스웨덴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1.1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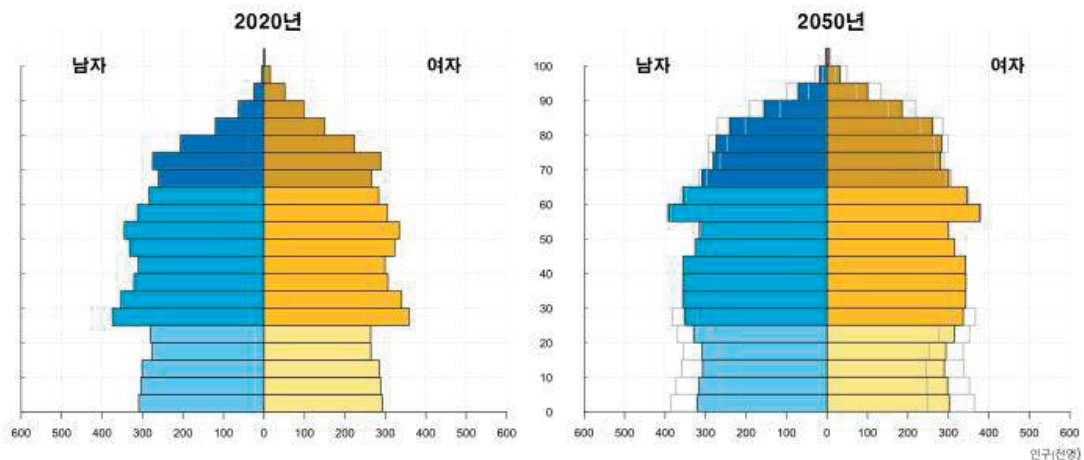
－ 스웨덴의 도시화율은 87.977%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높음

<스웨덴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10,099	41.1	20.3	87.977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스웨덴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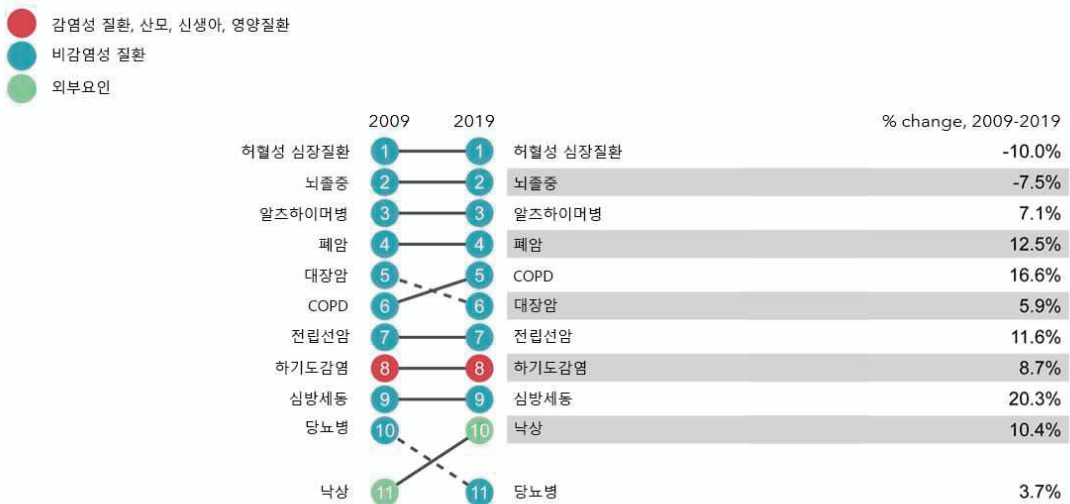
- 스웨덴의 기대수명은 83.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보다 높으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2.1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50.0%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4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22.2%임

<스웨덴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스웨덴
기대수명(세)	81	83.2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2.1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4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스웨덴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순이며, '09년 대비 심방세동,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성 질환과 외부요인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스웨덴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4.32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1.2배이며, 간호 인력은 12.58명으로 OECD 평균 10.4명의 1.21배에 해당함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2.07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47.0%에 해당함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16.64대로 OECD 평균인 16.9대의 98.5% 수준이며, CT 장비 대수는 26.17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1.01배에 해당함

<스웨덴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스웨덴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4.32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12.58 (2017)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2.07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16.64 (2019)
	CT 스캐너	25.9	26.17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스웨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2.6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38.2% 수준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1.4%로 OECD 평균 8.8%의 1.3배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5,551.9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1.36배에 해당함
 - 스웨덴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13.9%로 OECD 평균인 19.8%의 70.1% 수준임

<스웨덴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스웨덴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2.6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11.4 (2020)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0	13.9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5,551.9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스웨덴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85.0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87.16%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1.14%에서 1.8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13.78%에서 '50년 11.00%로 2.7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선불 개인 지출
- 본인 부담 의료비
- 정부 의료 지출
- 보건의료 개발지원



자료: IHME

② 보건의료 체계

□ 의료전달체계

● 1차 의료²¹⁰⁾

- 2차 의료기관 혹은 3차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한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음
- 1차 공공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영역 내의 거주자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²¹¹⁾
-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과 부상의 치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이 목적임
- 환자의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며,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무료임
-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고 주치의는 선택할 수 있음²¹²⁾
- 주치의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배정됨
- 주치의 1명당 1,100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스웨덴 국립보건복지위원회에 명시되어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는 1년 동안 2회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음²¹³⁾
- 앱을 활용해서도 1차 의료 신청할 수 있음²¹⁴⁾

● 2차 의료²¹⁵⁾

- 2차 및 3차 의료를 활용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 의뢰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진료 의뢰가 없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며, 대기시간이 길어짐
- 입원 및 외래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장비가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병원으로 전체 병원 중 약 2/3가 24시간 운영되는 급성기 병원과 일반병원으로 나누어짐
- 급성기 병원은 일반병원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24시간 운영되며 대략 2배 정도

210) SWEDISH, Service Locator2 (검색일 2022.10.18.)

211) 배건이, 스웨덴 주치의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2021 (검색일 2022.10.18.)

212) Swedish Medical Association, Primärvård (검색일 2022.10.18.)

213) Regeringen, Proposition om primärvårdsreformen (2021.12.09.)

214) SWEDISH, The New Swedish Health Connect App (검색일 2022.10.18.)

215)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검색일 2022.10.18.)

분포되어있음

● 3차 의료²¹⁶⁾

- 입원 및 외래 치료 중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대학병원으로, 6개 광역 진료권에 배치되어 있음
- 길어진 대기시간은 사보험의 수요를 늘림
- 심각한 중증질환의 경우 유럽 네트워크 (European Reference Networks, ERN)을 활용해서 의뢰함

● 스웨덴 내에 약 1,200개의 보건소가 있고 15개의 사립병원이 포함된 100개의 병원이 있음²¹⁷⁾²¹⁸⁾

- '18년 기준 1,000명당 의사 4.3명이고 간호사는 10.9명임²¹⁹⁾
- 이는 의사와 간호사 수 모두 EU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 병상 수

- '18년도 1,000명당 2.13개에서 '20년도 1,000명당 2.05개로 감소함

<병상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1,000명당 병상 수	2.21	2.13	2.07	2.05

자료: OECD DATA

● 원격 의료 도입²²⁰⁾

- 코로나로 인해 원격 의료가 발달했으며, 'Expresscare Virtual'을 활용하여 원격 진료를 제공함
-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며, 다양한 질병에 관해 진료할 수 있음

216) Socialstyrelsen, About the Swedish healthcare system (검색일 2022.10.18.)

217) Swedish Medical Association, Swedish healthcare system (검색일 2022.10.18.)

218)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ealthcare Resource Guide—Sweden (검색일 2022.10.18.)

219) OECD, State of Health in the EU Sweden Country Health Profile 2021, 2021 (검색일 2022.10.18.)

220) SWEDISH, SEE A HEALTH CARE PROVIDER IN MINUTES (검색일 2022.10.18.)

□ 건강보험체계

- 스웨덴은 영국과 같은 국가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영국과 다르게 의료재원의 마련과 의료서비스 공급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어 중앙 집중형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중앙집중형 NHS 방식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다름²²¹⁾
- 스웨덴의 의료제도의 큰 특징은 분권화이며,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랑스팅(Lanstring)), 기초자치단체(코뮌(Kommun))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음²²²⁾
 -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 단체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스웨덴의 보건 의료체계는 ‘지역보건서비스(Regional Health System, RHS)’로 분류되기도 함²²³⁾
 - 중앙정부는 보건의료 정책, 진료 가이드, 보건의료의 의제를 결정함
 -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랑스팅은 중앙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 따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의료 제공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함²²⁴⁾
- 과거 거주지 내에서만 주치의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10년 '보건의료 서비스법'을 제정해서 주치의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보상체계도 랑스팅이 일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에 맞춰 소속된 병원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체계 다원화함²²⁵⁾
- 290개로 나누어진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은 장애인과 노인의 케어와 복지를 담당함²²⁶⁾
 -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NHS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김²²⁷⁾
 - 이에 따라 사보험에 관한 수요가 발생함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및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또는 스웨덴과 양자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시민은 여권과 유럽 건강 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면, 스웨덴과 주민과 동일하게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음²²⁸⁾

221) 배건이, 스웨덴 주치의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2021 (검색일 2022.10.18.)

222)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검색일 2022.10.18.)

223)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검색일 2022.10.18.)

224) Sweden Sverige, Healthcare in Sweden (검색일 2022.10.18.)

225) 배건이, 스웨덴 주치의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2021 (검색일 2022.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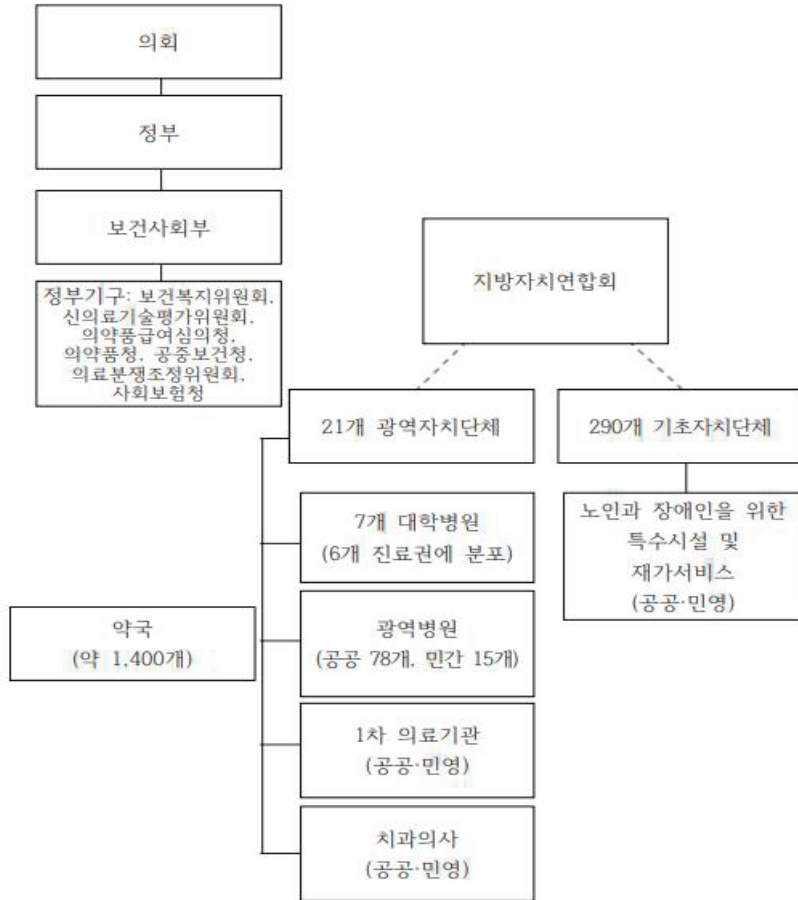
22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Healthcare Resource Guide—Sweden (검색일 2022.10.18.)

227) OECD, State of Health in the EU Sweden Country Health Profile 2021, 2021 (검색일 2022.10.18.)

228)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검색일 2022.10.18.)

- 다른 EU 국가보다 GDP 대비 의료서비스 부분 지출 규모가 커지자 ‘Vision eHealth 2025’ 전략을 세워 해결하고자 함²²⁹⁾²³⁰⁾
-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립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전자보건국 (e-Health Agency)’을 설립함²³¹⁾

<스웨덴 건강보장 체계 개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 **공보험**²³²⁾

- 국적과 상관없이 스웨덴의 모든 거주자의 가입이 가능함

229) OECD, State of Health in the EU Sweden Country Health Profile 2021 (검색일 2022.10.18.)

230)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Vision for eHealth 2025, 2016 (검색일 2022.10.18.)

231) E-hälsomyndighetens, Om oss (검색일 2022.10.18.)

232)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검색일 2022.10.18.)

- 3% 정도의 본인부담금 존재하며, 1년 최대 본인 부담 비용은 1,150 kr(\$125)임
- 18세 미만의 대상자에게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임
- 직장 근로자는 월급의 4.35%가 보험료로 납부되고, 자영업자는 3.62%~4.8%로 부과되며 양육급여가 포함될 경우 각 2.6% 추가 부과됨²³³⁾

● 사보험

- 사립병원은 공공 의료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어, 대기자가 적으며 많은 편의 시설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갖춘 병실이 있음²³⁴⁾
- 몇몇 사립병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 진료 가능
- 보험료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다름

□ 수가제도

● 기본적인 스웨덴의 수가제도는 일차 의료, 전문의 외래 진료, 입원에 따른 수가제도가 다름²³⁵⁾

- 진료 방식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진료비 지불 체계를 운영함²³⁶⁾
- 광역 지방자치 단체는 주로 총액예산, 인두제,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 등을 채택하고 있고, 행위별 수가 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차 의료: 인두제(Capitation, CAP),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s, FFS), 성과보상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
- 성과보상지불제(P4P)는 접근성, 예방서비스, 환자 만족도, 국가 질병명부에 등록된 환자인지 여부, 주정부 약제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르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20개 이하의 지표를 활용함²³⁷⁾
- 민간공급자도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하지만, 민간공급자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233)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검색일 2022.10.18.)

234) OECD, State of Health in the EU Sweden Country Health Profile 2021 (검색일 2022.10.18.)

23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2020 (검색일 2022.10.18.)

236)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검색일 2022.10.18.)

237)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0권 스웨덴, 2019 (검색일 2022.10.18.)

- 전문의 외래진료: 행위별수가제(FFS), 성과보상지불제도(P4P),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 입원: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 스웨덴은 DRG를 통해 도출된 case-mix에 기반하여 병원 예산 할당함
 - DRG 가중치 및 수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당, 기반시설 비용, 중요 의료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이 있음
 - DRG 수가는 지역마다 다름
- 스웨덴은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백내장 및 고관절 및 척추 수술 질환에 묶음 지불제도(Bundled Payment)를 도입했으며, 다른 지역으로 퍼짐²³⁸⁾
- 스웨덴에서는 ‘최적진료수가’ 설정이나 결과에 대한 지불을 통해 묶음 지불에 의료의 질을 포함함
 - 고관절 치환술과 척추 수술 등 8개 영역의 진료 에피소드와 만성질환에 대해 묶음 지불제도를 도입함
 - '09년도에 시작한 고관절 및 무릎 교체수술에 관한 DRG 모델은 평균 의료 지출을 34% 감소시킴²³⁹⁾
 - 의학 및 보건 경제학 등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서비스의 가격에 책정에 참여하고 환자단체 또한 이를 지지하였음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1177 스톡홀름 지역 서비스	스톡홀름 카운티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클리닉과 병원, 그리고 계약을 맺은 민간 의료 제공자 모두 같은 환자 비용을 지불함	
	환자 비용	https://www.1177.se/Stockholm/sa-fungerar-varden/kostnader-och-ersattningar/patientavgifter-i-stockholms-lan/
1177 스코네 지역 서비스	지역 스코네가 운영하는 클리닉과 병원, 그리고 사립이며 지역 스코네와 계약을 맺은 병원 모두에 적용	

238) Ben Horner 외 2인, Paying for Value in Health Care, 2019 (검색일 2022.10.18.)

239) Jeroen N. Struijs외 4인, Bundled-Payment Models Around the World: How They Work and What Their Impact Has Been, 2020 (검색일 2022.10.18.)

	환자 비용	https://www.1177.se/Skane/sa-fungerar-varden/varden-i-skane/patientavgifter-i-skane/
Vårdgivarguiden 스톡홀름 지역간병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4월 1일부터 스톡홀름 지역에 단위 수가가 도입 • 18세에서 84세 사이의 사람들이 진료연락처를 담당하는 전문 범주 또는 진료가 1차 진료 또는 전문진료에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외래환자 진료 내의 모든 유료 진료 접촉에 대해 SEK 250의 환자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
	환자 비용	https://vardgivarguiden.se/administration/patientadministration/patientavgifter/nytt-och-uppdaterat-i-avgiftsregelverken/nya-patientavgifter-2022/
지역 읍살라 간병인협업사이트		지역 읍살라의 간병인 협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료 및 치과 진료에 관한 환자 청구서에 대한 안내
	환자 청구서 및 수수료	https://regionuppsala.se/samverkanswebben/for-vardgivare/patientadministration/patientavgifter/
베스트라 예탈란드 지역 간병인웹		베스트라 예탈란드 지역 간병인 웹에서 제공하는 외료진료, 입원치료 등에 대한 비용 안내
	환자 비용 핸드북	https://www.vgregion.se/halsa-och-vard/vardgivarwebben/vardadministration/patientavgiftshandboken/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스웨덴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873억 2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8,594.3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5.85% 감소해 822억 8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65% 성장해 1,101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6.40% 감소해 '22년 8,044.6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07% 성장해 '26년 10,554.7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13.92%에서 '26년 12.8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87.74%에서 '26년 87.19%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12.26%에서 '26년 12.8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스웨덴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72.851	87.319	82.208	92.924	99.880	105.665	110.162
연간 성장률	19.04	19.86	-5.85	13.04	7.49	5.79	4.26
1인당 의료비	7,213.5	8,594.3	8,044.6	9,042.9	9,667.9	10,174.9	10,554.7
GDP 대비 의료비 비율	13.45	13.92	13.35	13.14	13.00	12.89	12.80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86.92	87.74	87.66	87.56	87.44	87.31	87.19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13.08	12.26	12.34	12.44	12.56	12.69	12.81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스웨덴의 의료시스템은 지역, 지방 당국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자체 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음²⁴⁰⁾
 - 공공의료는 카운티 의회, 지방 당국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제공함
 - 환자 비용은 지역별로 설정되며 검진 또는 노인 건강관리와 같은 일부 방문은 일반적으로 무료임
- 민간 의료는 2가지 유형이 있음
 - 민간 회사가 카운티 의회, 지방 당국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민간 및 공공 의료비용은 동일함
 - 공공 의료 시스템과 계약하지 않은 민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환자로서 받는 모든 치료 및 치료비용을 전액 지불해야함
- 1차 진료는 약 1,200개의 의료 센터에 조직되어 있으며 환자는 환자들은 전문의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보건소에서 전문 진료를 의뢰하며, 지역에는 약 70개의 병원과 7개의 대학병원이 있음²⁴¹⁾
- 지역의 총 의료 비용 중 16%는 민간 의료 제공자, 1차 의료 센터 및 노인을 위한 가정 간호 등의 하도급 계약에 사용되고 있음²⁴²⁾
- 스웨덴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분산형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보건사회부가 보건정책과 예산을 결정하지만 21개 지역의회가 세금을 통해 의료비를 조달하고 있음
 - 290개의 지방 자치 단체가 장애인이나 노인을 돌보고 있으며 스웨덴에는 70개의 지역 소유 공립 병원, 7개의 대학병원 및 6개의 사립병원이 있음²⁴³⁾
- 의료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스웨덴은 0-30-90-90 규칙을 시행했으며 환자는 의료 조언을 즉시 받을 수 있고 일반 개업의를 보기 위해 7일 안으로 대기하며 또한 환자가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90일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진단

240) <https://www.socialstyrelsen.se/en/about-us/healthcare-for-visitors-to-sweden/about-the-swedish-health-care-system/> (검색일 2022.10.17.)

241) <https://slf.se/en/swedish-health-care-system/> (검색일 2022.10.17.)

242)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weden-medical-equipment> (검색일 2022.10.17.)

243) Borgen Project, 10 FACTS ABOUT HEALTHCARE IN SWEDEN (2020.08.13.)

후 최대 90일 동안 백내장 제거 또는 고관절 교체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 '10년 스웨덴은 민간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병원 수가 적고 의료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며 공공 부문은 응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 건강보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인구의 10% 정도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개인 플랜의 비용은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4,000크로나(435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추정됨

- 대부분의 의료비는 법에 의해 상한선이 있어 입원비는 하루 100크로나(10.88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급차 또는 헬리콥터 서비스 비용은 1,100크로나(120달러)로 제한됨

- 처방약은 1년 동안 2,350크로나(255달러) 이상을 지불하지 않으며 1년 동안 모든 의료 상담에 대한 최대 본인 부담 비용은 1,150크로나(125달러)이며, 의료서비스는 18세 미만은 무료임

- 1차 진료 방문의 평균 비용은 150~300크로나(16~33달러)이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전문 상담 비용은 200~400크로나(22~42달러)임

- 입원비의 경우 20세 미만은 모든 자기부담금이 면제되며, 예방 접종, 암 검진 및 산부인과 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도 무료임

- '20년 모든 1차 진료 시설(1,168개)의 45%(514개)가 민간 소유하고 있음²⁴⁴⁾

- 공립 병원은 대부분의 급성 치료를 제공하는 반면 대학병원은 고도로 전문화된 치료를 제공하며, 재활 서비스 및 모든 장기 치료는 병원 외부에서 제공되고 있음

- 스웨덴의 보건, 의료 및 사회 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은 코로나19로 '21년에는 거의 1,380억 크로나(126억 달러)에 달하였음²⁴⁵⁾

- 스웨덴은 전문 조산사가 있어 분만 중 모성의 사망률이 크게 감소하였음

244) https://www.investingothenburg.com/sites/investingothenburg/files/downloadable_files/the-healthcare-market-in-sweden-2022.pdf (검색일 2022.10.17.)

245) <https://sweden.se/life/society/healthcare-in-sweden> (검색일 2022.10.17.)

세계보건기구(WHO)와 스웨덴의 협력 전략 2021~2025
(Strategy for Sweden's cooperation with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WHO)
2021~2025)²⁴⁶⁾

발표	2021년 5월
적용 기간	2021년~2025년
비전 및 목표	<p><비전> 국가 의료 정책, 공중 보건 정책 프레임 워크의 구현, 스웨덴 개발 정책 및 글로벌 건강에 기여</p> <p><목표> 1. 보편적 의료 보장 2. 건강 복지에 대한 긴급 상황 예방의 고도화 3. 보다 건강한 삶 보장</p>
전략 및 주요내용	<p><개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스웨덴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목표, 우선순위 및 작업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스웨덴 정부와 해외 관련 사절단이 주도하고 스웨덴 보건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접근 방식을 포함하였음</p> <p><전략> ○ 목표 1의 세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은 WHO가 국가의 건강 및 복지 시스템 개발과 보편적 의료(UHC)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에 강화된 지원을 제공 스웨덴은 국제적으로 의료 제품 및 백신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 </p> <p>○ 목표 2의 세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은 WHO와 그 파트너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정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여 글로벌 헬스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보건 아키텍처의 역량과 능력 강화 </p> <p>○ 목표 3의 세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과 웰빙의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결정 요인을 해결함으로써 공평한 의료 건강 시스템 구축 </p>

246) <https://www.government.se/49bbf2/contentassets/3bdd577ed934481ab16f05d2b1986940/strategy-for-sweden-s-cooperation-with-the-world-health-organization-who-20212025-pdf.pdf> (검색일 2022.10.20.)

□ 제약산업

- 스웨덴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58억 6천만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577.0 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6.21% 감소한 55억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10% 성장해 72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6.74% 감소한 '22년 538.1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53% 성장해 '26년 691.7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0.93%에서 '26년 0.84%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6.7%에서 '26년 6.6%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스웨덴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5.016	5.863	5.499	6.194	6.631	6.973	7.220
연간성장률	4.94	16.88	-6.21	12.63	7.06	5.16	3.54
1인당 의약품비	496.7	577.0	538.1	602.7	641.8	671.5	691.7
GDP 대비 의약품 비율	0.93	0.93	0.89	0.88	0.86	0.85	0.84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6.9	6.7	6.7	6.7	6.6	6.6	6.6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스웨덴 제약 시장의 가치는 '19년에 약 43억 유로(42.6억 달러)로 유럽(러시아, 터키 포함)에서 규모 면에서 14위에 해당하며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는 약 11억 유로(10.9억 달러)로 유럽 국가 중 9위를 차지하였음²⁴⁷⁾

- 영국-스웨덴의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쇠데르텔리에(Södertälje) 공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전체 생산의 40%를 생산²⁴⁸⁾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주문된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제약 부문에 약 1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스웨덴 제약 산업은 순수출국으로 수입품에 비해 약 2배의 가치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년 순수출액은 640억 크로나(58.5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 중국, 독일이 주요 수출국임
- 스웨덴의 19개 현지 제약회사와 8개의 국제 제약회사가 전임상 및 임상 첨단 치료 의료제품(ATMP,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스웨덴 2030년까지 고급 요법의 개발 및 구현에서 세계적인 리더"라는 비전을 가진 정부는 3,780만 달러 지원하고 있음²⁴⁹⁾
- Öresund(외레순 해협) 주변의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Medicon Valley는 유럽에서 가장 큰 생명 과학 클러스터 중 하나이며, Skåne(스코네 주)는 약 450개의 민간 생명 과학 회사가 있으며 7,500명을 고용하고 있음²⁵⁰⁾
- '21년 기준으로 스웨덴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53억 달러로 전체의 90.3%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5억 7천만 달러로 9.7%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41억 1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7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77.5%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1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20.3%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22.5%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6% 감소한 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0% 성장해 64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6.5% 증가한 6억 달러에 이를 것

247) <https://www.statista.com/topics/8531/pharmaceutical-industry-in-sweden/> (2021.09.30.)

248) <https://www.pharmamanufacturing.com/sector/large-molecule/article/11292803/global-dose-focus-on-sweden> (검색일 2022.10.18.)

249) <https://www.pharmamanufacturing.com/sector/large-molecule/article/11292803/global-dose-focus-on-sweden> (검색일 2022.10.18.)

250) BioStock, Pharmaceuticals increasingly important for Swedish economy (2022.09.09.)

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6% 성장해 8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2.2% 감소한 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2% 성장해 45억 7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5% 증가한 12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9.3% 성장해 18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일반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처방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으며, 처방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이 특허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스웨덴 제약시장 구성>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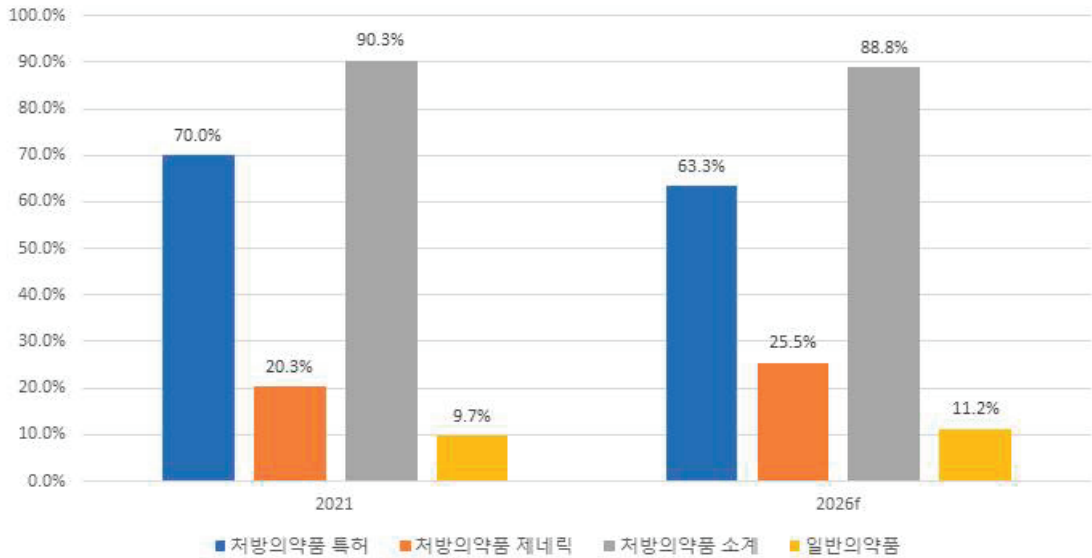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3.436	4.105	3.604	4.019	4.260	4.448	4.573
	제네릭	1.058	1.191	1.292	1.493	1.638	1.750	1.841
	소계	4.494	5.296	4.896	5.512	5.897	6.198	6.414
일반의약품		0.522	0.566	0.603	0.682	0.733	0.775	0.806
합계		5.016	5.863	5.499	6.194	6.631	6.973	7.220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90.3%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88.8%로 감소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9.7%에서 1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70.0%에서 '26년 63.3%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20.3%에서 '26년 2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웨덴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108억 5천만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55억 1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흑자가 53억 4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1.87% 증가한 110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43%의 성장을 보여 164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4.62% 감소한 52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40%의 성장을 보여 72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스웨덴의 무역흑자는 '22년 58억 달러에서 '26년 91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웨덴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11,366.49	10,847.20	11,049.61	12,633.65	13,966.66	15,281.20	16,417.08
연간성장률	14.92	-4.57	1.87	14.34	10.55	9.41	7.43
의약품수입	5,040.40	5,508.20	5,253.99	5,993.81	6,494.74	6,914.59	7,239.39

연간성장률	11.71	9.28	-4.62	14.08	8.36	6.46	4.70
-------	-------	------	-------	-------	------	------	------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스웨덴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1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7% 증가하였고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스웨덴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16년부터 '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함

<스웨덴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90,416	72,333	145,906	144,091	183,187	194,166
의약품 수입	2,021	451	324	1,365	9,136	12,759

자료: UN Comtrade Database²⁵¹⁾

- 공중 보건국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22년 11월 1일부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건강한 청소년에 대한 권장 사항은 없어지고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권장함²⁵²⁾
- '22년 10월 3일 기준 총 35,063,385회의 백신이 투여되었으며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바이오텍 23,548,035회, 모더나 8,213,650회, 노바백스 1,770,000회, 1,519,700회, 화이자/바이오텍 어린이(5-11세)용 12,000회 등임²⁵³⁾
- 스웨덴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EU 위원회와 여러 백신 제조업체 간의 협정에 해당하며 다른 EU 국가와 동시에 백신에 접근하며, 공중 보건국이 연령대의 인구 비율에 따라 지역에 배포함
- '22년 10월 기준 스웨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바이오텍의 Comirnaty, 모더나의 Spikevax, 노바백스 Nuvaxovid 등임²⁵⁴⁾
- 스웨덴 정부는 '20년 8월 코로나19 백신 EU 공동 협정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600만 도즈를 확보하여 '20년 8월 31일 첫 번째 예방

251)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0.)

252) <https://www.krisinformation.se/detta-kan-handa/handelser-och-storningar/20192/myndigheterna-om-det-na-ya-coronaviruset/coronapandemin-detta-galler-just-nu> (검색일 2022.10.18.)

253)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smittskydd-beredskap/utbrott/aktuella-utbrott/covid-19/statistik-och-analyser/leveranser-av-vaccin/> (검색일 2022.10.27.)

254) <https://covid19dataportal.se/dashboards/vaccines/> (검색일 2022.10.27.)

접종 계획을 시작하였음²⁵⁵⁾

- 정부는 '20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화이자/바이오엔텍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 체결하려는 협정에 스웨덴이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약 450만 도즈에 확보하였음²⁵⁶⁾
- '22년 7월 정부는 스페인 제조업체인 히프라 휴먼헬스(Hipra Human Health)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EU 공동 조달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주문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한 것임²⁵⁷⁾
 - 이 백신은 단백질 기반 부스터 백신으로 '22년 3월부터 유럽의약품청(EMA)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1차 예방접종을 받은 성인을 위한 추가 용량임

<스웨덴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10월 27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10.16	64	64	235.43	72.41%	1.76%	74.2%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²⁵⁸⁾, Our World in Data²⁵⁹⁾

25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0/08/sverige-ingar-eu-gemensamt-avtal-om-covid-19-vaccin/> (2020.08.20.)

256)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0/11/sverige-ingar-eu-gemensamt-avtal-om-covid-19-vaccin-med-pfizerbiontech/> (2020.11.17.)

257) Läkartidningen, Regeringen tecknar avtal om att kunna köpa nytt covid-vaccin (2022.07.26.)

258)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27.)

259)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27.)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스웨덴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27억 1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266.9 달러로 추정됨
- 스웨덴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94% 성장한 29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38% 성장해 34억 7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스웨덴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31% 성장한 286.4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3.83% 성장해 332.5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웨덴 의료기기 시장 전망_Fitch Solutions>

(단위: 달러)

구분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2,711.9	2,927.1	3,025.8	3,060.2	3,209.7	3,470.2
1인당 의료기기	266.9	286.4	294.5	296.2	309.1	332.5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스웨덴 시장에는 800,000개 이상의 고유한 의료 기술 제품이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 직원이 5명 이상이고 순 매출액이 100만 크로나(9만 달러) 이상인 의료 기술 회사가 약 640개 있으며 이 중 약 180개가 스웨덴에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스웨덴의 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약 18,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들이 스웨덴에 자회사를 두고 있음²⁶⁰⁾
- 의료장비의 경우 국내 생산이 강하고(휠체어, 병원 가구, 살균기 및 혈압 측정기) 의료장비 부문은 스웨덴의 주요 수출 부문 중 하나이며 심장박동기, 혈액투석, 감마나이프 등은 혁신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²⁶¹⁾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모품, 환자 보조 장치

260) <https://www.emergobyul.com/ko/resources/market-sweden> (검색일 2022.10.18.)

261) https://2016.export.gov/industry/health/healthcareresourceguide/eg_main_116247.asp (검색일 2022.10.18.)

및 진단 영상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²⁶²⁾

- 스웨덴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기타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6%, 22.0%로 가장 높음

<스웨덴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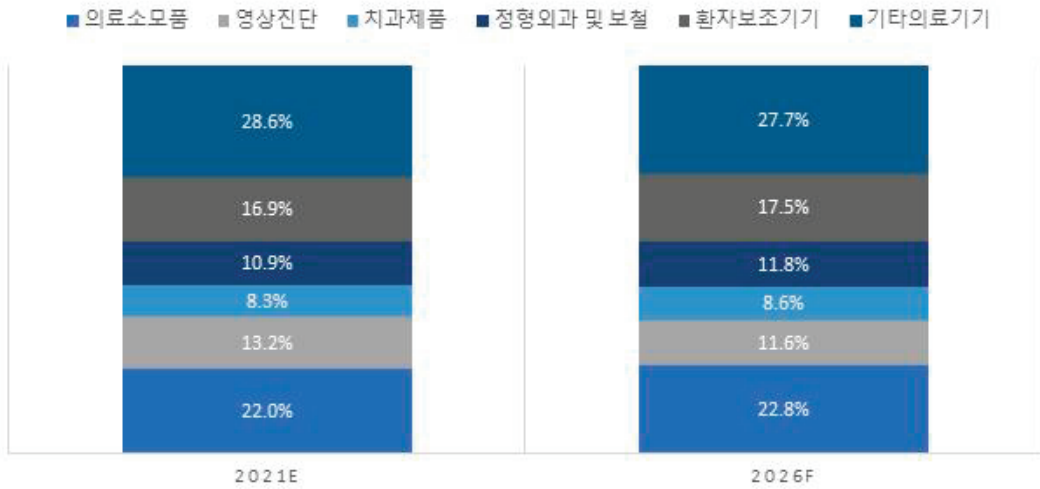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619.0	596.2	642.8	664.2	676.0	706.9	792.3
영상진단	364.3	358.3	378.4	382.7	376.0	385.3	401.1
치과제품	195.9	226.1	249.5	260.0	265.0	280.4	299.5
정형외과 및 보철	263.3	296.7	328.9	345.4	354.4	377.8	408.1
환자보조기기	519.5	459.1	499.7	518.5	525.9	554.7	608.7
기타의료기기	738.1	775.5	827.9	855.0	862.8	904.6	960.5
합계	2,700.1	2,711.9	2,927.1	3,025.8	3,060.2	3,209.7	3,470.2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정형외과 및 보철(6.62%)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상진단의 연평균성장률은 2.31%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정형외과 및 보철의 구성비율은 0.85% 증가한 11.8%인 반면, 영상진단은 1.65% 감소하여 1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²⁶²⁾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weden-medical-equipment> (검색일 2022.10.18.)

<스웨덴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스웨덴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19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9.5% 증가하였음
- 팬데믹 영향에도 '20년에 의료기기 수입과 수출은 증가하였고 '21년에는 수입은 증가했지만 수출은 감소함

<스웨덴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액	1,470,538	1,523,373	1,666,029	1,623,689	1,746,618	1,912,683
수출액	1,237,936	1,260,057	1,314,572	1,198,357	1,410,102	1,389,203

자료: UN Comtrade Database²⁶³⁾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스웨덴의 의료기기 수입은 '20년에 전년 대비 8.8% 증가한 2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14.6% 증가한 1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함

263)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0.)

<스웨덴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기기 수입	1,733,915	1,803,691	1,972,958	1,919,495	2,087,686
의료기기 수출	1,590,375	1,626,722	1,671,523	1,523,445	1,746,303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기타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이 각각 25.36%, 27.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음
- 환자보조기기는 세 번째로 크고, 영상진단, 정형외과 및 보철,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0년에는 환자보조기기가 큰 증가세를 보였음

<스웨덴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소모품	403,366	419,519	466,263	460,906	529,365
영상진단	233,071	228,075	244,280	272,034	280,779
치과제품	131,389	134,391	144,820	137,538	113,926
정형외과 및 보철	237,463	245,881	267,074	230,272	206,613
환자보조기기	246,398	269,682	285,078	282,746	377,643
기타의료기기	482,228	506,143	565,443	535,999	579,360
합계	1,733,915	1,803,691	1,972,958	1,919,495	2,087,686

자료: Fitch Solutions - Swede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스웨덴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9백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5.66%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34.0% 증가하였으며 영상진단이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스웨덴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 검사기기)	4,447.1	5,695.2	4,224.0	4,174.4	4,082.8	4,530.5
9019 (치료기기· 호흡기기)	184.3	275.5	137.2	89.2	154.2	39.1
9020 (기타 호흡기기)	0.4	0.6	0.9	0.4	1.6	0.1
9021 (정형외과용)	235.3	515.3	401.5	397.1	190.9	227.5
9022 (영상진단)	134.6	455.9	4,525.1	2,362.3	2,322.7	4,247.9
합계	5,001.6	6,942.5	9,288.7	7,023.4	6,752.2	9,045.0

자료: UN Comtrade Database²⁶⁴⁾

- 스웨덴에서는 '22년 10월 기준 더 이상 일반 대중에게 PCR 검사를 권장되지 않음²⁶⁵⁾
 -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중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직원, 간병 및 치료가 필요한 환자 또는 임산부 또는 질병 또는 질병 치료로 인해 면역 체계가 심하게 약화 된 사람, 노인을 위한 특별 주택(SÄBO) 또는 재택 간호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간병 수혜자 등임²⁶⁶⁾
- 스웨덴에서 '22년 42주차에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은 20,124명이며 이 중 3,368명이 확진되었음²⁶⁷⁾
- 스웨덴에서의 코로나19 검사 및 인증서 포함 가격은 항원 검사는 295~895 크로나(27~81.7달러), PCR 검사는 695~1950크로나(43.5~178달러), 신속 rt-PCR 검사는 950~2500크로나(86.8~228달러) 등임²⁶⁸⁾

26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0.)

265) <https://www.krisinformation.se/detta-kan-handa/handelser-och-storningar/20192/myndigheterna-om-det-nya-coronaviruset/coronapandemin-detta-galler-just-nu> (2022.10.01.)

266) Folkhälsomyndigheten, Testning och smittspårning för covid-19 (검색일 2022.10.25.)

267) Folkhälsomyndigheten, Antalet testade för covid-19 (검색일 2022.10.25.)

268) <https://www.koronaestihinta.fi/en/sweden/> (검색일 2022.10.20.)

<스웨덴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6월 19일 기준

총검사수	인구 1천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18,407,585	1,758.61	0.23

자료: Our World in Data²⁶⁹⁾

- 스웨덴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12억 2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15.31% 성장하고 있음
-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가 HS코드 382200(PCR)키트 보다 수입 규모는 크나 성장률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스웨덴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435.60	575.43	550.56	662.01	711.26
382200 (PCR)	251.09	265.02	267.87	289.22	386.11	509.83
합계	251.09	700.62	843.29	839.79	1,048.12	1,221.09

자료: UN Comtrade Database²⁷⁰⁾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스웨덴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및 원격 의료)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4억 4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9.07% 성장하여 6억 2,5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²⁷¹⁾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49.0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69)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21.)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21.)

270)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0.)

271)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sweden> (검색일 2022.10.19.)

- 스웨덴은 의료 시스템의 모든 부분(1차 의료 및 전문 의료)에 대해 전자 의료 기록을 100% 사용하며, 전자 처방전 99% 사용, 의료 영상 및 방사선의 100% 디지털화, 전자의무기록은 '17년부터 환자가 접근 가능함²⁷²⁾
 - 병원은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시스템을 선택하고 조달하고 있으며 모든 eHealth 서비스는 공공 조달을 통해 구입함
 - 카운티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eHealth 회사인 Inera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및 IT 아키텍처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의료 소프트웨어 및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Cerner, TietoEvy, Cambio, CompuGroup 등이 최소 9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음
 - 4대 온라인 의료 상담업체(Kry, Min Doktor, Doktor 24, Doktor.se)가 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상담은 '20년에 모든 1차 진료 상담의 거의 11%, 총 1차 진료 비용의 2%로 급격히 증가했음
- '09년에 국가 환자 정보(Nationell patientöversikt, NPÖ)가 시작되어 '12년까지 스웨덴의 모든 카운티 의회는 병원, 정신과 및 1차 진료에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솔루션을 완전히 구현했음²⁷³⁾
- 스웨덴 정부는 SALAR(스웨덴 지방 당국 및 지역 협회,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과 함께 스웨덴 e-Health 전략에 대한 비전을 개발함
 - 이 비전은 '25년까지 “스웨덴은 디지털화와 eHealth가 제공하는 기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며, 이로써 사람들이 더 쉽고 평등한 건강과 복지를 달성하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개발 및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함²⁷⁴⁾
 - 의료 IT에 연간 약 12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여 SALAR에 따르면 디지털 의료 상담 건수는 '20년 240만 건으로 2배 증가했음
- 스웨덴 국립 보건복지부(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18년 원격

272) https://www.investingothenburg.com/sites/investingothenburg/files/downloadable_files/the-healthcare-market-in-sweden-2022.pdf (검색일 2022.10.19.)

273) <https://s3-eu-west-2.amazonaws.com/signifyresearch/app/uploads/2018/12/17103930/EHR-EMR-Market-Developments-in-the-Nordics-White-Paper-17-Dec-20181.pdf> (검색일 2022.10.21.)

274) <https://www.trade.gov/market-intelligence/sweden-digital-healthcare-services-market-overview> (검색일 2022.10.21.)

의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원칙을 제시했음²⁷⁵⁾

- 원칙에 따르면 원격 의료는 해당 법률 또는 의료 경험에 물리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원격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개별 요구 및 서비스 사용 능력에 맞게 조정되고 의료 제공자가 다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디지털 의료서비스를 사용할 때 위원회의 규정 HSLF-FS 2016)
-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원격 진료를 촉진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며 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력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채택했으며, 의료 내 더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 환자 방문을 허용하고 이러한 원격 상담에 대해 의료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조정했음

275) <https://www.ibanet.org/article/9BE70D4C-A001-4F9D-B8C3-B3DF33CCE01F> (검색일 2022.10.21.)

Vision for eHealth 2025 ²⁷⁶⁾	
발표	2016년 3월
적용 기간	2017년~2025년
비전 및 목표	<p><비전> 2025년까지 디지털화와 eHealth가 제공하는 기회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더 쉽고 평등하며 보다 좋은 건강과 복지를 달성하고 독립성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원을 개발 및 강화하는 데 스웨덴이 세계 최고가 되는 것</p> <p><목표> 디지털화를 통해 고품질 사회 서비스, 의료 및 치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제공</p>
전략 및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화는 연령, 성별, 장애,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고령화 인구 증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및 사회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의료시스템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함 • 개별 정보에 대한 액세스, 개별 맞춤형 디지털 지원 및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하게끔 설계 •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평등한 서비스 표준에 대한 기본 조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구성

276)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b0fd09051c6c4af59c8e33a3e71fff24/vision-for-ehealth-2025.pdf>
(검색일 2022.10.03.)
<https://ehalsa2025.se/visionen/genomforandeplan/> (검색일 2022.10.20.)
코트라, 스웨덴 e-헬스시장 현황 (2018.05.29.)

□ 의료 관광

- 스웨덴에서 의료 관광은 거의 거론되지 않으며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져 왔음²⁷⁷⁾
 - 많은 사람들이 헬스케어의 상업화를 비판하는 이유는 헬스케어를 인권으로 보기 때문임
 - 유럽 국가들 간에 협력 협정이 있어 환자가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옅살라에 있는 학술 병원은 매년 다른 나라에서 약 400명의 환자를 받으며 그들은 보험이나 EU 협력을 통해 개인적으로 지불함
- 스웨덴 서부 Dalsland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연과 시골의 생태 관광 프로그램인 “The 72 Hour Cabin”은 자연 속에서 72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 수준이 70% 감소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음²⁷⁸⁾
- 스웨덴 정부는 3개월 이내에 환자 치료를 보장하는 일반 치료 보증을 도입했으나 스웨덴 의료 시스템은 약속된 보장을 충족할 수 없으며 많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다른 EU 국가에서 동등한 치료를 권리로 그리스 등에서 스웨덴에서 수행된 것과 동일한 비용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²⁷⁹⁾
 - '18년 그리스의 건강관광 회사 Biomedicine Group은 스웨덴 신장 협회와 헬스 관광 파트너십을 맺었음
- 스웨덴 치료 대기열을 피할 수 있거나 스웨덴에서 치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 회복, 그리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로 해외를 방문하고 있음²⁸⁰⁾
- 폴란드에서는 치과와 성형 수술을 위해 외국인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는 스웨덴 및 기타 북유럽 국가와 영국, 독일 등에서 오고 있음
- 스웨덴 의료 관광 회사 Dr Holiday는 터키로의 시력 레이저 여행과 헝가리로의 치과 여행을 제공하며 '13년에는 여행이 18% 증가하였음

277) forskning, Operation och semester - marknadsföringen bakom medicinsk turism (2021.04.15.)

278) Turistrådet Västsverige, Dalslands natur ska locka stressade turister till Sverige (2017.10.09.)

279) <https://www.crossbordermedicare.com/vard-utan-granser/> (검색일 2022.10.20.)

280) Resa medvetet, Medicinsk turism - rädda liv eller spä på klassklyftor deluxe? (2020.10.07.)

- EU 보고서에 따르면 '16년 스웨덴의 인바운드 의료관광객은 약 10,000명이었으며 '17년 EU 보고서에 따르면 인바운드 건강 및 웰빙 관광객은 70,000명이었음
- 해외를 방문하는 아웃바운드 의료관광객은 20,000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북유럽의 인근 국가로 가며 폴란드는 성형수술로 유명함

□ 화장품

- Statista에 따르면 스웨덴의 '22년 미용 및 개인 관리(화장품 및 바디 케어용 소비재) 시장의 매출은 20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며 '26년까지 연평균 5.5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2년에는 1인당 197.1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Statista에 따르면 스웨덴의 유기농 피부 및 미용 산업 기업의 매출은 '17년에 1억 9천만 크로나(1,700만 달러)로 매우 인기가 있으며 '25년에는 9억 크로나(8,5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음²⁸¹⁾
- 개인용품 소매판매 주요업체인 Apoteket AB에서 자체 브랜드인 ACO Hud AB가 판매 1위이며 프랑스 로레알, 클리닉스가 뒤를 이었음
- 화장품은 '20년 22억 9천만 유로(22.7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스웨덴인은 화장품에 연간 평균 193유로(191달러)를 지출하였음
- 점유율로 보면 스킨케어 24%, 메이크업 21%, 헤어케어 16%, 구강위생 10%, 샤워제품 9%, 향수 9%, 기타 11% 등 순임
- 스웨덴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6.72%의 상승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두발용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6억 9천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2.80% 성장하였음

281) <https://www.statista.com/topics/6339/cosmetics-and-personal-care-industry-in-sweden> (2022.02.16.)

<스웨덴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86.21	92.86	90.52	88.22	73.63	101.23
3304 (기초·색조)	350.45	384.12	404.50	416.21	437.19	524.21
3305(두발용)	153.35	143.27	152.36	152.46	169.99	198.70
3307.10 (면도용)	9.57	10.08	11.43	9.71	9.00	9.83
3307.20 (데오드란트)	27.56	28.86	29.70	26.90	27.17	31.97
3307.30 (입욕제)	9.76	8.69	8.07	7.87	7.58	9.25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46.08	51.07	49.51	49.41	56.73	61.26
합계	683.00	718.95	746.10	750.78	781.28	936.44

자료: UN Comtrade Database²⁸²⁾

- 스웨덴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1천 9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스웨덴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0.1	0.2	—	0.5	1.4	153.1
3304 (기초·색조)	1,022.8	3,103.0	6,965.7	9,931.4	12,369.5	18,216.3
3305 (두발용)	6.2	20.6	35.5	87.8	91.7	261.3
3307.10 (면도용)	—	—	0.5	—	—	0.2
3307.20 (데오드란트)	—	—	—	—	0.2	—
3307.30	0.5	—	—	2.0	2.0	0.5

282)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입욕제)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0.2	1.1	50.0	34.0	257.6	695.8
합계	1,029.8	3,124.9	7,051.6	10,055.8	12,722.5	19,327.2

자료: UN Comtrade Database²⁸³⁾


²⁸³⁾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0.)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보건의료법 (2017:30)	주요 내용	건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목표와 지침이 포함 질병과 부상을 의학적으로 예방, 조사 및 치료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halso-och-sjukvardslag_sfs-2017-30
치과 진료법 (1985:125)	주요 내용	좋은 치과 건강과 전 인구가 동등한 조건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을 목표
	링크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tandvardslag-1985125_sfs-1985-125
환자안전법 (2010:659)	주요 내용	의료 제공자가 환자를 의료 상해, 심각한 치료 손상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률
	링크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patientsakerhetslag-2010659_sfs-2010-659
환자법 (2014:821)	주요 내용	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기회와 관련된 규정과 치료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
	링크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patientlag-2014821_sfs-2014-821
환자 데이터 법 (2008:355)	주요 내용	환자 기록의 등록과 유지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patientdatalag-2008355_sfs-2008-355

참고 스웨덴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 수도 : 스톡홀름(Stockholm)• 인구 : 1,026만 명 ('21.7월 / CIA 추정치)• 면적 : 44만 9,964km² (한반도 약2배)• 종교 : 루터교(60%)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의회구성: 단원제 (총349석/임기4년)•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원수: Carl XVI Gustaf 국왕('73.9 즉위)- 총 리: Ulf Kristersson('22.10 취임)- 외교부장관: Tobias Billström- 보건부장관: Acko Ankarberg Johansson			
경 제 ('20년 기준)	GDP	1인당 GDP	교역규모	경제성장률(GDP)
	5,411억 달러	52,129달러	(수출) 174,843백만 달러 (수입) 149,485백만 달러	-2.8%
우리나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9.03.11. 외교관계 수립•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스웨덴대사 : 하태역('21.06 부임)- 주한스웨덴대사 : 다니엘 볼벤(Daniel WOLVÉN)('21.09. 부임)•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921,242천 달러(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수입 : 1,722,632천 달러(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스웨덴 투자 : 190,979천 달러			

주요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중도 우파 자유 보수 정치 동맹 결정 (사회민주당은 녹색당, 중도당, 좌파당, 자유당과 공동 정부 구성) • 14.10월 스테판 뢰벤 총리 취임 • 18.09월 총선 실시, 여당인 사회민주당 28.3% 득표로 11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 • 18.09월 뢰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승인 • 19.01월 신임 투표 기권으로 공동 정부 사실상 해산 • 19.01월 뢰벤 총리 재선 • 22.09월 총선 실시, 여당인 사회민주당 과반 확보 실패 • 22.10월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취임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22/206	3/180	8/141	7/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5

스페인



1 보건 의료 현황

인구통계

● 스페인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4.9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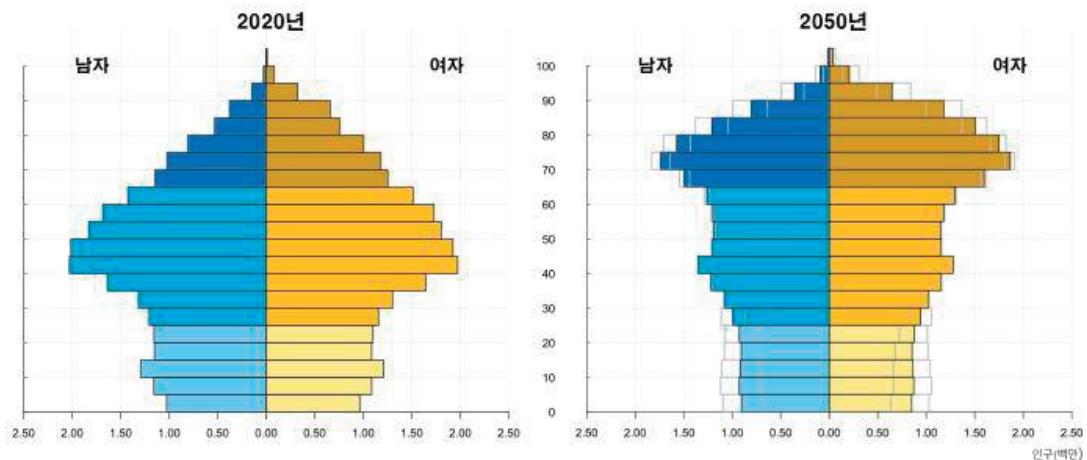
－ 스페인의 도시화율은 80.81%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높음

<스페인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46,755	44.9	20.0	80.81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스페인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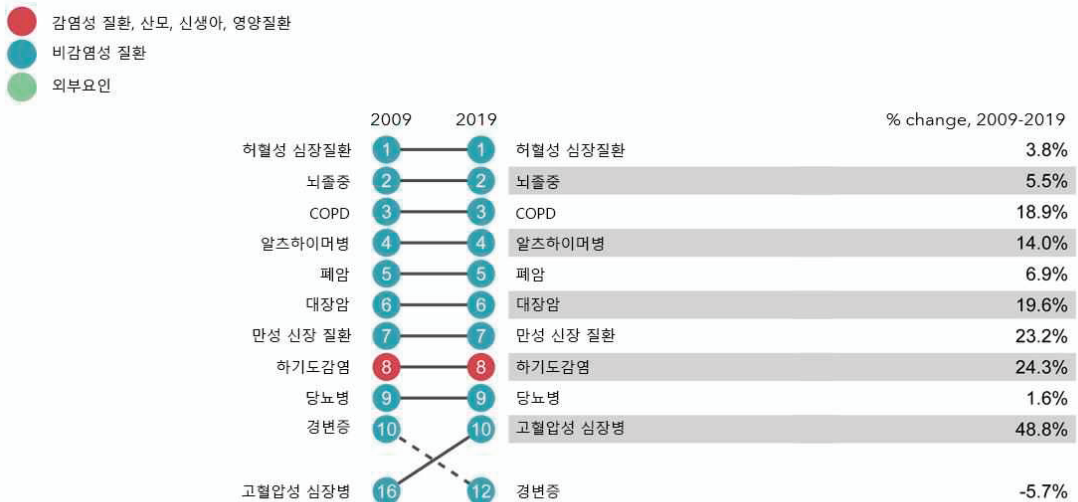
- 스페인의 기대수명은 83.9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보다 높으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2.6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61.9%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4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22.2%임

<스페인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스페인
기대수명(세)	81	83.9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2.6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4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스페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순이며, '09년 대비 고혈압성 심장병과 하기도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감염성 질환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스페인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4.4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1.22배이며, 간호 인력은 6.08명으로 OECD 평균 10.4명의 58.5%에 해당함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2.95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67.0%에 해당함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17.63대로 OECD 평균인 16.9대의 1.04배이며, CT 장비 대수는 19.2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74.1%에 해당함

<스페인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스페인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4.4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6.08 (2018)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2.95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17.63 (2019)
	CT 스캐너	25.9	19.2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스페인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7.3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1.07배에 해당함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9.1%로 OECD 평균 8.8%의 1.04배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3,600.3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88.1%에 해당함
 - 스페인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21.8%로 OECD 평균인 19.8%의 1.1배에 해당함

<스페인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스페인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7.3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9.1 (2019)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	21.8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3,600.3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스페인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70.4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73.09%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7.42%에서 11.3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22.10%에서 '50년 15.54%로 6.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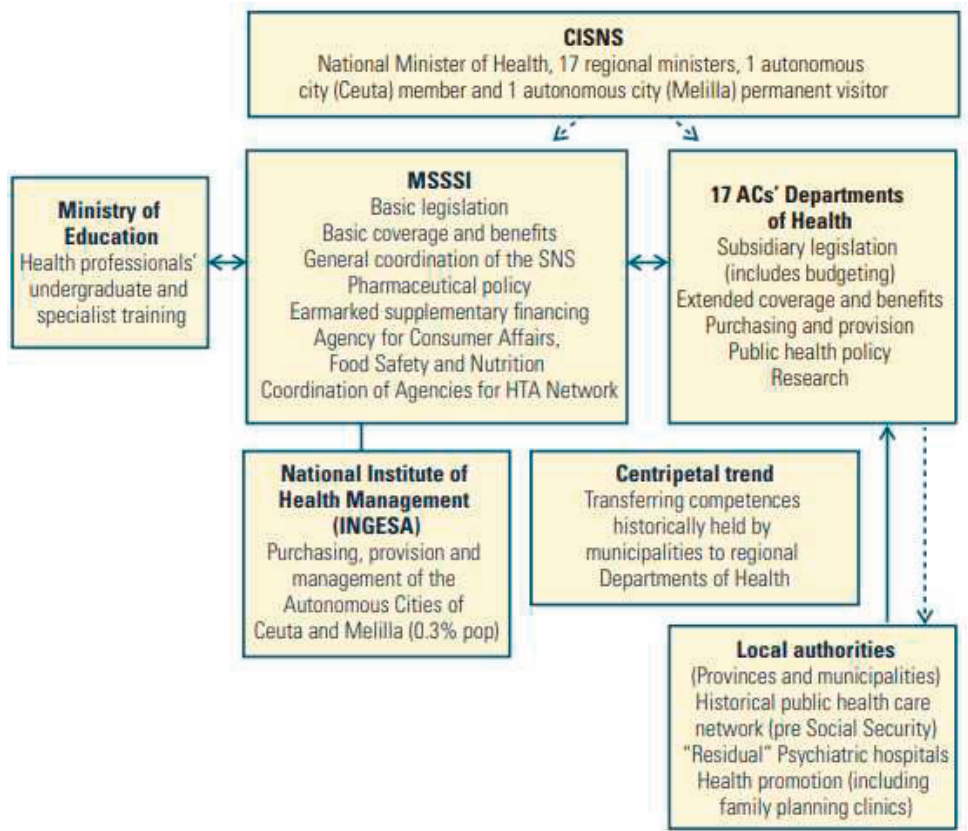
자료: IHME

② 보건의료 체계

□ 의료전달체계

- 스페인의 의료 시스템은 스페인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 정부 등 여러 관련 부서에 의해 작동됨

<스페인의 의료 시스템 개요>



자료: European Observatory,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Spain Health system review, 2018

- 스페인은 전체 의료 재정의 절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공공의료 체계의 비중이 큼²⁸⁴⁾
 - 재정 보호를 위해 비만,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을 막기 위해 생활 습관 요인을 해결하고자 함
 - '19년도 기준 1,000명당 의사 수는 4.4명 간호사의 수는 5.9명이며, 이는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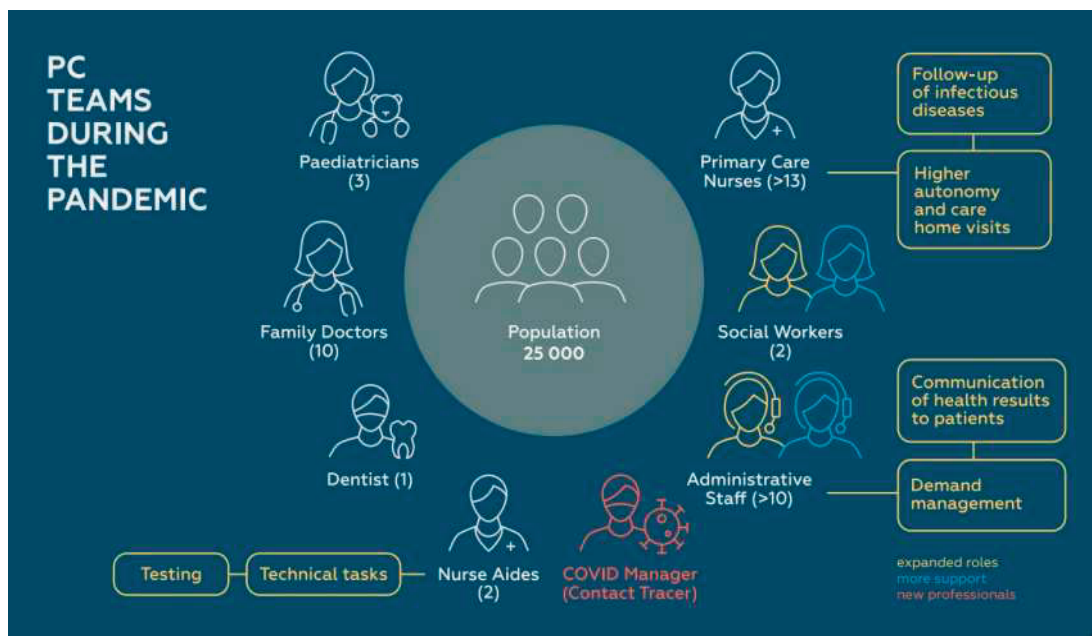
284) Enrique Bernal-Delgado 외 7인, Spain: Health System Review, 2018 (검색일 2022.10.19.)

수는 유럽의 평균보다 높지만, 간호사의 수는 유럽의 평균보다 낮음²⁸⁵⁾

1차 의료²⁸⁶⁾

- 개인 의사의 클리닉(médico de cabecera), 보건소, 1차 진료센터(centro de salud or centro de asistencia primaria or CAP)에서 이루어짐
- 보건소는 모든 지역에 있으며 보건소 내에 일반의, 소아과 의사, 간호사 등이 있음
- 1차 진료의는 환자를 전문의가 제공하는 2차 진료로 의뢰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함
- 보건소는 지역의 건강 평가, 역학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며, e-health 활용으로 극대화함
- 보건소에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개인치료 가능하지만, 공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카탈루냐 지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양한 보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코로나 환자 관리, 접촉 추적 등 코로나 환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음

<코로나 팬데믹 기간 1차 진료팀의 역할>



자료: Who, SPAIN Transforming primary health care during the pandemic, SEP 20, 2020

285) OECD, Spain: Country Health Profile 2021 (검색일 2022.10.19.)

286) Who, SPAIN Transforming primary health care during the pandemic (2020.09.20.)

● 2차 의료 및 3차 진료

- 1차 진료 의사의 추천이 있어야 2차 의료 및 3차 의료의 진료가 가능함²⁸⁷⁾
- 외래 전문 진료, 입원 환자 진료, 응급 진료 등을 수행함²⁸⁸⁾
- 스페인의 병원 수는 784개이며, 사립병원의 비율은 44% 공립병원의 비율은 56%임²⁸⁹⁾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2019년도)>

(단위: 개소)

지역	공립병원	사립병원
Cataluña	63	143
Andalucía	47	59
Madrid	36	49
Comunidad Valenciana	39	24
Canarias	10	23
Castilla y León	16	21
Galicia	15	20
País Vasco	22	20
Murcia	11	16
Asturias	12	14
Islas Baleares	11	13
Aragón	19	10
Extremadura	10	9
Castilla-La Mancha	18	8
Navarra	4	6
Cantabria	4	3
La Rioja	4	3
Ceuta	1	0
Melilla	1	0
총 계	343	441

자료: 스페인 통계청, https://www.ine.es/dyngs/INEbase/en/categoria.htm?c=Estadistica_P&cid=1254735971047

28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스페인 및 포르투갈 의료보장 체계 검토, 2015 (검색일 2022.10.19.)

288) BIW, Health Care (검색일 2022.10.19.)

289)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검색일 2022.10.19.)

● 병상 수

- '17년도 병상 수는 157,665개에서 416개 줄어든 19년도 병상 수는 157,249개
- '19년도 병상 수 사립병원의 비율은 32%, 공립병원의 비율은 68%임
- 카탈루냐 지역에는 사립병원이 많은 까닭에 사립병원의 병상 수가 많음

<지역별 병상 수 현황(2019년도)>

(단위: 개)

지역	공립병원	사립병원
Cataluña	14,916	19,638
Andalucía	15,229	5,787
Madrid	13,826	6,718
Comunidad Valenciana	11,534	2,451
Canarias	4,476	2,440
Castilla y León	7,212	2,202
Galicia	7,541	2,238
País Vasco	5,836	2,165
Murcia	3,331	1,578
Asturias	2,908	917
Islas Baleares	2,460	1,386
Aragón	4,323	931
Extremadura	3,506	435
Castilla-La Mancha	5,008	376
Navarra	1,397	898
Cantabria	1,385	635
La Rioja	885	165
Ceuta	252	0
Melilla	168	0
총 계	106,193	50,960

자료: 스페인 통계청, https://www.ine.es/dyngs/INEbase/en/categoria.htm?c=Estadistica_P&cid=1254735971047

□ 건강보험체계

● 분권화된 스페인의 의료보험은 1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함

- 카탈루냐²⁹⁰⁾, 안달루시아²⁹¹⁾, 바스크²⁹²⁾, 발렌시아²⁹³⁾, 갈리아, 나바라²⁹⁴⁾, 카나리아 제도²⁹⁵⁾, 아스투리아스²⁹⁶⁾, 칸타브리아²⁹⁷⁾, 더 리오하, 무르시아²⁹⁸⁾, 아라곤²⁹⁹⁾, 카스티야 라만차³⁰⁰⁾, 에스트레마두라³⁰¹⁾, 발레아레스 제도, 마드리드³⁰²⁾, 카스티야와 레온³⁰³⁾

● 공보험

- '86년부터 시작한 스페인의 의료 보험 체계는 'Sistema Nacional de Salud(SNS)'라 불리며, NHS(National Health Insurance) 제도를 택하고 있음³⁰⁴⁾
- NHS 제도이기에 대기시간이 길며,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함
- 대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당함³⁰⁵⁾
- 거주 증명서가 있는 국외 거주자를 포함한 스페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
- 사회보장에 등록되어 보험료를 지불하는 직원 및 자영업자
- 배우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 및 기타 피부양자
-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양자와 최근에 이혼 혹은 별거하는 경우
- 스페인에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주자
-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응급 증상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³⁰⁶⁾

290) Cat Salut, Serveis sanitaris (검색일 2022.10.19.)

291) Servicio Andaluz de Salud, Centros y servicios sanitarios concertados en Andalucía (검색일 2022.10.19.)

292) Osakidetza, Servicios a la ciudadanía (검색일 2022.10.19.)

293) Generalitat Valenciana, Portal del Pacient (검색일 2022.10.19.)

294) Navarro Health Service-Osasunbidea, SaludNavarra (검색일 2022.10.19.)

295) Servicio Canario de la Salud, Servicios (검색일 2022.10.19.)

296) Servicio de Salud del Principado de Asturias, Estrategias de Salud (검색일 2022.10.19.)

297) Servicio Cántabro de Salud, Servicios Sociales (검색일 2022.10.19.)

298) Servicio Murciano de Salud, Home (검색일 2022.10.19.)

299) GOBIERNO DE ARAGON, Sectores Sanitarios. Directorio de centros de asistencia (검색일 2022.10.19.)

300) Castilla-La Mancha, Consejería de Sanidad (검색일 2022.10.19.)

301) Extremadura SALUD, DISEÑO PARA TODAS LAS PERSONAS (검색일 2022.10.19.)

302) Comunidad de Madrid, Servicios y trámites (검색일 2022.10.19.)

303) Sanidad de Castilla y León, Asistencia sanitaria (검색일 2022.10.19.)

3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스페인 및 포르투갈 의료보장 체계 검토, 2015 (검색일 2022.10.19.)

305) GOBIERNO DE ESPAÑA, Reconocimiento del derecho a asistencia sanitaria y gestión de beneficiarios (검색일 2022.10.19.)

306)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스페인 사회 문화(2)-주요 제도 및 정책(2021.05.28.)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외국인에는 스페인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원칙으로 함
- 비근로 국외 거주자 같은 경우 등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경우는 ‘Convenio Especial’ 지불방식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³⁰⁷⁾
- 대상자가 양식을 제출하면 의료 카드(tarjeta sanitaria)가 제공되며,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의료 카드를 지니고 다녀야 하나³⁰⁸⁾, 최근 앱으로도 대체 가능함
- 고용주와 근로자의 납부로 재정이 운영되며, 이들의 가족도 공공의료 혜택을 받음³⁰⁹⁾
- 대부분 기본 의료서비스는 무료이지만, 수술, 야간 병원 방문, 특정 진단 검사 등의 경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보험³¹⁰⁾

- 공공의료의 질은 높지만, 긴 대기시간을 피하고자 혹은 치과 치료와 같은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얻기 위해 사보험을 선택함
- 비용은 대개 달에 50~200유로임
- 스페인 거주자의 약 19%가 민간보험을 활용함
-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이 편한 의사를 선택하기 위해 사보험을 신청하기도 함
-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보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대표적인 사보험으로는 알리안츠, 시그나 글로벌 등이 있음

307) Ministerio de Inclusión, Seguridad Social y Migraciones, Convenios especiales (검색일 2022.10.19.)

308) Comunidad de Madrid, Tarjeta Sanitaria (검색일 2022.10.19.)

309) GOBIERNO DE ESPANA, Reconocimiento del derecho a asistencia sanitaria y gestión de beneficiarios (검색일 2022.10.19.)

310) InterNations, Health Insurance and Healthcare in Spain Explained (검색일 2022.10.19.)

□ 수가제도

● 기본적인 스페인의 수가제도는 일차 의료, 전문의 외래 진료, 입원에 따른 수가제도가 다름³¹¹⁾

- 일차의료: 인두제(Capitation, CAP), 성과보상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
- 전문의외래진료: 행위별수가제(Fee-for Service, FFS),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 입원: 품목별 예산제(Line-item remuneration)
- 공공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봉급제이고 공공부문과 계약한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도 적용되며 공공부문과 계약이 없는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함³¹²⁾

● ACO의 도입³¹³⁾

- ACO는 특정 인구집단에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정해진 질 기준을 달성하고 사전에 정의된 예산 기준(benchmark value) 이하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정절감분을 구성원 내부에 공유하는 시스템임
-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s, ACO)을 발렌시아 지역에 도입함
- 지불방식은 인두제와 벤치마크 예산이 합쳐진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은 15년임
- 인두제는 최초 협상 이후에 매년 예산 증가에 따라 조정함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카탈루냐 보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탈루냐 관보를 통해 게재된 병원 및 전문 치료 고려 단가 • 카탈로니아 보건서비스(DOGCno.6681,of7.8.2014)에 청구된 의료서비스의 계약 및 제공에 관한 8월 5일 자 시행령 118/2014의 4장 2장은 병원 및 전문의료인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규제
	<div>병원 및 전문</div> <div>https://www.iberley.es/legislacion/orden-slt-88-</div>

3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2020 (검색일 2022.10.20.)

3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스페인 및 포르투갈 의료보장 체계 검토, 2015 (검색일 2022.10.20.)

3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2020 (검색일 2022.10.20.)

구분	내용	
	치료 고려 단가	2022-22-abril-determinan-ano-2022-precios-unitarios-contraprestacion-atencion-hospitalaria-especializada-27084794
안달루시아 보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10월 14일의 명령을 통해 안달루시아 보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건 서비스의 공시 가격 제3자가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해당 건강 성격의 서비스 및 활동이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설정 	
	공시 가격 검색	https://www.sspa.juntadeandalucia.es/servicioandaluzdesalud/profesionales/relacion-con-la-ciudadania/precios-publicos
SaludOn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용 가격 비교 사이트로 스페인 전역에 있는 진료소와 병원 정보를 제공함 40,000개 이상의 서비스와 22,000명의 의사가 있으며, 250,000명 이상의 환자가 이용 	
	의료 비용 비교	https://www.saludonnet.com/
Bookimed 의료관광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인 최고의 클리닉 66개 클리닉의 110명의 의사, 367개의 의료 검사 및 498개의 치료 절차에 대한 가격 	
	의료관광 치료 비용	https://us-uk.bookimed.com/clinics/country=spain/
MediGlobus 의료관광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계 의료관광 안내 사이트 병원 이름을 클릭하면 병원 소개와 대표적 치료비용을 볼 수 있음 	
	의료관광 치료 비용	https://mediglobus.com/clinics/country-spain/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스페인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1,445억 7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3,092.7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6.74% 감소해 1,348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80% 성장해 1,753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6.69% 감소해 '22년 2,885.9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91% 성장해 '26년 3,769.4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10.14%에서 '26년 8.8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71.48%에서 '26년 72.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28.52%에서 '26년 27.1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스페인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134.874	144.568	134.829	145.030	152.863	163.666	175.347
연간 성장률	5.99	7.19	-6.74	7.57	5.40	7.07	7.14
1인당 의료비	2,884.7	3,092.7	2,885.9	3,106.9	3,278.2	3,513.9	3,769.4
GDP 대비 의료비 비율	10.55	10.14	9.36	9.18	9.06	8.95	8.8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71.16	71.48	72.30	72.49	72.66	72.83	72.85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28.84	28.52	27.70	27.51	27.34	27.17	27.15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Statista에 따르면 스페인 병원의 매출은 '22년에 619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3.50% 성장하여 735억 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매출은 '22년에는 133,000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³¹⁴⁾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의료비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의 병원은 지출 측면에서 가장 큰 의료 제공자로 44.2%를 차지하며, 외래 의료 제공자(21.8%)와 소매업체 및 기타 의료 제품 제공자(22.1%)는 지출 측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의료서비스 제공자임³¹⁵⁾
 -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12년과 '19년 사이에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병원으로 25.8% 증가하였으며 소매 및 의료 제품 제공자는 19.3% 외래 의료 제공자는 14.3% 성장하였음
- 스페인의 공공 의료기관은 의료 부문의 약 70%를 차지하며 이러한 기관에는 공립 병원, 보건 센터 및 연구 기관 등이 포함되며, 공공부문은 GDP의 6.6%를 차지하며, 반면 민간 의료 부문은 GDP의 2.7%를 차지함³¹⁶⁾
 - '21년 공중 보건 예산은 967억 달러로 GDP의 약 6.6%를 차지하며, 17개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승인에 따라 각각의 의료 예산을 관리함
 - 스페인 보건, 소비자 및 사회 서비스부에 따르면 '21년 총(공공 및 민간) 의료 지출은 1,365억 달러(1,154억 8,000만 유로)로 GDP의 9.3%를 차지함
 - 1인당 평균 지출(공공 및 민간)은 미화 2,450달러(2,050달러-공공, 850달러-민간)로 유럽의 다른 주요 경제국보다 계속 뒤쳐져 있음
- 보건부에 데이터에 의하면 스페인에는 464개의 병원이 있고 114,000개의 병상을 제공하며, 연간 400만 명 입원, 280만 건의 수술, 1,700만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³¹⁷⁾
 - 1차 진료 센터에는 3,000개의 보건소 10,000개의 진료소가 있으며 연간 2억

314) <https://www.statista.com/outlook/hmo/hospitals/spain> (검색일 2022.10.21.)

315)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Healthcare_expenditure_statistics#Health_care_expenditure_by_function (검색일 2022.10.21.)

316)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pain-medical-equipment-devices> (검색일 2022.10.21.)

317) <https://www.sanidad.gob.es/estadEstudios/sanidadDatos/home.htm> (검색일 2022.10.21.)

6,200만 건의 의료 상담, 1억 9,100만 건의 간호 상담, 1억 6,700만 건의 원격 상담, 1,300만 가정 방문, 3,000만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

- 스페인은 모든 거주자에게 보편적인 의료를 보장하므로 스페인 국민의 90%가 주로 국가 보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³¹⁸⁾
 - 공립병원만 무료 진료를 제공하지만, 일부 병원은 개인(privado) 및 공공(asistencia sanitaria pblica) 의료를 모두 제공함
 - 대부분의 공공 의료는 무료이며 처방 비용의 일정 비율만 지불하면 되고, 전문 의료 절차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하며 추가 민간 보험 보장이 필요할 수 있음
- Idis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의료 부문은 262,5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음³¹⁹⁾
 - '16년 민간 의료 산업은 병원의 57%, 센터 451개, 병상의 33%인 51,33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병원의 46%는 Quirón(44개 시설), San Juan de Dios(30개 시설), Vithas(총 19개 시설)가 이끄는 사립 병원 그룹에 속해 있으며, 스페인 사립 병원 그룹은 '16년에 전년도보다 4% 증가한 61억 7,500만 유로(61억 달러)의 공동 매출을 달성했음
- 스페인은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큰 의료 시장이며 인구의 고령화로 중장기 의료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³²⁰⁾
 - 병원 경영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마드리드는 6개 병원의 관리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며, Castille La-Mancha는 또한 4개 병원의 경영을 민영화하고 있음
 -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민간 건강보험 가입률은 29%, 민간 의원은 16% 증가하였으며 스페인 국민의 20%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프랑스와 독일 등 국가보다 낮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 축소는 수술 대기시간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매력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318) CloudHospital, Medical Treatment in Spain. How advanced are Spain's Healthcare market and facts you need to know (2022.10.06.)

319) PLANTADOCE ES UN MEDIO DE CINNAMON NEWS, La industria hospitalaria privada española, al alza: las ventas crecen un 4% (2018.03.23.)

320) <https://opentoexport.com/article/healthcare-sector-in-spain/> (검색일 2022.10.21.)

□ 제약산업

- 스페인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324억 6천만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694.3 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53% 감소한 300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28% 성장해 412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7.48% 감소한 '22년 642.4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40% 성장해 '26년 886.8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2.28%에서 '26년 2.0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22.5%에서 '26년 23.5%로 증가할 것이 전망됨

<스페인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29.007	32.457	30.013	32.688	34.905	37.847	41.252
연간성장률	5.23	11.90	-7.53	8.91	6.78	8.43	9.00
1인당 의약품비	620.4	694.3	642.4	700.3	748.5	812.6	886.8
GDP 대비 의약품 비율	2.27	2.28	2.08	2.07	2.07	2.07	2.07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21.5	22.5	22.3	22.5	22.8	23.1	23.5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스페인의 제약 산업은 41,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간접 및 유도 일자리를 추가하면 20만 개에 도달하였으며, 제약 R&D는 모든 스페인 산업 연구 중 21%를 차지함³²¹⁾
- 스페인의 바로셀로나 의료부문은 1,200개 이상의 회사와 약 900개의 연구 및 혁신 기관으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건강 과학 생태계 중 하나로 카탈루냐 지역 GDP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³²²⁾

321) FarmaIndustria, La innovación de la industria farmacéutica, uno de los pilares del sistema sanitario (2020.02.14.)

- 바르셀로나 생태계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바르셀로나 헬스 부스터 (Barcelona Health Booster)는 건강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바르셀로나 과학 공원, 바르셀로나 액티바, 바이오캣와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주도한 사업임
- '21년 기준으로 스페인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92억 2천만 달러로 전체의 90.0%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32억 4천만 달러로 10%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2억 4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72.7%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79억 8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24.6%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27.3%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9% 감소한 269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2% 성장해 369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4.2% 감소한 3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8% 성장해 43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9% 감소한 193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9% 성장해 252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2% 감소한 75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1.4% 성장해 369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처방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일반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낮으며,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성장률이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322) TBS EDUCATION BARCELONA, BARCELONA AND THE HEALTHCARE SECTOR: ONE OF EUROPE'S MOST DYNAMIC ECOSYSTEMS (2022.06.21.)

<스페인 제약시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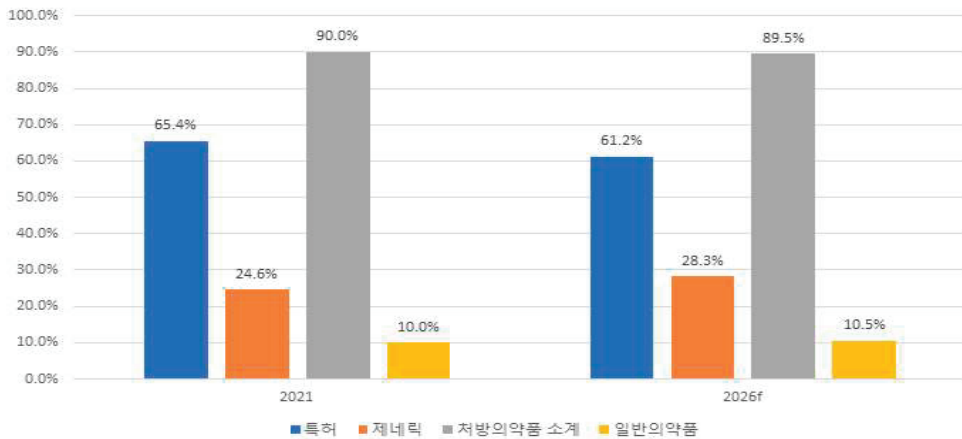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19.405	21.239	19.346	20.782	21.981	23.599	25.250
	제네릭	6.872	7.977	7.563	8.511	9.282	10.282	11.657
	소계	26.277	29.216	26.909	29.293	31.263	33.880	36.907
일반의약품		2.729	3.241	3.104	3.394	3.641	3.967	4.346
합계		29.007	32.457	30.013	32.688	34.905	37.847	41.252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90.0%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89.5%로 소폭 감소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10%에서 1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65.4%에서 '26년 61.2%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24.6%에서 '26년 28.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페인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195억 4천만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5억 7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적자가 237억 4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6.64% 증가한 208억 3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03%의 성장을 보여 273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4.03% 감소한 227억 9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41%의 성장을 보여 303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스페인의 무역적자는 '22년 19억 5천만 달러에서 '26년 29억 7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페인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13,180.91	19,535.18	20,833.12	22,083.10	23,665.23	25,416.46	27,341.66
연간성장률	8.15	48.21	6.64	6.00	7.16	7.40	7.57
의약품수입	16,143.9	23,744.34	22,787.28	24,134.36	25,530.11	27,733.38	30,311.73
연간성장률	8.13	47.08	-4.03	5.91	5.78	8.63	9.30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스페인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6% 증가하였고 '20년부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스페인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16년부터 '20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1년에는 적자를 보임

<스페인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95,469	81,967	159,391	166,919	162,070	107,025
의약품 수입	20,004	38,027	52,429	42,145	96,575	128,077

자료: UN Comtrade Database³²³⁾

- '22년 5월 8일 기준 스페인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의 복용량은 화이자/바이오테크 1억 7,760만 회, 모더나 5,200만 회, 아스트라제네카 3,100만 회, 얀센 2,000만 회, 노바백스 220만 회, 사노피/파스퇴르 496,000회 등임³²⁴⁾

323)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개의 백신에 대해 협상했으며 스페인은 협상된 전체 용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함

● '22년 10월 28일 기준 스페인의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량은 98,948,747회이며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63,460,921회, 모더나 17,007,420회, 아스트라제네카 9,796,817회, 화이자(어린이) 3,573,466회, 화이자 2가 백신 2,979,479회, 얀센 1,982,801회 등임³²⁵⁾

– 정부는 '21년까지 1억 4,190만 도즈 이상을 구매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이 화이자/바이오엔텍(7,220만)이며 아스트라제네카 3,100만 이상, 모더나, 얀센 그 뒤를 이었음

● '22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제약회사 HIPRA가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의 최대 2억 5천만 도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4개국에 공동 조달에 참여했으며 이 백신은 단백질 기반으로 '22년 3월부터 평가 중임³²⁶⁾

<스페인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10월 13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46.75	296	296	201.45	85.49%	1.37%	86.9%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³²⁷⁾, Our World in Data³²⁸⁾

324) <https://www.vacunacovid.gob.es/preguntas-y-respuestas/que-vacunas-tendremos-disponibles-en-espana> (2022.05.08.)

325) La vacunación en España: más de 2,8 millones de mayores de 60 años ya tienen la cuarta dosis (2022.10.28.)

<https://www.sanidad.gob.es/profesionales/saludPublica/ccayes/alertasActual/nCov/situacionActual.htm> (2022.10.28.)

326) POLITICO, Commission buys COVID vaccine from Spain's HIPRA (2022.08.02.)

327)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22.)

328)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22.)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스페인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76억 4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163.5 달러로 추정됨
- 스페인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26% 감소한 75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9.91% 성장해 110억 1천만 달러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스페인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16% 감소한 161.6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02% 성장해 236.7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스페인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7,643.8	7,547.8	8,305.9	8,992.3	9,922.3	11,012.2
1인당 의료기기	163.5	161.6	177.9	192.8	213.0	236.7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스페인 의료기기 시장은 서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시장이며, 의료기기 제조업의 90%는 중소기업으로 매출의 40%를 차지하며 국내 시장 매출의 60%는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음³²⁹⁾
- 스페인 현지에서의 생산은 6%에 불과하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왔으며 독일은 전체 수입의 약 50%를 차지함³³⁰⁾
-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카탈루냐 지역은 스페인 의료기기 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FENIN (Federación Española de Empresas de Tecnología Sanitaria)에 따르면 2007~2013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스페인은 노후 장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1년에 의료 기술 시장은 '20년에 비해 7.5% 증가한 95억 유로(94억 달러)에

329) <https://www.emergobyul.com/resources/market-spain> (검색일 2022.10.22.)

330)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spain-medical-equipment-devices> (검색일 2022.10.22.)

도달하였으며 직접 일자리 수도 2.5% 증가한 29,000개에 달했음³³¹⁾

- 안과(40%), 외상(19.8%), 심장학(7%)과 같은 외과 활동의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와 치과 분야(28%)가 성장하였음

● 스페인 의료 기술 부문은 1,000개 이상의 제조 회사,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500,000개 이상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장치,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GDP의 0.79%를 차지하며 88억 유로(8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19년에 비해 11% 증가했음³³²⁾

- 기업 유형은 68%는 스페인 국내 제조업체이며, 14% 스페인 다국적 기업, 6%는 외국 다국적 기업이고 나머지 12%는 기타임

●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은 의료 기술 제조 부문에서 스페인의 35%를 차지하며 주도하고 있으며 마드리드(21%), 발렌시아 공동체(11%), 바스크 지방 (10%)이 그 뒤를 잇고 있음³³³⁾

- 카탈루냐 지역 회사의 66%는 국내 제조업체이고 22%는 스페인 다국적 기업, 9%는 외국 자본의 다국적 기업임
- 생산되는 제품은 일회용 의료기기(36%)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체외 진단 및 전자 의학 하위 부문(각각 22%), 살균 제품(15%), 가구 및 의료장비(14%), 치과 하위 부문(13%), 심혈관(7%) 및 외상 임플란트(5%) 등임

● 스페인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료소모품과 기타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3.9%, 22.4%로 가장 높음

331) Elglobal, El mercado de Tecnología Sanitaria alcanza los 9.500 millones de euros (2022.06.08.)

332) infosalus, La fabricación en España de productos sanitarios podría crecer si se cuenta con los mecanismos de ayuda adecuados (2021.07.12.)

333) diariofarma, Cataluña fabrica el 35% de la tecnología sanitaria en España (2022.03.01.)

<스페인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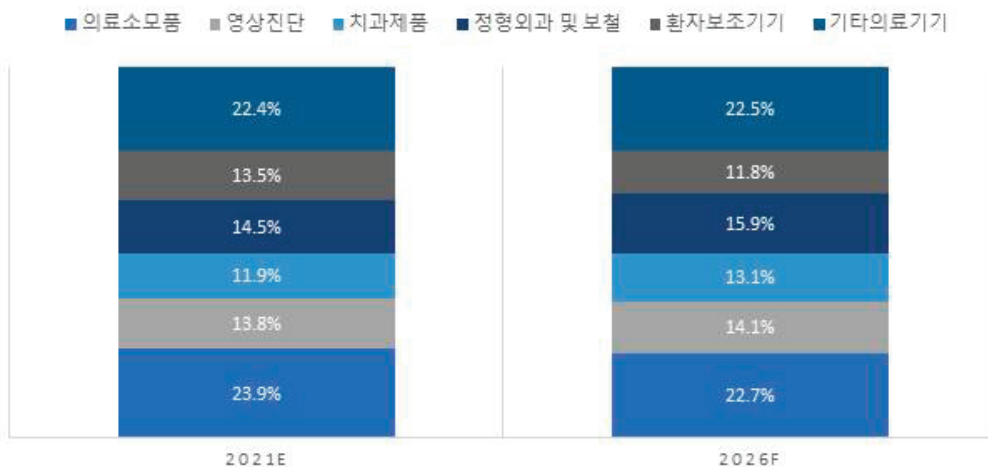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1,602.9	1,826.3	1,749.7	1,925.3	2,070.9	2,268.3	2,495.4
영상진단	1,096.1	1,051.2	1,043.1	1,158.9	1,258.2	1,395.2	1,553.8
치과제품	707.4	911.2	953.8	1,061.7	1,161.1	1,291.1	1,440.7
정형외과 및 보철	879.4	1,107.2	1,103.4	1,247.0	1,374.6	1,548.1	1,749.3
환자보조기기	1,043.9	1,032.3	956.7	1,005.7	1,074.3	1,175.2	1,300.1
기타의료기기	1,490.8	1,715.5	1,741.1	1,907.3	2,053.2	2,244.4	2,472.9
합계	6,820.6	7,643.8	7,547.8	8,305.9	8,992.3	9,922.3	11,012.2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정형외과 및 보철(9.70%)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보조기기의 연평균성장률은 4.93%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정형외과 및 보철의 구성비율은 1.4% 증가한 15.9%인 반면, 환자보조기기는 1.7% 감소하여 1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스페인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스페인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54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5% 증가하였음

– 팬데믹 영향에도 '20년과 '21년 모두 의료기기 수입과 수출은 증가하였음

<스페인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1,177,603	1,318,989	1,370,995	1,284,979	1,360,212	1,582,299
수입액	3,814,951	3,945,118	4,364,423	4,463,653	4,857,957	5,418,007

자료: UN Comtrade Database³³⁴⁾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스페인의 의료기기 수입은 '21년에 전년 대비 12.6% 증가한 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16.2% 증가한 2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함

<스페인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기기 수입	4,546,531	5,029,646	5,114,828	5,558,726	6,261,811
의료기기 수출	1,767,909	1,841,883	1,740,945	1,818,339	2,112,261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및 기타의료기기가 각각 24.12%, 23.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음

– 정형외과 및 보철은 세 번째로 크고, 환자보조기기, 영상진단,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1년에는 영상진단과 환자보조기기가 큰 감소세를 보였음

33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1.)

<스페인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소모품	1,146,720	1,248,850	1,219,053	1,291,518	1,510,353
영상진단	523,043	671,598	674,988	855,648	802,248
치과제품	407,891	463,845	488,021	376,044	498,734
정형외과 및 보철	656,507	654,196	683,970	802,411	1,022,059
환자보조기기	622,402	655,599	684,737	964,413	939,323
기타의료기기	1,189,968	1,335,558	1,364,059	1,268,692	1,489,094
합계	4,546,531	5,029,646	5,114,828	5,558,726	6,261,811

자료: Fitch Solutions - Spain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스페인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4천 5백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3.83%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하였으며 정형외과용 기기가 큰 폭의 증가를 보임

<스페인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검사기)	12,503.2	15,606.2	21,151.3	20,713.5	21,899.0	29,735.3
9019 (치료기가·호흡기)	4,098.0	3,212.8	3,654.5	3,909.3	3,211.1	2,122.6
9020 (기타 호흡기)	7.1	11.7	23.6	21.3	171.9	17.3
9021 (정형외과용)	4,032.4	3,854.2	3,637.9	2,854.7	2,046.8	4,711.7
9022 (영상진단)	4,402.5	3,973.5	8,495.3	6,123.4	8,376.9	8,711.5
합계	25,043.3	26,658.5	36,962.6	33,622.3	35,705.7	45,298.3

자료: UN Comtrade Database³³⁵⁾

- '20년 3월 중국 공급업체에서 도입한 58,000개의 테스트 키트가 검출률이 30%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용을 중단하였음³³⁶⁾
- '21년 12월 말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마드리드 지방 정부가 제공한 무료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했으며 배포하는 약국에 긴 대기줄이 생겼으며 9유로에 판매되는 유료 테스트도 빠르게 매진되었음³³⁷⁾
- '22년 1월 코로나19 재택 테스트의 수요 급증으로 4.95~10유로로 가격이 인상되자 스페인 당국은 2.94유로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음³³⁸⁾
- 스페인에서는 74종의 자가진단을 위한 항원검사가 있으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음³³⁹⁾
- 자가 항원검사는 인터넷 약국 DosFarma에서는 2.53~2.94유로(2.5~2.9달러)에 판매되고 있음³⁴⁰⁾
- 바르셀로나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검사는 신속항원검사 18유로(17.8달러)부터, PCR 검사 70유로(69달러)부터, 재택 신속항원검사+혈청검사 70유로(69달러)부터, 재택 PCR 검사는 160유로(158달러)부터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음³⁴¹⁾

<스페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6월 17일 기준

총검사수	인구 1천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93,162,168	1,961.85	0.92

자료: Our World in Data³⁴²⁾

335)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1.)

336) Guardian News, Coronavirus test kits withdrawn in Spain over poor accuracy rate (2020.03.27.)

337) Reuters, Madrid's free COVID tests struggle with demand as infections hit new high (2021.12.29.)

338) euronews, Spain caps prices of COVID test kits amid surge in demand (2022.01.13.)

339) Agencia Española de Medica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AEMPS), Información general sobre test de diagnóstico de (검색일 2022.10.21.)

340) <https://www.dosfarma.com/salud/test-analisis/test-antigenos-covid/> (검색일 2022.10.21.)

341) <https://www.saludsavia.com/servicios/acto/test-covid-19/barcelona> (검색일 2022.10.21.)

342)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21.)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21.)

- 스페인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39억 1천만 달러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13.13% 증가하고 있음
- HS코드 382200(PCR)키트가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 보다 수입 규모는 작으나 성장률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스페인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1,752.19	2,350.11	2,332.00	2,550.17	2,717.77
382200 (PCR)	652.93	704.05	783.99	771.92	1,350.28	1,191.50
합계	652.93	2,456.24	3,134.09	3,103.92	3,900.45	3,909.27

자료: UN Comtrade Database³⁴³⁾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스페인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및 원격의료)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17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8.29% 성장하여 25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³⁴⁴⁾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54.7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스페인은 디지털화 수준이 매우 높으나 지역별로 고도로 분산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 커뮤니티 간의 데이터 상호 운용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른 자치 커뮤니티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³⁴⁵⁾
- 스페인의 국민건강시스템의 디지털 임상 기록(HCDSNS, Historia Clínica Digital del Sistema Nacional de Salud)은 시민과 의료 전문가가 건강 관리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임상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³⁴⁶⁾

343)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1.)

344)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spain> (검색일 2022.10.21.)

345)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The electronic health record is not yet in force in the European Union (2022.04.22.)

- HCDSNS 프로젝트는 공공 사업체 red.es와 17개 자치 커뮤니티 및 국립 보건 관리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 Management)와 공동으로 온라인 건강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보건, 사회 서비스 및 평등부가 주도했음
- 건강 카드가 있는 16세 이상의 커뮤니티 시민은 전자 DNI 또는 디지털 인증서로 디지털 의료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음³⁴⁷⁾
- SNS의 전자 처방전 상호운용성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전국 어느 약국에서든 모든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게 되었음³⁴⁸⁾
- SNS 공동사업은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도 Online Health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전자 처방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음
- BioRegion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건강 회사가 '10년에 약 20개 정도에서 10년 후 200개 이상으로 회사 수가 10배 증가하였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16년 510만 유로(505만 달러)에서 '19년 1,880만 유로(1,861만 달러)로 3배 증가하였음³⁴⁹⁾
- 이 성장의 90%가 신생 기업이고 총매출이 1억 1,800만 유로(1억 1,700만 달러)에 달하였음
- 스페인의 원격의료는 전염병 발생 후 153% 이상 성장하였으며 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치 커뮤니티는 안달루시아, 카탈로니아, 발렌시아 커뮤니티 및 마드리드 등임³⁵⁰⁾
- '20년 4월 팬데믹 기간에 70만 다운로드의 mediQuo앱 의료 상담은 사용자 수가 37% 증가하였으며, 169,000명 보험 가입자의 Cigna Wellbeing앱 사용이 15.6배, Doctor Cigna의 사용이 760% 이상 증가했음³⁵¹⁾
- '22년 6월 국가 보건 시스템의 영토 간 위원회는 자치 공동체와의 공동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계약 채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건강 위원회”의 설립에 합의하였음

346) <https://www.sanidad.gob.es/profesionales/hcdsns/home.htm> (검색일 2022.10.21.)

347) <https://www.comunidad.madrid/servicios/salud/historia-clinica-digital-sistema-nacional-salud> (검색일 2022.10.21.)

348) https://www.sanidad.gob.es/organizacion/sns/e_salud.htm (검색일 2022.10.21.)

349) Biocat, The digital health boom in Barcelona: a growing ecosystem (2020.11.26.)

350) iSanidad, La telemedicina en España crece más de un 153% tras la llegada de la pandemia (2021.08.08.)

351) EL PAÍS Economía CincoDías, El coronavirus impulsa la telemedicina en España (2020.04.23.)

- 디지털 건강, 정보 및 혁신 사무국이 준비한 "디지털 건강 전략" 초안이 협의 및 관찰 과정 시작을 위해 제출되었음

- 디지털 건강 전략 목표

-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의 훈련 및 참여
- 의료서비스와 사람들의 관계 촉진
- 공중 보건 시스템의 더 나은 성능을 위한 프로세스의 가치 극대화
- 전문가의 작업 지원
- 조직의 거버넌스 지원
- 과학 지식 생성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한 국가 건강 데이터 공간 생성
- 5P의학을 지향하는 혁신 정책을 적용하여 오늘날 사회의 요구에 대한 SNS 진화의 적응

● 스페인의 '21년 국가 보건 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투자는 전년 대비 16.62% 증가하여 총 9억 3,800만 유로(9.28억 달러)가 될 것임³⁵²⁾

● '22년 8월 스페인 정부는 국민 건강 시스템(SNS)에서 1차 진료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억 3천만 유로(2.27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음³⁵³⁾

- 이 자금은 '22년에 7천만 유로(6,900만 달러) 및 '23년에 1억 6천만 유로(1.58억 달러)를 자치 커뮤니티에 분배하며 디지털스마트헬스센터, 개인화된 케어, 지원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사용됨

□ 의료관광

● 스페인은 건강 관광 클러스터인 Spaincares의 보고서에 따르면 '17년에 약 5억 유로(4.9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향후 스페인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의료관광객 수가 2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³⁵⁴⁾

- 스페인은 장기 기증 및 이식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며 21개의 Joint

352) CIOEspaña, Una oportunidad histórica para el desarrollo de la salud digital en España (2022.04.28.)

353) La Moncloa, El Gobierno de España destina más de 230 millones de euros a la transformación digital de la Atención Primaria en el SNS (2022.08.11.)

354) Salud y Medicina, España, entre los cinco países favoritos de turismo médico (2019.08.02.)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의료기관이 있고 높은 수준의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지원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

- '17년 스페인에는 140,000명이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으며 건강 관광은 연평균 20%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³⁵⁵⁾
- '21년에 건강 치료를 받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외국인의 지출이 일반 및 개인 수준에서 모두 증가하며 의료관광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음³⁵⁶⁾
- 평균적으로 1인당 1.082유로(1,071달러)를 지출하며 일주일 동안 스페인에 머물고 있음
- 스페인은 중동, 북아프리카 및 영국 제도에서 온 국제 관광객들이 선택하는 목적지로 고도의 정형외과, 미용, 치과 시술이 가장 많이 요청되고 있음³⁵⁷⁾
- '22년 7월 아일랜드 환자들의 긴 대기자 명단을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에 병원을 개원하였으며 Alicante의 Costa Blanca에 위치한 이 시설은 매년 1,500건의 정기 수술을 포함하여 아일랜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치료를 제공할 예정임³⁵⁸⁾
- EU Cross Border Directive(국경을 초월한 의료)에 해당하는 새로운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 보건당국(Irish Health Service Executive, HSE)는 아일랜드의 비용 한도 내에서 병원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협정은 치료 대기자 명단이 긴 아일랜드 병원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스페인은 WHO의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에서 7위를 차지하였음³⁵⁹⁾
- 스페인은 특정 절차에 대한 긴 대기시간을 피할 수 있고, 편안하고 현대적이며 편안한 시설, 최고 품질의 환자 치료 등의 이점이 있음
- 풍부한 일조량과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와 관광 명소가 있어 의료 여행과 휴가를 결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유럽 및 미국 등에 비해 30~70%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객은 주로 영국과 독일에서 방문하고 있음
- 주요 진료 과목은 성형 수술, 정형외과, 노인병, 불임 치료(IVF, 체외 인공수정), 치과, 라식, 비만 치료 등임

355) EL PAÍS Economía CincoDías, Me voy de vacaciones a operarme a España (2019.04.24.)

356) Redacción Médica, Perfil del turista de Salud en España: gasta 1.082 € en 7 días de estancia (2022.05.05.)

357) Diners Club Spain, ESPAÑA, CUARTO DESTINO DE TURISMO DE SALUD EN EL MUNDO (2022.07.14.)

358) EURACTIV, Hospital opens in Spain for Irish patients on lengthy waiting lists (2022.07.15.)

359) <https://www.vaidam.com/es/knowledge-center/medical-tourism-spain> (검색일 2022.10.22.)

스페인 MEDICAL TOURISM INDEX 2020-2021 ³⁶⁰⁾			
글로벌 랭킹	대상국 환경	의료관광 산업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4/46	4/46	4/46	8/46

□ 화장품

- Statista에 따르면 스페인의 화장품 시장은 유럽 지역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스페인의 화장품 소비 가치는 70억 유로(69.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스킨케어는 30% 이상으로 화장품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³⁶¹⁾
 - 스페인에서 화장품 산업은 다국적 회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로레알과 존슨앤 존슨 등의 최고의 도매업체 중 하나이며 Douglas와 Sephora는 주요 스페인 화장품 소매업체 목록에서 상위에 위치함
 - 스페인에 500개 이상의 중소기업(SME)이 있으며 화장품 및 향수 제조 부문의 중소기업 수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임
- Statista에 따르면 '21년 화장품의 카테고리별 점유율은 스킨케어 32.5%, 세면용품 23.5%, 헤어케어 18.3%, 향수 17.5%, 메이크업 8.2% 순임³⁶²⁾
- 스페인의 미용 및 향수 산업은 '18년까지 4년 연속 2% 성장하였으며, 12억 8천만 UNIT의 제품 소비되며, 1인당 150유로(148.5달러)의 화장품을 사용하며, 84%가 중소기업이며 직접 일자리 39,000개, 간접 일자리 250,000개를 창출함³⁶³⁾
 - 스페인은 세계 10대 미용 제품 수출국 중 하나이며, '18년 세계 2위의 향수 수출국임
- 스페인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2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4.65%의 성장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향수·화장수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45억 9천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9.82% 성장하였음

360) <https://www.medicaltourism.com/destinations/spain> (검색일 2022.10.22.)

361) <https://www.statista.com/topics/7464/cosmetic-and-perfume-market-in-spain/> (검색일 2022.10.22.)

36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18942/cosmetic-category-market-share-spain/> (2022.09.02.)

363) <https://www.stanpa.com/en/industry-figures/cosmetic-sector-spain/> (검색일 2022.10.22.)

<스페인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734.85	752.42	858.18	839.37	611.27	843.46
3304 (기초·색조)	917.75	1,061.12	1,146.90	1,179.15	969.46	1,149.38
3305 (두발용)	332.27	352.05	361.04	377.88	384.43	418.97
3307.10 (면도용)	24.41	25.54	29.06	23.95	21.62	21.36
3307.20 (데오드란트)	106.60	109.43	119.17	118.25	105.95	117.47
3307.30 (입욕제)	19.77	40.22	35.65	34.66	28.45	29.15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82.22	73.54	80.36	77.19	85.86	100.30
합계	2,217.87	2,414.32	2,630.35	2,650.45	2,207.04	2,680.08

자료: UN Comtrade Database³⁶⁴⁾

- 스페인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1천 8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³⁶⁴⁾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1.)

<스페인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0.8	—	0.4	0.5	—	0.4
3304 (기초·색조)	10,208.5	19,108.1	11,877.2	12,175.8	12,702.8	17,681.7
3305 (두발용)	328.3	123.4	319.1	270.1	245.8	381.4
3307.10 (면도용)	—	0.1	—	3.2	—	—
3307.20 (데오드란트)	—	—	—	—	—	—
3307.30 (입욕제)	27.3	—	—	—	0.6	—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31.4	12.9	17.1	51.1	32.7	83.8
합계	10,596.4	19,244.5	12,213.8	12,500.8	12,982.0	18,147.2

자료: UN Comtrade Database³⁶⁵⁾


365)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1.)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일반 공중 보건법 33/2011 2011년 10월 4일	주요 내용	공공 기관, 기업 및 시민 단체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요인에 따라 행동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 및 집단 모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
	링크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11-15623
Royal Decree 1192/2012 2012년 8월 3일	주요 내용	건강 관리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와 수혜자의 지위를 규제하며, 국민 건강 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금 청구 등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boe.es/diario_boe/txt.php?id=BOE-A-2012-10477
병원에 관한 법률 37/1962 1962년 7월 21일	주요 내용	병원의 운영과 의료 임상 지원 제공 등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62-13415
건강 전문직 조직에 관한 법률 44/2003 2003년 11월 21일	주요 내용	전문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예방, 훈계 및 자격을 부여하고 수수료를 정규화
	링크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03-21340
Royal Decree 459/2010 2010년 4월 16일	주요 내용	유럽 연합의 비회원국에서 획득한 보건 과학 전문가의 외국 직위에 대한 전문적 효과의 인정 조건을 규정
	링크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10-6960

참고 스페인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스페인왕국(Kingdom of Spain)• 수도 : 마드리드(Madrid)• 인구 : 4,733만 명('21.7월 / CIA 추정치)• 면적 : 50만 5,370km²(한반도의 약2.3배)• 종교 : 가톨릭(74% 이상)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의회구성: 양원제(상원 265석, 하원 350석)•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원수: 펠리페 6세(Felipe VI)('14.06~)- 총 리: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Perez-Castejon, '18.06~, 사회당)- 외교부장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José Manuel Albares)('21.07~)- 보건부장관: 카롤리나 다리아스(Carolina Darias San Sebastián)('21.01~)				
경 제 ('20년 기준)	GDP	1인당 GDP	교역규모	경제성장률(GDP)	
	12,805억 달러	27,179달러	(수출) 302,875백만 달러 (수입) 313,144백만 달러	-10.8%	
우리나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03.17. 외교관계 수립•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스페인대사 : 박상훈('20.12. 부임)- 주한스페인대사 : 후안 모로(Juan Morro) ('18.11. 부임)•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2,301,058천 달러(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수입 : 1,929,173천 달러(육류, 기타금속광물, 농약 및 의약품)•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스페인 투자 : 1,615,971천 달러				

주요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5월 민주사회주의 선거 연합체인 우니다스 포데모스(u'niðos po'demos) 결성 • 18.06월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불신임 투표 통과 • 18.06월 페드로 산체스 총리 취임 • 19.04월 총선 실시, 집권 여당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사회주의노동자당이 123석을 얻으며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체스 총리 취임 투표 실패 후 스페인 사회주의노동자당과 우니다스 포데모스 간의 정부 구성 협상 실패로 총선 실시 결정 • 19.11월 총선 실시, 1975년 민주주의 전환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인 66.2%로 인민당과 극우 폭스당이 선전 • 20.01월 우니다스 포데모스와 소수 연정 구성 • 21.07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이 위헌으로 판결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14/206	32/180	23/141	25/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6

영국



1 보건 의료 현황

□ 인구 통계

● 영국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0.5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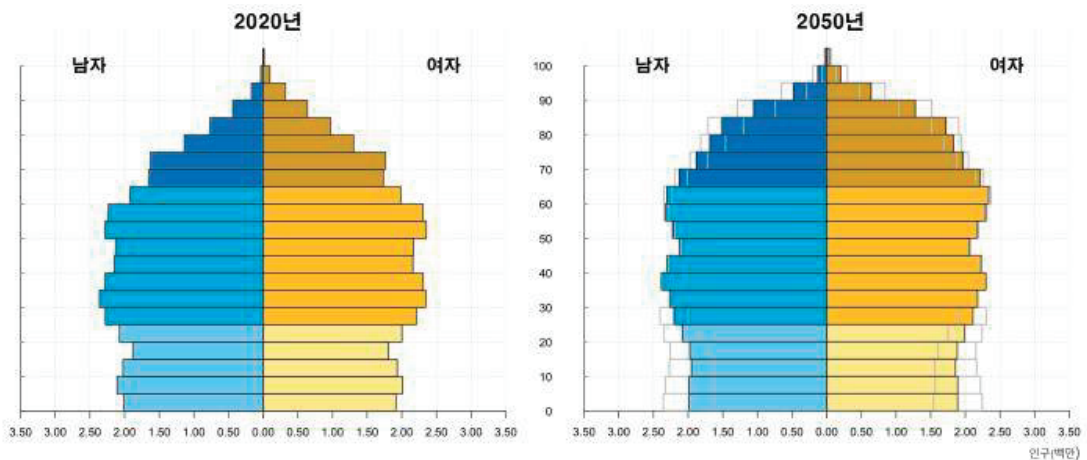
— 영국의 도시화율은 83.903%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높음

<영국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67.886	40.5	18.7	83.903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영국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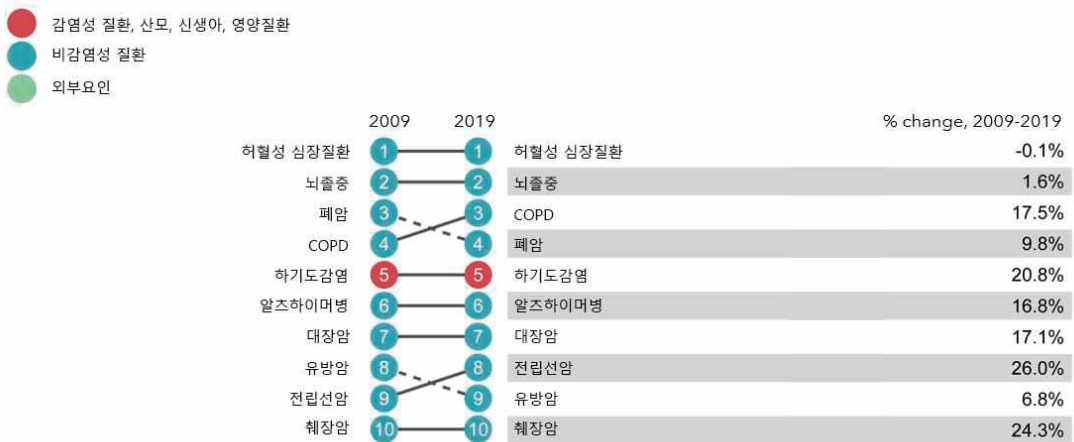
- 영국의 기대수명은 81.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보다 높으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3.7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88.1%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7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38.9%임

<영국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영국
기대수명(세)	81	81.4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3.7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7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영국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순이며, '09년 대비 전립선암과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성 질환도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영국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2.95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81.9%이며, 간호 인력은 10.29명으로 OECD 평균 10.4명과 유사함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2.45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55.7% 수준임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7.35대로 OECD 평균인 16.9대의 43.5% 수준이며, CT 장비 대수는 8.76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33.8%에 해당함

<영국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영국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2.95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10.29 (2019)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2.45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7.35 (2019)
	CT 스캐너	25.9	8.76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영국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5.0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73.5% 수준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2.8%로 OECD 평균 8.8%의 1.45배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4,500.1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1.1배에 해당함
- 영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15.9%로 OECD 평균인 19.8%의 80.2% 수준임

<영국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영국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5.0 (200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12.8 (2020)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0	15.9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4,500.1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영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에는 80.2%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4.62%에서 7.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16.52%에서 '50년 12.64%로 3.8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IHME

❑ 보건 의료 체계

□ 의료 전달 체계

-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자국민 모두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NHS(National Health System)로, 일차 의료(primary care), 이차 의료(secondary care), 삼차 의료(tertiary care)로 나뉨³⁶⁶⁾
- 일차 의료(primary care)
 - 환자의 의료시스템 필요시 가장 처음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의인 GP(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되며, 무상의 치료가 이루어짐
 - 추가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2차 의료기관인 병원에 의뢰되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개인 공급자나 NHS 병원 Trust에 위임되기도 함
- 이차 의료(secondary care)³⁶⁷⁾
 - 병원 케어(Hospital care) 또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이라고도 불리며, 백내장 수술과 같은 선택적 치료 또는 골절 치료와 같은 긴급 응급치료가 제공됨
- 삼차 의료(tertiary care)³⁶⁸⁾
 - 삼차 의료에서는 신경외과, 이식, 정신건강 서비스 등 고도의 전문화된 치료가 제공됨
- 영국의 의료시스템은 의료비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수요, 복합적인 변화 양상 대두 등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실험 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센터 설립,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³⁶⁹⁾
 - '20년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시스템에 다른 확진자 수와 사망률을 집계하였을 때, 영국과 같이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의료보험제도(NHI, National Health Insurance)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보다 사망률이 3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남³⁷⁰⁾

366) NHS Providers homepage, The NHS provider sector(검색일 2022.10.04.)

367) Healthtalk homepage, Seeing the GP: Advice and tips for young people(검색일 2022.10.4.)

368) Contact for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homepage, Healthcare in England (검색일 2022.10.04.)

369)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408호(2021.09.27.)

● 병원 수³⁷¹⁾

- '21년 기준, 구역(district)별 병원의 개수는 Scotland가 229개로 가장 많고, Isle of Man이 1개로 가장 적음
- 구역별 인구 당 병원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South West가 다른 구역에 비해 인구의 비율이 더 낮고 병원의 비율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영국 구역별 병원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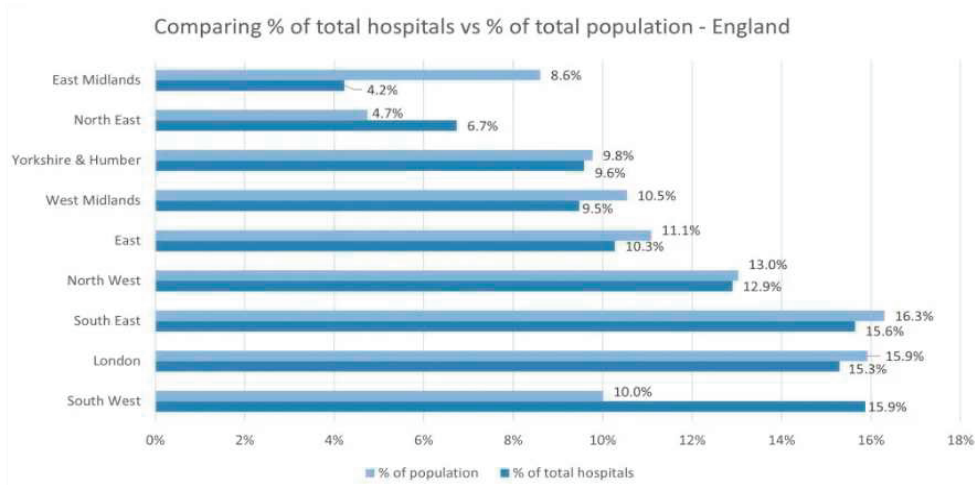
구분	병원 수
Scotland	229
Northern Ireland	40
North East	59
North West	113
Isle of Man	1
Yorkshire&Humber	84
East Midlands	37
West Midlands	83
Wales	82
East	90
London	134
South East	137
South West	139

자료: <https://www.interweavetextiles.com/how-many-hospitals-uk/>

370) 노경목, 伊·英 '무상 의료'의 민낯...의료보험 채택국보다 사망률 3배 높았다 (2020.03.24.)

371) Interweave healthcare, How many hospitals in the UK (2021.10.27.)

<구역별 인구 당 병원 비율>



자료: <https://www.interweavetextiles.com/how-many-hospitals-uk/>

● 병상 수³⁷²⁾

- 영국의 1,000명당 병상 수는 '15년 2.61개에서 '19년 2.46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영국 1,000명당 병상 수>

(단위: 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병상 수 (1,000명당)	2.61	2.57	2.54	2.50	2.46

자료: THE WORLD BANK DATA,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United Kingdom

● 민간의료보험

- PMI(Private Medical Insurance)³⁷³⁾

- PMI는 NHS와 함께 이루어지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짧은 대기시간, 장소의 선택권, 개인적으로 제공되는 치료 등을 제공함
- 난치병이나 관절염 또는 천식 등 PMI 가입 전에 존재하였던 만성질환은 PMI에서 보장되지 않음

372) THE WORLD BANK DATA, Hospital beds (per 1,000 people)-United Kingdom (검색일 2022.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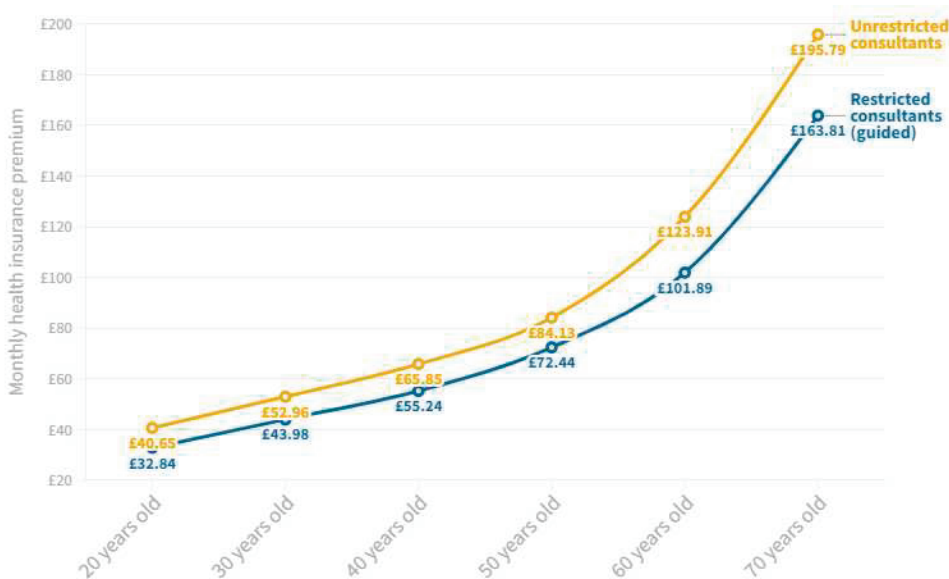
373) Tony Forchione, Private health insurance (2022.08.01.)

– HCP(Health Cash Plan)³⁷⁴⁾

- HCP는 가입자가 월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정기 의료비 또는 치과 진료비를 한도로 충당하는 제도임
- 예를 들어, 한 달에 10파운드를 지불함으로써 치과 진료비는 최대 200파운드, 물리치료비는 100파운드, 안과 치료비 100파운드를 보장받음

- 영국의 민간의료 보험 평균 사용 비용을 살펴보았을 때, 컨설턴트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즉, 가이드를 받지 않은 평균 70세 노인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사용액이 195.79유로로 나타났으나 컨설턴트의 가이드를 받은 평균 70세 노인의 경우는 163.81유로로 31.98유로 정도 더 낮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³⁷⁵⁾

<영국(UK)의 민간보험 평균 비용>



자료: MyTribe Insurance, Average Cos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UK, 29 June 2022

374) Moneyhelper, What are health cash plans and are they worth it? (2021.09.01.)

375) MyTribe Insurance, Average Cos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UK (2022.0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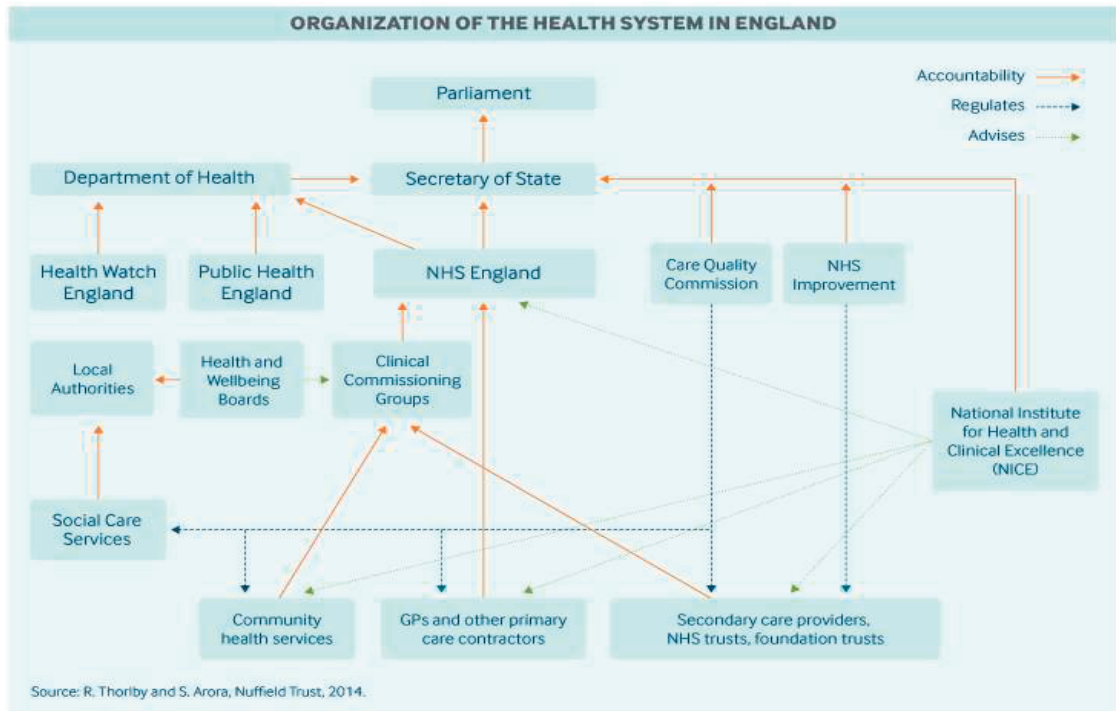
□ 건강보험체계³⁷⁶⁾

- 영국의 보건 입법과 일반 정책에 대한 책임은 의회, 보건부 장관 및 보건부에 있음
- NHS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day-to-day responsibility)은 보건부와 별도로 운영되며 독립적으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NHS 잉글랜드에 있음
- NHS 잉글랜드의 책임 사항은 아래와 같음
 - NHS 예산 관리
 - 191개의 지역 임상 커미셔닝 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s)감독
 - 1차 진료, 치과 진료, 희귀질환 치료 및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공공보건 서비스 등 특정 유형의 치료에 대한 직접 위탁
 - 보건부 장관의 위임사항에 대한 작업
 - 예약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개발과 전자 의료기록 보관 및 처방을 위한 표준 설정 등을 포함한 건강 정보 기술의 전략 수립
- CCGs(Clinical Commissioning Groups)는 소규모 일반 가정의(GP)들의 그룹으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1차와 2차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GP와 병원 등을 통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임³⁷⁷⁾

376) Tikkanen, Osborn, Mossialos, Djordjevic, Wharton,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 Profiles, England (2020.06.05.)

377) 이성우, 영국 NHS의 보건의료 개혁 동향, 2014 (검색일 2022.10.05.)

<잉글랜드(England)의 보건의료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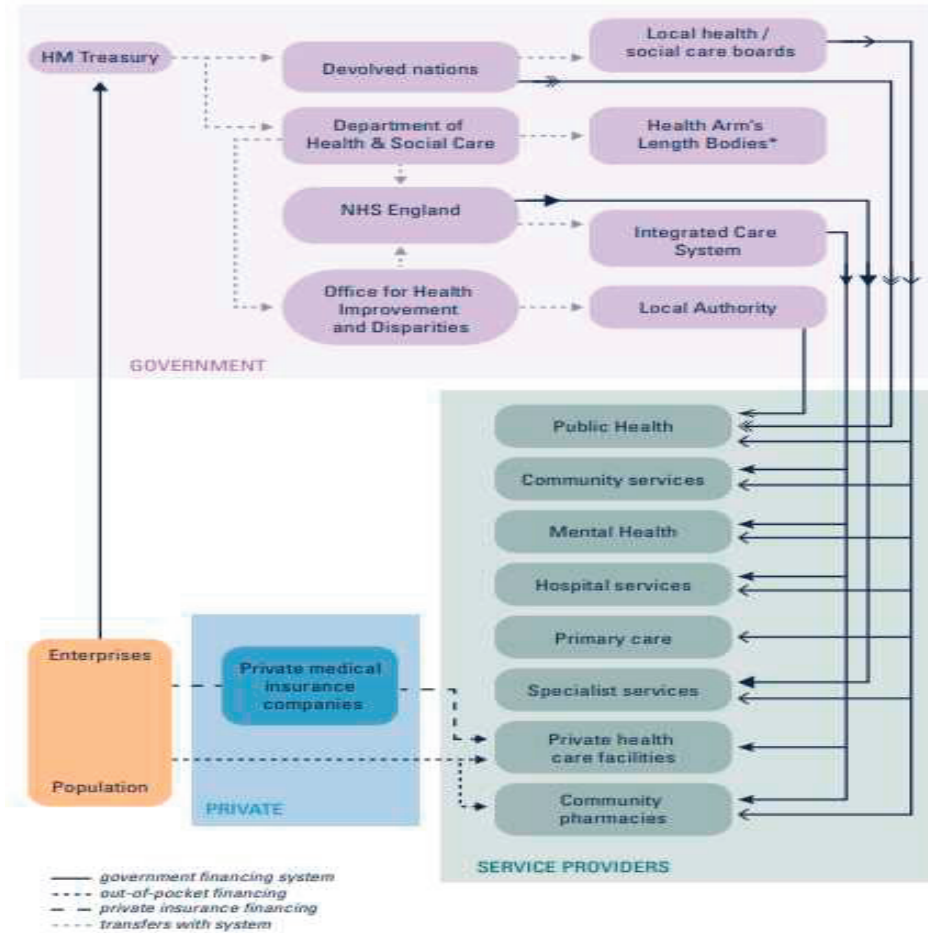


자료: Tikkanen, Osborn, Mossialos, Djordjevic, Wharton,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 Profiles, England, 5 June 2020

□ 수가제도

- 영국의 보건의료 재정 흐름은 아래와 같음³⁷⁸⁾

<영국 보건의료 재정 흐름>



자료: Tikkanen, Osborn, Mossialos, Djordjevic, Wharton, International Health Care System Profiles, England, 5 June 2020

-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대부분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 private health care facilities나 community pharmacies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 영국의 수가제는 의료서비스 행위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짐³⁷⁹⁾

378) Anderson, Alderwick, Pitchforth, McGuire, Edwards, Mossialos, United Kingdom Health system review,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22.05.11.)

379) Anderson, Alderwick, Pitchforth, McGuire, Edwards, Mossialos, United Kingdom Health system review,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22.05.11.)

- 대부분 하나만의 수가제보다는 여러 제도가 혼합되어 지급되는 주체가 많으며, 요양원(social care)의 경우 민간기관으로 운영되므로 일당으로 지급됨

<서비스 공급자 지불 메커니즘>

공급자	지불체계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와 함께 주로 위험 조정 인두제(risk-adjusted capitation)로 지급됨
병원 컨설턴트 (Hospital consult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봉급제(Salaried doctors)로 지급됨
치과의사 (Dent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기반(Activity-based payments)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국 전역에서 인두제와 활동 기반 지급의 혼합을 사용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음
지역 약사 (Community pharmac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잉여금(약물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과 DHSC가 보상하는 금액의 차이), 고정 예산, 행위별 수가제, 성과급 및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분에 대한 지불의 조합으로 지급됨
병원 (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과 외래 모두 잉글랜드의 결과별 지불 프로그램(Payment by Results Programme)에 명시된 수가에 따라 제공된 진료 단위에 대한 활동 기반으로 지급됨
요양원 (Social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원은 독립 민간기관으로 운영되며, 일당으로 지급됨

자료: Anderson, Alderwick, Pitchforth, McGuire, Edwards, Mossialos, United Kingdom Health system review,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11 May 2022

- 영국의 의료서비스 대부분은 NHS에 의해 보장되나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범위가 있음
- 그러나 본인부담금에 있어 상한액(safety net)이 정해져 있으므로 외래 처방약의 경우 서비스 건별로 9.15파운드이며, 치과 진료의 경우 치료의 복잡성에 따라 23.30파운드에서 282.80파운드까지 상한 범위가 매우 넓음

의료서비스	지불방법	본인 부담 상한
외래 처방약	본인부담금	서비스 건별 9.15파운드/ 1년에 10.590파운드
치과 진료	본인부담금	치료의 복잡성에 따라 치료 별 23.30~282.80파운드
안과 진료	직접 지불	NHS 병원 진료: single vision lenses

		70파운드, 그 외의 경우 113.80파운드. 콘택트렌즈 별 57파운드
--	--	--

자료: NHS Digital, GP Earnings and Expenses Estimates 2018/19, 10 Sep 2020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HCA Health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슈빌에서 의사들이 설립한 Park View Hospital에서 시작하여 50년 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1995년 HCA는 영국에 진출하여 벤처를 통해 런던과 맨체스터에 30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음 HCAUK에서는 2021년에 300,0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봤음 	
	요금 설명 및 소아 요금	https://www.hcahealthcare.co.uk/our-services/urgent-care/urgent-care-price-list
	성인용 요금표	https://www.hcahealthcare.co.uk/our-services/urgent-care/urgent-care-price-list/adult-price-list
Ramsay Health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4년에 설립되어 11개국에 480개 시설을 운영하는 글로벌 병원 그룹 	
	체인 병원 가격표 목록	https://www.ramsayhealth.co.uk/patients/self-funding-prices
Nuffield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년 이상 역사의 영국 최대의 의료 자선 단체인 Nuffield Health 37개 병원, 114개 체력단련 및 웰빙센터, 의료센터 및 직장웰빙시설로 구성된 업계 최고의 네트워크 	
	Nuffield 건강 체인 병원의 가격	https://www.nuffieldhealth.com/hospitals/pricing
Circle Health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에 설립된 병원에는 영국 최대 규모의 사립 병원 네트워크 연간 10억 파운드 수익, 50개 이상의 병원, 2,000개 이상의 병상 6,500명 이상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으며 연간 2백만 명 이상의 환자 방문을 처리 	
	체인 병원 런던 독립 병원의 치료 가격	https://www.circlehealthgroup.co.uk/hospitals/the-london-independent-hospital/treatments-prices
Insure Brit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보험사인 Insure British와 연계된 병원들 	
	Wellington 병원 가격표	https://insurebritish.co.uk/wellington-hospital-price-list-uk-hospital-treatment-prices/
	알렉산드라 병원 가격표	https://insurebritish.co.uk/alexandra-

		hospital-price-list-uk-hospitals-treatment-prices/
	홀리 하우스 사립 병원 가격표	https://insurebritish.co.uk/holly-house-private-hospital-price-list/
	KIMS 병원 가격표 - 82개 시술의 치료비	https://insurebritish.co.uk/kims-hospital-price-list-uk-hospitals-treatment-prices/
NHS Eng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NHS 치료에 적격하지 않은 경우(비거주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환자의 초기 청구를 위한 것 	
	해외 환자 선불 가격표	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overseas-patient-upfront-price-list-2021-22/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영국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3,391억 9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4,973.1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4.52% 감소해 3,238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23% 성장해 4,123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4.93% 감소해 '22년 4,728.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5.84% 성장해 '26년 5,930.7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10.64%에서 '26년 10.2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79.29%에서 '26년 80.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20.71%에서 '26년 19.6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356.315	339.198	323.868	342.299	370.141	393.740	412.326
연간 성장률	20.34	-4.80	-4.52	5.69	8.13	6.38	4.72
1인당 의료비	5,248.7	4,973.1	4,728.1	4,977.7	5,362.7	5,683.8	5,930.7
GDP 대비 의료비 비율	12.92	10.64	9.99	9.95	10.08	10.17	10.27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82.29	79.29	79.55	79.77	79.98	80.19	80.39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17.71	20.71	20.45	20.23	20.02	19.81	19.61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영국은 공적 자금 지원받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국가 의료서비스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³⁸⁰⁾
 - 중앙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만 본질적으로 NHS Wales, NHS Scotland, HSC Northern Ireland 및 NHS England의 4개 개별 부문으로 관리되며, 각 부문은 지역 지방 당국 및 기타 공공 또는 민간 조직을 통해 중앙 및 지역적으로 전략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민간(독립) 의료 부문은 상당히 규모가 작으며 건강보험, 자기 부담 환자 또는 NHS 자금 추천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
 - 전통적으로 NHS(미용 수술)가 제공하지 않거나 공공 부문 서비스가 제한적인 분야(치과 진료)인 2차 및 3차 진료의 제공에 있음
 - 민간 병원은 HCA Healthcare, Circle Health, BMI Healthcare, Nuffield Health 및 Ramsey Healthcare와 같은 소수의 주요 병원 그룹이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 제공업체인 Mayo Clinic Healthcare와 Cleveland Clinic London도 진출하였음
-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성인 사회 복지 서비스(가정 간호, 요양원 또는 요양원 등)는 지역 정부 협의회에서 위임하지만,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또는 자발적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음
- Statista에 따르면 영국 병원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1,30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2.5% 성장하여 시장 규모가 1,4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³⁸¹⁾
 - 총인구 수치로 추정하면 '22년에는 1인당 19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함
- 영국의 민간 부문 병원과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년 영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며 '19년 기준 건강 부문의 10.3%를 차지했으며, 노인과 장애인 사회 복지의 78%, 가정 간호의 86%를 담당하고 있음³⁸²⁾
- 영국의 독립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의 가치는 2019/20년 기준 541억 파운드

380)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united-kingdom-medical-technology> (검색일 2022.10.06.)

381) <https://www.statista.com/outlook/hmo/hospitals/united-kingdom> (검색일 2022.10.06.)

382) <https://www.raconteur.net/infographics/uk-private-healthcare-market/> (검색일 2022.10.06.)

(611.8억 달러)로 노인 가정 간호 149억 파운드(168.5억 달러), 가정 간호 및 생활 지원 101억 파운드(114.2억 달러), 치과 73억 파운드(82.6억 달러), 민간 급성 의료 68억 파운드(76.9억 달러) 등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³⁸³⁾

- 의료서비스 대부분은 NHS를 통해 무료로 보장되며 병원에서의 약물도 무료로 제공되며 처방약도 매우 저렴함³⁸⁴⁾
 - 영국 거주자의 약 12%가 개인 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 혜택 패키지의 경우가 많으며 대기시간 감소와 편안한 사적 시설 제공이 장점임
- 영국 의료 부문의 인력 부족은 지속적인 문제이며 브렉시트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17년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의 간호사 5%, 의사 9%, 치과의사 16%, 연합 보건 전문가 5% 이상이 EU 국가 출신이며 런던은 특히 전체 EU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EU 의료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³⁸⁵⁾

영국 공중 보건 전략 2020~2025(PHE Strategy 2020 to 2025) ³⁸⁶⁾	
발표	2019년 9월
기간	2020년~2025년
비전 및 목표	<p><비전> 인구의 건강을 보호 및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임</p>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적 위험과 전염병의 위협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 2.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3.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4. 건강한 경제 활동을 지원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 사회 • 더 건강한 식단, 더 건강한 체중 • 더 깨끗한 공기 • 더 나은 정신건강 • 인생 최고의 시작

383) <https://www.laingbuissonnevents.com/wp-content/uploads/2021/09/UK-Healthcare-Market-Review-Report-Launch.pdf> (2021.09.28.)

384) <https://www.internationalinsurance.com/health/systems/uk.php> (검색일 2022.10.07.)

385) Medical Device Network, Brexit Impact on Medical Devices: Industry trends (2022.04.12.)

38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he-strategy-2020-to-2025> (검색일 2022.10.07.)

- 주요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항균제 내성 위험 감소
- 예방적 예방
- 향상된 데이터 및 감시 기능
- 새로운 국립 과학 캠퍼스

□ 제약산업

- 영국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539억 7천만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791.3 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33% 감소한 511억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3.46% 성장해 585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5.74% 감소한 '22년 745.9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3.07% 성장해 '26년 841.7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69%에서 '26년 1.46%로 지속적 감소할 것이 전망됨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5.9%에서 '26년 14.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44.678	53.970	51.095	52.679	55.508	57.475	58.521
연간성장률	6.28	20.80	-5.33	3.10	5.37	3.54	1.82
1인당 의약품비	658.1	791.3	745.9	766.1	804.2	829.7	841.7
GDP 대비 의약품 비율	1.62	1.69	1.58	1.53	1.51	1.49	1.46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12.5	15.9	15.8	15.4	15.0	14.6	14.2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영국 제약산업 협회(Association of the British Pharmaceutical Industry, ABPI)에 따르면 영국의 제약산업은 407억 파운드(460억 달러)의 매출, 50억 파운드(56.6억 달러)의 R&D 투자, 234억 파운드(264.6억 달러)의 수출, 214억 파운드(242억 달러)의 수입, '20년 기준 66,000명 고용 등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³⁸⁷⁾
- 영국의 제약시장은 세계 10대 국가 시장 중 하나로 세계 제약 부문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19년에 약 670개의 기업이 의약품 및 제제 제조에 종사하고 50,000여 명의 사람에게 고용을 제공하고 있음³⁸⁸⁾
 - 케임브리지에 기반을 둔 AstraZeneca와 런던에 기반을 둔 GlaxoSmithKline은 영국 의약품 제조 산업의 두 주력 기업으로 '21년 9월 현재 AstraZeneca의 시가 총액은 약 1,270억 영국 파운드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 영국에는 5,600개 이상의 생명과학 기업이 활동 중이며 세계 상위 20개 제약 기업이 모두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4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³⁸⁹⁾
- 영국의 제약 부가가치 생산량은 '20년에 13.6%의 강력한 증가 후 '21년에 평균화 되었으며, 여전히 '19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3% 높은 수준으로 예방 접종 및 전염병 관련 약물에 대한 수요가 성장을 주도하였음³⁹⁰⁾

387) <https://www.abpi.org.uk/facts-figures-and-industry-data/> (검색일 2022.10.07.)

388) <https://www.statista.com/topics/5056/pharmaceutical-industry-in-the-uk/> (2021.09.14.)

389) Pharmaceutical Technology, Doing business in the UK: Why Britain is great for the healthcare industries (2019.05.10.)

390) Atradius Collections, Pharmaceuticals Industry Trends United Kingdom - 2022 (2022.03.15.)

- '21년 기준으로 영국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497억 3천만 달러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42억 4천만 달러로 7.9%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347억 7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69.9%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49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27.7%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30.1%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4% 감소한 470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3.4% 성장해 537억 3백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4.8% 감소한 40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6% 성장해 48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8% 감소한 327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2.8% 성장해 366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4.3% 감소한 143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6% 성장해 171억 6백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일반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처방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으며, 처방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이 특허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영국 제약시장 구성>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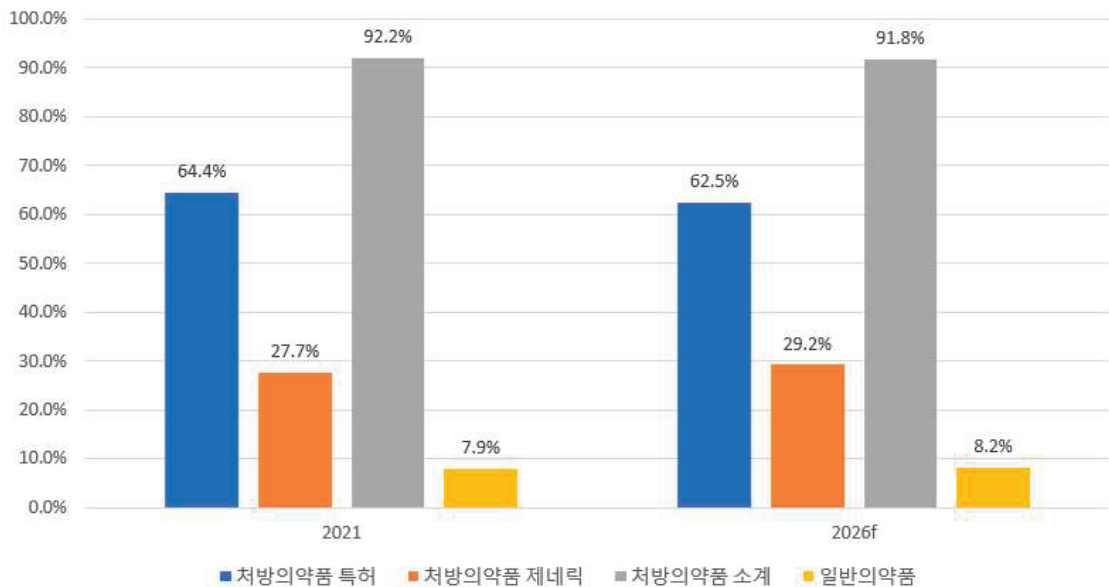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28.934	34.773	32.749	33.574	35.167	36.183	36.597
	제네릭	12.376	14.961	14.315	14.917	15.886	16.624	17.106
	소계	41.310	49.734	47.064	48.491	51.052	52.807	53.703
일반의약품		3.369	4.237	4.032	4.188	4.456	4.668	4.818
합계		44.678	53.970	51.095	52.679	55.508	57.475	58.521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92.2%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91.8%로 소폭 감소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7.9%에서 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64.4%에서 '26년 62.5%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27.7%에서 '26년 2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250억 1백만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258억 7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적자가 8억 7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8.71% 감소한 228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9.6%의 성장을 보여 328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15.36% 감소한 219억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3.2%의 성장을 보여 248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영국의 무역흑자는 '22년 9억 3천만 달러에서 '26년 80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23,816.37	25,001.32	22,824.42	23,483.90	26,020.34	29,091.61	32,845.34
연간성장률	-7.69	4.98	-8.71	2.89	10.80	11.80	12.90
의약품수입	24,989.01	25,872.11	21,898.92	21,697.38	22,645.57	23,674.38	24,815.60
연간성장률	-6.28	3.53	-15.36	-0.92	4.37	4.54	4.82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영국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1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7.9% 증가하였고 '18년부터 지속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영국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16년부터 '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함

<영국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235,704	233,554	209,955	250,675	235,029	253,113
의약품 수입	16,022	187,795	15,442	21,884	85,304	160,290

자료: UN Comtrade Database³⁹¹⁾

- 영국에서 승인되어 사용 중인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등이며 승인되었지만 사용이 중단된 백신은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발네바 등임³⁹²⁾
- '21년 3월 맷 헨콕 보건사회부 장관에 따르면 영국 내 사용을 위해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도즈를 허가하였고, 영국은 COVAX에 5억 파운드(5.7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으며 전 세계에 수십억 도즈를 공급할 계획임³⁹³⁾
- 영국의 전문가들은 두 가지 변종 대상으로 설계된 새로운 백신이 접종의 중추가 될 것이며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주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접종 후 젊은 사람들의 혈전 문제가 이유 중 하나임³⁹⁴⁾
- 영국은 '21년 10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에 56억 파운드(63.3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데 지출한 총지출액은 29억 파운드(32.8억 달러)임
 - '22년 말까지 인도받기 위해 계약했거나 구매하기로 합의한 백신은 3억 4,000만 도즈 이상이며, '22년 3월 말까지 백신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총자금은 83억 파운드(93.9억 달러)임³⁹⁵⁾
 - '21년 10월까지 영국은 백신 프로그램에서 약 470만 도즈 또는 총 공급량의 4.0%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됨(아스트라제네카 190만 도즈 포함)
- 영국이 '21년 12월까지 주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1억 8,900만 도즈,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1억 도즈, 모더나 7,700만 도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6,000만 도즈, 노바백스 6,000만 도즈, 큐어백 5,000만 도즈, 얀센 2,000만 도즈 등임³⁹⁶⁾
- 영국은 '21년 10월 1천만 개의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COVAX에 전달하였으며 '21년에 총 3,060만 잉여 용량이 제공될 것임
 -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백신으로 전체 COVAX 배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비영리 기반으로 백신을 배포하겠다는

391)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4.)

392) <https://www.nhs.uk/conditions/coronavirus-covid-19/coronavirus-vaccination/coronavirus-vaccine/> (검색일 2022.10.10.)

393)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covid-19-vaccine-supply-and-manufacturing-in-the-uk> (2021.03.09.)

394) The Guardian, No plans for UK to order more supplies of AstraZeneca Covid vaccine (2022.08.16.)

395) National Audit Office, The rollout of the COVID-19 vaccination programme in England (2022.02.25.)

396) BBC, Covid vaccine: How many people are vaccinated in the UK? (2022.03.04.)

영국 정부의 약속 덕분에 '21년 10월까지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억 도즈가 사용되었음

- 영국은 또한 정부가 주문한 2천만 도즈의 얀센 백신을 모두 COVAX에 기부할 예정임

●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사는 '21년 11월까지 전 세계 모든 대륙의 170개 이상의 국가에 20억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출시하였으며 COVAX 시설을 통해 130개국에 전달된 1억 7,500만 도즈 이상을 포함하여 이들 중 약 2/3가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로 전달됨³⁹⁷⁾

● 영국은 '22년 9월 새로운 코로나19 2가 백신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추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요양원 거주자나 직원 등 160만 명이 대상으로 하며 75세 이상과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도 접종받을 수 있음³⁹⁸⁾

<영국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9월 4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 횟수	접종 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68.21	457	457	224.80	76.4%	-	80.0%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³⁹⁹⁾, Our World in Data⁴⁰⁰⁾, 구글 코로나19⁴⁰¹⁾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영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131억 8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193.3달러로 추정됨

- 영국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3.08% 성장한 135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5.89% 성장해 170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97) AstraZeneca, Two billion doses of AstraZeneca's COVID-19 vaccine supplied to countries across the world less than 12 months after first approval (2021.11.16.)

398) Anadolu Agency, England begins rollout of next-generation COVID vaccines (2022.09.05.)

399)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05.)

400)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05.)

401)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mid=%2Fm%2F07ssc&gl=KR&ceid=KR%3Ako> (검색일 2022.09.25.)

- 영국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2.64% 성장한 198.4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5.49% 성장해 245.6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13,181.5	13,587.2	14,555.2	15,614.1	16,333.1	17,075.3
1인당 의료기기	193.3	198.4	211.7	226.2	235.8	245.6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영국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료소모품과 기타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8%, 21.7%로 가장 높음

<영국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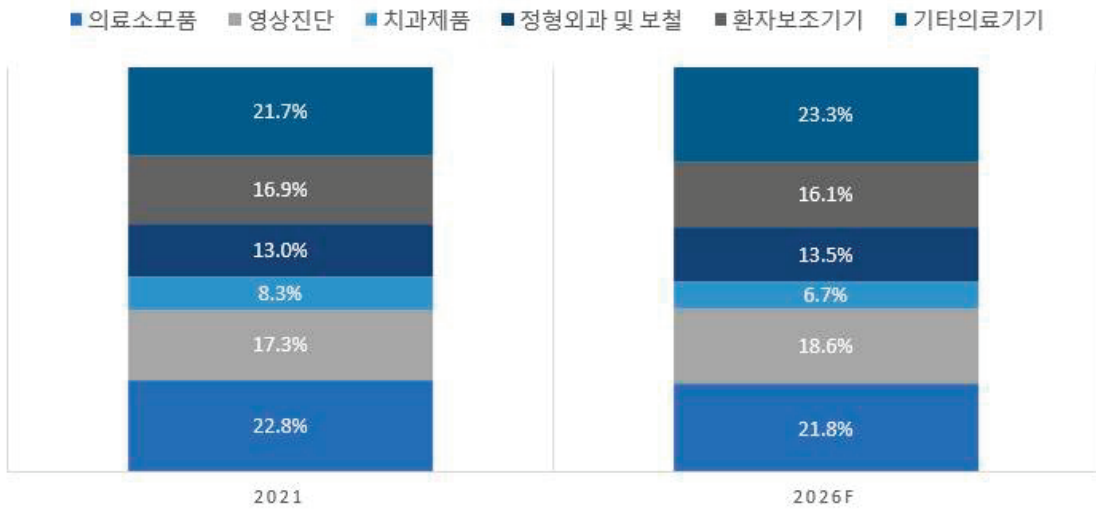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3,148	3,003	3,053	3,202	3,421	3,566	3,716
영상진단	2,487	2,278	2,422	2,703	2,907	3,042	3,183
치과제품	653	1,099	1,051	953	1,030	1,086	1,143
정형외과 및 보철	1,275	1,711	1,799	1,928	2,079	2,194	2,311
환자보조기기	2,248	2,226	2,091	2,305	2,486	2,612	2,742
기타의료기기	2,978	2,865	3,171	3,464	3,691	3,833	3,981
합계	12,790	13,182	13,587	14,555	15,614	16,333	17,075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영상진단(6.95%)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과제품의 연평균성장률은 1.01%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영상진단의 구성비율은 1.36% 증가한 18.6%인 반면, 치과제품은 1.64% 감소하여 6.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영국 의료기기 시장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유럽 3위, 세계 6위 규모로 '15년 약 3,000개의 제조업체가 있었으며, 영국 제조업체는 특히 정형외과, 이미징, 진단 및 심혈관 장치에 강점이 있음⁴⁰²⁾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의료기기 업체는 유럽에 판매해야 하므로 MDR을 준수해야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⁴⁰³⁾
 -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수치에 따르면 영국 기업은 전 세계 의료 지출의 거의 22%를 차지하는 EU 시장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영국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85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5% 감소하였음
 - 팬데믹 영향에도 '20년에 의료기기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감소하였고 '21년에는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하였음

402) <https://www.emergobyul.com/resources/market-united-kingdom> (검색일 2022.10.07.)

403) THE FINANCIAL TIMES, Medical devices industry tests UK plans for post-Brexit divergence (2021.07.17.)

<영국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액	7,044,019	7,133,281	7,656,510	8,138,417	8,812,776	8,591,718
수출액	4,913,900	5,245,728	5,950,424	6,264,269	6,100,516	7,007,876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⁴⁰⁴⁾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영국의 의료기기 수입은 '21년에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12.5% 증가한 7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함

<영국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기기 수입	8,294,589	8,983,216	9,585,375	10,238,510	10,264,716
의료기기 수출	6,240,624	6,952,172	7,195,164	6,780,991	7,626,526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 영역별로 보면 '21년을 기준으로 기타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이 각각 24.4%,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48.76%를 차지했음
- 환자보조기기는 세 번째로 크고, 영상진단, 정형외과 및 보철,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1년에는 치과제품과 정형외과 및 보철이 큰 증가세를 보였음

40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4.)

<영국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소모품	2,018,472	2,159,810	2,377,600	2,652,589	2,496,963
영상진단	1,066,057	1,240,454	1,307,605	1,495,251	1,492,661
치과제품	317,168	310,554	370,676	306,504	444,501
정형외과 및 보철	1,135,679	1,299,200	1,353,386	1,127,803	1,425,615
환자보조기기	1,481,787	1,527,661	1,675,866	1,939,587	1,896,746
기타의료기기	2,275,426	2,445,537	2,500,242	2,716,776	2,508,230
합계	8,294,589	8,983,216	9,585,375	10,238,510	10,264,716

자료: Fitch Solutions - United Kingdom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영국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7천 7백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3.5%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영상진단과 치료기·호흡기기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영국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검사기기)	26,814.2	30,546.6	35,217.5	33,280.1	53,807.5	52,077.1
9019 (치료기기·호흡기기)	7,885.2	8,152.9	7,958.6	8,928.2	5,178.7	7,561.6
9020 (기타 호흡기기)	131.6	62.0	70.8	52.8	470.4	142.1
9021 (정형외과용)	5,034.5	4,222.6	5,231.7	5,713.5	4,961.8	3,795.7
9022 (영상진단)	2,219.2	3,835.3	12,984.7	11,130.2	8,706.5	13,286.2
합계	42,084.7	46,819.5	61,463.3	59,104.8	73,124.9	76,862.8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⁴⁰⁵⁾

- '21년 4월부터 영국 정부는 증상과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재택 PCR 검사를 시행했으며 '22년 1월에 무증상자에 대한 무료 PCR 검사를 단계적으로 중단했음⁴⁰⁶⁾
 - '22년 1월부터 신속 항원 검사 7개를 신청자에게 무료 배송을 시작하였음
 - 영국은 하루에 800,000개의 PCR 검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22년 1월 대유행 기간에 거의 한도에 도달하였음
- 보리스 존슨 영국 전 총리는 '22년 1월부터 2억 개의 신속 검사가 영국 가정에 직접 발송되고 4,200만 개의 검사는 약국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밝힘⁴⁰⁷⁾
 - '21년 말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테스트의 전례 없는 수요가 발생하여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신속 테스트의 공급을 제약하였음
- 무증상자에 대한 신속 테스트 무료 배송은 '22년 3월 종료되었음⁴⁰⁸⁾
- 코로나19 치료 대상자, 의료복지 근무자나 간병인, 의사의 요청 등의 자격이 있으면 3일마다 신속 테스트 한 팩(7개)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⁴⁰⁹⁾
- 포츠머스시는 영국 정부의 무료 검사 중단 후에도 '22년 4월부터 자체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음⁴¹⁰⁾
- UKAS(영국 인증 서비스, The 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는 '21년 12월까지 50개 이상의 공공 부문 실험실과 500개 이상의 민간 제공업체에 코로나 19 샘플링 및 테스트를 승인했음⁴¹¹⁾
- 영국에서는 '22년 10월 기준 영국 건강 보안국으로부터 91종의 코로나19 테스트 키트가 승인되었음⁴¹²⁾

405)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4.)

406) Business Insider, The UK lets citizens order 7 free at-home COVID-19 tests a day. Here's how it works. (2022.01.14.)

407) The Financial Times, Why are there Covid test shortages in the UK? (2021.12.31.)

408) <https://beta.lambeth.gov.uk/coronavirus-covid-19/get-rapid-covid-19-test-if-you-have-no-symptoms> (검색일 2022.10.06.)

409) <https://www.gov.uk/order-coronavirus-rapid-lateral-flow-tests> (검색일 2022.10.06.)

410) Portsmouth City Council, Free COVID tests to continue for Portsmouth residents (2022.03.23.)

411) UKAS, Delivering public confidence in private providers of Covid-19 testing - the ongoing role of UKAS Accreditation (2021.12.20.)

41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test-validation-approved-products> (2022.10.18.)

- 영국 현지에서 신속 테스트는 1회에 1.69~3.99파운드(1.91~4.51달러)에 판매되고 있음⁴¹³⁾

<영국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5월 19일 기준

총검사수	인구 1천 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 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503,270,347	7,480.12	3.85

자료: Our World in Data⁴¹⁴⁾

- 영국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122억 7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21.14% 성장하고 있음
- HS코드 382200(PCR)키트가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 보다 수입 규모는 적지만 성장률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21년에는 수입 규모도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 보다 커짐

<영국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6,291.37	5,111.77	3,930.42	3,780.59	4,298.07
382200 (PCR)	1,041.46	1,103.11	1,226.18	1,304.91	2,432.28	7,975.89
합계	1,041.46	7,394.48	6,337.95	5,235.32	6,212.88	12,273.95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⁴¹⁵⁾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영국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원격의료)

413) <https://rapid-covid-supply.co.uk/> (검색일 2022.10.06.)

414)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06.)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06.)

415)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4.)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35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10.05% 성장하여 57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⁴¹⁶⁾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59.9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19년 이전에도 영국에는 환자의 종이 의료기록을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으로 대체하려는 국가 NHS 이니셔티브가 있으나 트러스트(NHS의 조직 단위)는 각각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역별로 구현하고 있으며, 많은 트러스트는 서면 기록을 EHR로 스캔하고 원본 문서를 파기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음⁴¹⁷⁾

- EHR은 다른 많은 시스템(예: 한 조직에서 30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만이 공식 EHR과 연결되어 부서마다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로 접근이 허용되지 않음

● 영국의 NHS는 '22년 6월 20억 파운드(24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아 '25년까지 모든 병원 및 지역사회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전자 건강 기록의 구현을 약속했음⁴¹⁸⁾

- 미국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인 Cerner에 283억 달러를 지불하고 Oracle 설립자가 "통합된 국가 건강 기록"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임
- NHS 트러스트의 86%가 전자기록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는 그 수치가 '23년 말까지 90%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 '22년 7월 영국 국립 보건 서비스의 일부인 East Cheshire NHS 트러스트와 Mid Cheshire Hospitals NHS 재단 트러스트는 Meditech와 협력하여 공동 EHR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2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⁴¹⁹⁾

● 영국은 '10년~'20년 사이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디지털 건강 스타트업이 설립된 곳으로 '10년 이후로 182개의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35억 유로(34.5억 달러)를 투자하여 영국은 유럽에서 총 자금 조달 측면에서 1위를 차지했음⁴²⁰⁾

● 감염병 위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영국 보건부 장관 Matt Hancock은 GP(일반

416)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ethiopia> (검색일 2022.09.27.)

417) <https://mhrainspectorate.blog.gov.uk/2019/07/23/electronic-health-records/> (2019.07.23.)

418) The Register, UK govt promises to sink billions into electronic health records for England (2022.06.30.)

419) Becker's Healthcare, Meditech partners with 2 UK health system trusts to build joint EHR system (2022.07.05.)

420) SPEEDINVEST, Digital Health in Europe: How the UK is Lead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Healthcare (2022.03.17.)

개업의)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가상 GP 예약이 전년 동기 25%에서 71%로 크게 증가하였음⁴²¹⁾

- NHS 앱 사용 등록은 '20년 2월부터 3월까지 111% 증가하였고,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비상사태 온라인 상담 사이트 NHS 111 온라인 사용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하였음

● 원격의료의 인기를 얻으면서 가상 의료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21년 10월 원격의료 회사인 Babylon Health는 최근 급증하는 원격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였음⁴²²⁾

● 영국 하원은 '22년 3월 조기 낙태 치료를 위한 원격의료를 영국에서의 영구적 허용을 결정하였으며 피임약(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⁴²³⁾

Camden and Islington 디지털 전략 2020-2023 (DIGITAL STRATEGY 2020-2023) ⁴²⁴⁾	
기간	2020년~2023년
비전 및 목표	<p><비전>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와 기능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환자 치료를 제공</p> <p><목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기술, 새로운 디지털 기회의 안전한 사용, 정보 및 기술 발전을 보장하는 우수한 거버넌스, 그리고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임상가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p>
전략 및 주요 내용	<p>전략은 6가지 디지털 원칙을 달성하고자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 시간을 공개하고 직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기본 인프라와 디지털 기능을 마련하며 기본 인프라 및 디지털 기능 확보 2.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좋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직원의 안전 유지 3. 임상 시간 공개를 위한 연구, 서비스 개선, 품질 향상 및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간단한 액세스 보장 4. 기업 서비스가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

421) Morgan Lewis, TELEHEALTH IN THE UNITED KINGDOM: CONSIDERATIONS FOR PROVIDERS (2021.02.04.)

422) spotlight Conductor, Top 5 UK Digital Health Trends for 2022 (2022.01.05.)

423) RCOG, Parliament votes to make telemedicine for early medical abortion permanent in England (2022.03.31.)

	<p>하고 임상 시간을 해제하고 직원의 불만 감소</p> <p>5. 우리의 디지털 서비스가 항상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존중, 포용 보장</p> <p>6. 인력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 구축 및 디지털 작업 포함</p>
--	--

□ 의료관광

- Future Market 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의료관광 시장은 '22년에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2년까지 연평균 14.6%의 성장이 예상되며 영국은 세계 의료관광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음⁴²⁵⁾
- 영국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19년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영국인은 248,274명이었으며, 영국을 방문한 외국인인 61,829명이었음⁴²⁶⁾
- ONS가 매년 실시하는 국제 승객 조사(IPS, International Passenger Survey)에 따르면 '16년에 대략 14.4만 명의 영국 시민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여행했음⁴²⁷⁾
 - '16년 영국 시민은 치료를 위해 31개국을 방문하였으며 폴란드(34,000명), 헝가리(15,884명), 루마니아(14,588명), 터키(12,000명), 스페인(10,741명),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각각 5,000명) 등 8개국이 전체 방문의 72%를 차지하였음⁴²⁸⁾
 - 영국 시민이 해외에서는 주로 받는 치료 유형은 불임 치료, 성형 수술, 비만 수술 및 치과 수술 등임
-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찾는 주된 이유는 영국의 긴 대기자 명단과 해외의 특정 의료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임
 - 인도, 태국, 터키, 헝가리, 폴란드 등지에서 불임 치료 및 에스테틱 치료를 휴가를 즐기며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개인 정보 보호와 풍부한 의료 시설로 인해 목적지로 선택됨

424) <https://www.candi.nhs.uk/sites/default/files/Documents/22%2001%202020%20digital%20strategy%20Final.pdf> (검색일 2022.10.07.)

425) <https://www.futuremarketinsights.com/reports/uk-medical-tourism-market> (검색일 2022.10.08.)

426) ONS, Medical tourism in 2019 and total visits to and from the UK 2015 to 2019 (2020.10.12.)

427) <https://post.parliament.uk/research-briefings/post-pb-0038/> (2020.07.21.)

428) <https://drprem.com/medical-tourism/medical-tourism-in-uk/> (검색일 2022.10.08.)

- 영국 정부는 '19월 1월 이후 17명의 영국인이 터키에서 치료받은 후 사망한 후 '22년 5월에 터키로의 의료관광에 대해 경고했음⁴²⁹⁾
- 영국은 특히 중동에서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영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버밍엄은 두바이 및 기타 중동 도시로 가는 직행 노선이 있음
 - Queen Elizabeth Hospital Birmingham 등 우수한 의료 제공자들이 있고 도보 거리에 고급 호텔과 아파트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음⁴³⁰⁾
 - Edgbaston Medical Quarter는 레저 활동과 함께 다양한 숙박 옵션을 제공하며 호텔 주변에 Edgbaston Cricket Stadium 및 Birmingham Botanical Gardens 등의 미술관과 Bull Ring 쇼핑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음
- 영국은 감염병 이전에 의료관광으로 매년 약 2억 1,900만 파운드(2.5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브렉시트 이후 런던 사립 병원의 증가 등으로 외국인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음⁴³¹⁾
 - 특히 MENA(중동과 북아프리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에서 방문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높으며 MENA 지역에서는 자격을 갖춘 환자를 위한 해외 치료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음
 - 외국인환자는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제공하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대기 없이 받으며 미용 시술과 같이 NHS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료도 받을 수 있음
-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탈퇴 이후 유럽에서 치료에 대한 접근이 변경되었음
 - '21년 1월부터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또는 스위스에서 NHS가 지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⁴³²⁾
- 영국, 특히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에서 미용 시술과 불임 치료를 위해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하고 있음⁴³³⁾

429) LaingBuisson, UK warns against Turkey medical tourism (2022.05.11.)

430) Omnia Health, Is UK the World Leader in Health Tourism? (2020.01.09.)

431) MEDICAL TRAVEL MARKET, Post-Brexit Britain Welcomes International Patients (2021.02.06.)

432) <https://www.nhs.uk/using-the-nhs/healthcare-abroad/going-abroad-for-treatment/going-abroad-for-medical-treatment/> (검색일 2022.10.08.)

433) Global Protective Solutions, Medical Treatment for UK Citizens who Travel for Healthcare (2022.03.16.)

영국 MEDICAL TOURISM INDEX 2020-2021 ⁴³⁴⁾			
글로벌 랭킹	대상국 환경	의료 관광 산업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5/46	3/46	22/46	11/46

- 한국을 방문하여 치과 진료를 받은 영국 환자는 '21년 총 51명으로 '09년 17명에서 연평균 9.6% 성장했음⁴³⁵⁾

□ 화장품

- 영국은 서유럽의 3대 화장품 소비국 중 하나로 '17년에 시장 가치가 98억 파운드(110.8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이후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색조 화장품은 '19년에 전년 대비 17% 하락하였음⁴³⁶⁾
 - '19년 스킨케어의 시장 가치는 22억 파운드(24.9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향수 시장은 17억 4천만 파운드(19.7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13년부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영국의 뷰티 산업 규모는 '20년 기준 270억 파운드(305억 달러)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며 '19년 화장품 소비 가치에서 유럽 3위를 차지하였고 '21년은 화장품, 세면용품 및 향수 산업은 98억 유로(96.6억 달러)로 추정됨⁴³⁷⁾
 - 스킨케어는 뷰티 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부문으로 매출의 23%를 차지하며 '20년에 21억 7,000만 파운드(24.5억 달러)에 달하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37.2%가 건강 및 미용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였음
- 영국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4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1.13%의 하락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향수·화장수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44억 7천만

434) <https://www.medicaltourism.com/destinations/united-kingdom> (검색일 2022.10.08.)

43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2022.06.24.)

436) <https://www.statista.com/topics/5760/cosmetics-market-in-the-united-kingdom-uk/> (2022.02.16.)

437) Hollywood mirrors, UK Beauty Industry Statistics 2022: Facts, Stats and Trends (2022.02.25.)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69% 성장하였음

<영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1,069.86	1,121.88	1,219.85	1,161.84	1,009.39	1,015.73
3304 (기초·색조)	2,331.43	2,513.81	2,489.01	2,383.56	2,029.57	2,082.05
3305 (두발용)	694.57	730.36	813.50	747.25	722.80	732.69
3307.10 (면도용)	47.51	56.87	59.48	55.03	48.57	36.33
3307.20 (데오드란트)	202.93	204.98	196.59	191.07	164.22	146.72
3307.30 (입욕제)	118.82	130.93	99.06	96.95	83.70	87.62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234.25	277.26	311.64	266.28	414.76	300.96
합계	4,699.37	5,036.09	5,189.12	4,901.97	4,473.00	4,402.10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⁴³⁸⁾

- 영국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6천 6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438)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4.)

<영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	11.0	5.8	1.8	314.7	238.1
3304 (기초·색조)	13,646.3	24,670.0	40,005.7	45,076.9	52,061.8	64,123.3
3305 (두발용)	68.9	176.8	331.5	214.0	400.5	840.3
3307.10 (면도용)	—	—	10.9	1.4	13.8	—
3307.20 (데오드란트)	—	—	—	—	—	—
3307.30 (입욕제)	—	23.1	—	13.5	122.0	1.8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1.7	1.5	92.7	63.5	256.8	783.1
합계	13,717.0	24,882.3	40,446.7	45,371.0	53,169.5	65,986.6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⁴³⁹⁾

439)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04.)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의료법 1983	주요 내용	• 의료 협회와 의사 등록과 의료 활동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3/54/contents
국민 건강 서비스법 2006	주요 내용	• 영국의 의료서비스 진흥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1/contents
건강 및 사회복지법 2012	주요 내용	• 잉글랜드의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2/7/contents
건강 및 케어법 2022	주요 내용	• 영국의 의료서비스(NHS)의 통합, 협업 등과 활동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2/31/contents
스코틀랜드 주립 병원 법 1994	링크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4/16/contents
그린위치 병원법 1990	링크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0/13/contents
의료(전문직업)법 1995	주요 내용	• 의료 전문직의 등록 및 수정 등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5/51/contents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수도 : 런던(London)• 인구 : 6,708만 명 (2020.6/CIA 추정)• 면적 : 24만 3,610km² (한반도의 1.1배)• 종교 : 기독교(59.3%), 이슬람교(4.8%), 힌두교(1.5%), 기타종교(2.1%), 무교(25.1%), 무응답(7.2%)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의회구성: 상·하 양원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원: 798석- 하원: 650석•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원수: 찰스 3세(Charles III)- 총 리: 엘리자베스(리즈) 트러스(Elizabeth Truss)- 외교부장관: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 보건복지부장관: 테레즈 코피(Thérèse Coffey)			
경 제 (’20년 기준)	GDP	1인당 GDP	교역규모	경제성장률(GDP)
	27,097억 달러	40,394달러	(수출) 399,208백만 달러 (수입) 547,949백만 달러	-9.9%
우리나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3.11.26. 한·영 우호통상조약체결- 1949.01.18. 한·영 재수교•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영국대사 : 공석- 주한영국대사 : Simon Smith 대사(2018.3월 ~ 현재)•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4,467,374천 달러(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항공기 및 부품)- 수입 : 4,370,370천 달러(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원유)•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영국 투자 : 19,048,034천 달러			

주요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10월 미국에서 9·11 테러 발생하여 연합군으로 아프가니스탄 침공 • 03.03월 대량살상무기 사찰 방해 문제로 미국군과 합동으로 이라크 침공 • 09.04월 이라크에서 철군 • 14.10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 16.06월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 • 19.07월 보리스 존슨 총리 취임 • 19.12월 총선 실시 보수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 • 20.01월 EU 탈퇴(브렉시트) 완료 • 21.0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 • 22.09월 보리스 존슨 총리 사퇴(성추행 의혹의 크리스 핀치 부국장 임명 문제) • 22.09월 리즈 트러스 총리 취임 • 22.0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 22.09월 찰스 3세 왕위 계승 • 22.10월 경제 및 정치 문제로 트러스 총리 사임 발표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5/206	11/180	9/141	13/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7

오스트리아



1 보건 의료 현황

□ 인구 통계

● 오스트리아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3.5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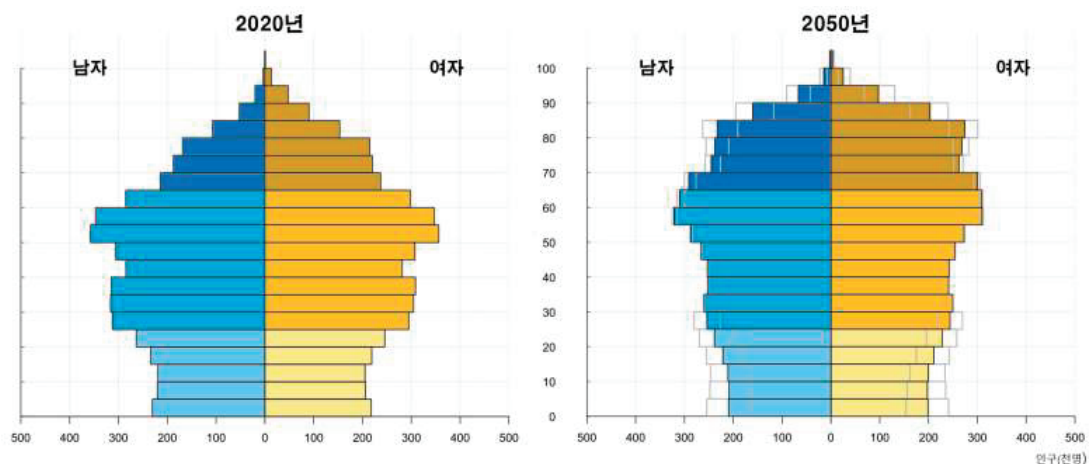
— 오스트리아의 도시화율은 58.748%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약간 높음

<오스트리아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9,006	43.5	19.2	58.748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오스트리아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 오스트리아의 기대수명은 8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보다 높으며,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2.9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69% 수준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5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27.8%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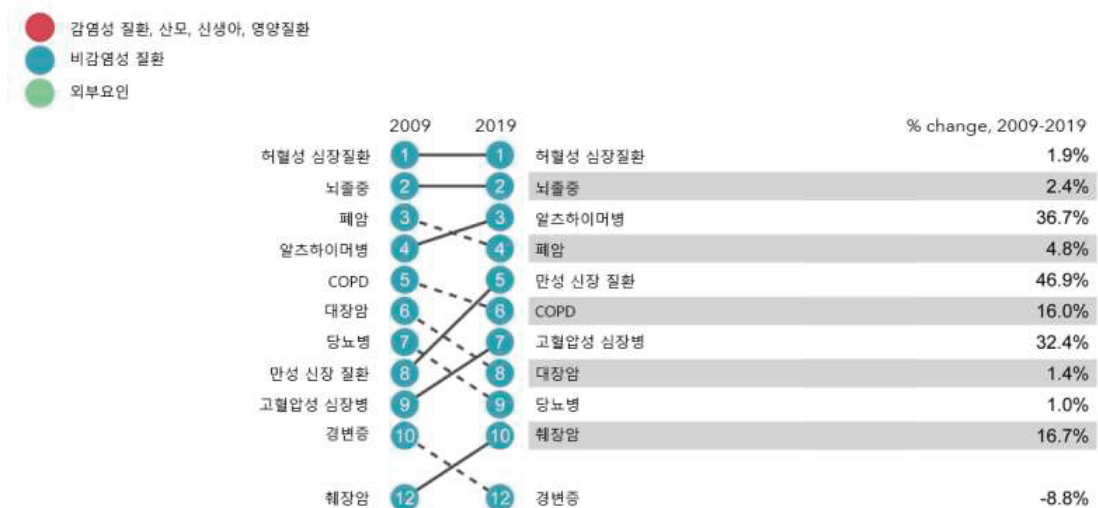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오스트리아
기대수명(세)	81	82.0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2.9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5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오스트리아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순이며, '09년 대비 만성 신장 질환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모두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오스트리아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5.32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1.48배이며, 간호 인력은 7.09명으로 OECD 평균 10.4명의 68.2% 수준임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7.19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1.63배임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25대로 OECD 평균인 16.9개의 1.48배이며, CT 장비 대수는 28.72대로 OECD 평균인 25.9개의 1.11배임

<오스트리아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오스트리아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5.32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7.09 (2018)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7.19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25.00 (2019)
	CT 스캐너	25.9	28.72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오스트리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6.6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97.1% 수준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1.5%로 OECD 평균 8.8%의 1.31배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5,705.1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1.4배임
- 오스트리아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17.7%로 OECD 평균인 19.8%의 89.3%에 해당함

<오스트리아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오스트리아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6.6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11.5 (2020)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0	17.7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5,705.1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오스트리아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7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71.32%로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18.43%에서 '50년 14.31%로 4.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8.54%에서 14.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선불 개인 지출
- 본인 부담 의료비
- 정부 의료 지출
- 보건의료 개발지원



자료: IHME

② 보건의료 체계

□ 의료전달체계

- '17년에 새로운 일차 의료법이 제정되었으며,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⁴⁴⁰⁾
 - 일반개업의와 간호사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다중 전문 팀을 이룸
 - 최초로 건강 증진, 예방이 1차 의료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기함
 - 과거의 건강 증진은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개혁을 통해 GP에 의한 개인 건강 증진, 예방에 중점을 둠
- 외래진료는 일반개업의나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입원진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짐
- OECD 국가 중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⁴⁴¹⁾, '20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의사 수는 인구 10,000명당 52.93명으로 의사 부족 현상을 겪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임⁴⁴²⁾
 - 오스트리아의 의사는 의료보험공단(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ÖGK)과 계약한 의사와 계약하지 않은 선택적 의사로 나눌 수 있음
- ÖGK의 의료시설은 89개로, 급성 및 만성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⁴⁴³⁾
 - 위의 89개 의료시설을 세분화하면, 61개 치과보건소(Zahn-gesund-heits-zentren), 15개 물리의학보건소(Gesund-heits-zentren für Physi-kalische -Medizin), 7개 보건소(Gesundheits-zentren), 5개 건강재활치료센터(Gesund-heits-zentren für Kur und Reha-bili-tation), 마이 하누쉬병원(Mein -Hanusch-Kranken-haus)임
- 1차 의료
 - 건강 문제에 있어 첫 번째 접촉 지점으로, 1차 의료는 종합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임⁴⁴⁴⁾

440) Daniela Rojatz 외 2인, The Austrian health care reform: an opportunity to implement health promotion into primary health care units, DEC 2018 (검색일 2022.10.26.)

441) WHO The global healthobservatory, Medical doctors (per 10 000 population) (검색일 2022.10.26.)

442) 보건복지부, OECD Health Statics 2020 (2020.11.19.)

443)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ÖGK), Gesundheits-einrichtungen (검색일 2022.10.26.)

444) PVE(Primär-Versorgungs-Einheiten für Ihre Gesundheit), Was ist Primärversorgung? (검색일 2022.10.26.)

- 오스트리아의 일반개업의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⁴⁴⁵⁾
- 환자는 모든 외래 전문의 진료 및 입원 치료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 일반개업의는 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료를 제공하며, 특히 건강 증진과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포함함
- 일부 일반개업의는 전문의, 병원, 기타 의료 전문가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음

● 1차 진료 단위(Primärversorgungseinheiten; PVE)의 틀 내에서 다중 전문 팀 (일반개업의, 간호사, 전문의)의 협력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며, 공동으로 환자 관리가 이루어짐⁴⁴⁶⁾

- 이들은 PVE의 업무는 급성 치료에서 만성 질환자 치료까지, 사회심리적 진료에서 건강 증진 및 예방까지 매우 다양함
- 팀 기반 일차 진료를 통해 병원의 영업시간이 길어졌으며, 환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가는 교통비용을 감소할 수 있게 되었음⁴⁴⁷⁾
- '22년까지 75개의 1차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1차 의료 개혁을 입법화함⁴⁴⁸⁾
- '22년 7월 말 기준 일차 진료실(PVE)에는 36개가 있음⁴⁴⁹⁾

● 병원 치료⁴⁵⁰⁾

- 급성 병원은 비교적 짧은 입원 기간('17년 기준 4.9일)임
- 급성 종합병원은 일반 내과 및 외과 진료를 제공함
- 급성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정형외과) 혹은 특정 연령(어린이)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함
- 전체 병원 중 급성 병원의 비중은 58.7%이며, 병상 수 비중은 74.5%임
- 비급성 병원은 전문진료만을 제공하며, 재활센터와 장기 요양 시설이 포함됨

445)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Health), Efficiency Review of Austria's Social Insurance and Healthcare System, AUG 2017 (검색일 2022.10.26.)

446) PVE, Was ist Primärversorgung? (검색일 2022.10.26.)

447) primärversorgung, Vorteile in der team-basierten Primär-versorgung (검색일 2022.10.26.)

448)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ing a primary health care reform in Austria (검색일 2022.10.26.)

449) primärversorgung in Österreich, PVE standorte (검색일 2022.10.26.)

450) Federal Ministry sozialministerium, The Austrian Health Care System, 2019 (검색일 2022.10.26.)

- 전체 병원 중 재활센터는 31.4%, 장기 요양 시설은 10%이며, 병상 수 비중은 각 17.6%, 7.9%임

● 입원 치료⁴⁵¹⁾

- 오스트리아는 병원의 입원환자 서비스로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
- 인구 대비 병상 수가 많고, 입원환자 수가 많은 EU 국가 중 하나임

● 병상 수

- '17년도 1,000명당 7.37개에서 '20년도 1,000명당 7.05개로 감소함

<총 병원 병상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1,000명당 병상 수	7.37	7.27	7.19	7.05

자료: OECD DATA, Hospital beds

● 스파 입원, 요양⁴⁵²⁾

- 의사가 의학적으로 확인 후 스파 입원 및 요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법적 자격 없이 자발적으로 부담금 지불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입원환자의 경우 월 소득에 따라 다른 '22년 기준 9.09~22.08유로의 일일 공동 부담금을 지불해야 함
- 최대 입원 기간은 22일임

451) Federal Ministry sozialministerium, The Austrian Health Care System, 2019 (검색일 2022.10.26.)

452)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Kur-auf-ent-halt (검색일 2022.10.26.)

□ 건강보험체계

● 공보험⁴⁵³⁾

- 『사회보장제 조직법』 개정에 따라 '20년 1월 1일부터 9개 주 지역 건강보험 공단들을 하나의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ÖGK)으로 통합되었음⁴⁵⁴⁾⁴⁵⁵⁾
-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ÖGK)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공적 건강보험 기관임
- 740만 명의 국민이 가입되어 있음
- 의무보험, 자기보험, 또는 공동보험으로 생성할 수 있음

● 의무보험⁴⁵⁶⁾

- 의무보험은 연령, 소득 또는 과거 질병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함
- 의무보험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 강제보험 성격을 띠고 있음
- 법정 사회 보험은 건강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뉨
- 법정 사회 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 공유 원칙에 따라 고용인 부담률 21%, 피 고용인 부담률 18%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임금의 39% 수준으로 한국 19%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함⁴⁵⁷⁾
- 의사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이나 의료 지원 등을 받게 될 때 연대원칙에 따라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하게 현물급여로 제공되며, 연금과 병가와 같은 현금 급여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제공됨⁴⁵⁸⁾
- BVAEB(공무원, 철도 및 광업을 위한 보험 기관), ÖGK(오스트리아 건강보험 기금), SVS(Social Insurance Institution for the Self-Employed)에서 건강 보험 부문에 책임이 있음⁴⁵⁹⁾

453)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Versicherungs-schutz (검색일 2022.10.26.)

454) Ministry of Social Affairs, Health, Care and Consumer Protection, Structural Reform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2020.01.07.)

455) 외교부, 오스트리아 개황, 2021 (검색일 2022.10.26.)

456)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Pflicht-versicherung (검색일 2022.10.26.)

457) 외교부, 오스트리아 개황, 2021 (검색일 2022.10.26.)

458)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Aufgaben und Leistungen der ÖGK (검색일 2022.10.26.)

459) City of Vienna, Insurance institutions (검색일 2022.10.26.)

● 가족 공동보험

- 오스트리아에 주 거주지가 있고 법정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입양·친척·부부·가족 관계를 포함한 피보험자는 가족과 함께 공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⁴⁶⁰⁾
-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공동보험에 가입되며, 18세 생일 하루 전까지 무료임(18세 생일이 지난 어린이는 조건에 해당해야 무료)⁴⁶¹⁾
- 3급 이상의 간병 대상자는 간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⁴⁶²⁾
- 3년 동안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함⁴⁶³⁾
- 친족의 경우 추가 부담금이 면제되어 무료로 보장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피보험자 부담금 기준의 3.4%를 지불해야 함⁴⁶⁴⁾

● 자기보험⁴⁶⁵⁾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EU(European Union) 또는 EEA(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의 학생 포함)은 임의자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자발적 보험에 대한 부담금은 '22년 기준 월 EUR 464.42임⁴⁶⁶⁾
- 세금 평가 증명서, 급여 명세서, 저축 장부, 유지비 등을 제출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예방 진료, 치료, 입원 및 약물 치료와 같은 현물 급여는 받으나, 질병 수당이나 출산 수당과 같은 현금 급여는 적용되지 않음⁴⁶⁷⁾

● 사보험⁴⁶⁸⁾

- 공립 및 사립병원에서의 특별 클래스 치료, 의사의 자유로운 선택, 짧은 진료 대기시간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보험에 가입함
- (대상) 이미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거나,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기본 의료가 아닌 특별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로 가입함

460)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Mit-ver-sicherung (검색일 2022.10.26.)

461)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Mit-versicherung Kinder (검색일 2022.10.26.)

462)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Mit-versicherung pflegende Angehörige (검색일 2022.10.26.)

463)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Mit-versicherung pflegende Angehörige (검색일 2022.10.26.)

464)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Broschüre Mitversicherung, 2021 (검색일 2022.10.26.)

465) City of Vienna, Self-insurance (검색일 2022.10.26.)

466)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Selbst-ver-sicherung in der Kran-ken-ver-sicherung (검색일 2022.10.26.)

467)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Selbst-ver-sicherung in der Kran-ken-ver-sicherung (검색일 2022.10.26.)

468) Insurance Austria-expat insurance, special class cover (검색일 2022.10.26.)

- (서비스) ① 입원 치료 시 특별 병동 혹은 사립병원에 입원하는데 병원에 비용이 지불됨 ② 외래 치료 시 공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안경·렌즈를 보장하거나,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하고,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③ 치과 치료, 여행 보험, 연간 검진 및 체육관 무료 회원권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보험은 평생 계약 관계로 되어 있으며, 3년 후 해지권이 있는 종신보험 계약 형태임⁴⁶⁹⁾
- 연령에 따라 월 보험료가 다르고(20대 보험료는 € 187, 65세 이상은 € 503로, 매우 상이), 비용을 추가 지불함으로써 개인 병실 및 여행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⁴⁷⁰⁾
- 오스트리아의 '21년 기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약 490억 2,400만 유로 또는 12.2%로, OECD 국가의 상위 3분의 1에 달함⁴⁷¹⁾
- 이는 전년도 대비 0.7%p 증가한 수치임
- '21년 기준 의료비의 약 3/4(78.6%)가 공적 자금으로 충당되는데, 전년도 대비 2.2%p 증가⁴⁷²⁾한 것으로 보아 사회 보험 기금, 연방 정부, 지방 및 지방 당국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69) Insurance Austria—expat insurance, Get additional cover for yourself and for your family (검색일 2022.10.27.)

470) Insurance Austria—expat insurance, Insurance Premium Overview (검색일 2022.10.27.)

471) statistik austria, Gesundheitsausgaben (2022.6.14.)

472) statistik austria, Gesundheitsausgaben (2022.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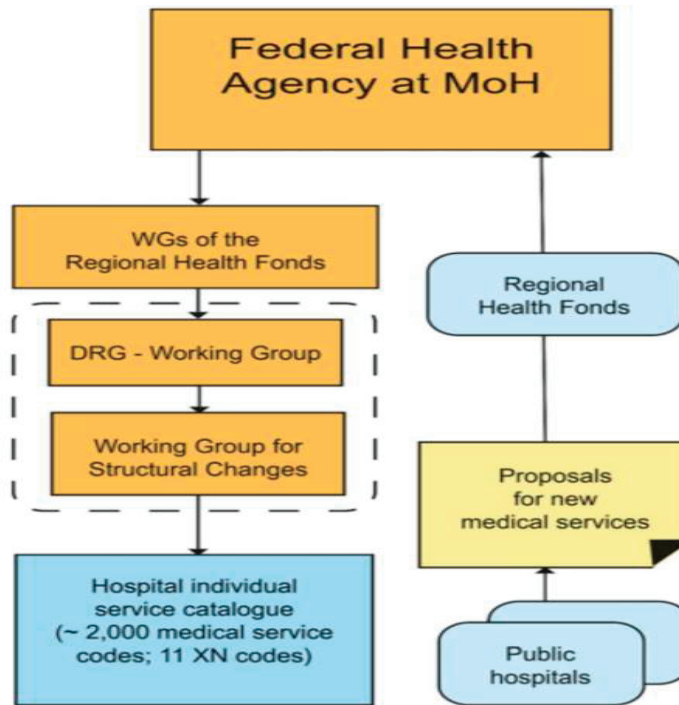
□ 수가제도

-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와 전문의의 외래진료, 입원진료에 따른 수가 지불 체계가 다름⁴⁷³⁾
- GP: GP 대부분은 개원 형태이며, 수당은 행위별수가제, 총액제, 인두제 지불 체계에 따라 지불됨
 - 총액제와 인두제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불 체계이며, 행위별수가제는 의학적 검사와 같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지불 체계임
 - 행위별수가제의 수가는 건강보험사와 의사협회 간의 협상을 통해 조절됨
 - 소수의 GP는 병원에서 봉급의로 근무함
- 전문의: 대부분의 전문의 또한 개원 형태이며,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총액제로 의사에게 수당이 지불되며, 그 외 서비스는 행위별수가제로 지불됨
 - 행위별수가제의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자와 의사협회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며 건강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전문의 중 소수만이 병원에서 봉급의로 근무함
- 입원: 공공·비영리 민간·영리 민간 병원의 입원환자 의료서비스는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와 같은 예산 할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함
 - 오스트리아의 DRG 시스템 Leistungsorientierte Krankenanstaltenfinanzierung (LKF)이라는 자체 개발한 분류체계를 독자적으로 사용하며, original DRG와는 다른 형태로 사용됨⁴⁷⁴⁾

47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2020 (2020.11.24.)

4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2015.07.16.)

<오스트리아의 병원 개별 서비스 도입 과정>



자료: Research Square, Reimbursement Decisions for Medical Services in Austria: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for the Hospital Individual Services Catalogue Between 2008 and 2020⁴⁷⁵⁾

- LKF는 1997년 도입되었으며, core(중심)와 steering 바퀴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됨⁴⁷⁶⁾
 - core 부문은 환자분류와 이에 따른 점수,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운영 체계이며 steering 부문은 지방정부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정을 위한 체계임⁴⁷⁷⁾
 - LKF 시스템은 Leistungsorientierte Diagnosefallgruppen(LDF)을 기반으로 포인트 가치 점수를 계산하고 개별 병원에 대한 상환을 결정함⁴⁷⁸⁾

475) Research Square, Reimbursement Decisions for Medical Services in Austria: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for the Hospital Individual Services Catalogue Between 2008 and 2020 (2021.06.07.)

476)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포괄수가제의 의료의 질 인센티브 부여방안, 2016 (검색일 2022.10.27.)

477)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포괄수가제의 의료의 질 인센티브 부여방안, 2016 (검색일 2022.10.27.)

478) Research Square, Reimbursement Decisions for Medical Services in Austria: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for the Hospital Individual Services Catalogue Between 2008 and 2020 (2021.06.07.)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포랄베르그 (Vorarlberg)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공립 및 사립 비영리 병원에 대한 LKF 수수료 및 간호 및 특별 수수료 및 비용 분담금에 대해 부과될 LKF 포인트당 유로 가치 결정에 관한 주정부 조례(LKF 수수료, 간호 및 특별 수수료 조례 2022) 	
	LKF 수수료, 케어 및 특별 수수료 조례 2022	https://www.ris.bka.gv.at/eli/lgbl/VO/2021/98/20211229
빈 종합병원 AKHWi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에 위치한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종합병원 2021년 515,687명의 외래 환자, 61,016명의 입원, 원데이 케어 5,314건 	
	수수료(2022)	https://www.akhwien.at/default.aspx?pid=789
세인트 조셉 병원 St.JosefKrankenha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산부인과와 신생아과가 있는 아동과가 있는 모성 센터. 유방, 결장, 식도 및 위를 전문으로 하는 중앙 센터 	
	수가	https://www.sjk-wien.at/patienten-besucher/tarife-kosten
Speising 정형외과 병원 OrthopädischesSpital Spei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센트 그룹 소속의 병원으로 근골격계 질환 전문클리닉, ISO 9001:2015(pCC 포함)에 따라 인증 관절에 대한 외과적 치료 및 관내인공삽입물, 척추수술, 소아 정형외과 및 발 수술, 정형외과적 통증 치료 및 정형외과적 재활치료 포함 	
	수가	https://www.oss.at/patienten-info/stationaerer-aufenthalt/die-tarife
되블링 사립 산부인과 클리닉 PrivatklinikDöbling -Geburtshil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에 위치한 산부인과 사립 클리닉 	
	자기 부담자에 대한 수가	https://www.geburtshilfe-wien.at/de/wissenswertes-und-service/kosten
로어 오스트리아 의료 협회-공기업 ÄrzttekammerfürNÖ Körperschaftöffentl. Rech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의 9개 주립 의학 협회 중 하나 	
	개인 서비스에 대한 추천 수가	https://www.arztnoe.at/fuer-aerzte/tarife/empfehlungstarife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오스트리아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568억 4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6,285.8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7.58% 감소해 525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06% 성장해 69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7.82% 감소해 '22년 5,794.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90% 성장해 '26년 7,566.5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11.91%에서 '26년 11.2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77.01%에서 '26년 76.3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22.99%에서 '26년 23.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오스트리아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53.081	56.843	52.535	56.170	59.402	63.827	68.997
연간 성장률	7.38	7.09	-7.58	6.92	5.75	7.45	8.10
1인당 의료비	5,893.7	6,285.8	5,794.2	6,185.3	6,533.2	7,010.5	7,566.5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12.28	11.91	11.29	11.23	11.18	11.18	11.20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77.11	77.01	76.90	76.78	76.65	76.53	76.39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22.89	22.99	23.10	23.22	23.35	23.47	23.61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통계 오스트리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는 '21년에 264개의 병원과 61,927개의 병상, 48,705명의 개업의사, 96,644명의 비임상 의료 종사자가 있음⁴⁷⁹⁾
- Statista에 따르면 '21년 오스트리아의 9개 주 건강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109개 병원의 비용은 164억 3천만 유로(1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4.38% 증가하였으며 '15년부터 연평균 4.25% 성장하였음⁴⁸⁰⁾
- 오스트리아의 포괄적인 공공 의료 정책은 시민과 거주자가 무료 1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며 1차 의료에는 치과 진료, 약물 치료 및 공립 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포함됨⁴⁸¹⁾
 - 개인은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동시에 추가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으며 민간 건강보험은 약물 치료, 병원 치료, 진료소와 의사의 자유로운 선택, 고급 치과 치료도 포함됨
-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병상/인구 비율 국가 중 하나이며, 병상의 64%는 종합병원에 있고, 26%는 전문진료소 및 재활센터, 7%는 요양원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있으며 입원환자 치료는 '21년 오스트리아 의료 지출의 약 32%를 차지하였음⁴⁸²⁾
 - 오스트리아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주 및 직원 부담금을 통해 인구의 99%를 보장하는 법정 국민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5개의 의료 전달 시스템은 직업과 직업 상태에 따라 적용됨
 -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많은 수의 병상과 입원환자 치료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병상 축소보다는 잠재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바뀌었음
 - 외래 환자 치료는 '21년에 26%로 두 번째로 큰 의료 지출을 차지하며 보험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검사 및 처방약은 일반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조금 있음

479) <https://www.statistik.at/en/statistics/population-and-society/health/health-care-and-expenditure/health-care-facilities-and-staff> (검색일 2022.10.28.)

480)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941819/umfrage/kosten-der-krankenhaeuser-in-oesterreich/> (검색일 2022.10.28.)

481) <https://expatfinancial.com/healthcare-information-by-region/european-healthcare-system/austria-healthcare-system/> (검색일 2022.10.28.)

482)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austria-medical-devices> (검색일 2022.10.28.)

- 입원환자와 외래 환자 부문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며 각각의 구조와 의사결정권자가 있음
 - 외래 환자 서비스는 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의약품 및 의료 지원 제공자와 가격을 협상하고, 약국에 비용을 상환하는 사회 보험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통제함
 - 병원 기반 치료는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제공되며 지방 정부(연방 세금으로 자금 지원), 사회 보험 회사 및 민간 보험 제공자가 공유하는 복잡한 지불 및 상환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의료 지출의 세 번째로 큰 부분은 약품 및 건강 보조원에 대한 것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며, 장기 요양은 총 의료 지출의 9% 미만을 차지하며 부분적으로 장애 등급에 따라 환자와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별도의 예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오스트리아 정부는 1차 진료 센터의 확장을 의료 투자 계획의 필수 요소로 삼고 있으며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다중 진료 센터를 개설하는 데 동의하는 진료 기업에 대해 총투자의 최대 절반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 '21년 1월에서 '26년 사이에 오스트리아 전역에 70개 센터의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비엔나 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빈 종합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해 '20년에서 '30년 사이에 16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건강 목표 오스트리아 - 건강한 오스트리아를 위한 트렌드 설정 제안
(Gesundheitsziele Österreich - Richtungsweisende Vorschläge für ein gesünderes Österreich)⁴⁸³⁾

발표	2011년
기간	2012년~2032년
비전 및 목표	<p><비전> 나이, 학력, 소득, 생활에 관계없이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건강 개선</p>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과 근로 조건을 함께 조성 2. 오스트리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건강 기회 보장 3. 인구의 건강 이해력 강화 4. 미래 세대를 위한 공기, 물 토양 및 모든 서식지 확보 5. 사회적 결속을 통한 건강 강화 6.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 7.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영양 공급에 접근 보장 8.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 촉진 9. 심리 사회적 건강 증진 10. 모두를 위한 고품질의 저렴한 의료 보장
전략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내 작업 조직을 최적화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개선하여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 • 어린이 건강 전략 및 오스트리아를 위한 어린이 환경 및 건강 행동 계획 수립 • 근로빈곤층 감축하여 건강 불평등 감소 • 의료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보장 • 건강 이해력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 촉진 • 환자 주권을 강화하여 의료 조치 효과를 높임 • 공기 수질 및 토양 품질의 환경 요인을 유지하고 규정된 배출을 준수 •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환경 관련 목표 설정 • 가공식품을 최적화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규제함과 동시에 해당 식품의 영양가 향상 • 공동 케이터링을 건강 증진 방식으로 조정하여 건강한 영양에 기여

483) <https://gesundheitsziele-oesterreich.at/10-ziele/> (검색일 2022.10.03.)

<https://www.gesundheit.gv.at/gesundheitsleistungen/gesundheitsfoerderung/gesundheitsziele.html> (검색일 2022.10.03.)

□ 제약산업

- 오스트리아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86억 7천만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958.8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61% 감소한 80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61% 성장해 107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7.85% 감소한 '22년 883.5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45% 성장해 '26년 1,177.5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82%에서 '26년 1.7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5.3%에서 '26년 1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오스트리아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8.055	8.670	8.010	8.587	9.129	9.867	10.737
연간성장률	3.65	7.64	-7.61	7.20	6.32	8.08	8.82
1인당 의약품비	894.4	958.8	883.5	945.5	1,004.1	1,083.8	1,177.5
GDP 대비 의약품 비율	1.86	1.82	1.72	1.72	1.72	1.73	1.74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15.2	15.3	15.2	15.3	15.4	15.5	15.6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20년에 오스트리아 제약산업은 62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은 가장 큰 회사는 Novartis Austria였음⁴⁸⁴⁾
- '20년 오스트리아에서 405개의 생명 공학 회사가 있으며 그중 235개는 제조업체 또는 R&D 회사였음

484) <https://de.statista.com/themen/7618/gesundheitswesen-in-oesterreich/> (검색일 2022.10.28.)

- 주요 생산업체는 베링거인겔하임, 노바티스, 다케다, 화이자, MSD, 옥타파마 등 다국적 기업과 산도즈, 레이시오팜, 지엘파마, 제네리콘 등 제네릭 생산업체임
- ADVANTAGE AUSTRI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제약산업은 '20년에 18,000명이 고용, 120개 회사가 운영, 13억 8,700만 유로의 매출을 보임
- 생명 공학 부문은 2,300명의 직원, 151개 회사가 운영, 4억 1,61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음⁴⁸⁵⁾
- 오스트리아 의약품 유통은 병원 약 20%와 약국/조제 의사 약 80%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네릭의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은 대부분의 OECD 시장보다 느린 성장률을 보여줌
- 이는 동일한 최대 효율로 특허 및 제네릭 생산자에게 상환하는 건강보험의 강력한 가격 통제 때문으로 보임⁴⁸⁶⁾
- '21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75억 2천만 달러로 전체의 86.7%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11억 5천만 달러로 13.3%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62억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82.5%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3억 1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15.1%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17.5%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9% 감소한 69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2% 성장해 91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6.0% 감소한 10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0% 성장해 15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9% 감소한 57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해

485) ADVANTAGE AUSTRIA, FACTS AND FIGURES – LIFE SCIENCES & PHARMACEUTICALS (검색일 2022.10.28.)

486) <https://www.privacyshield.gov/article?id=Austria-Pharmaceuticals> (검색일 2022.10.28.)

76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7.8% 감소한 12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3% 성장해 15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처방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일반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낮으며,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성장률이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오스트리아 제약시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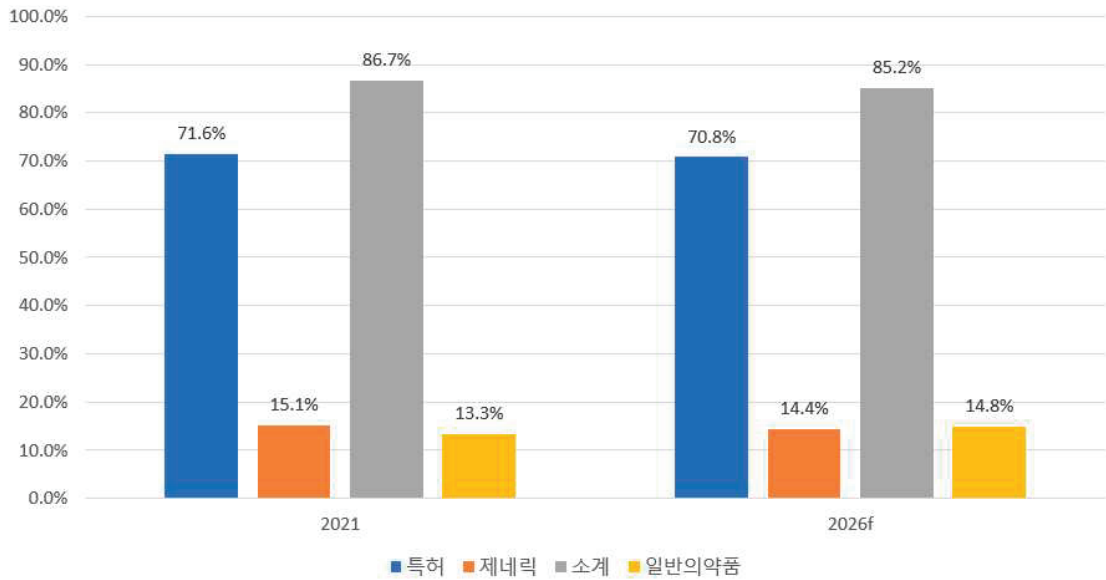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5.810	6.204	5.715	6.112	6.485	6.998	7.602
	제네릭	1.214	1.313	1.210	1.287	1.355	1.444	1.546
	소계	7.024	7.516	6.925	7.399	7.839	8.441	9.148
일반의약품		1.031	1.154	1.085	1.188	1.290	1.426	1.589
합계		8.055	8.670	8.010	8.587	9.129	9.867	10.737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86.7%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85.2%로 감소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13.3%에서 14.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71.6%에서 '26년 70.8%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도 '21년 15.1%에서 '26년 14.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오스트리아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131억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96억 2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흑자가 34억 8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4.10% 감소한 125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03%의 성장을 보여 184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8.71% 감소한 87억 8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83%의 성장을 보여 132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무역흑자는 '22년 37억 8천만 달러에서 '26년 51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오스트리아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11,741.46	13,097.75	12,560.74	13,887.89	15,123.91	16,674.68	18,408.85
연간성장률	11.19	11.55	-4.10	10.57	8.90	10.25	10.40
의약품수입	7,491.93	9,622.44	8,783.98	9,784.94	10,736.12	11,914.96	13,251.57
연간성장률	4.06	28.44	-8.71	11.40	9.72	10.98	11.22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3% 증가하였고 '20년부터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16년부터 '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함

<오스트리아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31,828	38,488	44,635	42,985	36,891	38,626
의약품 수입	6,463	2,760	12,719	5,545	19,864	29,862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⁴⁸⁷⁾

- '21년 3월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덴마크는 공동 연구 개발 기금과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설립하여 추가 접종을 위한 장기 공급을 보장하거나 바이러스 돌연변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⁴⁸⁸⁾

–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가 27개 회원국 내에서 백신 주문, 승인 및 배포가 지연되는 데에 대한 불만 때문임

- '21년 3월 오스트리아와 중앙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27개국 내에서의 백신

487)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7.)

488) Reuters, Israel, Austria and Denmark establish vaccine-supply alliance (2021.03.05.)

분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음⁴⁸⁹⁾

- '21년 4월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회원국에 수백만 개의 추가 백신을 먼저 제공하려는 EU의 계획에 반발하여 거래 참여를 거부하여 EU의 백신 재배포 협정에서 제외되었음⁴⁹⁰⁾
 - 3개국을 제외한 24개 EU 국가의 연합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5개 회원국에 280만 도즈의 바이오테크/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제공하는 연대 메커니즘을 승인했음
- 프랑스-오스트리아 생명공학 연구소 발네바(Valneva)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에 대해 체결한 영국 정부의 1억 도즈 계약이 '21년 9월 취소되었음⁴⁹¹⁾
- '22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Valneva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 수정안을 승인하였으며 변경된 주문량인 125만 도즈가 EU 회원국(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불가리아)에 전달될 것임⁴⁹²⁾
 - '21년 11월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최대 6,000만 도즈였음⁴⁹³⁾
- 오스트리아는 '21년 11월까지 260만 회 이상의 백신을 이웃 국가와 국제 파트너에게 지원하였으며 또한 국제 프로그램인 COVAX에 500만 유로와 100만 도즈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제공했음⁴⁹⁴⁾
 - 추가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45만 도즈, 베트남에 5만 도즈, 발칸 서부(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에도 mRNA 백신 100만 도즈를 추가로 기부할 예정임
- '22년 1월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을 통과⁴⁹⁵⁾시켰으나 시민들의 반발과 정부 위원회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 덜 치명

489) euronews, Austria calls on EU to 'correct' COVID-19 vaccine distribution (2021.03.17.)

490) 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Republic, Austria and Slovenia excluded from EU vaccine redistribution agreement (2021.04.02.)

491) France24, UK cancels Covid jab contract with Franco-Austrian firm Valneva (2021.09.13.)

492) Valneva,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Purchase Agreement Amendment for Valneva's Inactivated COVID-19 Vaccine (2022.07.20.)

493) Valneva, Valneva Signs Purchase Agreement with European Commission for its Inactivated COVID-19 Vaccine VLA2001 (2021.11.23.)

494) The Federal Minister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Red-White-Red Coalition for Vaccine Diplomacy: To Date, Austria has Donated 2.6 Million Vaccine Doses to Fight COVID-19 (2021.11.10.)

495) Reuters, Austria set to make COVID shots compulsory after bill clears parliament (2022.01.21.)

적이라 밝힌 후 3월 시행이 중단되었으며 6월에는 법안이 폐기될 예정임⁴⁹⁶⁾

● '22년 9월 요라우흐(Rauch) 오스트리아 보건장관은 기존 코로나 백신 계약의 재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음⁴⁹⁷⁾

- 오스트리아에는 약 1,700만 도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680만 명이 부분 백신 접종을 받았음
- 다음 납품을 위한 계약은 '21년 12월 체결되었으며 여기에는 200만 개의 모더나와 1,000만 개의 화이자 백신이 포함됨
- 오스트리아는 지금까지 7억 6천만 유로(7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백신을 조달했음

<오스트리아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10월 30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9.04	57	57	221.42	76.6%	—	77.1%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⁴⁹⁸⁾, Our World in Data⁴⁹⁹⁾, 구글 코로나바이러스⁵⁰⁰⁾

496) The New York Times, Austria quietly discards a vaccine mandate that it never enforced (2022.06.23.)

497) Vindobona, Austria Wants Covid Vaccine Contracts Renegotiated (2022.09.06.)

498)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30.)

499)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30.)

500)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mid=%2Fm%2F0h7x&gl=KR&ceid=KR%3Ako&state=4>
(검색일 2022.10.30.)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33억 2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366.6달러였음
-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2.65% 성장한 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08% 성장해 46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오스트리아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2.37% 성장한 375.3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93% 성장해 509.2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3,315.1	3,402.8	3,710.4	3,972.5	4,276.9	4,643.3
1인당 의료기기	366.6	375.3	408.6	436.9	469.8	509.2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오스트리아에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550개의 회사가 있으며, 그중 171개는 제조업체이고 383개는 유통업체 또는 서비스 회사임
- 제조업체는 MedEl(와우 이식), Greiner Bio One(채혈, 생명과학 및 진단), Semperit(수술 및 검사용 장갑) 등과 GE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및 글로벌 사업을 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있음⁵⁰¹⁾
- 오스트리아는 '02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클러스터 MCT(Medizintechnik-Cluster)가 있으며 230개의 클러스터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음
- '05년 이후 클러스터 협력 사업 및 국내외 사업 등 86개를 성공적 추진하였음⁵⁰²⁾
-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료소모품과 기타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1%, 22.7%로 가장 높음

501)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austria-medical-devices> (검색일 2022.10.28.)

502) <https://www.medizintechnik-cluster.at/medizintechnik-cluster> (검색일 2022.10.28.)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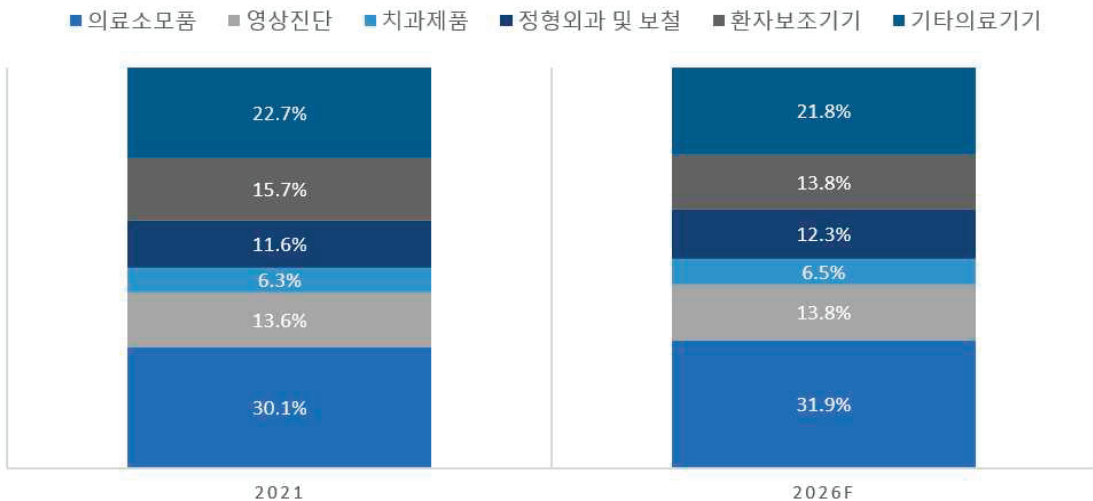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861	997	1,063	1,188	1,270	1,367	1,481
영상진단	430	452	474	519	554	592	639
치과제품	161	209	208	229	248	273	302
정형외과 및 보철	343	385	403	441	474	518	569
환자보조기기	437	520	512	529	566	594	641
기타의료기기	656	753	743	805	861	933	1,013
합계	2,888	3,315	3,403	3,710	3,973	4,277	4,643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의료소모품(8.24%)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보조기기의 연평균성장률은 4.33%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의료소모품의 구성비율은 1.82% 증가한 31.9%이며, 환자보조기기는 1.88% 감소하여 13.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17억 6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7.8% 증가하였음
- 팬데믹 영향으로 '20년에 의료기기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하였음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1,546,143	1,630,610	1,724,322	1,847,419	1,837,585	2,178,516
수입액	1,759,454	1,869,166	1,990,997	2,003,866	2,124,037	2,502,371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⁵⁰³⁾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오스트리아의 의료기기 수입은 '21년에 전년 대비 18.3% 증가한 3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14.1% 증가한 2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함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기기 수입	2,287,993	2,451,144	2,345,864	2,602,529	3,077,609
의료기기 수출	2,209,868	2,418,236	2,550,458	2,483,454	2,834,515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및 기타의료기기가 각각 29.53%, 22.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절반이 넘는 비중 차지했음
- 영상진단은 세 번째로 크고, 환자보조기기, 정형외과 및 보철,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1년에는 정형외과 및 보철과 의료소모품이 큰 증가세를 보였음

503)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7.)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소모품	543,279	609,532	513,117	728,115	908,847
영상진단	438,725	454,886	435,632	468,063	513,357
치과제품	193,647	213,882	194,516	167,810	193,449
정형외과 및 보철	235,245	250,487	274,964	249,179	313,996
환자보조기기	281,529	286,519	332,148	390,727	465,755
기타의료기기	595,568	635,838	595,487	598,635	682,205
합계	2,287,993	2,451,144	2,345,864	2,602,529	3,077,609

자료: Fitch Solutions - Austria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오스트리아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6천 8백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8.07%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정형외과용 의료기기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오스트리아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검사기기)	42,786.2	42,407.3	41,566.0	39,207.5	49,729.5	60,336.2
9019 (치료기기·호흡기기)	8.3	139.3	247.7	95.5	1,837.6	396.1
9020 (기타 호흡기기)	0.1	0.3	4.0	11.1	10.1	-
9021 (정형외과용)	4,208.1	3,802.7	3,667.3	3,587.7	3,048.7	6,179.6
9022 (영상진단)	748.4	741.8	925.7	1,014.6	1,035.7	888.4
합계	47,751.1	47,091.4	46,410.7	43,916.4	55,661.5	67,800.4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⁵⁰⁴⁾

- 오스트리아 빈시와 Wirtschaftskammer(오스트리아 경제 회의소) '21년 3월 "Alles Gurgelt (모두 가글)" 코로나19 검사 계획을 발표했으며, 도시 전역의 152개 BIPA(약국 체인) 지점에서 매주 4회의 무료 PCR(가글) 테스트 키트를 받을 수 있음⁵⁰⁵⁾
-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22년 4월부터 1인당 월 5회 PCR과 5회 항원검사가 무료로 제공됨⁵⁰⁶⁾
 - 코로나19 검사는 오스트리아 전역의 "Teststraßen" 테스트 센터, 가글 테스트 박스(Gurgelboxen-PCR 가글 테스트), 일부 약국에서 받을 수 있음
 - 또한 무료 PCR 가글 홈 테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 후 제출하여 결과를 받을 수도 있음
- 라우흐 오스트리아 보건장관은 '22년 9월 이전까지 코로나19 테스트에 34억 유로(33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음⁵⁰⁷⁾

<오스트리아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6월 23일 기준

총검사수	인구 1천 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 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189,791,719	21,272.13	9.66

자료: Our World in Data⁵⁰⁸⁾

- 오스트리아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33억 6천만 달러에 달하며, '17년부터 연평균 41.65% 증가하고 있음
 - HS코드 300215(항원·항체)가 수입 규모와 성장률에서 모두 HS코드 382200(PCR) 키트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50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7.)

505) Metropole, Every Viennese to Get Four Free PCR "Gargle" Tests Every Week (2021.03.26.)

506) <https://sites.google.com/view/inviennaprogramportal/covid-19-in-austria> (2022.06.29.)

507) Vindobona, Austria Wants Covid Vaccine Contracts Renegotiated (2022.09.06.)

508)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27.)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27.)

<오스트리아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651.74	835.34	987.02	1,167.08	2,480.69
382200 (PCR)	266.68	267.72	299.68	320.13	532.81	884.28
합계	266.68	919.46	1,135.02	1,307.14	1,699.88	3,364.98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⁵⁰⁹⁾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및 원격의료)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4억 7,0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8.67% 성장하여 7억 1,2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⁵¹⁰⁾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6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Statist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eHealth(eHealth 기기, eHealth 앱, 온라인 약국 및 온라인 의사 상담)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2억 5,6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7.15% 성장하여 3억 6,2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⁵¹¹⁾
 - 사용자당 평균 수익(ARPU)은 67.41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2년 가장 큰 부문은 1억 7백만 달러의 온라인 약국과 1억 2백만 달러의 온라인 의사 상담이며, ehealth 기기 4,383만 달러, ehealth 앱 346만 달러로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됨
- 오스트리아는 '13년 12월에 시작한 전자 건강 기록 ELGA(Elektronische Gesundheitsakte)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모든 공립 병원과 의료시설이 전반적으로 네트워크화됨

509)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7.)

510)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austria> (검색일 2022.10.29.)

511)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ehealth/austria> (검색일 2022.10.29.)

- ELGA 의료서비스 제공자(의사, 병원, 치료 시설 또는 약국)가 건강 데이터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였음⁵¹²⁾
- 오스트리아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이미 ELGA와 액세스했으며 병원 등 180개의 입원환자 시설이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작업하고 있음
 - ELGA를 통해 이미 6천만 개 이상의 전자 검색 결과를 사용할 수 있고, 약국 등에서의 ELGA e-Medication(전자의약품) 기능은 '19년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출시되었음
 - 환자는 디지털 서명 또는 전자 ID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여 ELGA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 ELGA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의 원격 의료는 '20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증가하여 의사 상담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 25%로 낮아졌음⁵¹³⁾
-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기금(ÖGK)에 따르면 전자 처방전은 매우 호평받으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ÖGK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 및 전화 진료 또는 상담은 보험에 청구될 수 있음⁵¹⁴⁾
- 오스트리아에는 당뇨병 환자의 원격 의료를 위한 두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으며 전자 당뇨병 일기와 같은 DiabCare 및 DiabMemory 솔루션이 사용되며 공무원, 광부 및 연방 철도(Die Versicherungsanstalt öffentlich Bediensteter, Eisenbahnen und Bergbau, BVAEB)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⁵¹⁵⁾

512) <https://www.elga.gv.at/elga-die-elektronische-gesundheitsakte/elga-im-ueberblick/> (검색일 2022.10.29.)
CEF Digital, Austrian electronic health records (ELGA) (검색일 2022.10.29.)

513)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TELEMEDICINE IS ON THE RISE IN AUSTRIA (2021.10.07.)

514) Wiener Zeitung, Die Zukunft der virtuellen Ordination (2021.09.02.)

515) MEDICA Magazine, Austria: What telemedical care can do for people with diabetes (2022.08.02.)

□ 의료관광

- 오스트리아 전체 관광객의 10%가 치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며 오스트리아 스키 리조트는 스포츠 부상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음⁵¹⁶⁾
 - 오스트리아에는 국제공동위원회(Joint International Commission)의 인가를 받은 2개의 병원과 4개의 재활센터가 있으며 요오드, 마그네슘, 칼슘이 함유된 미네랄 워터로 고객을 치료하는 헬스 리조트는 인기가 높음
- 오스트리아에서 매년 약 7,000~10,000명의 외국인 환자가 치료받고 있으며 추정에 따르면 지역 클리닉은 의료관광객으로부터 연간 1억 2천만 유로(1.17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음⁵¹⁷⁾
 - 35개의 사립 병원에서 의료관광이 이루어지며 아랍인, 러시아인, 루마니아인, 불가리아인이 주로 정형외과, 비뇨기과, 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음
 - 오스트리아인의 해외에서의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한 케이스만 보면 연간 487,000명이었고 그중 절반이 독일이었음
- '19년 오스트리아 빈의 PremiQaMed 병원에서 1,500명의 루마니아 환자가 총 400만 유로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20년에 총 1,250명의 루마니아인이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됨⁵¹⁸⁾
 - 매년 PremiQaMed는 약 8,000명의 국제 환자를 맞이하며 루마니아는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와 함께 국제 환자가 많이 오는 상위 5개국 중 하나로 17~18%의 비중을 차지함
 - PremiQaMed 병원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의료서비스는 의료 진단 및 검진 패키지이며 루마니아 환자들의 주요 진료 분야는 암, 외과, 산부인과(침습수술), 정형외과(인공삽입술), 비뇨기과(전립선 질환), 진단, 심장학, 파킨슨병, 안과 등임
 - 오스트리아 대사관 상업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매년 4,000명 이상의 루마니아 환자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의료관광 목적지임
-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치료법은 종양학과 정형

516) Luxury Immobilien, What are the best places to buy property to be treated in Austria (2020.03.14.)

517) Kurier, Urlaub beim Doktor: Medizintourismus boomt (2016.05.12)

518) ROMANIA JOURNAL, Thousands Romanians Make Medical Tourism In Austria (2020.07.06.)

외과 치료(관절 치환술)이며,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암의 생존율이 높으며 생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치료가 제공되기 때문임⁵¹⁹⁾

- '22년 터키로의 의료관광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모발 이식을 위해 터키를 방문하고 있으며 빈에서는 터키의 사립 클리닉인 Acibadem이 사무소를 열었음⁵²⁰⁾

-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발 이식과 같은 미용 수술을 위해 터키로 가며 레이저 눈 수술과 치과 치료도 제공되며, 터키는 수술비용이 빈의 20~40% 수준으로 저렴함

- 온난하고 지중해성 기후를 지닌 지역인 Styria(Steiermark)는 온천으로 유명하며, 60개 이상의 치유 온천이 Bad Kleinkirchheim 및 Villach의 리조트 근처에 있는 Carinthia(Kärnten)는 스키 트리트먼트와 스키를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라돈이 풍부한 온천이 있는 겨울 휴양지인 Bad Gastein은 잘츠부르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함⁵²¹⁾

□ 화장품

- Statist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뷰티 및 개인 관리(화장품 및 바디 케어용 소비재) 시장의 매출은 '22년 19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6년까지 연평균 3.9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매출은 212.4달러로 예상됨⁵²²⁾

- 또한 Statist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화장품(메이크업 화장품)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2억 7,7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6년까지 연평균 6.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매출은 30.57달러로 예상됨⁵²³⁾

- '21년 화장품 및 바디 케어 제품의 매출이 18억 9,000만 유로(18.5억 달러)에 달했으며 팬데믹의 시작인 '20년을 제외하고 지난 몇 년간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음⁵²⁴⁾

- 샴푸 젤과 샴푸를 포함한 퍼스널 케어 제품은 8억 7,100만 유로(8.5억 달러)로

519) BRIT-MED, Your Ultimate Guide For Medical Travel in Austria (2021.08.18.)

520) wien ORF, Medizintourismus in die Türkei boomt (2022.08.12.)

521) EscapeArtist, Top 10 Countries With The Best Healthcare, Treatment, And Wellness Facilities: Part 1 (2020.12.02.)

522) <https://www.statista.com/outlook/cmo/beauty-personal-care/austria> (검색일 2022.10.30.)

523) <https://www.statista.com/outlook/cmo/beauty-personal-care/cosmetics/austria> (검색일 2022.10.30.)

524) <https://de.statista.com/themen/7635/kosmetik-und-koerperpflegemarkt-in-oesterreich/> (검색일 2022.10.30.)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스킨케어 제품 4억 4,200만 유로(4.3억 달러), 장식용 화장품 2억 6,800만 유로(2.6억 달러), 향수 2억 5,100만 유로(2.45억 달러)로 뒤를 이었음

- 화장품 및 바디 케어 제품 제조에 155개 회사가 활동하고 이 부문에 약 1,300명의 직원이 있으며 '19년 오스트리아의 화장품 생산의 총부가가치는 약 6,900만 유로(6,730만 달러)였음
- '21년에 오스트리아 화장품 총소매 매출의 17%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되었음

● 오스트리아 화장품 산업 플랫폼 Kosmetik Transparent 통계에 따르면 '18년 오스트리아 화장품 시장은 10억 7천만 유로(10억 4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5년 이후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했지만, 화장품 시장은 연간 2.5~5.5%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⁵²⁵⁾

- 스킨케어, 헤어케어 관련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규모는 연간 약 100~200만 유로(97.6~195만 달러)로 전체 수입시장의 1%도 되지 않지만 한류 열풍과 입소문으로 '10년 이후 연평균 약 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10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4.58%의 성장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향수·화장수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5억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1.05% 성장하였음

<오스트리아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207.91	226.75	251.46	242.53	214.74	236.87
3304 (기초·색조)	403.55	419.02	462.85	465.94	432.17	507.87
3305 (두발용)	122.72	143.18	140.90	148.97	141.86	157.15

525) ECHEMI, Austria's imports of cosmetics from South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2019.12.06.)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7.10 (면도용)	11.67	12.50	12.99	11.74	10.47	12.61
3307.20 (데오드란트)	29.80	31.90	32.66	33.27	30.33	37.82
3307.30 (입욕제)	29.66	32.32	30.27	25.91	25.12	28.52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52.53	62.08	64.63	62.96	70.99	79.09
합계	857.84	927.76	995.76	991.32	925.68	1,059.93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⁵²⁶⁾

- 오스트리아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2백 2십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오스트리아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0.7	1.7	0.0	1.8	2.8	2.6
3304 (기초·색조)	685.6	1,367.6	2,571.0	3,012.9	2,273.8	2,043.1
3305 (두발용)	5.6	11.5	44.1	59.6	29.4	12.6
3307.10 (면도용)	—	1.6	1.4	7.9	15.4	—
3307.20 (데오드란트)	—	0.2	0.1	0.7	—	—
3307.30 (입욕제)	9.8	19.5	22.6	3.9	12.5	12.3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0.5	16.8	8.3	5.3	9.7	154.7
합계	702.2	1,418.9	2,647.5	3,092.1	2,343.6	2,225.4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⁵²⁷⁾


526)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7.)

527)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7.)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보건 및 간호법	주요 내용	• 보건 및 간호에 관한 자격과 활동의 수행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11026
1998년 의사법	주요 내용	• 의사의 면허와 의료 직업의 행사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11138
병원 및 건강 리조트법	주요 내용	• 병원 및 요양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10285
비엔나 병원법	주요 내용	• 비엔나 지역의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LrW&Gesetzesnummer=20000282
일반 사회 보장법	주요 내용	• 사회 보장 측면에서의 공중 보건 조치에 관한 법률을 포함
	링크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8147
의약품법	주요 내용	• 의약품의 허가, 취급, 제조, 유통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10441
의료기기법	주요 내용	• 의료기기의 승인, 제조, 유통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20011580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 (Republic of Austria)• 수도 : 빈(Vienna, 약 191만 명)• 인구 : 890만 명• 면적 : 8만 3,879㎢ (한반도의 약 2/5)• 종교 : 가톨릭(60%), 이슬람교(8%), 개신교(3%)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의회구성: 양원제(하원 183석, 상원 61석 각 임기 5년)•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총 리: 칼 네hammer(Karl Nehammer)- 외교장관: 알렉산더 샬렌베르크(Alexander Schallenberg)- 사회, 보건, 복지 및 소비자보호 장관: 요하네스 라우흐(Johannes Rauch)			
경 제 ('20년 기준)	GDP	1인당 GDP	교역규모	경제성장률(GDP)
	4,325억 달러	48,593달러	(수출) 170,816백만 달러 (수입) 167,484백만 달러	-6.2%
우리나라 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892.06.23. 수교(조·오 우호통상조약 체결)- 1963.05.22. 대사급 외교관계 재개•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헝가리대사 : 신재현('19.06. 부임)- 주한헝가리대사 : 볼프강 앙거홀처(Wolfgang Angerholzer, '20.07. 부임)•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1,065,983천 달러(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수입 : 1,627,717천 달러(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자동차 부품)•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가리 투자 : 1,469,767천 달러			

주요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4월 대선(피셔 대통령 재선, 임기 6년) • 13.09월 총선 실시(기존 대연정 참여정당인 사민당과 국민당 각각 제1당과 제2당 지위 유지) • 13.12월 사민당-국민당간 대연정 합의 및 신정부 공식 출범 • 16.12월 판 데어 벨렌 대통령 당선(결선투표 재선거) • 17.10월 총선 실시(국민당 1위) • 17.12월 신정부(국민당-자유당 연정) 공식 출범 • 18.07월 2018년 하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 • 19.05월 자유당 대표 겸 부총리(슈트라헤) 사퇴(러시아와 뢰거래 의혹) 연정 붕괴 • 19.09월 조기총선 실시 / 쿠르츠 총리 당선(국민당 1위) • 20.01월 제2기 쿠르츠 정부 출범(1.7) / 국민당(중도우파)-녹색당(진보) 연정 • 21.10월 쿠르츠 총리 사임(여론 조작 등 부패 혐의), 샬렌베르크 총리 취임 • 21.12월 쿠르츠 전 총리 정계 은퇴 선언 후 샬렌베르크 총리 사임 칼 네함머 총리 취임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26/206	15/180	21/141	18/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폴란드



1 보건 의료 현황

□ 인구 통계

● 폴란드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1.7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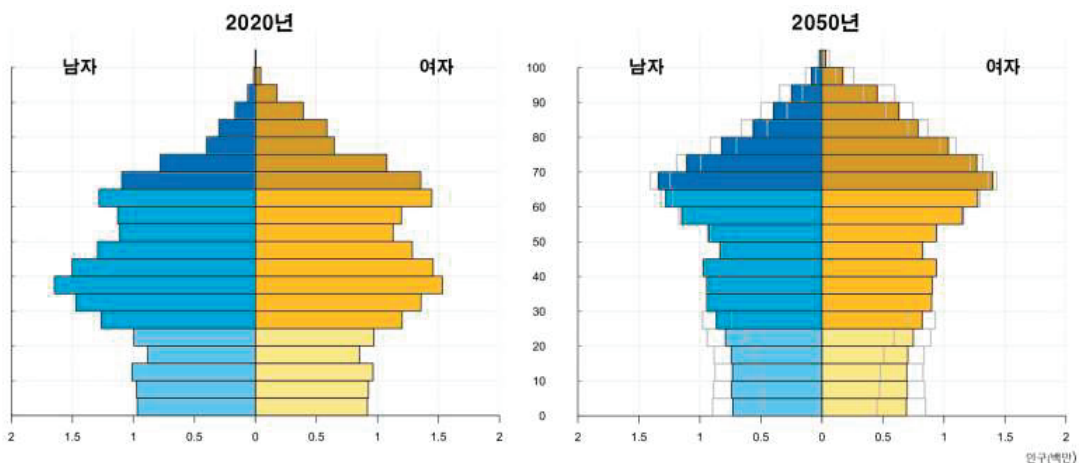
— 폴란드의 도시화율은 60.043%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약간 높음

<폴란드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37,847	41.7	18.7	60.043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폴란드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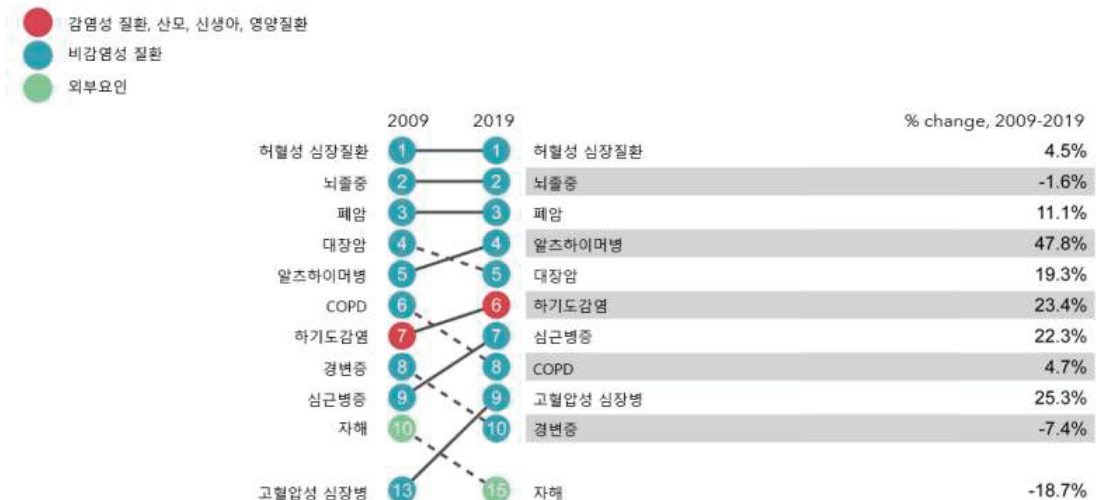
- 폴란드의 기대수명은 78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보다 낮으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3.8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90.48%에 해당함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1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66.67% 수준임

<폴란드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폴란드
기대수명(세)	81	78.0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3.8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12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폴란드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폐암 순이며, '09년 대비 알츠하이머병과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성 질환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폴란드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2.38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0.66%이며, 간호 인력은 6.89명으로 OECD 평균 10.4명의 0.66% 수준임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6.17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1.4배임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9.27대로 OECD 평균인 16.9대의 54.9% 수준이며, CT 장비 대수는 18.17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70.2%에 해당함

<폴란드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폴란드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2.38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6.89 (2018)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6.17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9.27 (2019)
	CT 스캐너	25.9	18.17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폴란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7.7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1.13배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 8.8%의 81.3%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2,289.3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56.0%에 해당함
- 폴란드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20.1%로 OECD 평균인 19.8%의 1.01배임

<폴란드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폴란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7.7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7.2 (2020)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0	20.1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2,289.3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폴란드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70.6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72.27%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8.05%에서 12.7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21.32%에서 '50년 14.98%로 6.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선불 개인 지출
- 본인 부담 의료비
- 정부 의료 지출
- 보건의료 개발지원



자료: IHME

❑ 보건 의료 체계

□ 의료 전달 체계

- 폴란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 인구 1,000명당 개업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가장 낮음⁵²⁸⁾
 - 특히 대도시 주변 작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지역에서 심각함
- 1차 의료⁵²⁹⁾
 - 1차 의료 제공자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며, '17년 발효된 1차 의료법에 의해 법적으로 GP(General Practitioner), 간호사, 학교 보건교사, 그리고 선택적으로 물리치료사가 1차 의료를 제공함⁵³⁰⁾
 - GP는 국민건강기금과의 계약에 따라 공중보건 서비스 내에서 일하는 의사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전문의에게 가는 의료 절차를 설정하고 수행함⁵³¹⁾
 - 간호사는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주사를 놓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함⁵³²⁾
 - 1차 의료 서비스로 건강 증진, 질병 예방과 같은 공중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일반 의학·가정 의학·소아과 범위 내에서 진단, 치료, 재활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
- 거주지 등의 지역 제한 없이 국민건강기금(National Health Fund, NFZ)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롭게 1차 의료 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선택하여 등록함⁵³³⁾
 - 1년에 두 번 무료로 변경할 수 있으며, 두 번 초과 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함⁵³⁴⁾
 - 치료를 받던 병원이 문을 닫거나, 18세 이하, 거주지 변경, 진료 받던 GP의 은퇴한 경우 의사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
 - 환자가 전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의료 의사에 의해 진료 의뢰를 받아야 하며, 특정 유형의 전문가 및 특정 환자에 대한 예외가 있음

528) OECD, country health profile 2021 - Poland (2021.12.13.)

529)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Wybór lekarza, pielęgniarzki, położnej POZ (2021.10.02.)

530) WHO, Poland: health system in transition, 2019 (검색일 2022.10.24.)

531)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Jak może Ci pomóc lekarz podstawowej opieki zdrowotnej (2021.10.14.)

532)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Jak może Ci pomóc pielęgniarzka POZ? (2022.05.12.)

533) WHO, Poland: health system in transition, 2019 (검색일 2022.10.24.)

534) Piotr Korneta와 2인,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Performance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in a Capitation Payment System: A Case Study from Poland, 2021 (검색일 2022.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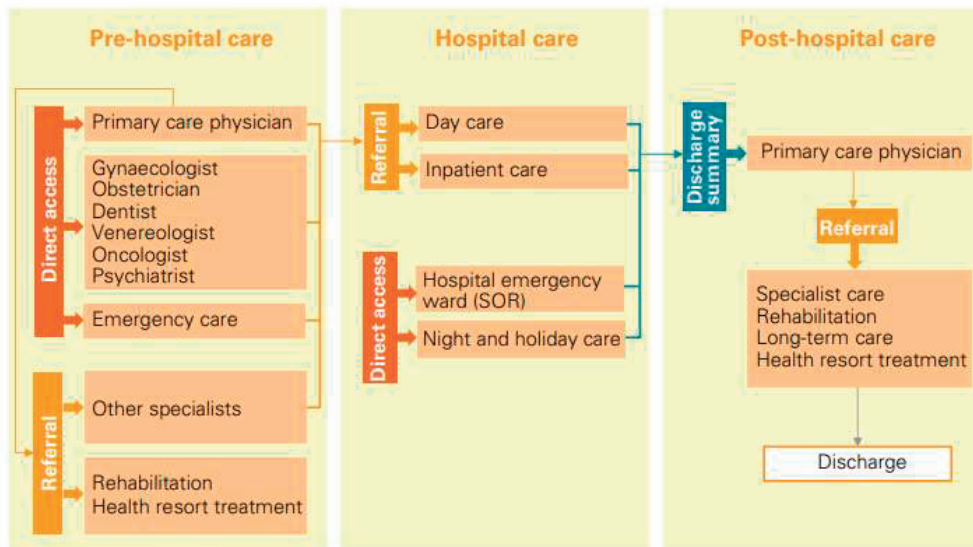
● 병원 진료⁵³⁵⁾

- 주치의와 전문의 모두 병원에 진료 의뢰, 추천할 수 있음
- 정신과, 산부인과, 정신과, 성병 및 치과 전문가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의뢰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음⁵³⁶⁾
- 중증 장애나 결핵이 있거나, HIV 양성인 사람 등 의뢰 없이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있음⁵³⁷⁾
- 의사의 진료 의뢰를 받으면 치료비를 지불할 필요 없음

● 국민건강기금(NFZ)와 계약을 맺은 폴란드 내 병원으로, 환자가 자유롭게 치료 받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음⁵³⁸⁾

- 저소득층 및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병원 입원이 무료임
- 폴란드의 병원 중 스과 병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스과 병원 입원은 무료이나, 스과 치료 숙박의 요금은 계절과 사용하는 방의 기준에 따라 다름⁵³⁹⁾
- 헬스 리조트 병원과 요양원 내에서 헬스 리조트 치료가 제공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⁵⁴⁰⁾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



자료: WHO, Poland: Health system review 2019⁵⁴¹⁾

535)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Skierowanie do szpitala (2021.10.15.)

536)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Do kogo skierowanie nie jest potrzebne (2022.08.07.)

537)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Do kogo skierowanie nie jest potrzebne (2022.08.07.)

538)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Wybór szpitala (2021.11.19.)

539)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Odpłatność za leczenie uzdrowskowe (2022.11.10.)

540) WHO, Poland: health system in transition, 2019 (검색일 2022.10.24.)

● 병원 수

- '20년 기준 병원의 개수는 1,237개로, 약 800개에 머물렀던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⁵⁴²⁾
- '14년도 100만 명 당 병원 수 28.52개에서 '20년도 32.56개로, 병상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데에 비해 병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⁵⁴³⁾

● 병상 수

- '12년도 병상 수는 252,352개이며, '20년도 234,617개임⁵⁴⁴⁾
- '18년도 1,000명당 병상의 수는 6.62개였고, '21년도 1,000명당 병상 수는 사상 최저치로 6.17개임⁵⁴⁵⁾

● '17년 10월부터 폴란드의 약 594개의 병원에 적용된 '병원 네트워크' 개혁이 도입됨⁵⁴⁶⁾

-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입원 및 외래 환자 치료의 조정이 목표임
- 폴란드의 의료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병원 중심이기 때문에, 공공 지출의 50%가 입원 환자 치료 서비스에 지출되었고, 13%는 일차 진료, 8%는 외래 특수 전문 진료에 사용되었음

□ 건강보험체계

● 폴란드는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SHI)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보건기금(NFZ)이 담당함⁵⁴⁷⁾

● 의료 공급체계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크게 보건부와 국가보건기금(NFZ), 지역별 자치의료기관(Voivodeship, Powiat, Gmina)으로 구분함

- 보건부는 국가 보건 정책, 공공 보건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관장하며, NFZ는

541) WHO, Poland: health system review (검색일 2022.10.24.)

542) statista, Number of hospitals in Poland from 2000 to 2020 (2022.08.02.)

543) trading economics, Poland Hospitals, update date: AUG, 2022 (검색일 2022.10.24.)

544) statista, Number of hospital beds in Poland from 2003 to 2020 (검색일 2022.10.24.)

545) trading economics, Poland Hospital Beds (검색일 2022.10.24.)

546) Katarzyna Dubas-Jakobczyk 외 2인, The 2017 reform of the hospital sector in Poland - The challenge of consistent design, 2019 (검색일 2022.10.24.)

547) OECD, Poland-country health profile 2021 (2021.12.13.)

보건의료서비스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지역 자치의료기관들이 자치 지역 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책임짐⁵⁴⁸⁾

- 공공의료기관 소유권 대부분이 보건부에서 Voivodeship, Powiat, Gmina로 이전됨⁵⁴⁹⁾
- '21년 기준 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은 6.6%를 차지했으며, '10년부터 '21년까지 6.2~6.6% 사이로, 변화 폭이 매우 작음⁵⁵⁰⁾
- '19년 총 의료비 지출에서 공적 자금(정부, 의무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이고, 본인부담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차지하였으며,⁵⁵¹⁾ 본인 부담의 대부분은 외래 환자 의약품으로 지출됨
- 나머지 약 6%가 자발적 건강보험(Voluntary Health Insurance, VHI)에 가입하였으며,⁵⁵²⁾ 주로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구매하는 단체 보험 패키지 형태임⁵⁵³⁾
- VHI 가입에 대한 관심은 공중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코로나 기간 동안 증가하였음⁵⁵⁴⁾

54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폴란드 보건의료시장 현황과 전망 (2016.11.30.)

549) OECD, Poland-country health profile, 2017 (검색일 2022.10.25.)

550)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2 (검색일 2022.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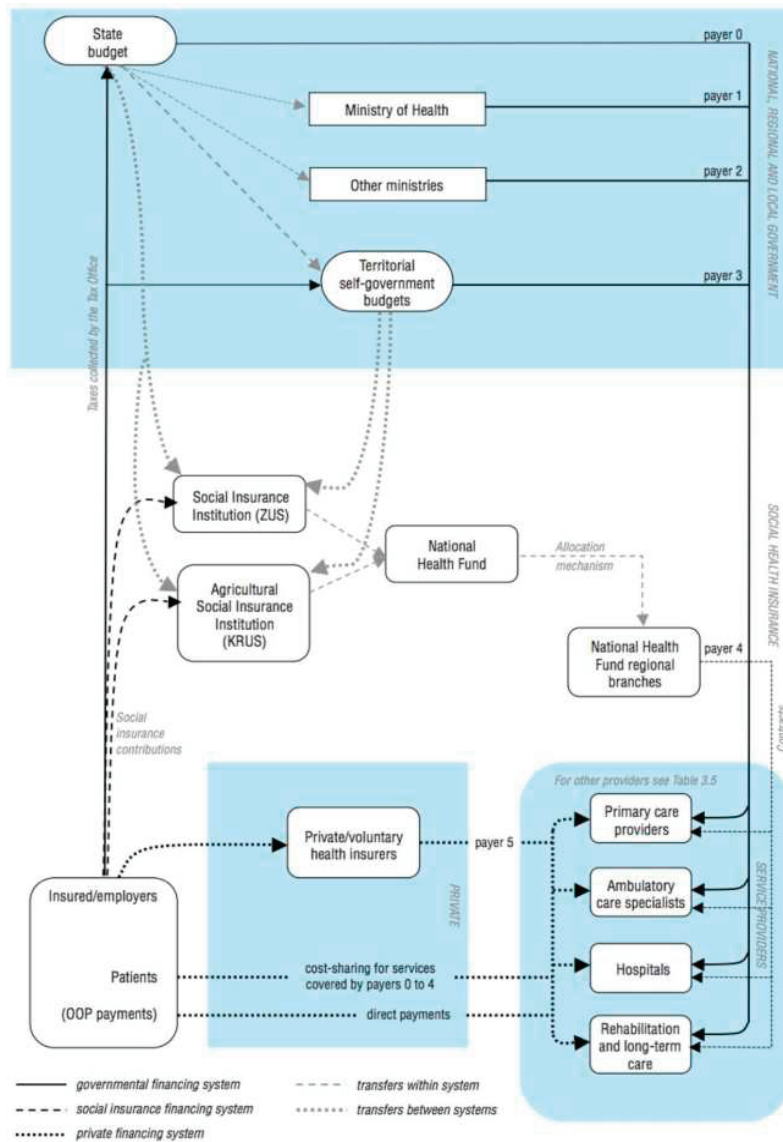
551)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2021.11.09.)

552)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2021.11.09.)

553) OECD, Poland-country health profile 2021 (2021.12.13.)

554) OECD, Poland-country health profile 2021 (2021.12.13.)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



자료: Task Force Health Care, Polish Healthcare Sector, SEP, 2017⁵⁵⁵⁾

● 의무보험

-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폴란드 헌법 제68조에 의해 모든 국민이 공적 자금을 통해 무상으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⁵⁵⁶⁾
- 국가보건기금(NFZ)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달하며, 근로자 소득의 9%를 각출하고,⁵⁵⁷⁾

555) Task Force Health Care, Polish Healthcare Sector, SEP, 2017 (검색일 2022.10.25.)

556) Sejm, Konstytucja Rzeczypospolitej Polskiej (검색일 2022.10.25.)

557) ZUS(폴란드 사회보험기관), Polski Ład Co zmienia się w przepisach dotyczących rozliczania składnika

어린이나 일부 실업자 또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은 보험료를 면제함⁵⁵⁸⁾

- 피고용인의 경우 임금의 8.5%가 의무 보험금으로 공제되어 NFZ에 납부되고 있으며, 납부액은 가입자의 지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⁵⁵⁹⁾
- 재정은 재무부(Ministerstwo Finansów)가 감독하고, 전반적인 활동은 주요 정책 입안자이자 규제기관인 보건부(Ministerstwo Zdrowia)가 감독하며, 여러 자문 기관이 보건부를 지원함⁵⁶⁰⁾
- 치료, 검진, 예방, 입원, 응급처치, 조제약품, 수술, 재활, 임신 등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다양하며, 일부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상환해줌⁵⁶¹⁾
- 다음 서비스는 보장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약품과 보조제, 정형외과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의 숙박과 식사, 특정 구급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⁵⁶²⁾
- 공공의료제도의 부실로 인해 민간보험도 대중화되었음

● 가족보험⁵⁶³⁾

- 피보험자의 가족 구성원 즉 배우자와 자녀 등(18세 이하 또는 학생인 경우 26세,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은 피보험자와 동일한 제도로 보장
- 의무보험 피보험자의 가족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가족 구성원을 건강보험에 신고하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 직원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가족 보험 등록에서 취소해야 함

● 자발적 건강보험(VHI)

- 진료의 대기시간을 줄이거나, 공중 보건 시스템의 문제로 민간 건강보험을 가입함⁵⁶⁴⁾

ubezpieczenie zdrowotne od 1 stycznia 2022 r (2022.01.01.)

558) NFZ, O Narodowym Funduszu Zdrowia łatwym językiem (검색일 2022.10.25.)

5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폴란드 보건의료시장 현황과 전망 (2016.11.30.)

560) Task Force Health Care, Polish Healthcare Sector, SEP, 2017 (검색일 2022.10.25.)

561) NFZ, Czym się zajmujemy (검색일 2022.10.25.)

562) NFZ, Informacje o świadczeniach (검색일 2022.10.25.)

563) Serwis Ministerstwa Zdrowia i Narodowego Funduszu Zdrowia, Jak ubezpieczyć członka rodziny (2022.01.26.)

564) Michał KOŚCIOŁEK, develop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Poland and the public health care

-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자발적 임의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⁵⁶⁵⁾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보험자의 가족이거나, EU/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일반 건강보험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음⁵⁶⁶⁾

□ 수가제도

● 폴란드의 수가제도는 일차 의료, 전문의 외래 진료, 병원 입원에 따른 수가제도가 다름⁵⁶⁷⁾

- 폴란드의 의료자금은 ‘NHF(National Health Fund)’에 의해 조달됨⁵⁶⁸⁾

● 일차의료: 인두제(Capitation, CAP)

- 가입자 수에 1인당 인두 비율을 곱한 인두제 지불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금이 조달됨⁵⁶⁹⁾
- 인두제 지불 시스템 내에는 임상팀의 보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기록 구현 비용과 같은 인프라 비용, 1차 시설 운용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감안함⁵⁷⁰⁾
- 인두 지급액은 연령 및 질환 여부 등 요소에 따라 다르며 몇 개월마다 변경됨⁵⁷¹⁾
- 6세까지는 월 8.64유로, 40~65세 성인은 월 4.29, 66~75세 환자는 8.71,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는 월 10.24유로의 보조금을 받음

● 전문의 외래 진료: 행위별수가제⁵⁷²⁾

- 2차 외래 진료와 치과 진료 및 일부 공중 보건 프로그램은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됨
- '11년부터 특정 전문 외래 환자 서비스는 입원 진료와 마찬가지로 JGP가 적용

system, 2019 (검색일 2022.10.25.)

565) NFZ, Jak ubezpieczyć się dobrowolnie (검색일 2022.10.25.)

566) Narodowy Fundusz Zdrowia(NFZ), Jak ubezpieczyć się dobrowolnie (검색일 2022.10.25.)

5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2020 (검색일 2022.10.25.)

568) Piotr Korneta와 2인,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Performance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in a Capitation Payment System: A Case Study from Poland, 2021 (검색일 2022.10.25.)

569) Piotr Korneta와 2인,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Performance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in a Capitation Payment System: A Case Study from Poland, 2021 (검색일 2022.10.25.)

570) Piotr Korneta와 2인,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Performance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in a Capitation Payment System: A Case Study from Poland, 2021 (검색일 2022.10.25.)

571) Piotr Korneta와 2인,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Performance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 Providers in a Capitation Payment System: A Case Study from Poland, 2021 (검색일 2022.10.25.)

572) WHO, Poland: health system in transition, 2019 (검색일 2022.10.25.)

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음

- 입원: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Jednorodna grupa pacjentów, JGP)
 - '08년 7월 1일에 DRG 기반 지불 시스템을 도입함⁵⁷³⁾
 - 폴란드의 DRG 시스템은 영국의 HRG(Healthcare Resource Group) 시스템을 기반으로 폴란드의 조건에 맞게 조정된 'JGP'이며,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 적용됨⁵⁷⁴⁾
 - JGP 시스템은 19개 섹션으로 나뉘고, 총 677개의 동종환자 그룹이 있음⁵⁷⁵⁾
 - DRG 가격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 제공자에 대해 동일하며, 간접비와 관리비를 포함하여 병원비용을 충당해야 함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바르샤바 내무부 중앙임상병원 Centralny Szpital Kliniczny MSWiAw Warszaw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년 법인격을 취득, 폴란드에서 가장 큰 의료 센터 중 하나 2021년 333,779건의 외래진료, 40,747건의 입원, 7,676건의 수술 수행 	
	의료서비스 가격표 - 유료	https://www.gov.pl/web/cskmswia/cennik-uslug-medycznych---platnych
Bielsko-Biała 지방 병원 Szpital Wojewódzkiw Bielsku-Białej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elsko-Biała에 있는 지방병원은 폴란드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 17개의 진료과, 6개의 수술실, 20개의 투석스테이션, 19개 전문클리닉, 700대용 주차장 운영 	
	비보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가격표	https://www.hospital.com.pl/cennik-uslug-medycznych-swiadczonych-w-szpitalu-wojewodzkiem-w-bielsku-bialej-na-rzecz-osob-nieubezpieczonych/
피에카리실롱스키에 지방외상외과 독립공립병원 Samodziel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년에 광업 및 야금 산업의 사고와 건설 및 운송 부문의 기타 사고 치료 센터로 설립 7개 외상 및 정형 병동 167 병상, 외상 및 정형외과 및 신경외상병동 27병상, 마취중환자실 15병상, 3개의 재활부서 	

573) Małgorzata Macuda, diagnosis-related group prospective payment system in Poland - costs versus tariffs: the case of inguinal hernia, 2018 (검색일 2022.10.25.)

574) Maria Świderek 외 2인, The use of valuations of healthcare services in other countries (basic benefits basket) in the tariffing process, 2019 (검색일 2022.10.25.)

575) Maria Świderek 외 2인, The use of valuations of healthcare services in other countries (basic benefits basket) in the tariffing process, 2019 (검색일 2022.10.25.)

구분	내용	
Publiczny Wojewódzki Szpital Chirurgii Urazowej w Piekarach Śląskich	108개의 병상 • 2021년 입원환자는 Piekary Śląskie의 병동 9,863명, Kochcice의 부서 1,233명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표	http://www.urazowka.piekary.pl/p,108,cenniki-uslug-swiadczonych-w-szpitalu
SZTUM의 폴란드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Szpitalę Polskie SA는 공적 자금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 현대식 시설을 갖춘 15개의 병동과 경험많은 의료 및 간호 직원이 환자의 건강을 감독하는 다수의 전문클리닉을 제공 	
	상업적 테스트 및 치료의 범위 및 가격	https://www.szpitalę-polskie.pl/cenniki-sztum/
리마노와 카운티 병원 Szpital Powiatowy w Limanowej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취과 중환자실, 일반외과, 원데이외과-안과, 외상 및 정형외과, 소아질환, 내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신생아 등 13개 진료과(신생아용 유아용 침대 포함) 317병상 20개 클리닉에서 외래전문진료를 제공, 연간 81,000명의 외래진료 	
	의료서비스 가격표	https://www.szpitallimanowa.pl/strefa-pacjenta/nieaktywny-cennik-uslug-medycznych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폴란드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469억 6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242.5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3.79% 감소해 451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7.35% 성장해 856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3.65% 감소해 '22년 1,197.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7.61% 성장해 '26년 2,288.6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6.92%에서 '26년 6.6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74.05%에서 '26년 78.7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25.95%에서 '26년 21.2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42.492	46.962	45.184	51.773	59.975	71.418	85.640
연간 성장률	10.35	10.52	-3.79	14.58	15.84	79.08	19.91
1인당 의료비	1,122.8	1,242.5	1,197.2	1,374.2	1,595.1	1,903.7	2,288.6
GDP 대비 의료비 비율	7.08	6.92	6.55	6.38	6.34	6.51	6.69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73.33	74.05	75.03	75.98	76.92	77.83	78.71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26.67	25.95	24.97	24.02	23.08	22.17	21.29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폴란드에는 '20년 898개의 병원과 167,600개의 병상, 21,500개의 외래진료소가 있으며, 폴란드인의 절반 이상이 일반 개업의를 방문했지만 '21년 조사에서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29%에 불과했으며 '18년보다 10% 감소한 수치임⁵⁷⁶⁾
- 인구 3,800만 명의 유럽 연합에서 6번째로 큰 국가인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의료 시장 중 하나이지만, 의료 부문은 다소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음
- 지역 정부가 행정적 역할을 하고 국민 건강 기금(NFZ, Narodowy Fundusz Zdrowia)은 의료 제공자와의 서비스를 계약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NFZ는 1차 진료, 외래 및 입원 환자 치료의 일일 비용과 의약품 및 재활 제품에 대한 상황을 담당하며, NFZ는 고용주와 직원의 기여금으로 운영됨
- 의료 지출의 23% 가계 지출이며, 가계 지출의 대부분은 의약품(68% 이상), 외래 진료(약 29%), 병원 치료(약 2%)에 사용됨
- Statista에 따르면 '21년 폴란드의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은 거의 610억 즈워티(129.6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하락한 '20년보다 10.4% 증가한 수치이며 민간 지출이 전체 의료 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또한 폴란드인 중 9%는 민간 의료만 이용하였음⁵⁷⁷⁾
- 설문 조사(복수 응답)에 따르면 민간 의료를 찾는 주요 요인은 서비스 대기 시간 단축(74%),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22%), 보다 헌신적인 의사(21%) 등임
- PMR의 예측에 따르면 폴란드 민간 의료 시장의 가치는 '21년에 약 11% 증가하여 613억 즈워티(1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환자가 치료를 재개하고 코로나19로 미루었던 건강 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민간 의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⁵⁷⁸⁾
- '19년 폴란드의 민간 의료서비스 시장은 589억 즈워티(125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고, '20년에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552억 즈워티(117억 달러)까지

576) <https://www.statista.com/topics/4943/health-care-in-poland/> (검색일 2022.10.26.)

577) e-point, 4 wyzwania cyfryzacji usług medycznych w Polsce (2022.04.25.)

578) Inwestycje, Rynek prywatnej opieki zdrowotnej wzrośnie o ok. 11% do 61,3 mld zł w 2021 (2021.09.08.)

6.3% 감소했으나 '21년에는 11% 증가하며 '21-'26년에 민간 의료 시장은 연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전염병 기간 동안 소규모 클리닉과 치과, 진단 영상 및 재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문을 꺼렸기 때문이며, '20년 하반기에 폐쇄 기간보다 더 많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가동 중지 시간을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 통계 폴란드에 따르면 '19년 총 의료비 지출은 1,478억 3,850만 즈워티(314억 달러)로 GDP의 6.4%를 차지했으며, 사업 형태로 본 비중은 병원이 41.7%(그중 종합병원은 31.2%)로 가장 높았고, 외래 의료 시설 24.9%, 의료용품 업체 21.4%, 약국 19.1% 순이었음⁵⁷⁹⁾

●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17년 폴란드에는 930개의 병원이 있었으며(공립: 58%, 사립: 38%). 폴란드 사립 병원 협회(OSSP, Polish 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와 관련된 사립 병원은 폴란드 전체 병상의 약 5%(전체 병원 수의 18%)를 차지했으며, OSSP 사립 병원은 약 13%의 의사와 7%의 간호사 및 조산사를 고용했음

● PMR에 따르면 '22년 내내 외래 환자 및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의 가격이 약 14%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PMR 예측에 따르면 '22~'27년 민간 의료 시장의 가치는 연평균 약 7%씩 성장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명목상 성장은 약 3%로 낮아질 것으로 보임⁵⁸⁰⁾

- 치과 및 재활은 '21년 방문 당 폴란드인이 지출한 평균 금액(FFS 수수료의 일부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로 치과 가격 변동 지수는 62% 이상, 재활 가격 변동 지수는 59%였으며 내과 방문이 가격 인상에 가장 저항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이 44%에 달하였음

579) Statistics Poland, Health and health care in 2020 (검색일 2022.10.26.)

580) podyplomie, Jak inflacja wpłynie na rynek prywatnych usług zdrowotnych? (2022.08.04.)

국민 건강 프로그램 (Narodowy Program Zdrowia, NPZ 2021–2025) ⁵⁸¹⁾	
발표	2021년 3월 30일
기간	2021년~2025년
비전 및 목표	<p><비전> 폴란드인의 건강한 삶을 연장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개선하며 건강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p> <p><목표> 연령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목적: 폴란드인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영위하고 건강과 직장, 사회 및 가족 생활에 최대한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함</p>
전략 및 주요내용	<p>2021~2025 국민 건강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2016~2020년 국민 건강 프로그램 연계</p> <p><Action Pla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의 식단, 영양 상태 및 신체 활동을 개선 2. 정신 활성 물질, 행동 중독 및 기타 위험한 행동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3. 정신 건강 문제의 예방과 사회의 정신 복지 향상 4. 외부 환경, 직장, 거주지, 레크리에이션 및 연구에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협으로 인한 건강 위험 감소 5.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화 촉진 6. 생식 건강 개선

581) <https://www.gov.pl/web/zdrowie/narodowy-program-zdrowia1> (검색일 2022.10.03.)
<https://www.gov.pl/web/zdrowie/cele-operacyjne-npz> (검색일 2022.10.03.)

□ 제약산업

- 폴란드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158억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417.9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93% 감소한 148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34% 성장해 254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5.79% 감소한 '22년 393.7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4.65% 성장해 '26년 679.9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2.33%에서 '26년 1.99%로 지속적 감소할 것이 전망됨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33.6%에서 '26년 2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14.043	15.795	14.859	16.628	18.790	21.801	25.444
연간성장률	7.36	12.48	-5.93	11.90	13.00	16.03	16.71
1인당 의약품비	371.1	417.9	393.7	441.4	499.7	581.1	679.9
GDP 대비 의약품 비율	2.34	2.33	2.15	2.05	1.99	1.99	1.99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33.0	33.6	32.9	32.1	31.3	30.5	29.7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국립 의약품 제조업체에 따르면 폴란드 제약시장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유럽 연합에서 6번째로 큰 시장임⁵⁸²⁾
 - 의약품 제조업체는 '10년 281개에서 '18년 378개로 증가하였으며 영세 기업의 비율은 '18년 64.8%로 제조업 평균인 85.5%보다 낮음

582) BUSINESS INSIDER, Nowoczesne leki to lata badań i ogromne koszty. Jak tworzą je polskie firmy farmaceutyczne? (2021.05.28.)

- 폴란드의 의약품 무역수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가장 큰 수입대상국은 독일이며, 수출도 독일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러시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영국,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음
- 폴란드 제약산업은 주로 제네릭 및 바이오 대체제 생산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73억 유로(72.3억 달러)의 GDP를 창출하며 이는 국내 총생산의 1.33%를 차지하며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의 49%가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폴란드 전체 지출의 3.1%에 해당함⁵⁸³⁾
- 제약산업은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R&D에 대한 지출은 7%이며 24억 즈워티(5.1억 달러)의 예산 그리고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
- '21년 기준으로 폴란드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145억 6천만 달러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12억 4천만 달러로 7.8%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67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4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46.7%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77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49.2%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53.3%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6.1% 감소한 136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4.2% 성장해 231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3.5% 감소한 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7.2% 성장해 22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9.3% 감소한 61억 6천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1.2% 성장해 94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3.3% 감소한 75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6.4% 성장해 137억 7천만

583) <https://www.producencilekow.pl/krajowy-przemysl-farmaceutyczny/> (검색일 2022.10.26.)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처방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일반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낮으며,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성장률이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제약시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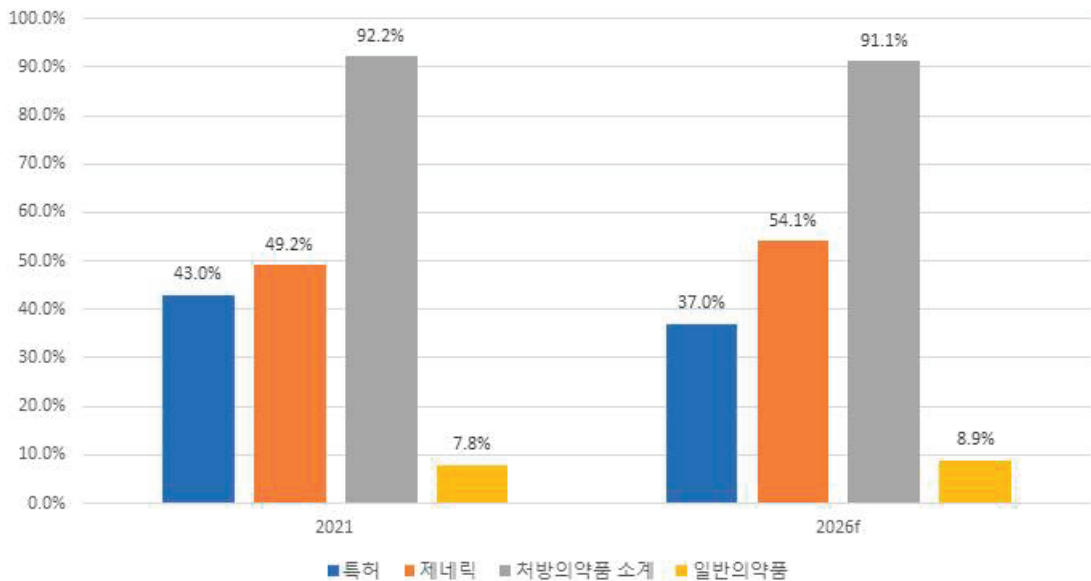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5.974	6.792	6.158	6.724	7.397	8.336	9.424
	제네릭	6.984	7.764	7.505	8.532	9.804	11.578	13.766
	소계	12.958	14.556	13.663	15.256	17.201	19.914	23.190
일반의약품		1.085	1.239	1.196	1.372	1.588	1.887	2.253
합계		14.043	15.795	14.859	16.628	18.790	21.801	25.444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92.2%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91.1%로 감소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7.8%에서 8.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43.0%에서 '26년 37.0%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49.2%에서 '26년 54.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30억 6천만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78억 8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적자가 48억 2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8.46% 감소한 28억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2.05%의 성장을 보여 44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9.73% 감소한 71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04%의 성장을 보여 104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폴란드의 무역적자는 '22년 43억 1천만 달러에서 '26년 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3,689.65	3,062.99	2,803.80	3,061.17	3,384.41	3,850.07	4,416.35
연간성장률	3.60	-16.98	-8.46	9.18	10.56	13.76	14.71
의약품수입	8,166.26	7,880.34	7,113.74	7,640.38	8,297.60	9,262.49	10,420.95
연간성장률	33.98	-3.50	-9.73	7.40	8.60	11.63	12.51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폴란드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5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5% 증가하였고 '20년부터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폴란드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20년부터 '21년까지 적자를 기록함

<폴란드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18,485	26,442	9,067	9,765	6,794	8,082
의약품 수입	4,543	11,688	15,425	5,728	37,695	54,480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⁵⁸⁴⁾

- 폴란드는 '20년 12월까지 코로나19 백신 4,500만 도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백신은 '21년 2월부터 제공되며 화이자/바이오टे크, 아스트라제네카 및 존슨앤존슨 등의 회사에 주문하였음⁵⁸⁵⁾
- '21년 3월 폴란드의 회사 Mabion은 폴란드 개발 기금(PFR)으로부터 4,000만 즈워티(850만 달러)의 지원을 받고 폴란드에서의 Novavax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잠재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큐어백 등과 협력할 수 있음을 밝혔음⁵⁸⁶⁾

58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4.)

585) The First News, Poland orders 45 mln COVID-19 vaccines, to be available in February (2020.12.02.)

586) TVPWORLD, Talks over COVID-19 vaccine production in Poland take place: AstraZeneca (2021.03.25.)

- 폴란드는 '21년 말까지 8,500만 도즈를 주문했으며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모더나 화이자/바이오테크(1차 계약), 큐어백 등의 회사와의 계약으로 6,000만 도즈를 주문했음⁵⁸⁷⁾
 - '20년 12월 추가 용량 풀을 사용하여 '21년 1월 계약한 주문에 따라 화이자/바이오테크 2,500만 도즈를 추가 주문하였으며 이는 21년 2분기에 배송될 예정임
- 폴란드에는 '22년 2월까지 총 4,600만 개의 백신이 제공되었으며 약 2,100만 명 (인구의 55%)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추산됨⁵⁸⁸⁾
 - '22년 2월 기준 EU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화이자/바이오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임
- 폴란드는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전국에 걸쳐 운영되는 7,000개 이상의 예방접종 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음⁵⁸⁹⁾
 - 코로나19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폴란드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 잉여 백신 공급을 재판매할 것을 요청했으며 백신은 구매가로 제공하게 됨
 - '21년 8월 Mateusz Morawiecki 총리는 동유럽 및 남유럽의 파트너들과의 연대의 정신으로 폴란드 백신 공급의 일부를 동부 발칸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등 같은 동부 파트너 일부 국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음
- '22년 4월 Adam Niedzielski 보건부 장관은 폴란드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화이자에게 계약된 백신의 인도와 비용 지불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음⁵⁹⁰⁾
 - 폴란드 창고에는 2,500만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관되어 있고 약 6,700만~7,000만 도즈가 여전히 주문되어 있으며 폴란드인들은 더 이상 예방 접종을 원하지 않고 있음
- '22년 8월 폴란드 정부와 화이자 간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폴란드는 '22년 4월부터 주문과 지불을 중단하고 있으며 기존 일정에 따르면 8월까지 15억 즈워티(3.2억 달러)에 1,600만 도즈를 받아야 했음⁵⁹¹⁾

587) Stacje sanitarno-epidemiologiczne, Polska ma zapewnione 85 mln dawek szczepionki (검색일 2022.10.26.)

588) Portal onkologiczny zwrotnikrak, SZCZEPIONKA NA COVID-19 - SKŁAD, RODZAJE I SKUTECZNOŚĆ (2022.02.21.)

58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Poland, Poland shares its COVID-19 vaccine supplies with Ukraine (2021.08.17.)

590) Prawo, Polska rezygnuje ze szczepionek przeciwko Covid-19 (2022.04.20.)

591) COWZDROWIU, Dostawy szczepionek od Pfizera. Jest światło w tunelu? (2022.08.02.)

- 폴란드 정부는 예정된 배송을 연기하고 백신을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팍슬로비드(paxlovid)와 같은 다른 화이자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23년 1분기 말까지 폴란드는 60억 즈워티(12.7억 달러) 상당의 백신 6,700만 도즈를 추가로 받게 되어있음
- '22년 9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50~80만 개가 도착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이것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⁵⁹²⁾

<폴란드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10월 30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37.80	239	239	143.99	56.65%	0.57%	57.2%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⁵⁹³⁾, Our World in Data⁵⁹⁴⁾

592) PolskieRadio24, Do Polski trafiają zaktualizowane szczepionki przeciw COVID-19. Pierwsza dostawa jeszcze dziś (2022.09.09.)

593)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30.)

594)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30.)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폴란드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34억 6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91.7달러로 추정됨
- 폴란드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2.01% 성장한 38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87% 성장해 52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2.10% 성장한 102.8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11% 성장해 140.1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3,464.1	3,880.1	4,421.5	4,745.3	5,035.5	5,240.7
1인당 의료기기	91.7	102.8	117.4	126.2	134.2	140.1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폴란드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95%가 수입되고 있으며 시장에는 소수의 현지 업체만 있으며 바이오 전자 장비, 수술실 장비, 재활 장비, 의료 가구 및 수술 도구와 같은 기본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⁵⁹⁵⁾
- 폴란드 의료기술 산업에는 12,000명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300개의 회사가 있음⁵⁹⁶⁾
 - 폴란드 의료장비 및 장치는 고품질, 낮은 고장률, 낮은 운영 비용, 낮은 서비스 및 예비 부품 가격, 높은 내구성,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우수한 가격 대비 가치로 잘 알려져 있음
 - 의료장비 및 장치의 국내 가치는 29억 유로(28.7억 달러)에 달하며 모든 폴란드 제조업체의 점유율의 15%를 차지함

595) Wisconsin Economic Development, Growth in Poland's health and medical sector leads to demand for imports (2020.12.01.)

596) <https://expo.gov.pl/news/polskie-firmy-technologiczne-wnosza-nowa-jakosc-do-medycyny/> (검색일 2022.10.27.)

- 폴란드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Poland)의 데이터에 따르면 의기기 및 장비 기업의 수익 중 6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은 재활 및 정형외과 장비 포함 보철물, 의료 및 수의학 기기, 병원 가구, 수술실 및 중환자실용 장비, 진단 장치(초음파 스캐너, X선 장비), 일회용 장비, 원격 의료 기기 및 서비스 등임
- '20년 의기기 산업의 국내 생산 총 가치가 거의 110억 즈워티(23.4억 달러)에 달했으며 의기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5,266개 기업과 이 회사에 고용된 약 30,000명의 직원의 작업으로 구성되었음⁵⁹⁷⁾
- '20년 폴란드 의기기 기업의 매출은 175억 즈워티(37.2억 달러)이며, 의기기 산업의 부가가치, 즉 기업 활동으로 인한 상품 가치의 증가는 45억 즈워티(9.6억 달러)으로 추산되며 GDP의 0.19%에 해당함⁵⁹⁸⁾
 - 폴란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기기는 비침습적 제품으로 제조업체 총 수익의 66%가 주로 이 의기기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
 - 판매 제품의 점유율은 비침습적 의기기 38.5%, 수술, 시술 및 치료 기기 31.7%, 진단 및 검사 제품 29.8%을 차지함
- 폴란드 의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기기 시장에서 기타의기기와 의료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5%, 24.2%로 가장 높음

597) Termedia, Sektor wyrobów medycznych w Polsce (2022.06.24.)

598) https://polmed.org.pl/wp-content/uploads/2022/06/Raport_online_FINAL_1.07.22.pdf (검색일 2022.10.27.)

<폴란드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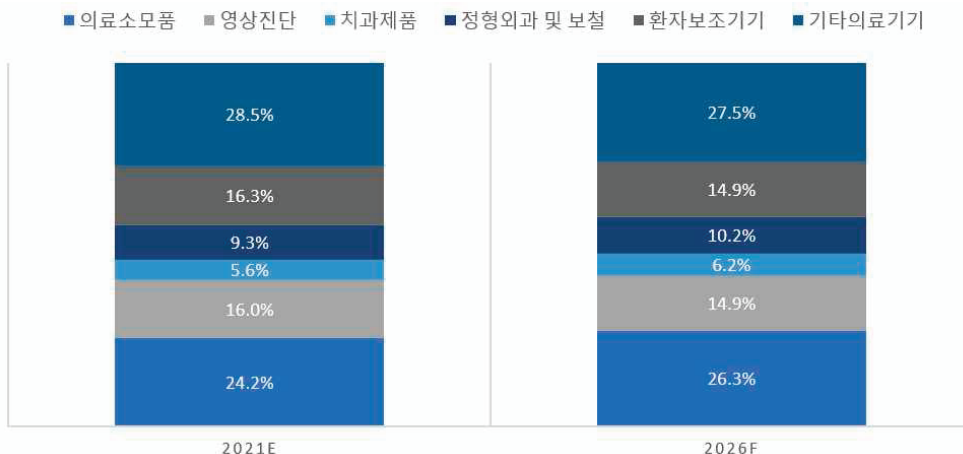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712.2	837.7	954.5	1,106.2	1,207.4	1,305.5	1,379.4
영상진단	566.4	555.9	601.0	680.2	724.3	759.7	779.1
치과제품	154.6	195.6	231.2	265.2	289.2	310.5	327.0
정형외과 및 보철	269.9	323.7	375.9	433.7	471.0	506.0	532.1
환자보조기기	521.6	564.0	614.0	692.0	731.7	759.7	780.8
기타의료기기	835.9	987.2	1,103.5	1,244.2	1,321.8	1,394.1	1,442.4
합계	3,060.6	3,464.1	3,880.1	4,421.5	4,745.3	5,035.5	5,240.7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치과제품(10.93%)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보조기기의 연평균성장률은 6.78%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치과제품의 구성비율은 0.59% 증가한 6.2%인 반면, 환자보조기기는 1.38% 감소하여 14.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폴란드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27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2.1% 증가하였음

- 팬데믹 영향에도 '20년과 '21년 모두 의료기기 수입과 수출은 증가하였음

<폴란드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1,097,418	1,980,098	2,580,362	2,704,323	2,842,230	3,613,872
수입액	1,514,590	1,722,735	2,199,415	2,182,385	2,485,389	2,785,927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⁵⁹⁹⁾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폴란드의 의료기기 수입은 '20년에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5.3% 증가한 3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함

<폴란드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기기 수입	1,823,490	2,025,248	2,581,614	2,567,091	2,911,821
의료기기 수출	1,443,568	2,427,350	3,065,959	3,192,022	3,362,534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기타의료기기 및 환자 보조기기가 각각 24.21%, 21.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음
- 의료소모품이 세 번째로 크고, 영상진단, 정형외과 및 보철,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0년에는 치과제품이 큰 감소세를 보였음

⁵⁹⁹⁾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4.)

<폴란드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소모품	442,885	483,381	560,962	590,388	622,676
영상진단	296,622	338,149	433,023	304,700	535,284
치과제품	115,014	130,660	173,406	180,248	141,120
정형외과 및 보철	181,426	188,895	245,184	280,993	268,018
환자보조기기	297,194	394,456	498,239	521,688	639,694
기타의료기기	490,349	489,707	670,800	689,074	705,029
합계	1,823,490	2,025,248	2,581,614	2,567,091	2,911,821

자료: Fitch Solutions - Poland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폴란드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5천 9백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20.76%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정형외과용 기기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폴란드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검사기기)	17,926.4	22,414.8	28,324.7	29,448.9	27,123.4	40,901.7
9019 (치료기기·호흡기기)	905.8	1,358.2	1,747.0	1,557.0	9,331.5	1,087.6
9020 (기타 호흡기기)	3.5	0.1	4.7	0.2	0.2	-
9021 (정형외과용)	2,286.8	3,323.3	4,305.9	5,133.8	3,171.9	5,527.2
9022 (영상진단)	2,543.0	4,421.7	8,606.7	5,907.0	9,583.9	11,232.9
합계	23,665.4	31,518.1	42,989.0	42,046.9	49,210.8	58,749.4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⁰⁰⁾

600)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4.)

-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국가 위생 검사국에 속한 병원, 외래 환자 진료소 및 여러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진단 테스트가 비교적 적게 수행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검사 용량 추가와 상업용 실험실 등에서의 테스트 제공으로 해결함
- 그러나 '20년 9월 2차 대유행이 시작될 때 접촉 추적 및 테스트가 담당 직원의 부족으로 중단되었음
- '21년 1월 첫 번째 폴란드산 신속 항원 테스트가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이 MHH는 폴란드 제조업체 Medicoфарma와 글로벌 유통업체인 Hemp&Health가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음⁶⁰¹⁾
- '22년 1월 코로나19 감염 급증으로 검사를 위한 대기열이 크게 증가하여 시험 센터의 수를 늘리고 근무 시간을 연장했으며, 지난 한 달간 보건부는 거의 50개에 가까운 새로운 테스트 지점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총 680개 지점을 확보했음⁶⁰²⁾
- 증상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무료 PCR 검사에 등록할 수 있으며 1월 24일에는 거의 222,000명이 등록했음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폴란드 정부는 '22년 1월 27일부터 약국에서 무료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⁶⁰³⁾
- 폴란드 정부는 약국에서의 무료 코로나 검사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2년 2월 기준 약국 중 1.5%만이 새로운 정부 계획에 서명하였으며 계약한 약국 중 일부는 프로그램 요구사항 충족에 어려움을 이유로 철회하였음⁶⁰⁴⁾
- '22년 2월 폴란드에 있는 13,000개 약국 중 총 183개 약국에서 무료 항원 테스트가 가능했으며 실제로는 4일간 총 83개의 약국이 2,263개의 무료 항원 테스트를 수행했음
- 폴란드의 메디커버 병원에서 RT-PCR 검사는 378즈워티(80.3달러), 항체검사는 135즈워티(28.7달러), 신속 항원 검사는 99즈워티(21달러)에 제공되고 있음⁶⁰⁵⁾

601) healthcare-in-europe, First Covid-19 test 'made in Poland' (2021.02.17.)

602) FUNDACJA NOTES FROM POLAND, Huge queues for Covid tests in Poland as infections surge (2022.01.27.)

603) Reuters, 'Explosion': Poland widens testing as COVID cases hit record (2022.01.21.)

604) FUNDACJA NOTES FROM POLAND, Only 1.5% of pharmacies sign up to Polish government's free Covid testing scheme (2022.02.02.)

605) <https://www.medicover.pl/koronawirus/test/> (검색일 2022.10.27.)

- 폴란드 온라인 쇼핑몰 Allegro에서는 홈 항원 테스트 키트를 4~5.99즈워티 (0.9~1.3달러)에 판매하고 있음⁶⁰⁶⁾

<폴란드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6월 16일 기준

총검사수	인구 1천 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 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36,962,382	964.88	0.09

자료: Our World in Data⁶⁰⁷⁾

- 폴란드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22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89.68% 증가하고 있음
-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가 수입 규모와 성장률에서 모두 HS코드 382200(PCR)키트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폴란드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428.52	642.36	—	1,535.39	1,611.57
382200 (PCR)	435.39	337.28	303.40	433.09	563.62	587.43
합계	435.39	765.80	945.76	433.09	2,099.01	2,199.10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⁰⁸⁾

606) <https://allegro.pl/oferta/test-wymazowy-boson-z-polski-covid-19-antygenowy-12484885339> (검색일 2022.10.27.)

607)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25.)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25.)

608)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4.)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및 원격 의료)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8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9.86% 성장하여 14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⁶⁰⁹⁾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44.23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 정부는 의료 부문의 디지털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이 부문은 '24년까지 매년 평균 4.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럽 보조금과 폴란드 국민 건강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임⁶¹⁰⁾
- '19년 1월부터 폴란드 의료 기관에서는 전자 의료 문서(Electric Medical Documentation, EDM)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정보 시스템법에 의해 도입되었음⁶¹¹⁾
 - 진료의뢰서, 입원거부서, 전문의가 작성한 진료의뢰서 정보 등 3가지 유형에만 적용되었음
- '21년 1월부터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자(병원, 건강 센터, 외래 진료소 등)는 의료 기록을 전자 형식으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많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많은 기관의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구식임⁶¹²⁾
 - '19년 12월 기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10%만이 모든 유형의 환자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기록하는 반면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66%는 종이 형식으로만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기록을 공유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30%만이 교환 목적으로 전자 의료 문서의 구문과 의미를 정의하는 HL7 CDA 표준의 폴란드 국가 구현을 사용함
- 디지털 건강에 관한 규정은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환자 신원 확인 및 공공 재정 지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 확인 규칙도 완화된 인스턴트 메시징(Zoom, Microsoft Teams 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609)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poland> (검색일 2022.10.28.)

610) Wisconsin Economic Development Growth in Poland's health and medical sector leads to demand for imports (2020.12.01.)

611) PMR Healthcare Market Experts, Electronic medical records from 1 January 2019 (2019.01.17.)

612)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digital-healthcare-2022/poland> (2022.06.30.)

- 폴란드는 EU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년 2월 완료되는 디지털 의료 기록을 위한 전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인 P1은 온라인 환자 계정 및 전자 처방 서비스, 분석, 통계 및 보고 시스템의 통합 및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⁶¹³⁾
 - 두 번째 단계의 전체 예산은 3,850만 유로(3,814만 달러) 이상이며, 이 중 약 3천만 유로(2,972만 달러)는 EU의 유럽 지역 개발 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에서 제공되었음
- 폴란드는 e-health 시스템인 P1을 구현하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기자 명단, 전자 추천서, 전자 주문 및 전자 처방을 제공하고 있음⁶¹⁴⁾
 - 지금까지 전자처방전 접수 35,585,547건, 전자 추천 접수 26,175,778건이 수행되었음⁶¹⁵⁾
- '22년 5월 폴란드의 포모르스키에 주 지역의 13개의 의료 센터가 새로운 e-health 플랫폼을 구현하여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독일 Compu Group Medical(CGM)사와의 컨소시엄이 체결되었음⁶¹⁶⁾
 - 주요 목표는 지역 수준에서 의료 문서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며, 새로운 플랫폼에는 필수 응급 데이터의 가용성과 전자 건강 기록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되며, 국가 전자 건강 시스템 P1과 완전히 통합되었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전자 건강 기록 내에서 더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
- 폴란드 최대 민간 의료 제공업체 중 하나인 PZU Zdrowie는 AI 기반 의료 스타트업인 Infamedica의 AI 지원 Call Center Triage 솔루션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보다 간소화된 의료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19년에 240만 건의 환자 전화를 처리했으며 하루에 15,000건이 접수되었음⁶¹⁷⁾
- 폴란드의 원격진료는 실질적인 의료 디지털화라기보다는 의사의 진료실을 방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대체하는 시도이며, '21년에는 폴란드인의 62%가 진료소에 가는 대신 전화로 원격진료를 받았음⁶¹⁸⁾

613) European Commission, Electronic platform for digital medical records to be set up in Poland (2018.08.20.)

614) <https://ezdrowie.org.pl/ezdrowie-gov-pl-chodzi-systemie-p1/> (검색일 2022.10.28.)

615) <https://ezdrowie.gov.pl/portal/home?modSingleId=77936&isExtend=true> (검색일 2022.10.28.)

616) CompuGroup Medical, Regional e-health platform in Poland set to improve quality and accessibility of medical services (2022.05.09.)

617) MobiHealthNews, Polish healthcare provider uses Infermedica's AI-enabled call centre triage platform (2021.01.26.)

618) e-point, 4 wyzwania cyfryzacji usług medycznych w Polsce (2022.04.25.)

- 폴란드 병원 연맹(Polish Hospital Federatio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AI를 사용하는 신생 기업의 수가 '20년의 30%에서 43%로 지난 1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에 의해 원격 의료의 필요성으로 커지며 신생 기업의 52%가 이제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함⁶¹⁹⁾
- Digital Health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 의료 관련 신생 기업의 대다수는 심장학(31%) 및 심리학(23%) 전문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⁶²⁰⁾
- 원격 의료서비스와 최첨단 클리닉(대면 진료)의 조합을 통해 환자 치료의 미래를 구축하는 바르샤바에 기반을 둔 건강 스타트업 Jutro Medical은 Rheingau의 참여로 주요 투자자 Inovo Venture Partners로부터 600만 유로(594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음⁶²¹⁾
 - Jutro Medical의 고급 원격 의료 플랫폼 및 앱은 가상 상담, 처방전, 의뢰, 검사 결과 및 복잡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온라인으로 병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20년 7월 바르샤바에 첫 클리닉을 오픈한 이후 이 스타트업은 20,000건 이상의 긍정적인 환자 리뷰를 받았고, 신규 환자의 약 30%는 기존 환자의 추천을 통해 오며 '21년 1분기 말에 등록된 환자 수는 전월 대비 최대 40% 증가했음

국민 건강 프로그램 (2022/2023 NATIONAL REFORM PROGRAMME –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e-health services) ⁶²²⁾	
발표	2022년 4월 26일
기간	2021년 1분기~2026년 1분기
디지털 헬스 분야 비전 및 목표	<p><비전> 디지털 건강 서비스를 발전시켜 건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p> <p><목표> 총 10억 유로의 비용을 보조금을 사용하여, 폴란드에서의 e-health 시스템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미래 위기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탄력성을 크게 향상하는 것이 목표</p>
디지털 헬스 분야 전략 및 주요내용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비율을 늘리고, 공공 디지털 서비스 및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

619) Emerging Europe, Healthtech could be Poland's next big export success story (2021.04.14.)

620) <https://expo.gov.pl/news/polskie-firmy-technologiczne-wnosza-nowa-jakosc-do-medycyny/> (검색일 2022.10.27.)

621) EU-Startups, Polish startup Jutro Medical raises €6 million for its hybrid telemedicine & in-person health platform (2021.07.27.)

	<p>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격을 보호하고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p> <p><전략 및 Action Pl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가지 중앙 전자 서비스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 건강 분석 지원 도구 2) AI 알고리즘 기반 의사 결정 지원 도구 3) 중앙 의료 데이터 저장소 개발 ○ 의료 문서의 디지털화 및 그 교환 과정에서 추가 개발 <p>의료 시스템의 품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핵심 지원 요소는 중앙 솔루션 수준과 의료 시스템의 적응 수준에서 모두 전자 건강 기록(HER)을 구현하는 것임</p> ○ 의료 분야의 사이버 보안 강화 <p>특히 COVID-19 전략 적용 기간 동안 보고된 보안 사고 건수가 증가한 상황을 포함하여, 의료 부분의 회복력을 강화</p> <p>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출시, 보안 시스템 개발, IT 시스템 분야의 R&D 보안 프로그램, E-health Center(CeZ)의 보안 운영 센터 개발</p>
--	--

622) <https://www.gov.pl/web/rozwoj-technologie/krajowy-program-reform-20222023-przyjety-przez-rade-ministrow2>
(검색일 2022.10.04.)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nrp_2022_poland_en_0.pdf (검색일 2022.10.04.)

□ 의료관광

● 의료관광

- 폴란드는 다른 서유럽 국가에 비해 치과, 성형외과 비용이 낮기 때문에 EU 가입 이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⁶²³⁾
- 대부분 치과 진료, 의료 리조트, 의료 스파 및 장기 요양원 환자이며, 성형수술, 비만치료 등 분야에도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의료관광 강국으로서 연간 4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폴란드를 방문함⁶²⁴⁾
- 폴란드 의료관광 여행객은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폴란드에 비해 시술비용이 2배 이상 높은 국가에서 주로 유입되고 있음

● 의료관광 연구 개발 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Tourism Research and Develop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17년에 12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관광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였음⁶²⁵⁾

- 의료관광객은 클리닉이나 병원에 평균 3,700즈워티(786달러)를 지출했으며 15,000~16,000즈워티(3188~3400달러) 상당의 수술 및 치료에 지출하기도 하였음
- 여기에 여행, 폴란드 체류 및 주유소, 호텔, 레스토랑 및 상점에서 번 음식 비용을 포함하면 수십억 즈워티의 가치가 있는 산업임
- 치과 서비스는 '17년에만 75,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임플란트 이식의 경우 영국에서의 치료는 폴란드보다 2~3배 비용을 지불해야 함

● Foster Travel에 따르면 폴란드는 터키, 헝가리, 체코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료관광지 중 하나이며 외국인을 끌어들이는 것은 경쟁력 있는 가격, 훈련된 의료진, 우수한 인프라 및 혁신 등임⁶²⁶⁾

- Kliniki.pl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및 네덜란드 시민은 "건강을 위한 여행"의 목적지로 폴란드를 가장 선호함
-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관광 서비스 중 하나는 치과이며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미소가 아름다운 여행'라는 이름까지 붙었으며, 그 외 성형외과, 심장학,

6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 - 폴란드·스위스·노르웨이, 2017 (2018.04.24.)

624) Kotra, 유럽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2018.01.11.)

625) MediaHealth, <https://mediahealth.pl/turystyka-medyczna-w-polsce-2/> (2019.08.30.)

626) Medonet, Turystyka medyczna w Polsce, czyli gdzie jechać, by poprawić swoje zdrowie? (검색일 2022.10.27.)

정형외과, 안과 및 비만 수술 분야에서 관련된 제2형 당뇨병 및 동맥 고혈압을 포함한 치료도 매우 인기가 있음

- 바르샤바, 브로츠와프 및 그단스크 같은 공항과 관광 명소가 있는 도시들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Kliniki.pl의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봉쇄 기간 동안 의료관광은 80~90% 감소하였음

● 의료관광의 주요 도시에는 수도 바르샤바와 크라쿠프, 그단스크, 우즈 및 포즈난 등임

- 바르샤바는 국가에서 가장 큰 경제적, 의료적, 정치적 중심지이며 크라쿠프는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폴란드는 상당한 규모의 의료관광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도시들은 영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를 진행자와 의사를 포함한 의료관광 분야에서 사용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음⁶²⁷⁾
- 폴란드가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요인은 저렴한 숙박 비용과 여행 경비로 EU 평균 여행 비용의 3분의 1로 추산됨

●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이 요양원과 스파에서 의료 절차나 치료를 받기 위해 폴란드에 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⁶²⁸⁾

-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관광객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때문에 미용 치료, 요양원 및 스파에서 장기 치료를 받거나 치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폴란드 MEDICAL TOURISM INDEX 2020-2021 ⁶²⁹⁾			
글로벌 랭킹	대상국 환경	의료관광 산업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29/46	17/46	40/46	27/46

627) MedtourPress, Why Medical Tourism in Poland? (2020.10.31.)

628) Termedia, Turystyka medyczna może stać się jedną z polskich specjalności (2021.07.08.)

629) <https://www.medicaltourism.com/destinations/poland> (검색일 2022.10.28.)

□ 화장품

- 폴란드 화장품 시장의 가치는 '20년에 180억 즈워티(38.3억 달러) 이상에 달했으며 '17년 이후 연평균 3% 이상 성장하고 있음⁶³⁰⁾
 - Statista의 소비자 시장 전망에 따르면 폴란드의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시장 매출은 '25년 말까지 53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몇 년 동안 화장품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0년 가장 많이 수출된 화장품은 메이크업 및 스킨케어 제품으로 전체 수출 화장품의 46%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독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임
 - 화장품 시장에는 영향력 있는 현지 제조업체도 있어 가장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 순위에서 글로벌 업체인 L'Oréal, Procter & Gamble, Beiersdorf, Colgate Palmolive 등 외에도 폴란드 현지 생산자도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폴란드 화장품 시장은 '20년에 4.2% 감소했지만 '21년에 코로나19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였음⁶³¹⁾
 - 화장품 시장은 스킨케어 부문에서 빠른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화장품을 구매하는 세대변화로 인한 젊은 소비자의 비중 그리고 소셜 미디어, 국제화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활성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5년까지 연평균 4.4%의 성장하여 매출이 47억 유로(46.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 매출은 퍼스널 케어 부문(전체 화장품 매출의 49.8%)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19억 유로(18.8억 달러)에 달했음
- 폴란드는 6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화장품 생산에 관여하고 있어 유럽에서 3위를 기록함
 - '17~'20년에 화장품 생산자의 평균 순이익률은 산업 가공의 평균보다 3% 포인트 더 높았고 '20년에는 화장품 대외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10억 유로(9.9억 달러)를 초과하였음⁶³²⁾
 - 국내 화장품산업 매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에만 폴란드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거의 2/3 증가했음

630) <https://www.statista.com/topics/5997/cosmetics-market-in-poland/> (검색일 2022.10.28.)

631) PARP, Polska branża kosmetyczna zdobywa rynki zagraniczne. Firmy z powodzeniem wykorzystują możliwości, jakie oferują Fundusze Europejskie (2022.07.22.)

632) Wiadomości Kosmetyczne, Polska branża kosmetyczna dobrze zarabia i stawia na eksport [raport Pekao SA (2021.09.08.)

- 폴란드 화장품 및 세제 협회에 따르면 '19년 기준 4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화장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남부 지역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⁶³³⁾
 - 생산량의 50%가 수출되고 있으며 그 중 30%는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 세계 160개국에 판매됨
 - 해외 매출은 매년 평균 5%씩 증가하고 있으며, 비EU 국가에서는 러시아 4억 6,350만 유로, 우크라이나 1억 1,030만 유로, 터키 7720만 유로 등이 비중이 높음
- 폴란드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2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10.73%의 성장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향수·화장수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39억 9천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10.06% 성장하였음

<폴란드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306.34	350.69	416.85	415.02	426.05	501.69
3304 (기초·색조)	721.53	868.40	894.78	927.56	1,020.51	1,171.67
3305 (두발용)	269.87	322.45	383.48	389.15	404.07	455.07
3307.10 (면도용)	39.18	58.62	72.53	69.05	78.13	82.12
3307.20 (데오드란트)	90.21	94.28	116.49	111.51	111.52	118.38
3307.30 (입욕제)	16.38	28.32	28.40	22.17	16.65	21.23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85.64	89.38	118.69	121.51	155.93	177.48
합계	1,529.15	1,812.13	2,031.22	2,055.98	2,212.86	2,527.64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³⁴⁾

- 폴란드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3천 8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633) Daily Sabah, Poland: An ambitious player making a name in the cosmetics industry (2019.05.22.)

63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4.)

<폴란드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4.3	29.4	2.8	2.7	2.5	0.7
3304 (기초·색조)	6,329.9	11,188.7	18,627.0	26,614.3	30,625.4	36,675.3
3305 (두발용)	14.0	44.0	243.3	267.1	439.2	785.4
3307.10 (면도용)	—	4.9	8.9	0.9	0.1	—
3307.20 (데오드란트)	0.1	—	—	0.1	3.2	—
3307.30 (입욕제)	1.3	0.3	2.5	8.7	—	46.4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97.9	306.6	276.3	383.7	413.4	369.1
합계	6,447.5	11,573.9	19,160.8	27,277.5	31,483.9	37,876.9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³⁵⁾


635)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4.)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2011년 4월 15일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의료 활동의 원칙,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등록과 운영 원칙
	링크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11120654
1996년 12월 5일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직업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업을 실천하기 위한 규칙과 조건을 정의
	링크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19970280152
2009년 12월 2일 의료실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의료실의 업무, 운영 및 조직의 원칙 및 의료실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 의사의 지역 등록에 관한 규정
	링크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092191708
2004년 8월 27일 공적 자금으로 재정 지원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폴란드에서 혜택을 받을 권리는 이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의무 피보험자, 자발적 피보험자 및 기타 사람들에게 부여
	링크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042102135
2015년 3월 10일 보건부 장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권리 선언 템플릿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국민건강기금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
	링크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150000438
2001년 9월 6일에 제정된 약품법	주요 내용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사용 안정성과 제조, 광고, 유통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011261381
2022년 4월 7일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의료기기 관련 기관과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의무와 의료기기 성능 테스트를 위한 규정
	링크	https://isap.sejm.gov.pl/isap.nsf/DocDetails.xsp?id=WDU20220000974

참고 폴란드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폴란드공화국(Republic of Poland)• 수도 : 바르샤바(Warsaw, 171만 명)• 인구 : 3,784만 명('21년)• 면적 : 31만 2,685㎢(한반도의 1.4배)• 종교 : 가톨릭(95%), 정교회, 개신교 등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의회구성: 양원제(상원 100석, 하원 460석)•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15.8. 취임, '21.7. 연임)- 총 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17.12. 취임, '19.11. 연임)- 외무부장관: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20.8. 취임)- 보건부장관: 아담 니지엘스키(Adam Niedzielski, '20.8. 취임)			
경 제 ('20년 기준)	GDP 5,959억 달러	1인당 GDP 15,699달러	교역규모 (수출) 266,344백만 달러 (수입) 252,082백만 달러	경제성장률(GDP) -2.7%
우리나라 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11. 외교관계 수립•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폴란드대사 : 임훈민('21.12. 부임)- 주한폴란드대사 : 피오토르 오스타셰프스키(Piotr Ostaszewski, '17.09. 부임)•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5,639,354천 달러(정밀화학원료, 건전지 및 축전지, 플라스틱 제품)- 수입 : 834,172천 달러(기타금속광물, 자동차부품, 농약 및 의약품)•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폴란드 투자 : 4,410,666천 달러			

주요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10월 총선에서 자유주의 진보 성향의「시민연단」(투스크총리 소속정당)이 승리하여 07.11 농민당과 연정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연단(진보)-법과정의당(보수) 양당체제 정착 • 10.07월 조기대선으로 시민연단측 코모로프스키 대통령 당선 • 11.10월 총선에서 집권당인「시민연단」(투스크 총리 소속정당)이 재집권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11 기존 연정파트너인 농민당과 재차 연정 구성 * 동 시민연단의 승리는 1989년 체제변환 이후 폴란드 정치 역사상 최초로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 • 11년 하반기 EU 의장국 수임 • 12.06월 유로컵 주최(우크라이나와 공동) • 14.08월 투스크 총리 EU 상임의장 선출 • 15.05월 대선 실시(안제이 두다 대통령 당선) • 15.11월 총선, 법과정의당(두다 대통령 소속 정당) 집권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하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로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최초 단독정부 수립 • 17.12월 모라비에츠키 경제 부총리를 신임총리로 신내각 구성 • 19.10월 총선, 법과 정의당 승리 • 19.11월 모라비에츠키 총리 연임 및 내각 구성 • 20.07월 대선, 두다 대통령 재선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21/206	45/180	37/141	35/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9

프랑스



1 보건 의료 현황

□ 인구 통계

● 프랑스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2.3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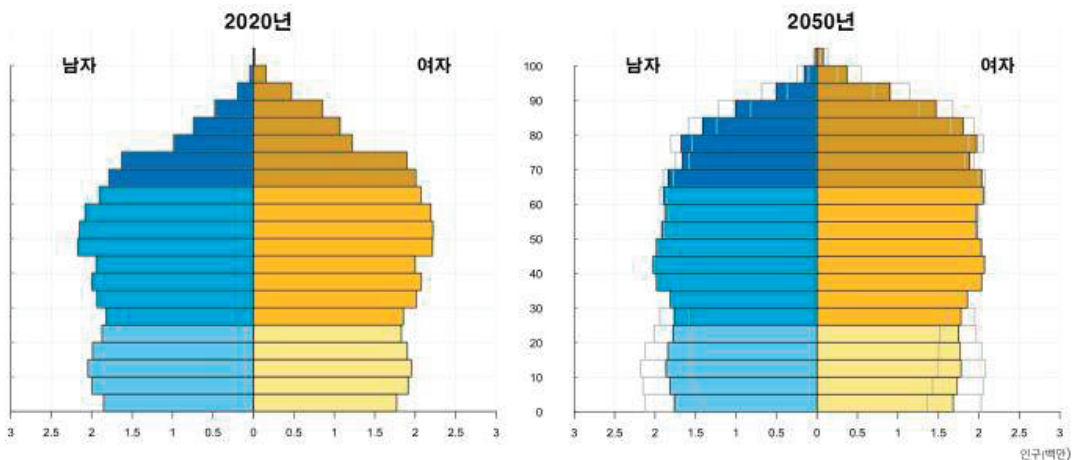
－ 프랑스의 도시화율은 80.975%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높음

<프랑스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65,274	42.3	20.8	80.975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프랑스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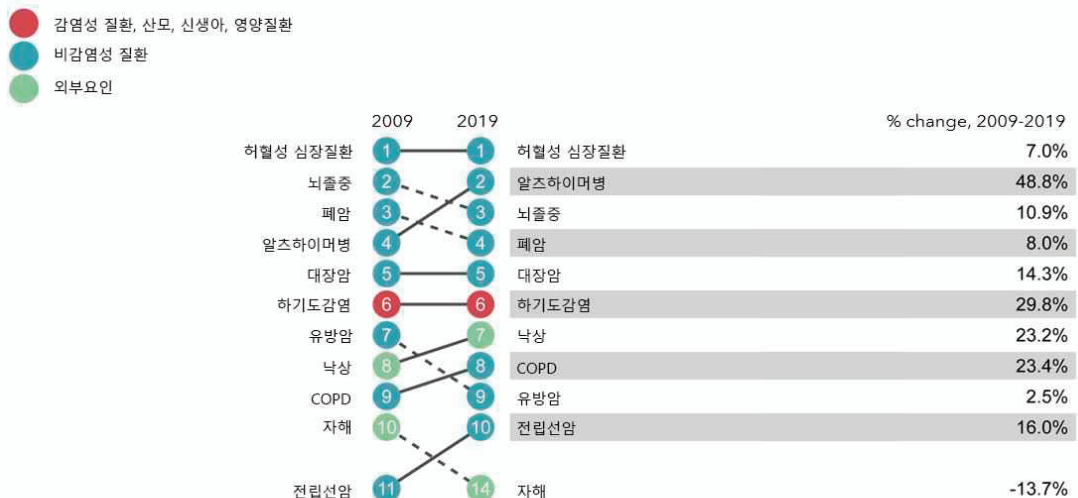
- 프랑스의 기대수명은 82.9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보다 높으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3.8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90.5%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8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44.4%임

<프랑스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프랑스
기대수명(세)	81	82.9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3.8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8.0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프랑스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순이며, '09년 대비 알츠하이머병과 하기도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대부분 비감염성 질환이며 감염성질환 및 외부요인도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프랑스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3.17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88.1%이며, 간호 인력은 11.47명으로 OECD 평균 10.4명의 1.1배에 해당함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5.84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1.32배에 해당함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15.38대로 OECD 평균인 16.9대의 91% 수준이며, CT 장비 대수는 18.17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70.2%에 해당함

<프랑스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프랑스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3.17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11.47 (2018)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5.84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15.38 (2019)
	CT 스캐너	25.9	18.17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프랑스 에센스 증권사 산업 심층 분석

□ 보건의료 이용

- 프랑스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5.9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86.8% 수준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2.4%로 OECD 평균 8.8%의 1.41배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5,274.3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1.29배에 해당함
 - 프랑스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9.3%로 OECD 평균인 19.8%의 46.8% 수준임

<프랑스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프랑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5.9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12.4 (2020)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0	9.3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5,274.3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프랑스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7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66.04%로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9.32%에서 '50년 7.17%로 2.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17.34%에서 26.7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선불 개인 지출
- 본인 부담 의료비
- 정부 의료 지출
- 보건의료 개발지원



자료: IHME

② 보건의료 체계

□ 의료전달체계

- 1차 의료는 일반 개업의(주치의, 일반의, GP(General Practitioner))가 담당하고 있고, 2차 의료는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의를 통해 의료이용경로를 거치면 의료비 상환률이 높아지는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음⁶³⁶⁾
- 프랑스의 외래진료는 주로 개원의가 제공하고, 입원은 병원에서 담당함. 특히, 보험 가입자가 선택하는 주치의가 환자 진료의 첫 단계를 담당하며, 주치의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의에게 진료 의뢰를 하는 협진 체계를 가지고 있음
- 1차 의료(primary healthcare)
 - 프랑스 국민은 만 16세 이상이 되면 일반의인 주치의(Médecin Traitant)를 선정해야 하며⁶³⁷⁾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탁의에게 해당 환자의 정보를 제공함
 - 환자는 일반의(généraliste)나 전문의(spécialiste)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음⁶³⁸⁾
 - 환자가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⁶³⁹⁾, 이럴 경우에는 환자가 지급받는 상환액이 적어짐⁶⁴⁰⁾
 - 의료이용경로(Coordinated care pathway) 위반 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한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상환율이 기본 70%에서 30%로 감소함(단, 1€ 환자부담 정액진료비는 제외)⁶⁴¹⁾⁶⁴²⁾
 - 도시 지역은 의료밀도가 높지만, 도시 주변 및 농촌지역은 의료수준이 낮음
 - 약 540만 명(인구의 8%)이 GP에 대한 접근이 잠재적으로 제한되는 지역(시골, 소도시, 대도시 외곽)에 살고 있음

636) L'assurance maladie, Le rôle du médecin traitant et le parcours de soins coordonnés (2022.03.29.)

637) L'assurance maladie, Choisir et déclarer votre médecin traitant (2022.06.28.)

638) L'assurance maladie, Choisir et déclarer votre médecin traitant (2022.06.28.)

639)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의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안과전문의,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구강전문의가 이에 해당됨.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와 떨어져 있거나 응급상황 시 주치의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도 의료이용경로(Coordinated care pathway)가 인정됨

640) L'assurance maladie, Le rôle du médecin traitant et le parcours de soins coordonnés (2022.03.29.)

641) L'assurance maladie, La participation forfaitaire de 1 € (2022.01.07.)

642) 사회건강보험기관(L'assurance maladie), Le rôle du médecin traitant et le parcours de soins coordonnés (2022.03.29.)

- 이러한 ‘의료 사막화’⁶⁴³⁾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많은 정책 조치가 이루어짐
- 지리적 불균형 해결을 위해 1차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1차 진료 팀 (Primary Care Teams, PCT)이 배치되어 GP의 유치와 유지가 가능해졌음⁶⁴⁴⁾

● 2차 또는 3차 의료

-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위탁받은 의사를 위탁의(Médecin Correspondant)라고 하며, 주로 전문의가 위탁의에 해당함
- 전문의는 프랑스의 의료전달체계 2차 의료서비스의 주된 제공 주체임
- 3차 의료는 특정 병원에서만 제공되는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로, 신경외과 의사와 같은 2차 진료 전문의사의 추천으로 접근 가능함⁶⁴⁵⁾

● 진료 의사의 유형에 따라 진료비가 다름⁶⁴⁶⁾

- 1부문 의사(secteur 1): 보험자연합과 의사단체가 체결한 전국 협약에서 설정한 진료비
- 2부문 의사(secteur 2): 전국 협약에서 정한 수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어 환자는 더 고비용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함

<외래진료 수가 및 상환액(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진료수가	협약 기준가	상환금액 (1€ 공제 후)
일반의	1부문	25	25	16.5
	1부문 - 복잡한 상담	46	46	31.2
	1부문 - 매우 복잡한 상담	60	60	41.0
	2부문	자유수가	23	15.1
전문의	1부문	25	25	16.5

643) DREES, Déserts médicaux : comment les définir? Comment les mesurer? (2017.05.11.)

644) Chevillard, G. et Mousques, J,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re Primary Care Teams Efficient at Attracting and Retaining General Practitioners?, 2021 (검색일 2022.10.12.)

Chevillard, G.외 3인, Has the diffusion of primary care teams in France improved attraction and retention of general practitioners in rural areas?, 2019 (검색일 2022.10.12.)

645) Santé.fr(공중 보건 정보 서비스 웹사이트), Base de données de santé publique (검색일 2022.10.12.)

646) service-public.fr, Remboursement d'une consultation médicale (2020.03.10.)

구분		진료수가	협약 기준가	상환금액 (1€ 공제 후)
	1부분 - 복잡한 상담	46	46	31.2
	1부분 - 매우 복잡한 상담	60	60	41.0
	2부분	자유수가	23	15.1
신경정신의	1부분	39.7	39.7	26.79
	1부분 - 복잡한 상담	60	60	41.0
	2부분	자유수가	39	26.3

자료: service-public.fr, Remboursement d'une consultation médicale, MAR 10, 2020

● 병원의 수와 역할은 다음과 같음⁶⁴⁷⁾

- 공공병원은 전국적으로 1,342개의 대학병원, 지역 종합 의료센터 및 지역의료원 등이 있으며 시설에 따라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비영리 민간병원은 전국적으로 667개가 있으며, 공공보건법상의 ‘공공서비스 참여(PSPH, private hospitals providing public services)’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병원의 진료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모두 수행함
- 영리 민간병원은 전국에 974개가 있으며, 외과치료와 단기치료 부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병상 수⁶⁴⁸⁾

- '20년 기준 전체 2,983개 의료기관의 수용인원은 완전입원(386,835병상)과 부분입원⁶⁴⁹⁾(80,089병상)으로 나뉨
- 국립병원은 전체 병상의 61%, 임시병상의 54%를 차지하고, 민간비영리병원은 전체 병상의 14%, 임시병상의 18%를 차지하며, 민간영리병원은 전체 병상의 24%, 임시병상의 28%를 차지함
- '20년 기준으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계속 감소(-1.5%)하고 있는 추세이나, Covid-19 기간 동안 중환자 병상 수는 3.6% 증가함

647) DREES, Entre fin 2019 et fin 2020, la capacité d'accueil hospitalière a progressé de 3,6 % en soins critiques et de 10,8 % en hospitalisation à domicile (2021.09.29.)

648) DREES, Entre fin 2019 et fin 2020, la capacité d'accueil hospitalière a progressé de 3,6 % en soins critiques et de 10,8 % en hospitalisation à domicile (2021.09.29.)

649) 완전입원은 병상 수로 계산하며 부분입원은 숙박을 하지 않으므로 임시병상으로 계산

<병원수 및 임시병상 포함 병상수>

구분		병원수	병상수	임시병상수
공공병원 (Secteur public)	소계	1,342	237,813	43,204
	지역병원(CHR)/대학병원(CHU)	180	69,848	11,078
	이전 지역을 포함한 병원센터 (CH, dont anciens hopitaux locaux)	931	137,951	18,062
	정신과 전문병원 (CH spécialisés en psychiatrie)	92	21,362	13,583
	기타 공공병원 (Autres établissements publics)	139	8,652	481
비영리 민간병원 (Secteur privé non lucratif)	소계	667	55,479	14,815
	암센터(CLCC)	20	2,702	708
	기타 비영리병원 (Autres établissements à but non lucratif)	647	52,777	14,107
영리 민간병원 (Secteur privé à but lucratif)	소계	974	93,543	22,070
	재활치료 시설 (Établissements de soins de SSR)	342	29,402	5,012
	급성 또는 학문시설 (Établissements de SCD ou pluridisciplinaires)	468	49,492	14,772
	정신 질환 통제시설 (Établissements de lutte contre les maladies mentales)	154	14,141	2,211
	장기요양시설 (Établissements de SLD)	7	359	0
	기타 (Autres)	3	149	75
	합계	2,983	386,835	80,089

자료: 프랑스 보건부 연구 평가 통계국⁶⁵⁰⁾

650) DREES, Entre fin 2019 et fin 2020, la capacité d'accueil hospitalière a progressé de 3,6 % en soins critiques et de 10,8 % en hospitalisation à domicile (2021.09.29.)

□ 건강보험체계

- 프랑스는 사회건강보험(SHI)⁶⁵¹⁾ 의무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환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사후에 그 부담액을 환급해주는 구조임
- 프랑스의 건강보험체계는 의무가입 원칙인 공적 건강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충적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공적 건강보험
 - 일반제도: 사회적 위험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 및 연금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⁶⁵²⁾
 - 농업제도: 농업부문 종사자와 고용주 및 피부양자가 적용 대상자이며, '21년 기준 530만 명이 가입해있음⁶⁵³⁾
- 공적 건강보험의 보험가입 대상자는 민간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일반제도) 및 농업종사자(농업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공적)건강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은 보험료(cotisation de l'assurance maladie), 사회보장분담금(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사회보장목적세(ITAF; les impôts et taxes affectés)와 기타로 구분됨
- 보험료와 사회보장분담금은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재원이고, 사회보장목적세는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임
 - (보험료) 1946년부터 1997년까지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원이었음
 - (사회보장분담금) 1991년부터 도입하였고, 근로·자산 및 투자 소득 등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⁶⁵⁴⁾ 점진적으로 사용자 부담률을 인상하면서 근로자의 보험료(cotisation)는 인하하여 '18년부터 근로자의 부담률은 0%임⁶⁵⁵⁾
 - (사회보장목적세) 1967년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처음 부과하였으며, 1983년부터 알콜소비세, 담배소비세, 의약품 관련세금 등으로 확대하여 이를 건강

651) OECD, France: Country Health Profile 2019 (2019.11.28.)

652) Vie-publique, Qu'est-ce que le régime général de la sécurité sociale ? (2021.11.24.)

653) MSA, Les chiffres utiles de la MSA (2022.06.19.)

654) Vie-publique, Qu'est ce que la CSG ? (2021.10.19.)

655) 柴田 洋二郎, フランス医療保険の財源改革にみる医療保障と公費 健保連海外医療保障, 2019 (검색일 2022.10.13.)

보험 재원으로 활용함

- (기타) 대표적으로 노인장애인연대공단(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CNSA)의 보조금이 있음
-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조달구조는 20세기말부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준조세 형태의 재원인 사회보장분담금과 사회보장목적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음⁶⁵⁶⁾
- 보편의료보장제도(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에 의해 2016년 1월 1일부터 PUMa(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 Universal Health Protection)를 통해 프랑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료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음⁶⁵⁷⁾
- 보충적 건강보험
 - 프랑스 국민의 94%가 보충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공적 건강보험은 '18년 기준 진료비의 83% 정도를 보장하고, 나머지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공적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보장받음⁶⁵⁸⁾
 - 프랑스의 보충적 건강보험은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고, 비영리 기관의 가입자 수 비중은 84%, 영리 기관은 16%로 주로 비영리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⁶⁵⁹⁾
 - 현직 근로자는 상호부험부조에 가입하고, 은퇴자나 실업자는 민간 실손보험을 이용함
 - 25€의 금액으로 일반 개업의와 상담하면, 공적 건강보험에서는 €17.5, 즉 70%를 환급하고, 나머지 €6.5는 보충적 건강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음⁶⁶⁰⁾

656) DREES, Impôts et taxes affectés, 2020 (검색일 2022.10.13.)

657) L'assurance maladie, La 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 (2022.05.05.)

658)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1권 프랑스, 2019 (검색일 2022.10.13.)

659)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1권 프랑스, 2019 (검색일 2022.10.13.)

660) L'assurance maladie, Tableaux récapitulatifs des taux de remboursement (2022.01.04.)

□ 수가제도⁶⁶¹⁾

● 병원과 외래에 대한 진료비 지불체계는 아래와 같음

● 외래진료 :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

- 의료행위 및 서비스 상환목록(의료행위공통분류표(CCAM; Classification commune des actes médicaux))의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별 방식으로 보상받음
- 개원의 1부문 의사는 전국협약에서 정해진 협약 표준요금에 따라 지불받음
- 개원의 2부문 의사는 자유롭게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으나, 1부문 의사와 같이 협약 표준요금만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불받음
- 보험자연합(UNCAM, French National Union of Health Insurance Funds)이 건강보험 목표지출(L'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ONDAM)의 의원부문 할당액을 참고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의사단체와 개별적 협상을 통해 전국 협약으로 결정·제안하면, 보건부 장관이 승인함

● 병원진료 : 포괄수가제(T2A) 방식

- 병원에 대한 예산은 지역보건청(Agence régionale de santé, ARS)에서 지역 단위로 건강보험 목표지출(ONDAM)의 지역할당액을 참고하여 지역병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제안하면, 보건부장관이 승인함
- 비영리 민간병원 포함 공공병원은 지역보건청에서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하여 병원별 예산과 포괄수가(동종질병군, GHM; Groupe Homogène des Maladies)를 결정함
- 영리 민간병원은 지역보건청이 영리 민간병원과 포괄수가(동종질병군)계약을 통해 결정하면 보건부장관이 승인함
- 프랑스의 포괄수가제인 T2A는 2004년에 도입되어 동종질병군(Groupe Homogène des Malades, GHM)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대한 재정을 지급해주고 있음 (재활치료, 정신과치료, 장기요양치료는 제외)

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제11권 프랑스, 2019 (검색일 2022.10.13.)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스트라스부르 대학병원 LESHÔPITAUX UNIVERSITAIRE ESDESTRASBO U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7년에 Strateburgum 이름으로 설립 2019년에 오토피에르에 신축빌딩 개관 대학병원연구소(IHU), 암연구소 등 보유 	
	상담료	https://www.chru-strasbourg.fr/consultation-hospitalisation/preparer-ma-consultation/payer-consultation/
	입원비	https://www.chru-strasbourg.fr/payer-son-hospitalisation/
CHU Grenoble ALP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지역에 병원과 생물학 및 병리학 연구소(IBP), 재활원, 남부 노인학 센터(CGS), 물류 및 제약 플랫폼 보유한 헬스케어 그룹 	
	가격 가이드	https://www.chu-grenoble.fr/content/tarification
CH4V 4도시의병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GHT 92에 소속된 Hauts de Seine의 공중 보건 시설이며 지원 시설 200명의 의사가 진료, 일반의학응급, 마취, 산부인과 등의 인턴 및 의대생 교육 참여 	
	입원 치료 비용	https://www.ch4v.fr/hospitalisation/le-cout-dune-hospitalisation/
Yohann DERHY 박사의 파리에스테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 호슈(Hoche) 대로에 위치한 성형외과 센터 미용 및 재건수술 및 미용의학치료를 제공 	
	요금 및 수수료	https://drderhy.com/tarifs-honoraires/
Reassure Me 보험중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비교 보험 중개 회사인 Reassure Me가 소개하는 병원 정보 하단에서 병원들을 선택하면 정보와 대표적인 치료가격을 볼 수 있음 	
	사립병원 청구 가격	https://reassurez-moi.fr/guide/mutuelle-sante/hopital-prive
AIDES SOCIALES 사회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 안내 사이트로 입원비 운영 및 환급 등에 정보와 지역별 병원 입원 비용 안내 	
	병원 입원 비용	https://www.aide-sociale.fr/prix-hospitalisation/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프랑스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3,641억 9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5,566.4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11.51% 감소해 3,222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5.92% 성장해 4,054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11.73% 감소해 '22년 4,913.6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5.67% 성장해 '26년 6,125.9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12.31%에서 '26년 11.0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85.32%에서 '26년 85.29%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14.68%에서 '26년 14.7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프랑스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329.527	364.187	322.255	343.138	358.178	379.948	405.476
연간 성장률	9.21	10.52	-11.51	6.48	4.38	6.08	6.72
1인당 의료비	5,048.4	5,566.4	4,913.6	5,219.2	5,435.0	5,752.4	6,125.9
GDP 대비 의료비 비율	12.51	12.31	11.91	11.75	11.52	11.27	11.03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84.59	85.32	85.07	85.12	85.18	85.23	85.29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15.41	14.68	14.93	14.88	14.82	14.77	14.71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프랑스에는 '19년 기준 총 3,008개의 의료시설 (공립 병원 1,354개, 민간 의원 983개, 민간 비영리 시설 671개)이 있고 총 병상은 393,000개로 '03년보다 76,000개 감소했으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 또는 다발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전문 분야에서 입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⁶⁶²⁾
 - 치료 방식은 변화하고 있어 전체 입원 횟수는 감소하고(2019년 -0.9%, 2018년 -1.0%, 2017년 -0.7%) 부분입원(숙박 없는)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 노동력의 77%가 공공 부문이 차지하며 나머지 23%는 민간부문에서 일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대부분의 응급 의료 활동을 지원하며 응급실 방문의 19%만이 민간 부문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병원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개인 진료소는 당일 수술의 63%를 집중하고 있음
- 프랑스의 건강 부문에서는 거의 1,870,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6.5%를 차지하며 1,320,000명은 병원에 350,000명은 개업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음⁶⁶³⁾
- 프랑스의 보건 시스템은 국가, 지역 보건 기관, 사회보장 및 국민건강보험기금, 보건 전문가 및 보건 시설, 환자 협회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음⁶⁶⁴⁾
 - 국민건강보험기금(CNAM, C'est la 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은 치료에 대한 접근, 의료비 보장, 의료 시스템의 예방 및 규제를 맡으며 지역 수준의 수행을 위해 약 100개의 기본 건강보험 기금(CPAM, caisses primaires d'assurance maladie)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음
 - 보건 시설은 '16년부터 의무화한 지역병원 그룹(les groupements hospitaliers de territoires, GHT)에 의해 지역 내 의료 활동의 분산과 기관 간의 협력으로 의료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하고 있음
- 프랑스 의회는 매년 사회보장 자금 조달법(Loi de financement de la

662) <https://www.sanitaire-social.com/annuaire-etablisements-de-sante/guide/panorama-des-hopitaux-et-cliniques-en-france> (검색일 2022.10.16.)

663) <http://etudiant.aujourd'hui.fr/etudiant/metiers/secteur/sante-medical.html> (검색일 2022.10.16.)

664) <https://alan.com/fr-fr/assurance-sante/guide-assurance-maladie/a/fonctionnement-systeme-sante-france> (검색일 2022.10.16.)

Sécurité sociale, LFSS)에 대해 투표하여 도시, 병원 및 의료 사회 복지를 포함하는 국가 건강보험 지출 목표(ONDAM)를 설정하며 해당 부처는 공공 보건, 의료 공급, 사회 통합, 사회 보장과 같은 구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⁶⁶⁵⁾

□ 제약산업

- 프랑스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492억 6천만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752.9 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84% 감소한 449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64% 성장해 580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9.06% 감소한 '22년 684.7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39% 성장해 '26년 877.1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67%에서 '26년 1.58%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3.5%에서 '26년 1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43.673	49.259	44.905	48.172	50.674	54.074	58.054
연간성장률	3.84	12.79	-8.84	7.28	5.19	6.71	7.36
1인당 의약품비	669.1	752.9	684.7	732.7	768.9	818.7	877.1
GDP 대비 의약품 비율	1.66	1.67	1.66	1.65	1.63	1.60	1.58

665) <https://solidarites-sante.gouv.fr/systeme-de-sante-et-medico-social/systeme-de-sante-et-medico-social/article/systeme-de-sante-medico-social-et-social> (2022.03.03.)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13.3	13.5	13.9	14.0	14.1	14.2	14.3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21년 프랑스에는 270개 이상의 회사가 있고 약 10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약품 체인에 대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세계 5위, 유럽 4위의 의약품 시장임⁶⁶⁶⁾
 - '20년 프랑스 제약회사는 20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였음
 - 프랑스 의약품에 포함된 활성 성분의 8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20년 프랑스는 전 세계 의약품 생산의 3.1%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제약 부가가치 생산은 '20년 4%, '21년 3% 증가 후 '22년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⁶⁶⁷⁾
 - 프랑스 제약 생산업체는 수출 지향적으로 의약품 브랜드의 해외 판매가 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음
 - 프랑스 국내 시장은 특히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상환 가능한 의약품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의약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
- '21년 기준으로 프랑스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451억 1천만 달러로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41억 4천만 달러로 8.4%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353억 6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78.4%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97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19.8%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21.6%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9.1% 감소한 4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9% 성장해 534억 7천만 달러

666) EURACTIV, L'industrie pharmaceutique française manque d'attractivité et peine à recruter (2022.09.30.)
667) Atradius, Pharmaceutiques, tendances en France et dans le monde (2022.03.15.)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5.7% 감소한 39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4.1% 성장해 45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9.4% 감소한 320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해 411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1% 감소한 89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2% 성장해 122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처방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일반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으며, 처방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이 특허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제약시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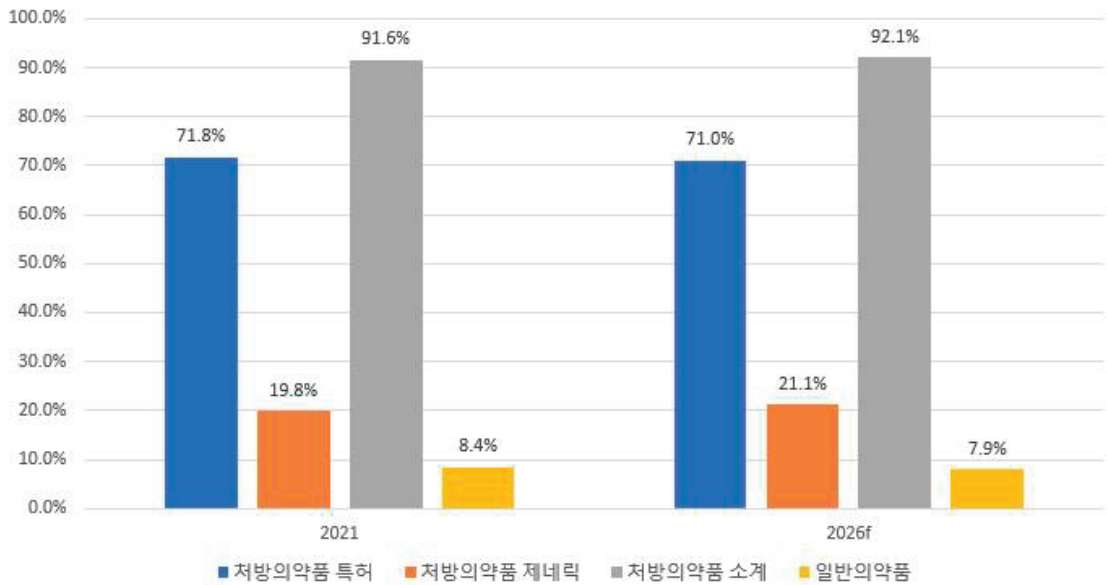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31.091	35.363	32.031	34.391	36.154	38.500	41.190
	제네릭	8.593	9.753	8.967	9.725	10.365	11.234	12.278
	소계	39.684	45.116	40.998	44.116	46.520	49.734	53.467
일반의약품		3.989	4.143	3.907	4.057	4.154	4.340	4.587
합계		43.673	49.259	44.905	48.172	50.674	54.074	58.054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91.6%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92.1%로 소폭 증가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8.4%에서 7.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71.8%에서 '26년 71.0%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19.8%에서 '26년 21.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402억 2천만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304억 4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흑자가 97억 8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5.93% 감소한 378억 3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10.34%의 성장을 보여 560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6.64% 감소한 284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76%의 성장을 보여 397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프랑스의 무역흑자는 '22년 94억 2천만 달러에서 '26년 163억 1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36,529.14	40,220.00	37,833.99	41,965.49	45,671.66	50,463.56	56,063.08
연간성장률	7.00	10.10	-5.93	10.92	8.83	10.49	11.10
의약품수입	26,586.52	30,438.65	28,417.88	31,110.82	33,410.75	36,354.05	39,757.21
연간성장률	15.79	14.49	-6.64	9.48	7.39	8.81	9.36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0% 증가하였고 '19년부터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음
- 프랑스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16년부터 '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함

<프랑스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156,978	209,633	232,429	231,063	231,270	319,557
의약품 수입	30,926	68,159	201,528	140,781	117,744	169,526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⁶⁸⁾

- 프랑스에서는 '20년 12월 화이자를 시작으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발레나 등 6개의 백신이 승인되었으며, '22년 9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화이자(코미나티) 2종과 모더나 등 3가지 백신을 추가로 승인하였음⁶⁶⁹⁾
- 프랑스는 '20년 12월 27일부터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물류는 공중 보건 프랑스(Santé Publique France)에 위탁하여 백신과 주사 장비(바늘, 주사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20,000개 이상의 약국, 예방 접종 센터 및 병원에 수령, 보관 및 배송하였음

668)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3.)

669) <https://vaccination-info-service.fr/Les-maladies-et-leurs-vaccins/Covid-19> (검색일 2022.10.17.)

- '22년 10월 16일까지 접종된 백신 총량은 194,125,410도즈이며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 128,577,490도즈, 모더나 65,547,920도즈, 아스트라제네카 10,739,400도즈, 얀센 3,416,300도즈, 기타 12,030,000도즈 등임⁶⁷⁰⁾
- 프랑스 정부는 '21년 2월 발표한 3억 유로(3억 6,300만 달러) 계획으로 백신의 추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3개의 코로나19 백신 제조 공장이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⁶⁷¹⁾
 - 21년 1월에는 사노피아 21년에 화이자/바이오테크의 백신 1억 도즈를 생산 하도록 하였으며, 3월에는 Monts 프랑스 시설에서 모더나 백신 생산을 시작 하고, 4월에는 프랑스 CDMO Delpharm이 Saint-Rémy-sur-Avre에 있는 공장에서 화이자/바이오테크 백신 수천만 도즈를 생산할 예정임
- 유럽연합은 '21년 11월에 프랑스-오스트리아 제약회사인 발네바와 코로나19 백신 잠재적 구매에 대한 계약을 승인하였으며 '22년 2,700만 도즈를 구매하고 '23년 3,300만 도즈의 추가 백신 구매에 관한 계약임⁶⁷²⁾
 - '22년 8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unity, EC)는 주문을 수정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및 불가리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를 125만 도즈로 변경하였음⁶⁷³⁾
 - '21년 2월에 1억 도즈를 주문했던 영국도 '21년 9월 발네바와의 백신 구매 계약을 파기하였음⁶⁷⁴⁾

<독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10월 23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65.43	414	414	222.83	78.73%	2.23%	81.0%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⁶⁷⁵⁾, Our World in Data⁶⁷⁶⁾

670) <https://solidarites-sante.gouv.fr/grands-dossiers/vaccin-covid-19/article/le-tableau-de-bord-de-la-vaccination> (검색일 2022.10.23.)

671) Biopharma-Reporter, France ramps up COVID-19 vaccine production (2021.02.10.)

672) France Diplomatie, Approbation du vaccin franco-autrichien de Valneva par la Commission européenne (2021.12.16.)

673) BioProcess International, Valneva and IDT Biologika end COVID vaccine CDMO contract (2022.09.23.)

674) BBC, UK scraps Covid-19 vaccine deal with French firm Valneva (2021.09.13.)

675)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23.)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프랑스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190억 5천만 달러이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291.1달러로 추정됨
- 프랑스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66% 성장한 206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5.47% 성장해 255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8.38% 성장한 315.5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5.23% 성장해 386.4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의료기기 시장 전망_Fitch Solutions>

(단위: 달러)

구분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19,045.2	20,694.8	22,809.0	23,700.1	24,565.3	25,575.5
1인당 의료기기	291.1	315.5	346.9	359.6	371.9	386.4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 프랑스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기타의료기기와 의료소모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8%, 19.7%로 가장 높음

<프랑스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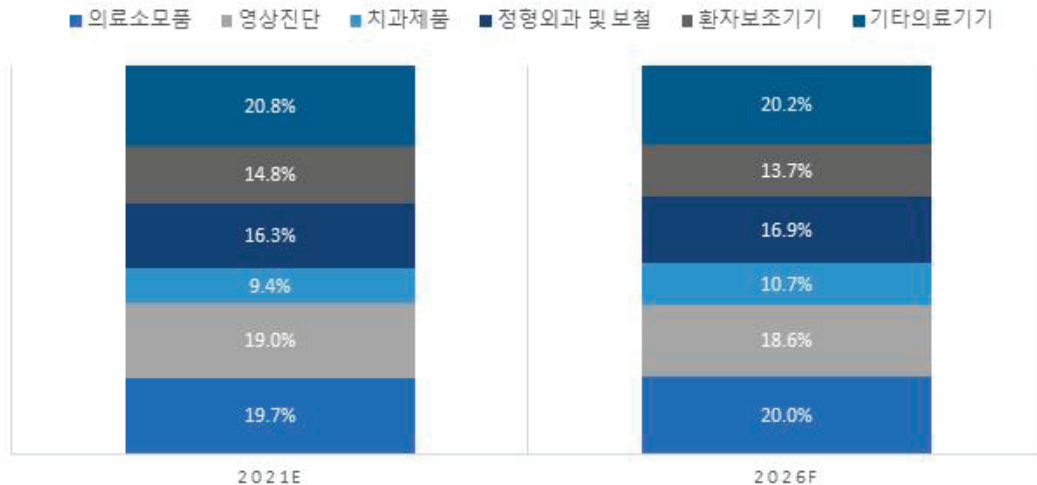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e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3,246	3,758	4,200	4,606	4,761	4,932	5,105
영상진단	3,073	3,622	3,925	4,321	4,450	4,579	4,754
치과제품	1,274	1,786	2,009	2,274	2,418	2,575	2,732
정형외과 및 보철	2,316	3,112	3,397	3,714	3,891	4,104	4,323
환자보조기기	2,353	2,811	2,876	3,122	3,253	3,361	3,494
기타의료기기	3,581	3,956	4,287	4,773	4,927	5,013	5,167
합계	15,843	19,045	20,695	22,809	23,700	24,565	25,576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676)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23.)

- '21년에서 '26년 사이 치과제품(8.92%)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보조기기의 연평균성장률은 4.47%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치과제품의 구성비율은 1.30% 증가한 10.7%인 반면, 환자보조기기는 1.10% 감소하여 1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프랑스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e: 추정치, 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프랑스의 의료기기 산업은 93%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1,500개 기업(프랑스 및 해외)이 있으며 85,000명을 고용하고 310억 유로(308억 달러) 매출을 창출하고 있음⁶⁷⁷⁾
 -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은 수출('21년 +10%)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내부 시장은 자본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여 수입국으로 남아있음
- '21년 의료기기 산업은 매출 307억 유로(수출 100억 유로), 1,440개 기업, 88,000개의 직접 일자리, 63% 기업이 R&D 활동 등의 수치를 나타냄⁶⁷⁸⁾
 - 28개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상장기업이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거의 14억 유로(13.9억 달러)가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였음
 - '19년에서 21년 사이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지하였으나 수출 증가로 매출은

677)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France 2030 : développer et produire les dispositifs médicaux de demain (2022.02.21.)

678) Biotech.info, Panorama de la filière industrielle des dispositifs médicaux - Chiffres clé 2021 (2022.02.17.)

4.3% 증가하였으며 체외 진단 부문에서 9.7%의 성장을 보여주었음

- 프랑스 정부는 '21년 여름에 시작된 Health 2030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부문에 약 4억 유로(3.9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이는 주로 산업화를 강화하고 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하며 혁신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여 의료기기 및 체외 진단 분야의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⁶⁷⁹⁾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프랑스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122억 3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3.1% 증가하였음
 - 팬데믹 영향에도 '20년에 의료기기 수입은 증가하였지만, 수출은 감소하였고 '21년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었음

<프랑스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액	9,531,751	9,698,962	9,862,021	10,642,646	10,809,915	12,225,258
수출액	7,017,246	7,178,630	7,693,094	7,942,555	7,596,410	7,558,461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⁸⁰⁾

- HS CODE 3006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프랑스의 의료기기 수입은 '20년에 전년 대비 3.9% 증가한 12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4.9% 감소한 8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함

<프랑스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기기 수입	10,892,316	11,085,784	11,350,920	11,715,750	12,175,083
의료기기 수출	7,720,741	7,895,141	8,689,779	8,852,494	8,415,102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679) L'USINENOUVELLE, Pourquoi la France injecte 400 millions d'euros dans son secteur des dispositifs médicaux (2022.03.02.)

680)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3.)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및 기타의료기기가 각각 23.16%, 20.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43.83%를 차지했음
- 환자보조기기는 세 번째로 크고, 영상진단, 정형외과 및 보철,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0년에는 영상진단이 큰 증가세를 보였음

<프랑스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소모품	2,405,436	2,510,633	2,652,351	2,745,748	2,819,284
영상진단	1,564,833	1,667,929	1,616,211	1,745,787	2,001,286
치과제품	704,473	719,035	730,004	755,772	698,570
정형외과 및 보철	1,746,437	1,705,311	1,772,121	1,890,966	1,898,358
환자보조기기	2,127,520	2,132,018	2,174,220	2,096,129	2,240,533
기타의료기기	2,343,617	2,350,858	2,406,013	2,481,348	2,517,052
합계	10,892,316	11,085,784	11,350,920	11,715,750	12,175,083

자료: Fitch Solutions - France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21년 12월 기준 코로나 검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프랑스는 10억 유로를 지출하였으며 한 달간 프랑스에서는 총 약 3천만 건의 항원 또는 PCR 검사를 진행하였고 사회보장 시스템이 2천8백만 건을 지급하였음
- 오미크론 변종 유행과 축제 기간으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한 주 동안에만 거의 700만 건의 테스트가 수행되었으며 12월 23일에 155만 건에 달했음
- '21년 10월부터 의학적 목적 외의 무료 검사가 종료되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및 처방전이 없는 성인은 PCR 검사의 경우 최소 44유로(43.7달러), 항원 검사의 경우 22유로(21.9달러), 전문가의 감독 하에 수행되는 자가 검사의

경우 12.90유로(12.8달러)를 지급해야 함⁶⁸¹⁾

- '20년 3월 이후 '22년 4월까지 거의 1억 6천만 건의 테스트가 수행되었으며
매주 2백만 건 이상의 테스트가 수행되었음

-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자체 테스트의 수요 증가로 '22년 2월 15일까지 슈퍼마켓에서
자체 항원 테스트를 판매하였으며 일부 슈퍼마켓은 1.24유로(1.23달러)로 약국의 4.50
유로(4.47달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하였음⁶⁸²⁾

<독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6월 18일 기준

총검사수	인구 1천 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 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278,234,000	4,126.75	2.99

자료: Our World in Data⁶⁸³⁾

- 프랑스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88억 9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15.83% 성장하고 있음
-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가 HS코드 382200(PCR)키트 보다 수입 규모와
성장률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프랑스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3,569.26	4,481.46	4,273.27	4,834.03	6,614.99
382200 (PCR)	1,470.26	1,511.45	1,437.71	1,344.40	1,866.13	2,272.41
합계	1,470.26	5,080.71	5,919.17	5,617.67	6,700.16	8,887.40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⁶⁸⁴⁾

681) RÉPUBLIQUE FRANÇAISE, End of systematic free testing on October 15, 2021 (2022.04.21.)

682) The Connexion, Price of Covid self-tests in pharmacies in France raises questions (2022.02.07.)

683)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16.)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16.)

68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3.)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프랑스의 디지털 헬스(eHealth 장치, eHealth 앱, 온라인 약국 및 온라인 의사 상담)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12억 2,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6.93% 성장하여 17억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⁶⁸⁵⁾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46.98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21년 6월 “2030 건강 혁신 계획”을 발표한 후 10월 18일 “디지털 건강 가속화 전략(Stratégie d'accélération Santé numérique, SASN)”을 발표했음⁶⁸⁶⁾
 - 6억 5천만 유로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디지털 건강 프로젝트를 배포하여 5P 의학(개인화, 예방, 예측, 참여 및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증거 포함)으로 나아가는 것임
 - '20년 실시된 원격상담 건수는 1,840만 건으로 '19년 14만 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24년 말까지 프랑스 디지털 건강 시장 규모는 40억 유로로 추정됨
- '22년 1월 1일 유럽연합 이사회의 의장국이 된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건강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국가 간 건강 데이터 공유, 전자 디지털 서비스 배포, 유럽 건강 데이터 영역 구축, 공통 용어 채택 등”이 포함됨⁶⁸⁷⁾
- '21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원격상담 접속 서비스 업체인 Doctolib, Livi, Qare, Teladoc, Medadom, Feeli, Tessan은 180만 건의 원격상담을 제공하였음⁶⁸⁸⁾
 - Télémedecine 360 이 중 12,000건의 표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격리가 끝난 이후 프랑스에서는 원격상담이 의료상담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원격 상담의 평균 연령은 30세(프랑스 인구 평균 연령은 48세)이며 50세 이상의 사용은 10%에 불과하였음
 - 원격상담 환자의 73%가 제3자 지불금을 가지고 있다면 4.4%는 사회 보장이 없으며 거의 8%는 보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음

685)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ehealth/france> (검색일 2022.10.17.)

686)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Stratégie « santé numérique » : un pas de plus vers la médecine de demain (2021.10.19.)

687) L'Usine Digitale, La France présente ses priorités dans la santé numérique pendant sa présidence européenne (2022.02.11.)

688) Les Echos, Télémedecine : les pratiques des Français (2022.05.23.)

- 영상을 포함하는 원격상담의 97%가 주로 전문의보다는 예약제(88%)로 일반 개업의(89%)에서 이루어지며 평균 10.5분 동안 상담하여 대면 진찰 평균인 '18분보다 짧은 시간임
- '22년 사회 보장 자금 조달에 관한 '21년 12월 23일 법률은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정액 상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환기준은 23~25유로(22.9~24.9달러)이며 환불 금액은 15.10~16.50유로(15~16.4달러)임⁶⁸⁹⁾
- 프랑스는 '17년부터 9개 지역에서 프랑스의 국가 전자 환자 의료 기록인 Dossier Médical Partage(DMP) 청사진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구현은 '18년 9월에 시작하여 11년간 진행해갈 예정임⁶⁹⁰⁾
- '16년 법률은 국민 건강보험 기금에 의료시스템의 여러 부문에 걸쳐 제공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이고 완전히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 의료 기록을 구현하도록 지시하였음
- '20년 1월 프랑스 국립 병원 구매자 네트워크(Resah)는 전국 공립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계약을 7개 공급업체와 체결하였음⁶⁹¹⁾
- 이 계약은 프랑스 전역의 850개 병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공 부문 지역 병원 그룹(Les groupements hospitaliers de territoires, GHT)의 일부이며 2,500만 유로(2,489만 유로) 규모의 계약은 4년 동안 유효함
- 계약된 공급업체는 Agfa Healthcare, Cerner, Dedalus, Intersystems, Maincare Solutions, Pharmagest, Softway Medical 등임

□ 의료관광

- 프랑스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이 뒤쳐져 있어 치료를 위한 임시 비자 발급이 6,000개로 1억 2,000만 유로(1.19억 달러) 창출에 불과함
- '14 BVA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2%(약 130만)가 해외에서 치료받았으며

689)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4696> (2022.01.05.)

690) The Commonwealth Fund,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Patient Medical Records Expected to Begin This Year (2018.06.21.)

691) EHEALTH EUROPA, France: Resah awards national EMR contract to seven vendors (2020.01.24.)

인구의 11%(720만 명)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프랑스인의 의료관광 목적지는 지리적 근접성과 유럽에 속해 있는 동유럽.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튀니지와 모로코 등으로 의료비용이 프랑스에 비해 20~50% 저렴함
- 프랑스의 많은 클리닉과 병원은 아직 의료관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영어나 러시아를 구사하는 직원이 없고 Carte Vitale(건강보험 카드) 미소지자에 대한 대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⁶⁹²⁾
 - 수요가 많은 진료 분야는 종양학, 심장 수술, 신경외과, 진단, 소아과, 외상 및 정형외과(특히 관절 치환술), 성형외과 등임
 - Medifrance는 외국인 환자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프랑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는 클리닉과의 계약, 의사 및 환자와의 전화 상담 설정, 공항 교통편 및 번역 요구 사항을 포함한 모든 행정 문제를 처리 등이 포함됨
- 프랑스는 미국, 러시아, 영국 등에서 럭셔리 의료관광 목적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5년 동안 부유한 외국인 환자의 수가 두 배로 늘었으며 성형 및 비용 수술을 위해 방문하고 있음⁶⁹³⁾
 - 동유럽 지역 의료관광객에는 심장 수술, 미용 또는 성형 수술, 레이저 눈 수술 또는 모발 이식 등이 인기 있음⁶⁹⁴⁾
- 프랑스는 의료 혁신으로 지금까지 13번의 노벨상을 받았으며, 4년마다 인증 획득을 통해 우수한 의료를 제공함
- 프랑스 의료관광의 장점은 진료에 대기가 없고 숨겨진 비용이 없는 점을 들고 있음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진료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편으로 이는 의료관광에 큰 장점임⁶⁹⁵⁾
 - 또한 대부분 의료 클리닉에서 무료로 통역사를 제공하며 유럽의료 카드 소지자는 최대 총 비용의 80%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⁶⁹⁶⁾

692) <https://www.magazine.medicaltourism.com/article/france-quality-healthcare> (검색일 2022.10.17.)

693) Franceinfo, En France, le tourisme médical de luxe a le vent en poupe (2016.03.13.)

694) <http://www.lerecruteurmedical.fr/index.php/actualites/le-tourisme-medical-en-france-33.html> (2017.02.20.)

695) <https://blog.parisattitude.com/en/rising-popularity-medical-tourism-france> (검색일 2022.10.17.)

- 프랑스 의료관광의 단점은 의료 비용이 높고 복잡한 서류 작업, 높은 생활비(숙박, 음식) 등임

프랑스 MEDICAL TOURISM INDEX 2020-2021 ⁶⁹⁷⁾			
글로벌 랭킹	대상국 환경	의료관광 산업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11/46	11/46	11/46	12/46

□ 화장품

- Statista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메이크업 제품) 시장 매출은 '22년 2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며 '26년에는 35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⁶⁹⁸⁾
- 프랑스 화장품 산업은 매출이 450억 유로(445.5억 달러)에 달하며 하루에 2개의 회사가 생겨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음⁶⁹⁹⁾
 - 수출은 '21년 162억 유로(160억 달러), '22년 1분기에만 50억 유로(49.5억 달러)로 세계 최고의 화장품 수출국이기도 함
 - 프랑스의 대표적 화장품 회사 로레알은 '21년 1분기에 6.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디지털 발전의 영향으로 로레알 소비자 부서는 제품의 3분의 2와 매출 122억 유로(120.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 프랑스 화장품 향수 산업에는 3,200개의 회사가 있으며 그중 80%가 중소기업이며 250,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개발에 6억 5천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음⁷⁰⁰⁾
-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시장 리더인 로레알은 '18년 270억 유로의 글로벌 매출과 8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⁷⁰¹⁾

696) <https://www.health-tourism.com/medical-tourism-france/> (검색일 2022.10.17.)

697) <https://www.medicaltourism.com/destinations/france> (검색일 2022.10.15.)

698) <https://www.statista.com/forecasts/1197272/france-revenue-cosmetics-market> (검색일 2022.10.17.)

699) BFM BUSINESS, L'INDUSTRIE COSMÉTIQUE FRANÇAISE EN PLEIN BOOM MALGRÉ UN CONTEXTE ÉCONOMIQUE INCERTAIN (2022.06.24.)

700) <https://www.cosmetic-valley.com/> (검색일 2022.10.17.)

701) <https://fr.statista.com/themes/2735/le-secteur-des-produits-de-beaute-et-d-hygiene-en-france/> (2021.12.13.)

– 몇 년 동안 프랑스는 화장품 분야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7년 440억 유로 상당을 수입하였고 56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였음

● '21년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기록적인 수출로 129억 유로(127.7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거둠

– 그러나 수출로 인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화장품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유럽에서 입지가 무너지고 있으며 중국, 한국, 대만 등의 경쟁자는 성장하고 있음⁷⁰²⁾

● 프랑스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3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4.87%의 상승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향수·화장수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184억 4천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8.30% 성장하였음

<프랑스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461.44	466.35	451.27	526.08	383.96	432.79
3304 (기초·색조)	1,491.94	1,748.35	1,975.07	2,028.22	1,700.02	1,899.50
3305 (두발용)	399.45	424.92	455.33	448.43	448.18	505.65
3307.10 (면도용)	29.86	31.23	36.57	30.49	29.44	30.86
3307.20 (데오드란트)	127.82	135.81	149.00	155.62	149.48	166.00
3307.30 (입욕제)	27.16	27.44	28.16	30.89	31.55	39.90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168.34	179.16	221.11	247.30	299.69	291.34
합계	2,706.01	3,013.25	3,316.52	3,467.04	3,042.32	3,366.03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⁷⁰³⁾

702) Premium Beauty News, L'industrie française des cosmétiques veut être toujours plus compétitive (2022.03.14.)

703)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3.)

- 프랑스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8천 2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프랑스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319.8	70.8	157.6	121.9	196.7	49.3
3304 (기초·색조)	39,888.0	54,776.0	77,055.6	66,527.1	57,795.3	80,445.0
3305 (두발용)	23.0	983.0	770.1	813.2	1,222.7	763.6
3307.10 (면도용)	—	0.1	0.1	0.2	—	0.1
3307.20 (데오드란트)	5.0	0.3	—	—	0.2	—
3307.30 (입욕제)	1.1	—	1.7	1.5	—	8.8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68.3	678.9	45.3	375.4	836.5	309.5
합계	40,305.1	56,509.2	78,030.5	67,839.4	60,051.4	81,576.3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⁷⁰⁴⁾

70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13.)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공중보건법	주요 내용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 시스템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2665?etatTexte=VIGUEUR&etatTexte=VIGUEUR_DIFF
사회보장법	주요 내용	사회보장을 위한 조직과 자금 조달, 운영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3189?etatTexte=VIGUEUR&etatTexte=VIGUEUR_DIFF
국가 서비스 법	주요 내용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1335?etatTexte=VIGUEUR
소비자 법	주요 내용	의료서비스 계약에 대한 관한 법률
	링크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69565?etatTexte=VIGUEUR

참고 프랑스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명 :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Française / The French Republic)• 수도 : 파리(Paris)• 인구 : 6,781만 명('22.1)• 면적 : 67만 5,417km² (속령 포함 / 한반도의 3.1배)• 종교 : 가톨릭, 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의회구성: 양원제 (하원: 577석, 상원: 353석)• 주요 인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총 리: 엘리자베스 보른(Elisabeth Borne)- 외교부장관: 카트린 콜로나(Catherine Colonna)- 보건예방부장관: 프랑수아 브라운(François Braun)			
경 제 (’20년 기준)	GDP	1인당 GDP	교역규모	경제성장률(GDP)
	26,244억 달러	40,299달러	(수출) 504,701백만 달러 (수입) 572,442백만 달러	-8.0%
우리나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관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1886.06.04. 외교관계 수립- 1949.02.15. 국교재수립• 공관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프랑스대사 : 유대중(’20.11. 부임)- 주한프랑스대사 :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19.11. 신임장 제정)•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 2,983,067천 달러(자동차, 반도체, 우주선 및 부품)- 수입 : 5,880,861천 달러(신변보호, 비누 치약 및 화장품, 농약 및 의약품)•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프랑스 투자 : 5,214,503천 달러			

주요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05월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 12.05월 올랑드 대통령 취임 • 17.04월 대선 1차 투표에서 중도 마크롱, 극우 마린 르펜 후보가 1, 2위를 차지 • 17.05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이 66.1%로 대통령 당선 • 17.06월 하원선거에서 마크롱이 16년에 창당한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승리 • 22.04월 대통령 1차와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이 재선 성공 • 22.06월 입법부 선거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좌파 신생태사회인민연합동맹 과반수 확보 실패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7/206	23/180	15/141	26/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

10

헝가리



1 보건 의료 현황

인구통계

- 헝가리의 중위연령은 '20년을 기준으로 43.3세이며,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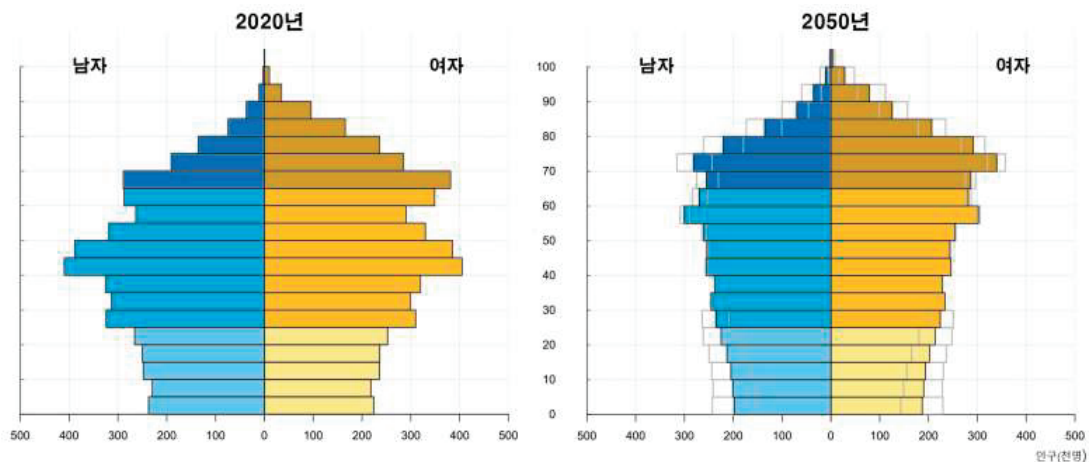
– 헝가리의 도시화율은 71.942%로 세계평균인 56.156%보다 높음

<헝가리 주요 인구통계>

인구(천 명)	중위연령(세)	65세 이상 인구비율(%)	도시화(%)
9,660	43.3	20.2	71.942

자료: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1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World Bank Open Data

- 헝가리의 '20년과 '50년 인구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음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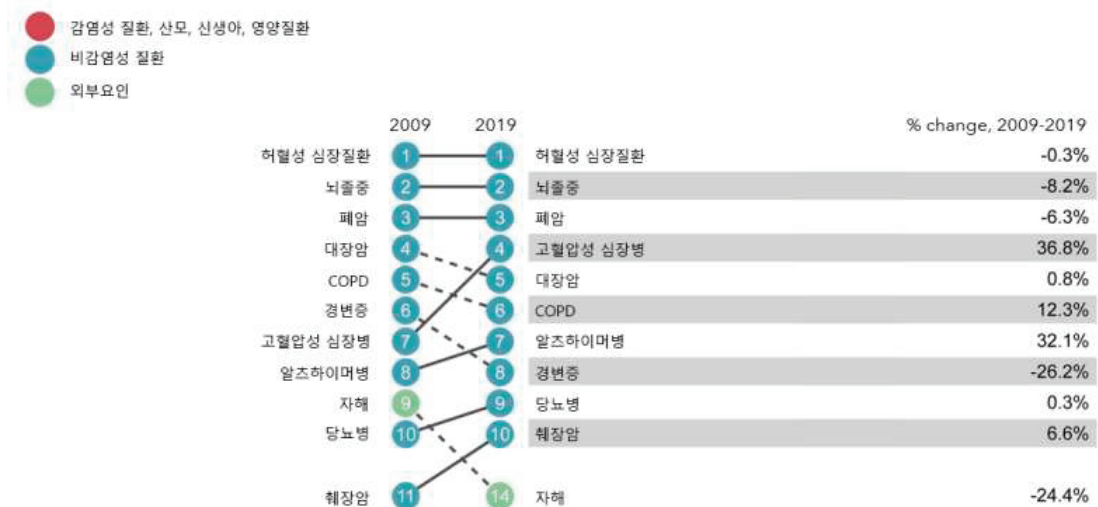
- 헝가리의 기대수명은 76.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인 81세보다 낮으며,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은 3.6명으로 OECD 평균인 4.2명의 85.7% 수준임
-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는 12명으로 OECD 평균인 18명의 66.7%에 해당함

<헝가리 주요 건강상태>

지 표	OECD 평균	헝가리
기대수명(세)	81	76.4 (2019)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명)	4.2	3.6 (2019)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명)	18	12 (2017)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헝가리의 주요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폐암 순이며, '09년 대비 고혈압성 심장병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율이 높음
- 상위 10위 내 사망원인은 모두 비감염성 질환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IHME(보건계측·평가연구소,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 보건의료 자원

- 헝가리의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 평균 3.6명의 96.9% 수준이며, 간호 인력은 5.26명으로 OECD 평균 10.4명의 50.6%에 해당함
- 보건의료 물적자원에 있어서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6.91개로 OECD 평균인 4.4개의 1.57배임
- 주요 의료장비 보유에 있어서 인구 백만 명당 MRI 장비 대수는 4.91대로 OECD 평균인 16.9대의 29.1% 수준이며, CT 장비 대수는 9.42대로 OECD 평균인 25.9대의 36.4%에 해당함

<헝가리 주요 보건의료 자원>

지 표		OECD 평균	헝가리
임상 의사 수(인구 천 명당, 명)		3.6	3.49 (2019)
간호사 및 조산사 수(인구 천 명당, 명)		10.4	5.26 (2019)
총 병원 병상 수(인구 천 명당, 개)		4.4	6.91 (2019)
주요 의료장비 보유 대수 (인구 백만 명당, 대)	MRI 장비	16.9	4.91 (2019)
	CT 스캐너	25.9	9.42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보건의료 이용

- 헝가리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0.7회로 OECD 평균인 6.8회의 1.57배임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6.4%로 OECD 평균 8.8%의 72.2% 수준이며, 구매력 기준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2,169.8달러로 OECD 평균인 4,087달러 대비 53.1%에 해당함
- 헝가리의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28.2%로 OECD 평균인 19.8%의 1.42배임

<헝가리 주요 보건의료 이용>

지 표	OECD 평균	헝가리
1인당 외래 진료 횟수(회)	6.8	10.7 (20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8.8	6.4 (2019)
경상의료비 대비 가계직접부담 비중(%)	19.80	28.2 (201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4,087	2,169.8 (2019)

자료: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World Bank Open Data

- 헝가리의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재원은 정부 의료 지출의 비중이 '18년 6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년 69.11%로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본인부담의료비(Out-Of-Pocket payment, OOP)지출의 비중은 '18년 26.80%에서 '50년 23.55%로 3.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선불 개인 지출의 비중은 4.03%에서 7.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선불 개인 지출
- 본인 부담 의료비
- 정부 의료 지출
- 보건의료 개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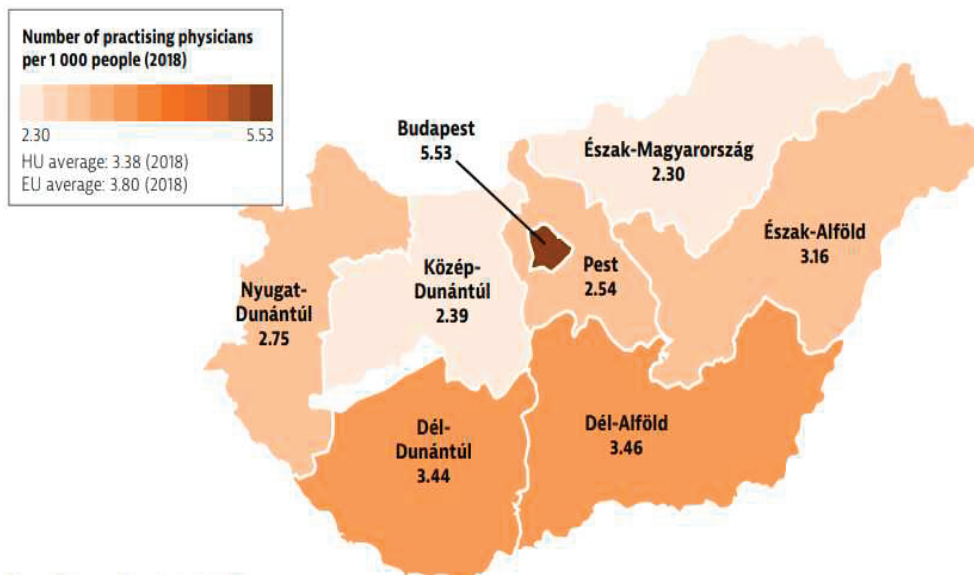
자료: IHME

② 보건의료 체계

□ 의료전달체계

- '12년 헝가리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치하던 의료시스템들이 중앙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중앙집권화를 이룸⁷⁰⁵⁾
 - 초기검진은 지방정부의 관할이고, 통원 의료서비스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공동 관할, 입원 의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관할임
- '18년도 기준 병원 수는 165개이며, 그중 148개가 공공병원임⁷⁰⁶⁾
 - '19년도 기준 1,000명당 헝가리의 의사 수는 3.9명이며, 간호사 수는 6.6명이며, 이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평균 의사 수와 간호사 수에 비해 적음⁷⁰⁷⁾
- 개인 의사는 수도인 부다페스트(Budapest)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음

<개업 의사의 밀집도>



자료: OECD, Hungary: Country Health Profile 2021⁷⁰⁸⁾

705) L Rajca, Reforms and centralization trends in Hungary and in Polan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2020 (검색일 2022.10.22.)

70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년 헝가리 의약품 시장 동향 (2020.10.15.)

707) OECD, Hungary: Country Health Profile 2021 (검색일 2022.10.22.)

708) OECD, Hungary: Country Health Profile 2021 (검색일 2022.10.22.)

● 1차 의료⁷⁰⁹⁾

- GP(General Practitioner)가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으며,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수행함⁷¹⁰⁾
- 기본적으로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별, 나이, 질병에 관계없이 환자가 주치의 선택할 수 있음
- 주치의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의사로부터 치료할 수 있음
-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1년에 1번만 변경할 수 있음
- 지방정부에서 운영함
-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기 순번제로 운영됨

● 2차 의료 및 3차 의료⁷¹¹⁾

- 주치의 혹은 다른 의사에 의한 의뢰가 있어야 2차 의료 및 3차 의료 접근할 수 있음
- 만성 질환 치료, 입원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등이 있음
- 무료 서비스가 많으나 고급병실과 같은 선택 사항에는 추가금이 부과됨

● 병상 수

- '12년도 병상 수는 68,845개이며, '20년도 67,529개임
- '18년도 1,000명당 병상의 수는 6.97개였고, '21년도 1,000명당 병상 수는 6.88개로 줄어듦
- 헝가리는 '05년에서 '15년 사이에 급성 치료 병상 수가 60,000개에서 41,500개로 크게 감소함⁷¹²⁾

<병상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	------	------	------	------

709)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Management, Háziiorvosi ellátás (201.01.21)

710) Imre Rurik 외 10인, Evaluation of primary care services in Hungary: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provision, professional competences, cooperation, financing, and infrastructu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Hungarian-arm of the QUALICOPC study, 2020 (검색일 2022.10.22.)

711) Fekvőbeteg (kórházi) ellátás, Fekvőbeteg (kórházi) ellátás, Fekvőbeteg (kórházi) ellátás (검색일 2022.10.22.)

712) Csaba Dozsa 외 2인, Structural Changes in the Hungarian Healthcare System Between 2000 and 2017, 2019 (검색일 2022.10.22.)

병상 수	68,112	67,806	67,529	66,655
1,000명당 병상 수	6.97	6.94	6.94	6.88

자료: 헝가리 통계국

● 의사 수 부족

- 높은 본인 부담 비율과 이민에 따른 의사 부족으로 의료 접근성이 균등하지 않으며, GP가 수많은 의료서비스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부담 과중으로 상급 병원 의뢰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⁷¹³⁾
- 의사들의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임⁷¹⁴⁾
- '20년에 낮은 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사 급여를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법률을 통과함⁷¹⁵⁾
- 의사, 치과 의사, 약사는 '23년까지 약 120%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됨

● “National eHealth Infrastructure(EESZT)”를 설립하여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⁷¹⁶⁾

- 주요 기능으로는 환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치료의 제공임
- 환자의 2차 및 3차 의료로 가기 위한 의뢰의 전송을 하는 매체로 활용함⁷¹⁷⁾

● 의료관광⁷¹⁸⁾

-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한 치과 관광이 유명함⁷¹⁹⁾
- 치과 외에도 성형외과, 안과, 스키를 활용한 의료관광이 유명함⁷²⁰⁾

713) 주 OECD 대표부, OECD 2019 헝가리 경제보고서 (2019.02.16.)

714) OECD, Hungary: Country Health Profile 2021 (검색일 2022.10.22.)

715) European Commission, Hungary reforms its healthcare system: a useful step forward but which raises some concerns, 2021 (검색일 2022.10.22.)

716) EESZT, THE ROLE OF THE EESZT IN HUNGARIAN HEALTHCARE (검색일 2022.10.22.)

717) EESZT, eReferral (검색일 2022.10.22.)

718) 미국 국무부, Hungary International Travel Information (검색일 2022.10.22.)

719) International Healthcare Research Journal, Dental Tourism: A Review, 2018 (검색일 2022.10.22.)

720) Mónika Jónás-Berki와 3인, A Market and Spatial Perspective of Health Tourism Destinations: The Hungarian Experience, 2014 (검색일 2022.10.22.)

□ 건강보험체계

- 헝가리는 한국과 비슷한 NHI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영 국민 건강보험(Nemzeti Egészségbiztosítási Alapkezelő, NEAK)에서 관리함⁷²¹⁾
 - NEAK에서는 건강보험 기금 관리하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⁷²²⁾
 - 헝가리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는 특정 과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egészségügyi szolgáltatási járulék összege)를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과 그 비율은 소득원에 따라 상이함
 - 중앙 집권적이며, 의무적인 보험제도임
- 피보험자는 12가지로 나눌 수 있음⁷²³⁾
 - 직원
 - 협동조합의 활동에 개인적으로 기여하는 회원
 - 구직 지원 대상자
 - 개인 사업가 및 사회적 기업가
 - 자영업자
 - 사회적 기업가
 -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교인
 - 1차 농업 생산자
 - 상시 소액납세자
 - 국책과제 평가자의 법적 관계에 있는 자
 - 대통령의 배우자
 - 선출직 공무원
 - EU 규칙에 따라 헝가리 사회 보장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

- 비용은 대체로 무료이며, 선택적 치료의 경우 추가 요금 발생⁷²⁴⁾

721) OECD, Hungary: Country Health Profile 2021 (2021.11.28.)

722) Nemzeti Egészségbiztosítási Alapkezelő, Task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 of Hungary (검색일 2022.10.22.)

723) Nemzeti Egészségbiztosítási Alapkezelő, Biztosítottak (pénzbeli és egészségügyi ellátásra) (2022.02.21.)

- 치과 치료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지원이 조정되는 급여가 있음⁷²⁵⁾
- 재원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보험료, 자영업자의 보험료, 공무원의 보험료 등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조달됨⁷²⁶⁾
 - 자영업자의 경우 1년 건강보험료는 75,000HUF(21년 기준)를 지불해야 함⁷²⁷⁾
 -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 HUF 7,500의 정액 요금을 지불해야 함
- 최근 의료보험 개혁⁷²⁸⁾
 - 연금 수급자는 보험료 면제

□ 수가제도

- 기본적인 헝가리의 수가제도는 일차 의료, 전문의 외래 진료, 입원에 따른 수가제도가 다름⁷²⁹⁾
 - 일차 의료: 인두제(Capitation), 성과보상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P4P), 총액예산제(Global Budget)
 - 성과보상지불제도에 의한 인센티브는 보수의 약 5%에 불과하여 효율성이 낮음⁷³⁰⁾
 - 총액예산을 정할 때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를 기반으로 결정함⁷³¹⁾
 - 전문의외래진료: 행위별수가제(Fee-for Service, FFS)
 - 입원: 포괄수가제(DRG)
 - 헝가리의 DRG는 환자의 수준, 활동 기반 비용 계산, 시간, 인적 자원 비용, 자재 비용 및 인프라 비용으로 결정됨⁷³²⁾
 - '93년에 도입된 포괄수가제는 90년대 이후 업데이트가 미진하고, 정부의 병원

724) European commission, Hungary - Health insurance (검색일 2022.10.22.)

725) Nemzeti Egészségbiztosítási Alapkezelő, Fogorvosi ellátás (2021.01.21.)

726) Nemzeti Egészségbiztosítási Alapkezelő, Biztosítottak (pénzbeli és egészségügyi ellátásra) (2022.02.21.)

727) University of Dunaujváros, Health Insurance for self-financed and part-time students (2022.01.07.)

728) Nemzeti Egészségbiztosítási Alapkezelő, Az új TBJ (2020.07.01.)

7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국의 지불제도 개편 동향 연구: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지불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2020 (검색일 2022.10.22.)

730) Imre Rurik 외 10인, Evaluation of primary care services in Hungary: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provision, professional competences, cooperation, financing, and infrastructu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Hungarian-arm of the QUALICOPC study, 2020 (검색일 2022.10.22.)

731) Éva Krenyácz, Use of controlling system in Hungarian health care institutions: paradox of rise and fall, 2017 (검색일 2022.10.22.)

732) 주 OECD 대표부, OECD 2019 헝가리 경제보고서 (2019.02.16.)

부채 변제 반복, 성과에 근거한 급여 체계의 미비로 예산 통제가 약화됨⁷³⁾

● 의료서비스 참고 수가

구분	내용	
Affidea 헝가리 AffideaMagyarorszá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를 기반으로 유럽에서도 시장을 선도하는 민간 의료 제공업체 • Affidea그룹은 15개국 327개 이상의 의료센터에서 연간 1,200만 건의 영상 검사를 통해 1,000만 명의 환자에게 제공 • 직원 중 9,000명의 전문가가 있고 그중 의사의 수가 3,000명이 넘음 	
	개인 가격표	https://www.affidea.hu/privat-arlista/
Medico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부터 헝가리 민간 의료 시장에서 거의 400,000명의 고객에게 약 500명의 우수한 전문의가 전국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 국제 Medicover Group의 일부인 Medicover Försäkrings AB(publ)는 2007년부터 헝가리에서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페스트의 세 곳,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에펠 및 알코타스 포인트클리닉, 비전타워의 메디 커버 병원 및 클리닉, 두 곳의 고급진단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가격표	https://medicover.hu/arlista/
Medicover korhaz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Medicover Group의 korhaz 진료소 40개의 전문분야에서 광범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수가	https://medicoverkorhaz.hu/arak/
	수술 가격표	https://medicoverkorhaz.hu/arak/muteti-arlista/
켈렌 병원 KelenKórhá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최초의 민간 기관 중 하나로 설립 • 15개의 수술실 보유,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소아외과 및 비뇨기과 수술을 수행 	
	서비스 가격	https://kelen.hu/arak/szolgaltatasaink-arai/
Vadaskert 아동 및 청소년 정신과 병원 및 전문 외래 환자 클리닉	Vadaskert 아동 정신 건강 재단이 운영하는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아동 및 청소년 정신 병원 및 전문 외래 환자 클리닉	
	가격	https://vadaskert.hu/dijszabas/

③ 시장 규모 및 산업별 동향

□ 보건의료 지출 동향

- 헝가리의 의료비 지출은 '21년 131억 2천만 달러,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361.8달러였음
- 의료비는 '22년은 '21년 대비 4.55% 감소해 125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41% 성장해 16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1년 대비 4.27% 감소해 '22년 1,303.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77% 성장해 '26년 1,691.8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21년 7.20%에서 '26년 6.8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총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21년 72.59%에서 '26년 72.34%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의료비 대비 민간지출비율은 '21년 27.41%에서 '26년 27.66%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헝가리 보건의료 지출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비(10억)	11.997	13.120	12.524	12.763	13.512	14.689	16.041
연간 성장률	11.01	9.36	-4.55	1.91	5.87	8.71	9.20
1인당 의료비	1,241.9	1,361.8	1,303.7	1,332.7	1,415.7	1,543.9	1,691.8
GDP 대비 의료비 비율	7.65	7.20	7.37	7.02	6.95	6.92	6.84
총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	72.93	72.59	74.32	73.75	73.23	72.76	72.34
총의료비 중 민간 지출 비율	27.07	27.41	25.68	26.25	26.77	27.24	27.66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의료서비스

- '20년 헝가리에는 163개의 병원이 있으며 '20~'21년 32,000명의 의사와 64,000명의 간호사가 있음⁷³⁴⁾
 - '21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접근 가능한 의료의 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고, 11%만이 자국의 의료서비스가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신뢰한다고 답변하였음
- 지속되는 병원 부채가 국가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대기 중인 수술 및 기타 불가피한 치료가 연기되고 있음⁷³⁵⁾
 - 헝가리 국영병원은 '19년에 1억 9,000만 달러, '20년에 미화 1억 4,000만 달러의 부채가 발생함
- 헝가리 의료시스템이 비판받는 문제점
 -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최소 90일의 대기시간
 - CT 또는 MRI와 같은 진단검사의 과소 사용
 -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각한 영향의 비율이 높음
 - 의료진의 특정 분야 부족 및 고령화: 일반의, 소아과 의사, 마취과 의사 및 간호사
- 부다페스트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서비스 및 의료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23개 지역에 있는 입원 및 외래 환자 진료소와 병원에 102억 포린트(3,400만 달러) 기금이 제공되고 있음
 - 기본 의료서비스 및 외래 환자 서비스를 개선하여 특정 의료에 대한 60-200일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 정부는 8천만~15억 포린트(26만 7천~5백만 달러) 사이의 자금을 받았음
- 팬데믹 이전까지 공립 병원은 편도선 절제술에서 심장 우회 수술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입원 치료를 제공했지만, 공립 병원이 코로나19로 선택 수술을 중단하면서 민간 병원에 대한 투자와 건강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는 민간 의료가 확장되거나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생겼음⁷³⁶⁾

73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57031/hospitals-in-hungary/> (검색일 2022.10.25.)

735)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hungary-medical-technologies> (검색일 2022.10.25.)

736) Reuters, Hungary's private health sector sees opportunity as COVID snarls hospital ops (2021.04.01.)

- '21년 초까지 2개의 새로운 사립병원이 개원하였고, 민간 건강보험은 '20년에 23% 성장하였음
- 헝가리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병동, 부서 및 수술실 등이 폐쇄되고 있으며 이에 불안한 환자는 대안을 찾고 있으며, 먼 지역으로 치료를 위해 떠나거나, 경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사설 치료를 선택하거나, 최근에는 유료 형태의 공공 치료를 선택하고 있음⁷³⁷⁾
- 헝가리는 의료장비의 불평등한 보급, 흡연, 음주, 비만의 만연, 불안정한 정치 체제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체계적인 의료 문제가 발생하여 빈곤에 처한 시민들의 건강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⁷³⁸⁾
- 자원의 분배가 주로 수도 부다페스트와 건강 상태가 좋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낙후 지역과 격차가 크며 부다페스트시에만 다른 EU 국가보다 87% 더 많은 의사와 64% 더 많은 병상이 있음
- '16년 유로 건강 소비자 지수(Euro Health Consumer Index)에서 헝가리 의료 시스템은 EU 35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였으며, CT 스캔 대기시간이 EU에서 가장 길고 폐 질환, 감염 및 암 사망 발생률이 평균보다 높으며, 또한 병원 직원들의 뇌물 수수 발생률은 두 번째로 높음
- 부족한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18년 11월 정부는 '22년까지 의사의 급여를 72%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년 초에는 간호 직업에 더 많은 유치를 위해 3,200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음
- '22년 의사의 팁(사례금)을 금지하고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의사는 주당 3~4일 또는 오후 2시까지만 소속 병원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등 진료소의 의료가 부실화되고 있음⁷³⁹⁾
- 외래진료소 15개, 병원 20개 진료과가 전문의와 장비 부족으로 '22년 9월 중순까지 환자를 받지 못하였음

737) Pénzcentrum, Küszöbön a magyar egészségügy összeomlása: kongatja a vészharangot az Orvosi Kamara (2022.08.04.)

738) Borgen Project, 7 FACTS ABOUT HEALTHCARE IN HUNGARY (2020.06.17.)

739) Pénzcentrum, Teljes a káosz a magyar egészségügyben: sorra zárnak be a rendelők, kódolva van a tragédia (2022.10.10.)

- 헝가리에서는 인적자원부가 건강보험 및 보건 부문을 담당하며 건강보험에는 고용 즉시 자동 가입되며 자영업자는 스스로 등록하여 가입함⁷⁴⁰⁾
- 헝가리는 세금 납부로 자금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 기금(Health Insurance Fund, HIF)을 통해 지불되며 인구의 100%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어린이, 학생, 연금 수급자, 아기의 부모, 장애인, 빈곤층 및 성직자는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건강한 헝가리 2021-2027 (Egészséges Magyarország 2021-2027) ⁷⁴¹⁾	
발표	2021년 초
기간	2021년~2027년
비전 및 목표	<p><비전> 6가지의 목표를 기반으로 정부의 의료시스템이 미래의 유사한 잠재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p> <p><목표> 포괄적인 의료 개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문별 건강 전략</p>
전략 및 주요 내용	<p><주요 내용> 새로운 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NDGH(General for Hospitals)는 2020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건강관리 시스템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전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가 의료 관리 시스템을 개발</p> <p>의료기관의 재정 구조도 기존의 지역 기반 자금 조달 프레임워크에서 실제 의료 요구에 적합한 공공 재정 구조로 변경되어 환자 요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효율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p> <p><6가지 목표> 1. 건강한 삶의 시작과 아동의 건강 보호 2. 건강한 생활양식의 증진 3. 전문적으로 기반을 둔 건강 개발 및 예방 서비스를 통한 만성 질환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임상 경로 4. 전염병,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인구 보호 5.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6. 공중 보건 시스템의 강화</p>

740)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13&langId=en&intPageId=4576> (검색일 2022.10.25.)
<https://www.internationalinsurance.com/hospitals/hungary/> (검색일 2022.10.25.)

741) eGov Hírlével, „Egészséges Magyarország 2021-2027” - Elkészült a következő hét évre szóló ágazati stratégia (2021.03.22.)
Emberi Erőforrások Minisztériumának, „Egészséges Magyarország 2021-2027” Egészségügyi Ágazati

□ 제약산업

- 헝가리의 제약시장 규모는 '21년 31억 달러, 1인당 의약품비는 321.6달러였음
 - 제약시장 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5.74% 감소한 26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54% 성장해 34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의약품비는 '21년 대비 15.52% 감소한 '22년 271.7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90% 성장해 '26년 367.7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1.70%에서 '26년 1.4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은 '21년 23.6%에서 '26년 21.7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헝가리 제약시장 전망>

(단위: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제약시장 규모 (10억)	2.775	3.098	2.610	2.692	2.881	3.164	3.487
연간성장률	2.67	11.66	-15.74	3.10	7.05	9.81	10.20
1인당 의약품비	287.2	321.6	271.7	281.0	301.8	332.5	367.7
GDP 대비 의약품 비율	1.77	1.70	1.54	1.48	1.48	1.49	1.49
총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율	23.1	23.6	20.8	21.1	21.3	21.5	21.7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20년 헝가리 제약산업은 1조 2,718억 포린트(30.8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면 19년 1조 1,730억 포린트(28.4억 달러)보다 증가하며 코로나19 기간에도 제약 생산은 타격을 받지 않았으며 제약산업은 30,000명을 고용하고 있음⁷⁴²⁾
- 헝가리에서 제조된 의약품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으며 '19년에 9,070억 포린트(22억

Stratégia (검색일 2022.10.02.)

742) Világgazdaság, Túlszárnyalta az 1200 milliárdot a hazai gyógyszeripar (2021.11.26.)

달러)의 총매출 중 86%인 7,770억 포린트(18.8억 달러)가 수출 판매에서 발생했으며 '19년 대외무역수지에서 4,000억 포린트(9.7억 달러)의 흑자를 냈음⁷⁴³⁾

- 업계의 뛰어난 경쟁력은 연구 개발에 투입된 금액으로도 알 수 있으며, '18년부터 '19년까지 헝가리 제약협회(Magyarországi Gyógyszergyártók Országos Szövetsége, MAGYOSZ)의 회원사는 연구 개발 비용을 11% 증가한 760억 포린트(2.3억 달러)로 증가시켰으며 이는 전체 제조업 R&D 비용의 29%에 해당함
- '21년 기준으로 헝가리 제약시장은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억 3천만 달러로 전체의 72%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OTC)은 8억 7천만 달러로 28%를 차지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0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45.6%를 차지함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규모는 12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제약시장의 39.3%이며, 처방의약품 시장을 기준으로 54.5%임
-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5.1% 감소한 18억 9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9% 성장해 25억 6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7.2% 감소한 7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6% 성장해 9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처방의약품 중 특허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5.9% 감소한 8억 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4% 성장해 11억 4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제네릭의약품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4.6% 감소한 10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3% 성장해 14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정리하면 처방의약품의 연평균성장률이 일반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높으며, 처방 의약품 중 특허의약품의 성장률이 제네릭의약품의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743) egis.health, Pharmaceutical industry is one of the key players of the Hungarian economy (2021.01.22.)

<헝가리 제약시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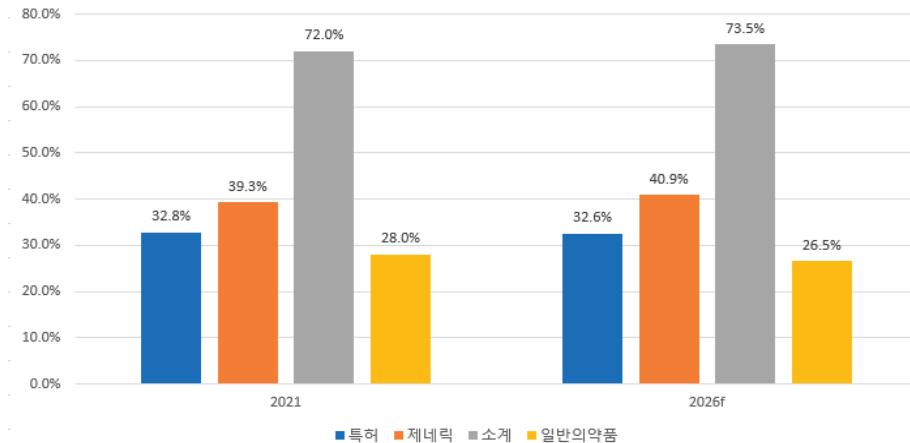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처방 의약품	특허	0.934	1.017	0.855	0.879	0.936	1.029	1.136
	제네릭	1.083	1.216	1.039	1.081	1.169	1.289	1.426
	소계	2.017	2.232	1.894	1.960	2.105	2.318	2.562
일반의약품		0.757	0.866	0.717	0.731	0.776	0.846	0.925
합계		2.775	3.098	2.610	2.692	2.881	3.164	3.487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21년 72.0%를 차지한 처방의약품 시장비율은 '26년 73.5%로 증가하며, 일반의약품의 시장비율은 '21년 28.0%에서 26.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제약시장 대비 특허의약품의 시장규모는 '21년 32.8%에서 '26년 32.6%로 감소하고 제네릭의약품은 '21년 39.3%에서 '26년 40.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헝가리 제약시장 구성비율 2021년 vs 2026년>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Fitch Solutions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 의약품 수출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58억 9천만 달러이며, 의약품 수입 규모는 53억 2천만 달러로 의약품 무역흑자가 5억 7천만 달러였음
- '22년 의약품 수출은 '21년 대비 7.37% 감소한 54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8.30%의 성장을 보여 75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의약품 수입은 '21년 대비 15.74% 감소한 44억 8천만 달러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7.54%의 성장을 보여 59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헝가리의 무역흑자는 '22년 9억 7천만 달러에서 '26년 15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헝가리 의약품 수출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약품수출	5,814.92	5,891.88	5,457.88	5,913.77	6,545.34	7,065.1	7,505.7
연간성장률	14.97	1.32	-7.37	8.35	10.68	7.94	6.24
의약품수입	5,771.57	5,321.56	4,483.76	4,622.97	4,948.88	5,434.36	5,988.51
연간성장률	27.47	-7.80	-15.74	3.10	7.05	9.81	10.20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Pharmaceuticals & Healthcare Report | Q4 2022(f: 전망치)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헝가리의 한국에서의 의약품 수입은 '21년 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3% 감소하였고 '16년부터 '18년까지 증가세를 보여주다 '19년에 하락하고 팬데믹 영향으로 '20년에는 증가하였음
- 헝가리의 한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26년부터 '21년까지 적자를 기록함

<헝가리의 한국과의 의약품 교역(HS CODE: 30류)>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약품 수출	844	4,098	7,979	10,612	8,074	22,866
의약품 수입	208,621	378,998	690,768	598,331	1,012,226	402,234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⁷⁴⁴⁾

- 헝가리는 '21년 1월 EU 최초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구매한 국가로 페테르 시자르토 외무장관은 스푸트니크 V 백신 200만 도즈를 구매하는 계약에

744)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3.)

서명했다고 밝혔음⁷⁴⁵⁾

- '21년 3월에는 헝가리 국립 공중보건센터(Nemzeti Népegészségügyi Központ, NNK)와 시노팜 사이에 500만 개 구매에 대한 정부 계약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음⁷⁴⁶⁾
 - 계약의 거래 금액이 1억 5,000만 유로를 초과했는데, 이는 헝가리 당국이 단일 용량에 대해 35.7달러를 지불했음을 의미하며,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가격(각각 약 \$15 및 \$18)의 두 배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격(약 2달러)의 18배 이상 높음
- 헝가리는 '21년 4월 기준 EU의 백신 획득에서 거의 2,400만 도즈(대부분 화이자/바이오테크 및 아스트라제네카)를 예약했음
- 헝가리는 '21년 5월 유럽연합(EU) 국가 중 유일하게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체결한 새로운 백신 협정을 탈퇴하기로 발표하였음⁷⁴⁷⁾
 - 이후 '21년 11월 EU의 세 번째 백신 구매 계약에 다시 동의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알렸으며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이 5~11세 어린이를 위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이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는 5~11세 어린이를 위한 첫 번째 주사가 헝가리에 도착하는 12월 20일부터 어린이 예방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음⁷⁴⁸⁾
 - '21년 12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는 헝가리가 950만 도즈의 바이오엔테크/화이자 백신을 주문함으로써 오미크론 변종으로부터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EU의 세 번째 백신 조달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고 밝혔음⁷⁴⁹⁾
 - 헝가리는 '21년 2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와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긴급 승인한 최초의 유럽 국가임
- 헝가리는 러시아 Sputnik-V 및 중국 Sinopharm 백신의 조기 수입으로 인해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하여 가장 빠른 EU 회원국 중 하나였지만, 이 수입된 백신에 대한 불신과 헝가리 정부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때문에 백신 접종은 뜨거운 정치적 논쟁이 되었음⁷⁵⁰⁾

745) Al Jazeera, Hungary buys Russia's Sputnik V COVID vaccine, first in EU (2021.01.22.)

746) Warsaw Institute, China's Vaccine and Mask Diplomacy in Hungary (2021.04.05.)

747) Reuters, Hungary has opted out of new EU vaccine deal with Pfizer (2021.05.20.)

748) euronews, Hungary silently rejoins the EU's joint vaccine pool (2021.11.26.)

749) POLITICO, Hungary rejoins EU's third vaccine procurement scheme as Omicron variant looms (2021.12.21.)

750) Springer Nature, The roots of COVID-19 vaccine hesitancy: evidence from Hungary (2022.05.14.)

- '21년 6월 헝가리의 국립 백신 센터는 '22년 말까지 중국 시노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을 위해 2억 달러를 들여 데브레첸 마을에 건설하고 있다고 알렸음⁷⁵¹⁾
- '22년 9월 화이자/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오미크론 BA.1 변종에 대해 개발한 109,000회분의 2가 백신이 헝가리에 도착하였음⁷⁵²⁾
- 헝가리는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인해 시작된 EU 조달에서 총 950만 도즈의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을 주문했으며, 이 중 '22년 300만 도즈, '23년에는 650만 도즈가 도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린이 백신 접종을 위한 150만 도즈가 포함됨

<헝가리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

백신 공급(IMF-WHO) 2022년 8월 31일 기준			백신 접종(OWID) 2022년 10월 25일 기준			
인구(백만 명)	공급 예측 (백만 도즈)	실제 공급 (백만 도즈)	100명당 접종횟수 (5월 10일)	접종완료	부분접종	1회이상 접종
9.62	68	68	165.85	62.26%	2.14%	64.4%

자료: IMF-WHO COVID-19 Vaccine Tracker⁷⁵³⁾, Our World in Data⁷⁵⁴⁾, 구글 코로나바이러스⁷⁵⁵⁾

□ 의료기기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헝가리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1년 11억 1천만 달러며,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1년 115.7 달러로 추정됨
- 헝가리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0.13% 성장한 12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08% 성장해 15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헝가리의 1인당 의료기기 지출규모는 '22년은 '21년 대비 10.46% 성장한 127.8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6.42% 성장해 163.9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751) Gateway to Europe, Hungary to produce China's Sinopharm COVID-19 vaccine by 2022 (2021.06.02.)

752) Portfolio, Vaccination with Pfizer's Omicron-adapted COVID-19 shot may start in Hungary (2022.09.15.)

753) <https://www.imf.org/external/NP/Res/GHP/tracker2.html> (검색일 2022.10.25.)

754)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 (검색일 2022.10.25.)

755) <https://news.google.com/covid19/map?hl=ko&mid=%2Fm%2F059j2&gl=KR&ceid=KR%3Ako&state=4> (검색일 2022.10.25.)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달러)

구분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기기 시장규모(백만)	1,114.4	1,227.3	1,300.8	1,377.7	1,470.6	1,553.9
1인당 의료기기	115.7	127.8	135.8	144.3	154.6	163.9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 헝가리 의료기기 부문은 13,00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이 부문 총 약 30,000명을 고용하고 있음⁷⁵⁶⁾
 - 의료 기술 산업은 헝가리 수출의 4.9%를 차지하는 980개 제조업체가 있는 비교적 작지만 집중된 분야이며, 수출의 85%가 EU 국가로 향함
 - 연간 현지 생산은 '19년에 10억 달러로 주로 전자 의료장비, 혈압 장비, 실험실 키트, 수술 및 치과 용품, 무호흡 경보기, 인큐베이터, 주입 펌프, 기계 의료 용품, 출산 제품 및 특수 X-레이 및 IVD 장비 등임
 -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의 70% 이상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유럽연합 시장의 수입이 지배하고 있음
- '22년 7월 재무장관은 마테셀커(Mátészalka) 시에서 80억 포린트(2천만 유로)의 자금 지원으로 건립되는 새로운 공장에서 외과용 보조기구, 주사기 및 보호 장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음⁷⁵⁷⁾
-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료소모품과 기타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1.5%, 18.9%로 가장 높음

756) <https://www.trade.gov/country-commercial-guides/hungary-medical-technologies> (검색일 2022.10.25.)

757) HungaryToday, Finance Minister: Healthcare Industry Is Capable of Providing Safe Care for the Country (2022.07.15.)

<헝가리 의료기기 세부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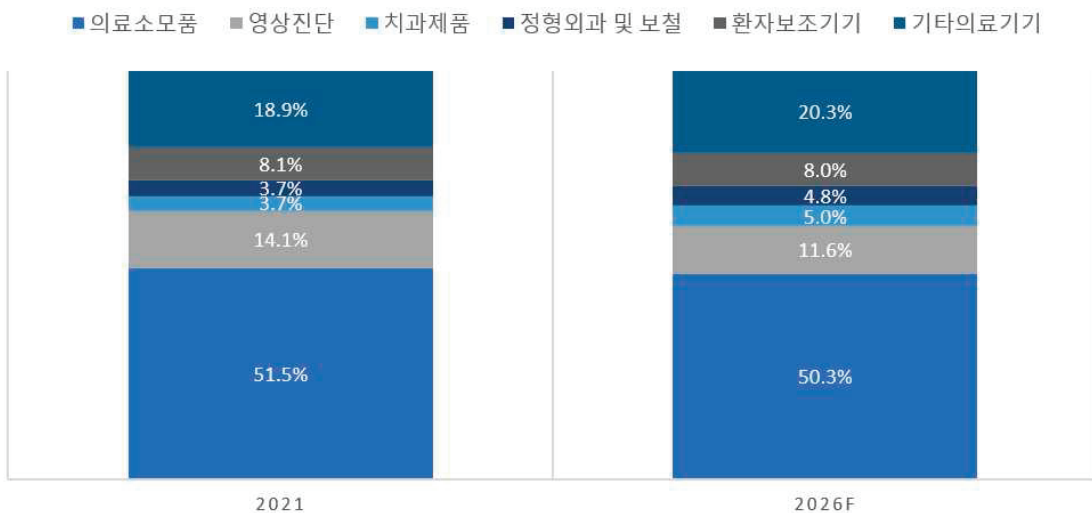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의료소모품	563.4	574.0	624.2	661.9	699.0	744.5	781.7
영상진단	193.1	157.4	145.7	145.6	152.6	164.6	179.6
치과제품	35.7	40.7	37.0	49.9	58.0	67.3	77.4
정형외과 및 보철	42.3	41.6	43.3	49.6	57.2	65.7	75.0
환자보조기기	1,356.0	90.2	93.7	101.9	110.7	118.4	124.6
기타의료기기	344.3	210.4	283.5	291.9	300.1	310.1	315.7
합계	2,534.8	1,114.4	1,227.3	1,300.8	1,377.7	1,470.6	1,553.9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 '21년에서 '26년 사이 치과제품(14.61%)의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상진단의 연평균성장률은 2.86%로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기간 연평균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26년 치과제품의 구성비율은 1.33% 증가한 5.0%인 반면, 영상진단은 2.57% 감소하여 11.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헝가리 의료기기 세부 시장 구성비율 변동>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f: 전망치) 자료 재구성

● UN Comtrade Database에 따르면 헝가리의 '21년 의료기기 수입은 7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61.7% 감소하였음

- 팬데믹 영향에도 '20년에 의료기기 수입과 수출은 증가하였고 '21년에는 수입은 감소하였고 수출은 증가하였음

<헝가리 의료기기 대외 교역 규모(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519,163	553,940	697,761	778,710	906,659	1,051,413
수입액	411,474	449,658	523,788	604,822	2,064,779	790,870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⁷⁵⁸⁾

● HS CODE 3006 등이 포함된 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른 헝가리의 의료기기 수입은 '21년에 전년 대비 57.8% 감소한 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12.6% 증가한 1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함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기기 수입	591,325	664,305	708,631	2,193,194	925,107
의료기기 수출	1,051,770	1,345,372	1,463,469	1,665,522	1,875,819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의료기기 수입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21년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및 기타의료기기가 각각 52.47%, 19.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 총액의 절반이 넘는 비중 차지했음

- 환자보조기기는 세 번째로 크고, 영상진단, 정형외과 및 보철, 치과제품이 그 뒤를 이었음
- '21년에는 환자보조기기가 큰 감소세를 보였음

758)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3.)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 수입 세부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의료소모품	309,587	328,548	337,794	411,213	485,429
영상진단	41,880	55,656	60,510	109,079	76,796
치과제품	24,891	32,525	32,643	25,315	31,477
정형외과 및 보철	30,924	42,689	39,391	36,184	40,344
환자보조기기	50,839	55,902	68,695	1,324,159	107,961
기타의료기기	133,204	148,985	169,598	287,244	183,100
합계	591,325	664,305	708,631	2,193,194	925,107

자료: Fitch Solutions - Hungary Medical Devices Report | Q4 2022

- 헝가리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은 '21년 기준 9백 6십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26.63% 성장하였으며 의료기구·검사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1년에는 수입이 전년 대비 26.8% 증가하였으며 치료기·호흡기기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헝가리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HS CODE 9018-9022)>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018 (의료기구·검사기기)	1,948.2	2,972.4	3,667.6	5,141.2	5,839.2	8,192.0
9019 (치료기기·호흡기기)	102.7	111.0	230.1	185.2	242.5	387.8
9020 (기타 호흡기기)	-	-	-	-	-	-
9021 (정형외과용)	917.8	856.0	1,230.0	1,300.4	1,490.4	1,020.4
9022 (영상진단)	-	-	-	-	-	-
합계	2,968.7	3,939.4	5,127.7	6,626.9	7,572.0	9,600.2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⁷⁵⁹⁾

- 헝가리에는 126개의 실험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제공하며 이중 공공 실험실은 49개가 있음⁷⁶⁰⁾
- '22년 2월 새로운 코로나 테스트 규칙이 발효되었으며, 간편항원검사는 의약품 유통 허가를 받은 소매체인점, 주유소, 약국 등 모든 상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였음⁷⁶¹⁾
 - 현재 758개 소매점에서 의약품 유통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가격경쟁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힘
 - 일반의사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거나 지시할 것이며 자발적 구매자에게만 테스트 비용이 지불됨
- 헝가리 실험실에서는 항원 신속 테스트는 6,900~9,900포린트(16.7~24달러), PCR 검사는 13,900~18,900포린트(33.7~45.8달러)에 코로나 검사를 제공하고 있음⁷⁶²⁾
- 헝가리의 온라인 약국에서는 750~1,890포린트(1.8~4.6달러) 가격으로 항원 신속 테스트의 구매가 가능함⁷⁶³⁾

<헝가리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2022년 5월 11일 기준

총검사수	인구 1천 명당 누적 검사수	인구 1천 명당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검사수
10,943,720	1,127.08	0.45

자료: Our World in Data⁷⁶⁴⁾

- 헝가리의 진단 키트 수입은 '21년 16억 2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17년부터 연평균 21.19% 증가하고 있음
 - HS코드 300215(항원·항체)키트가 수입 규모와 성장률에서 모두 HS코드 382200(PCR)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759)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3.)

760) <https://www.nnk.gov.hu/index.php/koronavirus/igg-laborok> (검색일 2022.10.25.)

761) Pénzcentrum, Hivatalos: új COVID-teszt szabályok léptek életbe Magyarországon (2022.02.13.)

762) <https://covidteszt.implantcenter.hu/covid-19-antigen-gyorsteszt/> (검색일 2022.10.25.)

<https://hivataloscovidteszt.hu/en/> (검색일 2022.10.25.)

763) <https://neotest.hu/termekcimke/covid-19/?orderby=price> (검색일 2022.10.25.)

764) <https://ourworldindata.org/coronavirus-testing> (검색일 2022.10.25.)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 (검색일 2022.10.25.)

<헝가리 진단 키트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00215 (항원·항체)	—	776.74	1,020.56	952.60	1,642.42	1,453.19
382200 (PCR)	77.43	86.08	101.05	125.63	201.21	163.02
합계	77.43	862.82	1,121.60	1,078.22	1,843.63	1,616.21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⁷⁶⁵⁾

□ 디지털 헬스케어

- Statista에 따르면 헝가리의 디지털 헬스(모바일 건강 앱, 웨어러블 장치 및 원격 의료) 시장의 매출은 '22년에 1억 4,1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7년까지 연평균 11.67% 성장하여 2억 4,6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⁷⁶⁶⁾
 - 사용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ser, ARPU)은 24.96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1년 헝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72.5% 응답자가 전자 처방전을 사용하여 헝가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건강 솔루션이 되었으며, 응답자의 43%가 온라인 진료 예약을 사용하였음⁷⁶⁷⁾
- 헝가리의 EESZT(Elektronikus Egészségügyi Szolgáltatási Tér)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설정한 중앙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시스템으로 '17년부터 일반 개업의 서비스, 외래 및 입원환자 치료 시설, 모든 약국이 합류하였음⁷⁶⁸⁾
 - 26,000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와 13,000명의 약국 직원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20년부터 민간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22,000개 이상의 기관이

765)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3.)

766) <https://www.statista.com/outlook/dmo/digital-health/hungary> (검색일 2022.10.26.)

767) Statista, Digital health solution usage rate in Hungary in 2021, by type (2022.07.25.)

768) EESZT Information porta, THE ROLE OF THE EESZT IN HUNGARIAN HEALTHCARE (검색일 2022.10.26.)

EESZT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음

- 6,000명 이상의 일반 개업의, 300개 이상의 외래 환자 기관, 100개 이상의 입원환자 기관, 3,000개 이상의 약국, 8,800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음
- 6억 개 이상의 영수증 정보, 매일 80만 건의 전자 처방전, 매년 7천 5백만 건의 의료문서, 약 1억 8천만 건의 진료 예약 등의 정보가 기록됨

● 헝가리 인적자원부 장관인 Miklós Kásler는 환자 데이터의 1차 진료 종사자, 전문 진료 및 병원 진료를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데 230억 HUF(7,8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⁷⁶⁹⁾

- 주요 개발 중 하나는 19개 카운티와 4개 지역 센터에서 국가 중앙학 IT 시스템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로, 여기에는 모든 환자 데이터와 중앙 요법 프로토콜이 포함될 것임
- 전국 21개 심장병 센터에서 통합된 결과를 제공하는 국가 심혈관 영상 네트워크가 구현되고 있으며, 건강 데이터의 디지털 기능을 모든 수준의 치료로 확장하고 건강 시스템을 예방으로 이끌고, 비용을 절감하며 헝가리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헝가리 정부는 '20년 4월 30일에 정부령 2호를 발표하면서 비상사태에 대한 원격 의사-환자 상담에 관한 규칙을 확대하였음⁷⁷⁰⁾

- 국민 건강보험 기금(NEAK)의 사무총장은 원격의료의 경우에도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명령했음

● '20년 9월부터 원격의료를 위한 필수 인프라를 설정하는 새로운 법률 조항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최소 기반 시설 요건을 갖춘 원격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영구적인 프레임워크와 법적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음⁷⁷¹⁾

● 전염병 기간 동안 만성 질환의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아직 효과적인 원격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환자가 자가 측정된 혈압이나 혈당 수치 데이터를 이메일로 의사에게 보내거나 모바일 앱 또는 스마트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였음⁷⁷²⁾

769) <https://pharmaboardroom.com/articles/hungarys-first-steps-into-digital-healthcare/>

770) CMS Legal, Hungary issues new temporary rules for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2020.06.19.)

771) BioTalk, Hungary: New Legal Provisions set out Mandatory Infrastructure for Telemedicine (2020.09.29.)

772) Connected Health OAE Publishing, The worldwide impact of telemedicine during COVID-19: current

- 헝가리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수치를 인터넷과 전자 일기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는 스마트 자가 측정 장치인 D-cont e-Diary 시스템을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관광

- 헝가리는 DW에 따르면 '17년에만 2백만 명 이상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대부분은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임⁷⁷³⁾
 - 역사적으로 긴밀한 독일과의 관계로 독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의사들이 많고 이로 인해 독일어권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문화적 유대로 인해 헝가리를 주요 치료 목적지로 찾고 있음
 - 주요 진료 분야는 치과로 7,000개 이상의 치과 진료소가 있는 헝가리는 유럽에서 연간 치과 시술 횟수가 가장 많으며, 오스트리아 의료관광 대행사인 Zahnklinik Ungarn는 20,000명 이상의 치과 환자를 헝가리의 작은 도시인 모손머저로바르(Mosonmagyaróvár)로 보냈음
 - 헝가리에는 1,600개 이상의 고품질 온천이 있으며 그 중 98개는 국가 보건부가 의학적으로 승인했으며, 특히 카르파티아 온천은 미네랄의 밀도가 풍부함
- 헝가리는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및 기타 서유럽 국가에서 저렴한 치과 및 미용 시술로 건강 여행자들의 주요 목적지임⁷⁷⁴⁾
 - 사립병원과 진료소는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의료장비, 시설 및 기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5년 이상 치료를 위해 헝가리를 방문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환자의 엄격한 요구 사항 때문임
 - EU 내 치과 의료관광의 약 40%가 헝가리를 방문하며 전 세계 치과 관광 시장의 21%를 차지함
- 헝가리 통계청(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nak, KSH)에 따르면 헝가리에는 250만 명의 의료 및 웰니스 여행객이 방문하며 치과 치료, 성형 수술, 레이저 안과 치료 및 산부인과가 의료관광객의 최고 선호 분야임⁷⁷⁵⁾

evidence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2022.01.04.)

773) MedtourPress, Why Medical Tourism in Hungary? (2021.07.18.)

774) <https://www.health-tourism.com/medical-tourism-hungary/> (검색일 2022.10.26.)

775) <https://drprem.com/medical-tourism/medical-tourism-in-hungary/> (검색일 2022.10.26.)

● 헝가리의 의료비는 독일과 영국보다 저렴함

- 코 성형은 독일과 영국의 비용보다 약 50~60% 저렴하며 안면 성형술은 영국보다 70~80% 저렴하며, 치과 치료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음
- 전국에 약 1,453 개의 온천, 98개의 공인 스파, 40개의 헬스 스파 호텔을 보유한 헝가리는 이 지역의 웰빙 관광 허브가 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웰빙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음

헝가리 MEDICAL TOURISM INDEX 2020-2021 ⁷⁷⁶⁾			
글로벌 랭킹	대상국 환경	의료관광 산업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23/46	19/46	29/46	24/46

□ 화장품

- Statista에 따르면 헝가리 뷰티 및 개인 관리(화장품 및 바디케어 소비재) 시장의 매출은 '22년 8억 1,820만 달러에 달하며 '26년까지 연평균 4.7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2년 1인당 매출은 85.17달러로 예상됨⁷⁷⁷⁾
 - '22년 전체 매출의 13.2%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창출될 전망임
- '19년에 화장품 및 개인 관리 제품의 연간 판매가 9억 유로(8.8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헝가리는 연간 거의 100유로(98달러)의 연간 1인당 지출을 나타내고 있음⁷⁷⁸⁾
 - 헝가리 화장품 시장은 가격 민감성이 높아 소비자는 모든 가격대의 광범위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주로 구매하고 있음
- '20년 헝가리는 뷰티 제품에서 1억 6,4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에서 32번째로 큰 미용 제품 수출국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크로아티아(2,120만 달러), 독일(1,800만 달러), 루마니아(1,470만 달러), 영국(1,330만 달러), 오스트리아(1,240만 달러) 등임⁷⁷⁹⁾

776) <https://www.medicaltourism.com/destinations/hungary> (검색일 2022.10.26.)

777) <https://www.statista.com/outlook/cmo/beauty-personal-care/hungary> (검색일 2022.10.26.)

778) TÜV SÜD,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TESTING IN HUNGARY (검색일 2022.10.26.)

779)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product/beauty-products/reporter/hun> (검색일 2022.10.26.)

- '20년 헝가리는 뷰티 제품을 2억 3200만 달러를 수입하여 세계에서 35번째로 큰 미용 제품 수입국이며 주로 독일 (6,320만 달러), 폴란드 (3,370만 달러), 체코 (2,660만 달러), 크로아티아 (1,480만 달러), 중국 (1,370만 달러)에서 뷰티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헝가리의 화장품 수입은 '21년 기준 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16년부터 연평균 4.42%의 성장세를 보여줌

- 기초·색조와 향수·화장수 화장품의 비중이 높고 수출은 '21년에 5억 1천만 달러로 '16년부터 연평균 4.09% 성장하였음

<헝가리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84.96	103.32	115.24	121.62	115.16	125.97
3304 (기초·색조)	179.89	203.19	215.33	227.73	230.15	249.55
3305 (두발용)	97.22	106.61	120.87	95.39	89.24	106.03
3307.10 (면도용)	17.97	11.90	11.17	10.03	9.63	9.42
3307.20 (데오드란트)	55.58	46.64	48.41	49.12	46.40	50.06
3307.30 (입욕제)	11.04	10.75	11.62	11.65	11.25	13.63
3401.30 (비누 피부세척용)	51.51	49.48	53.41	51.61	55.41	60.07
합계	498.17	531.89	576.07	567.15	557.25	614.72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⁷⁸⁰⁾

● 헝가리의 한국으로부터의 화장품 수입 규모는 '21년에 2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초·색조 화장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780)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3.)

<헝가리의 한국 화장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3303 (향수·화장수)	0.1	—	—	0.5	0.4	2.1
3304 (기초·색조)	310.3	423.4	555.2	982.2	1,405.6	1,884.4
3305 (두발용)	6.3	7.2	15.2	10.1	32.5	66.0
3307.10 (면도용)	—	—	—	—	—	—
3307.20 (데오드란트)	—	—	—	—	—	0.4
3307.30 (입욕제)	—	—	6.6	—	0.4	1.0
3401.30 (비누·피부세척용)	2.3	5.1	5.1	6.8	16.7	14.5
합계	319.1	435.8	582.2	999.7	1,455.6	1,968.4

자료: UN Comtrade Database⁷⁸¹⁾


781)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10.23.)

4 법제도

□ 의료법

명칭	구분	내용
1997년 CLIV. 법 건강 관리에 대해	주요 내용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 도구의 체계와 건강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과업을 정의하여 개인과 인구의 건강 상태 개선을 촉진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99700154.tv
1997년 LXXXIII 법 의무 건강보험 혜택	주요 내용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람과 혜택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99700083.TV&searchUrl=/gyorskereso?keyword%3Dorvosi
2003년 LXXXIV 법 건강 관리 활동 수행의 특정 문제에 대해	주요 내용	의사와 의료종사자의 치료 및 예방 활동에 관한 의료행위의 수행을 규정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A0300084.TV&searchUrl=/gyorskereso?keyword%3Dorvosi
1997년 XLVII 법 건강 및 관련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내용	건강 상태에 관한 특별한 개인정보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조건 및 목적을 규정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99700047.TV&searchUrl=/gyorskereso?keyword%3Dorvosi
96/2003. (VII. 15.) 정부 법령 의료서비스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 및 운영 허가 절차	주요 내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의료 제공자)에 대한 조건과 운영 허가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A0300096.KOR&searchUrl=/gyorskereso?keyword%3Dorvosi
2004년 2월 (XI. 17.) EüM 법령 의료 제공자 등록, 운영 면허, 의료 전문가 등록	주요 내용	의료서비스의 실행에 대한 일반 조건과 운영 허가 절차에 관한 법률
	링크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A0400002.EUM&searchUrl=/gyorskereso?keyword%3Deg%25C3%25A9szs%25C3%25A9g%25C3%25BCgyi

참고 헝가리 국가 개황

일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명 : 헝가리(Hungary) • 수도 : 부다페스트(Budapest, 174만 명) • 인구 : 1,977만 명 • 면적 : 9만 3,030km² (한반도의 2/5) • 종교 : 카톨릭(37.2%), 개신교(13.8%), 그리스정교(1.8%) 등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의회구성: 단원제 199석 • 주요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커틸린 노박(Katalin Novák) - 총 리: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án) - 외교통상부장관: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 내무부장관: 산도르 핀터(Pintér Sándor) 				
경 제 (‘20년 기준)	GDP	1인당 GDP	교역규모	경제성장률(GDP)	
	1,550억 달러	15,866달러	(수출) 101,467백만 달러 (수입) 102,397백만 달러	-5.0%	
우리나라 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02.01.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공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헝가리대사 : 박철민(‘20.12. 부임) - 주한헝가리대사 : 이슈트반 세르더헤이(István Szerdahelyi)(‘22.09. 부임) • 무역현황 및 주요품목(‘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 2,926,395천 달러(정밀화학원료, 기타기계류, 농약 및 의약품) - 수입 : 678,045천 달러(자동차, 건전지 및 축전지, 무선통신기기) • 투자현황(‘21년 6월말 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헝가리 투자 : 2,650,756천 달러 				
주요 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5월 아데르 대통령 취임 • 14.04월 총선 결과 청년민주동맹 승리 • 14.06월 오르반 총리 내각 출범(3기) • 17.05월 아데르 대통령 연임 • 18.04월 총선 결과 청년민주동맹 승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5월 오르반 내각 출범(4기) • 22.03월 커틸린 노박 대통령 당선 • 22.04월 총선 결과 청년민주동맹 승리 • 22.05월 오르반 내각 출범(5기) 			
주요 순위	GDP 순위	부패인식지수	글로벌경쟁력지수	인간개발지수
	55/206	69/180	47/141	40/189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정보,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2022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

유럽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일 2022. 12

발행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 국제의료본부 국제의료전략단 국제의료시장분석팀

디자인 및 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02-2279-6760)

